

연구보고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 지표 조사 자료집-

책임연구원: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기봉(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가정, 학교 및 사회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대안 마련을 위해 청소년 건강과 안전(보호) 실태에 대한 파악과 기초자료 생산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2010년도 청소년 지표 조사에서는 청소년 건강과 안전(보호) 영역에서 요구되는 핵심지표들을 중심으로 세부 지표항목들을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건강과 안전(보호)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영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조사개요

1) 표본설계 및 추출

- 이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조사모집단은 전국 12개 시도(제주도 제외)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들로서, 초등학생은 4~6학년 중·고교생은 1~3학년 학생들이임
- 목표 표본크기는 8,500명이고, 이 때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pm 1.63\%P$ 이며,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5명임을 가정하여 목표 학급 수(일차추출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 및 부차모집단별 예상되는 최종 학생 수(이차추출단위-SSU; secondary sampling unit)는 10,815명임(이 때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45\%P$)
- 표집방법 12개 지역별, 층화지역별 학생 수 비례에 따른 목표표본 수를 할당→할당 표본 수에 따른 추출 학교 수 결정→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 무작위 추출→추출된 1개 학급 전원 조사

2) 조사대상

- 청소년 건강지표에 대한 최종분석 대상 현황을 보면, 총 9,844명으로 초등학교 학생 총 2,657명, 중학교 학생은 총 3,254명, 고등학생은 3,933명 이었고 이에 따른 표본오차는 $\pm 1.52\%P$ 임
- 청소년 안전(보호) 지표에 대한 최종분석 대상 현황을 보면 총 9,727명으로 초등학교 학생은 2,643명, 중학교 학생은 3,257명, 고등학생은 3,827명 이었고, 이에 따른 표본오차는 1.53%P임

3) 조사내용

- 신체건강영역은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영양 및 식습관, 수면, 흡연, 음주, 구강보건, 개인위생, 활동제한으로 세부영역을 구분하였고, 심리건강영역은 개인내적영역, 가족영역, 지역사회영역, 학교영역으로 구분한 후 각 세부영역에 대해 지표항목을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함
- 안전영역은 사고경험, 안전행동, 안전환경으로 세부영역을 구분하였고, 보호영역은 위험행동경험, 보호행동, 보호환경으로 구분한 후 각 영역별로 지표항목을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함

3. 조사결과

1) 신체건강 영역

-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루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교급이 높아질수록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음
- 비만 및 체중조절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응답자 중 46.7%가 최근 1년간 체중감소 시도를 해 보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59.1% (남학생 34.9%)가 체중감소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영양 및 식습관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1.1%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영역 역시 교급이 높아질수록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초: 5.8%, 중: 10.5%, 고: 15.2%)

- 수면의 경우 전체 응답자중 47.8%가 최근 일주일간 평균 수면시간이 6~8시간 사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과반수이상(56.9%) 이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들의 22.5%가 수면 부족을 보고하였음
- 흡연과 음주의 경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3.6%와 28.7%로 나타났음(초등학생-흡연 2%, 음주 9.7%; 중학생-흡연 12.6%, 음주 19.7%; 고등학생-흡연 22.2%, 음주 49.0%)
- 개인위생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식사하기 전 손 씻기 실천 정도에서 매번 씻는다고 응답한 결과는 30.6%로 나타났음
- 활동제한의 경우 지난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결석한 일수에 대해 하루 이상 결석한 사람의 비율은 31.8%로 나타났음

2) 심리건강 영역

- 개인 내 부적응적 심리요인은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 순이었음
 -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조금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고, 교급이 높아질수록 부적정서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
-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학업문제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진로문제, 외모, 부모님과의 관계 순이었음
 -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고, 교급별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음
- 개인 내 적응과 관련된 심리요인을 알아본 결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낙관주의 순이었음
 - 성별에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음
- 부모의 지원은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지역사회 영역에 대한 성별 분석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점

수를 보였으며, 교급별에서는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지각은 중학생이, 그리고 지역사회 지원에 직접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상호작용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음

- 학교영역과 관련해서는 ‘친구관계’, ‘학교생활’, ‘학교수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친구관계, 학교생활, 학교수업, 교사와의 관계의 순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생보다 중학생은 고등학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음

3) 안전영역

- 청소년 안전 분야의 지표조사 결과 ‘부딪힘/넘어짐/배임사고’가 가장 많았고, ‘먹거리사고’와 ‘교통사고’를 많이 경험하였음
 - 청소년들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학교내외와 집 안팎에서 발생하였음
- 청소년들의 안전행동 습관은 ‘화재안전행동’, ‘교통안전행동’ 중 자전거 타기와 관련된 행동, 그리고 ‘운동/놀이안전행동’ 습관이 좋지 않았음
 - 성별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교급에서는 교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구성에서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좋지 않았음
- 가정에 비해 학교의 위험요소가 많이 존재하였고, 가정에서는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위험요소가 많았음
 - 학교 및 교사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었고, 학교에서 안전교육 내용은 타당한 편이었음

4) 보호영역

- 청소년 보호 분야의 지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경험률은 낮았지만, 유해매체, 폭력피해 및 가해, 음주 경험률은 대체적으로 10% 이상으로 높았음
 - 위험행동 경험은 대체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보다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았고,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이 많았음
 - 부모와 교사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10명 중 1~2명이었고, 성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2%로 피해유형은 주로 성희롱과 성추행이었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 도움 줄 수 있는 기관 및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44.3%)이 절반에 가까웠음

- 청소년 중 2%가 가출한 경험이 있고, 유해업소를 출입한 청소년은 대략 10% 정도이었음

● 청소년들의 보호행동 습관은 폭력(성폭력), 가출,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모든 영역에서 보통(3.0점)보다 높은 편이었고, 남자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보호행동을 위한 관심이나 노력이 많았음

- 연령이 낮을수록 보호행동을 위한 관심이나 노력이 많았으며,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이 보호행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였음

● 유해매체 보호환경,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환경, 위험행동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학교와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였음

- 또한 집주변 유해업소가 많아 집주변이 위험하다고 청소년들이 느끼며, 지역사회 어른이나 유해업소 업주 및 유해약물 판매 시 판매인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식에 문제가 많았음

목 차2

I. 조사개요	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3
1) 조사모집단	3
2) 표본크기 및 표본배분	3
3) 표본추출	6
3. 조사대상	12
II. 청소년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의 지표체계	15
1. 청소년 건강(신체/심리)지표 체계	17
2. 청소년 안전(보호)지표 체계	19
III. 조사결과	23
1. 청소년 건강(신체/심리)지표 조사 결과	25
1) 신체건강	25
1-1 신체활동	25
1-2 비만 및 체중조절	30
1-3 영양 및 식습관	35
1-4 수면	48
1-5 흡연	52
1-6 음주	60
1-7 구강보건	68
1-8 개인위생	72
1-9 활동제한	80

2) 심리건강	83
2-1 개인영역	83
2-2 가족영역	127
2-3 지역사회 영역	149
2-4 학교영역	157
2. 청소년 안전(보호) 지표 조사결과	171
1) 안전지표	171
1-1 사고경험	171
1-2 안전행동	191
1-3 안전환경	217
2) 보호지표	236
2-1 위험행동경험	236
2-2 보호행동	297
2-3 보호환경	314
부록	341
[부 록 1: 최종 설문지]	343
[부 록 2: 청소년 안전(보호)지표 최종 설문지]	354

표 목차

<표 I-1> 목표 표본 수	4
<표 I-2>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 비율에 의한 표본 배분	4
<표 I-3>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교(학급)수	5
<표 I-4>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생수	5
<표 I-5> 청소년 건강지표 최종 분석 대상자 현황	12
<표 I-6> 청소년 안전(보호)지표 최종 분석 대상자 현황	13
<표 II-1> 한국 청소년 건강영역에 대한 지표체계	17
<표 II-2>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영역에 대한 지표 체계	19
<표 III-1>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	25
<표 III-2>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걷기 시간	26
<표 III-3> 최근 일주일간 체육시간활용 신체활동 시간	27
<표 III-4> 평균 키와 평균 몸무게	29
<표 III-5> 학년별, 성별 평균 키와 평균 몸무게	29
<표 III-6> 최근 1년간 체중감소 시도 여부	30
<표 III-7> 최근 1년간 시도했던 체중 감소 방법	32
<표 III-8> 자신의 체형(몸매)에 대한 주관적 인식	33
<표 III-9> 자신의 체형(몸매)에 대한 만족도	34
<표 III-10> 최근 일주일간 아침식사 일 수	35
<표 III-11> 최근 일주일간 과일 섭취 빈도	36
<표 III-12> 최근 일주일간 탄산음료 섭취 빈도	37
<표 III-13> 최근 일주일간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38
<표 III-14> 최근 일주일간 라면 / 컵라면 섭취 빈도	39
<표 III-15> 최근 일주일간 과자 섭취 빈도	40
<표 III-16> 최근 일주일간 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 섭취 빈도	41
<표 III-17> 최근 일주일간 채소 섭취 빈도	42

<표 III-18> 최근 일주일간 우유 섭취 빈도	43
<표 III-19> 최근 일주일간 고기나 생선 섭취 빈도	44
<표 III-20> 최근 일주일간 가공식품 섭취 빈도	45
<표 III-21> 최근 일주일간 커피 섭취 빈도	46
<표 III-22>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영양교육 경험 여부	47
<표 III-23>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48
<표 III-24> 자신의 수면시간 대비 피로회복 도움 정도	49
<표 III-25> 최근 일주일간 평균 취침 시간	50
<표 III-26> 최근 일주일간 평균 기상시간	51
<표 III-27> 흡연경험 여부	52
<표 III-28> 흡연시작 연령	53
<표 III-29> 최근 한 달간 흡연 일수	54
<표 III-30>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흡연량	55
<표 III-31> 부모의 흡연여부	56
<표 III-32> 친한 친구의 흡연 여부	57
<표 III-33> 흡연에 대한 의식	58
<표 III-34>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연교육 경험 여부	59
<표 III-35> 음주 경험 여부	60
<표 III-36> 음주 시작 연령	61
<표 III-37> 최근 한 달간 음주 일 수	62
<표 III-38> 최근 한 달간 1회 평균 음주량	63
<표 III-39> 부모의 음주여부	64
<표 III-40> 친한 친구의 음주여부	65
<표 III-41> 음주에 대한 의식	66
<표 III-42>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주교육 경험 여부	67
<표 III-43> 최근 1년간 구강질환 증상 경험(복수 응답)	68
<표 III-44> 최근 1년간 치과 방문 횟수	69
<표 III-45> 최근 일주일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일수	70

<표 III-46>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구강건강 교육 경험 여부	71
<표 III-47> 최근 일주일간 식사하기 전 손 씻기 실천 정도	72
<표 III-48> 최근 일주일간 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기 실천 여부	73
<표 III-49> 최근 일주일간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손 씻기 실천 여부 ..	74
<표 III-50> 최근 일주일간 비누 사용 손 씻기 정도	75
<표 III-51> 최근 일주일간 머리감기 빈도	76
<표 III-52> 최근 일주일간 속옷 갈아입기 빈도	77
<표 III-53> 손·발톱 청결 정도	78
<표 III-54>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 경험 여부	79
<표 III-55>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 일수	80
<표 III-56>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활동제한)이유	82
<표 III-57>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83
<표 III-58>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84
<표 III-59> 외롭다	85
<표 III-60> 기분이 울적하다	86
<표 III-61> 허무한 느낌이 든다	87
<표 III-62>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88
<표 III-63>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89
<표 III-64> 긴장이 된다	90
<표 III-65> 심장(가슴)이 마구 뛰다	91
<표 III-66> 자신도 걸잡을 수 없이 화가 치민다	92
<표 III-67>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93
<표 III-68>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94
<표 III-69>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95
<표 III-70> 개인 내(內) 스트레스 요인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96
<표 III-71> 개인 내(內) 스트레스 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97

<표 III-72> 부모님과의 관계	99
<표 III-73>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
<표 III-74>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101
<표 III-75> 신체건강	102
<표 III-76> 심리건강	103
<표 III-77>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104
<표 III-78>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105
<표 III-79> 이성과의 관계	106
<표 III-80> 선·후배 관계	107
<표 III-81> 선생님과의 관계	108
<표 III-82>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109
<표 III-83>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110
<표 III-84>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지표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111
<표 III-85>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112
<표 III-86>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113
<표 III-87>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14
<표 III-88>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115
<표 III-89>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16
<표 III-90>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17
<표 III-9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118
<표 III-9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119
<표 III-9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20
<표 III-94>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121
<표 III-95>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122
<표 III-96>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123
<표 III-97>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124
<표 III-98>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25

<표 III-99>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126
<표 III-100>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및 표준편차	127
<표 III-101>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차이 분석	128
<표 III-102>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129
<표 III-103>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130
<표 III-104>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131
<표 III-105> 고민을 들어 주신다	132
<표 III-106>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133
<표 III-107>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134
<표 III-108>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135
<표 III-109>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136
<표 III-110>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137
<표 III-111>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138
<표 III-112> 용돈을 주신다	139
<표 III-113>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140
<표 III-114>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141
<표 III-115>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142
<표 III-116> 가족관계 질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및 표준편차 ·	143
<표 III-117>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144
<표 III-118>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145
<표 III-119>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146
<표 III-120>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147
<표 III-121>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148
<표 III-122>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및 표준편차 ·	149
<표 III-123>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150
<표 III-124>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151
<표 III-125>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52

<표 III-126>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이나 시설이 있다	153
<표 III-127>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154
<표 III-128>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한다	155
<표 III-129>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156
<표 III-130> 학교영역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및 표준편차	157
<표 III-131>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158
<표 III-13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59
<표 III-133>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160
<표 III-134>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161
<표 III-135>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162
<표 III-136>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163
<표 III-137>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164
<표 III-138>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165
<표 III-139>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166
<표 III-140>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167
<표 III-141>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168
<표 III-142>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169
<표 III-143>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170
<표 III-144> 최근 1년 동안 사고유형별 사고경험 여부(중복응답)	172
<표 III-145> 최근 1년 동안 교통사고 경험여부	173
<표 III-146> 최근 1년 동안 화재사고 경험여부	173
<표 III-147> 최근 1년 동안 익수사고 경험여부	174
<표 III-148> 최근 1년 동안 추락사고 경험여부	174
<표 III-149> 최근 1년 동안 부딪힘/넘어짐/베임사고 경험여부	175
<표 III-150> 최근 1년 동안 먹거리사고 경험여부	175
<표 III-151> 최근 1년 동안 유독물질 중독사고 경험여부	176
<표 III-152> 최근 1년 동안 재해사고 경험여부	176

<표 III-153> 최근 1년 동안 기타사고 경험여부	177
<표 III-154> 최근 1년 동안 사고유형별 경험한 사고의 치료여부	178
<표 III-155>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교통사고의 치료여부	179
<표 III-156>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화재사고의 치료여부	180
<표 III-157>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익수사고의 치료여부	180
<표 III-158>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추락사고의 치료여부	180
<표 III-159>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부딪힘/넘어짐/배임사고의 치료여부	181
<표 III-160>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먹거리사고의 치료여부	181
<표 III-161>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유독물질 중독사고의 치료여부	182
<표 III-162>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재해사고의 치료여부	182
<표 III-163>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기타사고의 치료여부	183
<표 III-164>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사고 발생장소	185
<표 III-165>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사고로 다친 부위(중복응답)	187
<표 III-166> 안전행동 지표 영역별 기술 통계치	188
<표 III-167> 안전행동 지표항목별 기술통계치	190
<표 III-168> 비상문 위치 확인 정도	191
<표 III-169> 소화기 위치 확인 정도	192
<표 III-170> 전기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질 때 물 묻는 손 확인 정도 ..	193
<표 III-171> 가스 사용 후 (중간)밸브 사용 정도	194
<표 III-172> 가스/전열기구 사용 중 자리를 비우지 않는 정도	195
<표 III-173> 유독물질 눈/피부 접촉시 물로 씻어내는 정도	196
<표 III-174> 날카로운 기구나 공구 제자리 정리 정도	197
<표 III-175> 약품 사용 시 제품 확인 정도	198
<표 III-176> 높은 가구 위 물건정리 및 전구교체시 안전한 의자 이용 정도 ..	199
<표 III-177> 자전거 타기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	200
<표 III-178> 자전거 탈 때 주변 살핌 정도	201
<표 III-179>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 건널 때 자전거 밀고 건너는 정도 ..	202
<표 III-180> 길 건널 때 횡단보도나 육교 이용 정도	203

<표 III-181> 횡단보도 건널 때 차 멈춤 확인 정도	204
<표 III-182>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승하차하는 정도	205
<표 III-183> 하차 시 주변 살핌 정도	206
<표 III-184> 자동차 승차 시 안전벨트 착용 정도	207
<표 III-185> 실험/실습 시간에 약품이나 기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정도	208
<표 III-186> 복도와 계단에서 뛰지 않는 정도	209
<표 III-187> 수영장이나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요원 보이는 곳에서 수영하 는 정도	210
<표 III-188> 운동 전 준비운동 정도	211
<표 III-189> 운동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	212
<표 III-190> 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 정도	213
<표 III-191>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정도	214
<표 III-192> 식품 구입 시 포장지의 유통기간 확인 정도	215
<표 III-193> 유효기간 지난 음식을 먹지 않는 정도	216
<표 III-194> 가정의 위험요소 존재여부	217
<표 III-195> 가정에서 날카로운 것 노출여부	218
<표 III-196> 가정에서 전기선이나 코드 어지럽게 널려있는지 여부	218
<표 III-197> 가정에서 바닥이 고르지 못하거나 패이거나 파손된 곳 있는 지 여부	219
<표 III-198> 가정에서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219
<표 III-199> 가정에서 부서진 가구나 수납장이 있는지 여부	220
<표 III-200> 가정에서 계단이나 난간에 파손된 곳 있는지 여부	221
<표 III-201> 가정에서 문의 손잡이가 고장 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 는지 여부	222
<표 III-202> 가정에서 가구들이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	222
<표 III-203> 가정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표시 있는지 여부 ·	222
<표 III-204> 가정에서 조명이 없거나 어두워서 밤에 다니기 어려운 곳이 있는지 여부	222

<표 III-205> 학교의 위험요소 존재여부	223
<표 III-206> 학교에서 날카로운 것 노출여부	224
<표 III-207> 학교에서 전기선이나 코드 어지럽게 널려있는지 여부	224
<표 III-208> 학교에서 바닥이 고르지 못하거나 패이거나 파손된 곳 있는 지 여부	225
<표 III-209> 학교에서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225
<표 III-210> 학교에서 부서진 가구나 수납장이 있는지 여부	226
<표 III-211> 학교에서 계단이나 난간에 파손된 곳 있는지 여부	226
<표 III-212> 학교에서 문의 손잡이가 고장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 는지 여부	227
<표 III-213> 학교에서 가구들이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	227
<표 III-214> 학교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표시 있는지 여부 ·	228
<표 III-215> 학교에서 조명이 없거나 어두워서 밤에 다니기 어려운 곳이 있는지 여부	228
<표 III-216> 안전에 대한 부모, 학교, 교사의 관심도	229
<표 III-217> 안전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	230
<표 III-218> 안전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 정도	231
<표 III-219> 안전에 대한 학교의 관심 정도	232
<표 III-220> 안전에 대한 교사의 관심 정도	233
<표 III-22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안전교육 수혜여부(중복응답) ...	235
<표 III-222>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 경험률(중복응답)	236
<표 III-223> 최근 1년 동안 심한욕설/협박당함 경험빈도	237
<표 III-224> 최근 1년 동안 폭행당함 경험빈도	237
<표 III-225> 최근 1년 동안 돈이나 물건 빼앗김 경험빈도	238
<표 III-226> 최근 1년 동안 집단 따돌림(왕따) 당함 경험빈도	238
<표 III-227> 최근 1년 동안 사이버/휴대전화 폭력 당함 경험빈도	239
<표 III-228>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 경험장소	241
<표 III-229>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로 인한 병원치료 여부 및 기간	242

<표 III-230> 최근 1년 동안 폭력 가해 경험률	243
<표 III-231> 최근 1년 동안 심한욕설/협박하기 경험빈도	244
<표 III-232> 최근 1년 동안 폭행하기 경험빈도	244
<표 III-233> 최근 1년 동안 돈이나 물건 빼앗기 경험빈도	245
<표 III-234> 최근 1년 동안 집단 따돌림(왕따) 하기 경험빈도	245
<표 III-235> 최근 1년 동안 사이버/휴대전화 폭력하기 경험빈도	246
<표 III-236> 최근 1년 동안 폭력 가해 장소	248
<표 III-237>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부당한 폭력 피해 경험률	249
<표 III-238>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신체적 체벌 경험빈도	250
<표 III-239>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심한욕설 경험빈도	250
<표 III-240> 최근 1년 동안 교사로부터 부당한 폭력 경험률	251
<표 III-241> 최근 1년 동안 교사로부터 신체적 체벌 경험빈도	252
<표 III-242> 최근 1년 동안 교사로부터 심한욕설 경험빈도	252
<표 III-243>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방임 경험 빈도	253
<표 III-244> 청소년 보호시설 인지 여부	254
<표 III-245> 청소년 쉼터 인지 여부	254
<표 III-246> 청소년 상담센터 인지 여부	254
<표 III-247> 청소년전화 1388 인지 여부	256
<표 III-248> 최근 1년 동안 가출 경험여부	257
<표 III-249> 최근 1년 동안 평균 가출 경험횟수	258
<표 III-250> 최근 1년 동안 평균 가출 경험기간	259
<표 III-251> 최근 1년 동안 가출 중 주로 잠을 잔 곳	261
<표 III-252> 최근 1년 동안 가출 피해 여부	262
<표 III-253> 최근 1년 동안 가출 중 경험한 피해 유형	263
<표 III-254> 최근 1년 동안 무단결석 여부	264
<표 III-255> 최근 1년 동안 평균 무단결석 일수	265
<표 III-256>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경험 여부	266
<표 III-257>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유형	267

<표 III-281> 최근 한 달 동안 성인용 비디오방/DVD방 이용 빈도	291
<표 III-282> 최근 한 달 동안 호프집, 소주방, 카페 이용 빈도	291
<표 III-283> 최근 한 달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용 빈도	292
<표 III-284> 최근 한 달 동안 무도장(나이트클럽 등) 이용 빈도	292
<표 III-285> 최근 한 달 동안 전화방 이용 빈도	293
<표 III-286> 최근 한 달 동안 성인용 게임장, 실내경기장 이용 빈도 ·	293
<표 III-287> 최근 한 달 동안 퇴폐 안마시술소 이용 빈도	294
<표 III-288>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경험여부	295
<표 III-289> 보호행동 지표 영역별 기술통계치	296
<표 III-290> 보호행동 지표항목별 기술통계치	298
<표 III-291> 위험한 곳 피해 다니는 정도	299
<표 III-292> 필요한 만큼만 돈 가지고 다니는 정도	300
<표 III-293> 위험 상황 대비 호신용 도구 가지고 다니는 정도	301
<표 III-294>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는 정도	302
<표 III-295> 폭력 사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03
<표 III-296> 고민이 있을 때 주위에 도움 청하는 정도	304
<표 III-297>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305
<표 III-298> 가출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	306
<표 III-299> 유해매체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07
<표 III-300> 유해매체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08
<표 III-301> 유해약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09
<표 III-302> 유해약물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	310
<표 III-303> 유해업소 근처 피해 다니는 정도	311
<표 III-304> 유해업소 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12
<표 III-305> 유해업소 출입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	313
<표 III-306> 현재 집에 인터넷사용제한 프로그램 설치 여부	314
<표 III-307> 아버지 음주여부 및 빈도	316
<표 III-308> 어머니 음주여부 및 빈도	316

<표 III-309> 부모님 흡연여부 및 빈도	317
<표 III-310> 하교 후 집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	318
<표 III-311> 현재 가정생활의 만족도	319
<표 III-312> 청소년 위험행동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데 대한 부모의 관심정도	320
<표 III-313>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 정도	321
<표 III-314> 친한 친구들의 친사회적 기대	322
<표 III-315> 최근 한 달 동안 친한 친구들의 음주여부 및 빈도	323
<표 III-316> 최근 한 달 동안 친한 친구들의 흡연여부 및 빈도	324
<표 III-317>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학교의 노력 정도	325
<표 III-318>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교사의 노력 정도	326
<표 III-319>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교육 수혜여부(복수응답)	327
<표 III-320> 학교 주변의 위험 정도	328
<표 III-321> 학교생활의 만족도	329
<표 III-322> 보호환경 관련 학교단위 자료	330
<표 III-323> 집 주변의 위험 정도	331
<표 III-324> 집주변 유해업소 실태	333
<표 III-325> 집주변 친사회적 시설 실태	335
<표 III-326>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어른의 노력 정도 ·	336
<표 III-327> 최근 한 달 동안 술, 담배 구매 시 판매인의 신분증 확인 여부	337
<표 III-328>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시 업소주인 신분증 확인 ·	338
<표 III-329>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 시 신분증 확인 여부 ·	339

그림 목차

[그림 III-1]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	25
[그림 III-2]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걷기 시간	26
[그림 III-3] 최근 일주일간 체육시간활용 신체활동 시간	27
[그림 III-4] 학년별, 성별 평균 키	28
[그림 III-5] 학년별, 성별 평균 몸무게	29
[그림 III-6] 최근 1년간 체중감소 시도 여부	30
[그림 III-7] 최근 1년간 시도했던 체중 감소 방법	31
[그림 III-8] 자신의 체형(몸매)에 대한 주관적 인식	33
[그림 III-9] 자신의 체형(몸매)에 대한 만족도	34
[그림 III-10] 최근 일주일간 아침식사 일 수	35
[그림 III-11] 최근 일주일간 과일 섭취 빈도	36
[그림 III-12] 최근 일주일간 탄산음료 섭취 빈도	37
[그림 III-13] 최근 일주일간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38
[그림 III-14] 최근 일주일간 라면 / 컵라면 섭취 빈도	39
[그림 III-15] 최근 일주일간 과자 섭취 빈도	40
[그림 III-16] 최근 일주일간 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 섭취 빈도	41
[그림 III-17] 최근 일주일간 채소 섭취 빈도	42
[그림 III-18] 최근 일주일간 우유 섭취 빈도	43
[그림 III-19] 최근 일주일간 고기나 생선 섭취 빈도	44
[그림 III-20] 최근 일주일간 가공식품 섭취 빈도	45
[그림 III-21] 최근 일주일간 커피 섭취 빈도	46
[그림 III-22]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영양교육 경험 여부	47
[그림 III-23]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48
[그림 III-24] 자신의 수면시간 대비 피로회복 도움 정도	49
[그림 III-25] 최근 일주일간 평균 취침 시간	50

[그림 Ⅲ-26] 최근 일주일간 평균 기상시간	51
[그림 Ⅲ-27] 흡연경험 여부	52
[그림 Ⅲ-28] 흡연시작 연령	53
[그림 Ⅲ-29] 최근 한 달간 흡연 일수	54
[그림 Ⅲ-30]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흡연량	55
[그림 Ⅲ-31] 부모의 흡연여부	56
[그림 Ⅲ-32] 친한 친구의 흡연 여부	57
[그림 Ⅲ-33] 흡연에 대한 의식	58
[그림 Ⅲ-34]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연교육 경험 여부	59
[그림 Ⅲ-35] 음주 경험 여부	60
[그림 Ⅲ-36] 음주 시작 연령	61
[그림 Ⅲ-37] 최근 한 달간 음주 일 수	62
[그림 Ⅲ-38] 최근 한 달간 1회 평균 음주량	63
[그림 Ⅲ-39] 부모의 음주여부	64
[그림 Ⅲ-40] 친한 친구의 음주여부	65
[그림 Ⅲ-41] 음주에 대한 의식	66
[그림 Ⅲ-42]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주교육 경험 여부	67
[그림 Ⅲ-43] 최근 1년간 구강질환 증상 경험(복수 응답)	68
[그림 Ⅲ-44] 최근 1년간 치과 방문 횟수	69
[그림 Ⅲ-45] 최근 일주일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일수	70
[그림 Ⅲ-46]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구강건강 교육 경험 여부	71
[그림 Ⅲ-47] 최근 일주일간 식사하기 전 손 씻기 실천 정도	72
[그림 Ⅲ-48] 최근 일주일간 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기 실천 여부	73
[그림 Ⅲ-49] 최근 일주일간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손 씻기 실천 여부	74
[그림 Ⅲ-50] 최근 일주일간 비누 사용 손 씻기 정도	75
[그림 Ⅲ-51] 최근 일주일간 머리감기 빈도	76
[그림 Ⅲ-52] 최근 일주일간 속옷 갈아입기 빈도	77
[그림 Ⅲ-53] 손·발톱 청결 정도	78

[그림 III-54]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 경험 여부	79
[그림 III-55]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 일수	80
[그림 III-56]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활동제한)이유	81
[그림 III-57]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평균	83
[그림 III-58] 외롭다	85
[그림 III-59] 기분이 울적하다	86
[그림 III-60] 허무한 느낌이 든다	87
[그림 III-61]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88
[그림 III-62]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89
[그림 III-63] 긴장이 된다	90
[그림 III-64] 심장(가슴)이 마구 뛰다	91
[그림 III-65] 자신도 걸잡을 수 없이 화가 치민다	92
[그림 III-66]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93
[그림 III-67]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94
[그림 III-68]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95
[그림 III-69] 개인 내(內) 스트레스 요인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96
[그림 III-70] 부모님과의 관계	99
[그림 III-71]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
[그림 III-72]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101
[그림 III-73] 신체건강	102
[그림 III-74] 심리건강	103
[그림 III-75]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104
[그림 III-76]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105
[그림 III-77] 이성과의 관계	106
[그림 III-78] 선·후배 관계	107
[그림 III-79] 선생님과의 관계	108
[그림 III-80]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109

[그림 Ⅲ-81]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110
[그림 Ⅲ-82]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	111
[그림 Ⅲ-83]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113
[그림 Ⅲ-84]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14
[그림 Ⅲ-85]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115
[그림 Ⅲ-8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116
[그림 Ⅲ-8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17
[그림 Ⅲ-88]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108
[그림 Ⅲ-89]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119
[그림 Ⅲ-90]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20
[그림 Ⅲ-91]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	121
[그림 Ⅲ-92]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122
[그림 Ⅲ-93]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123
[그림 Ⅲ-94]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124
[그림 Ⅲ-95]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125
[그림 Ⅲ-96]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	126
[그림 Ⅲ-97]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및 표준편차 ·	127
[그림 Ⅲ-98]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129
[그림 Ⅲ-99]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130
[그림 Ⅲ-100]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131
[그림 Ⅲ-101] 고민을 들어 주신다	132
[그림 Ⅲ-102]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133
[그림 Ⅲ-103]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134
[그림 Ⅲ-104]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135
[그림 Ⅲ-105]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136
[그림 Ⅲ-106]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137
[그림 Ⅲ-107]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	138
[그림 Ⅲ-108] 용돈을 주신다	139

[그림 III-109]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140
[그림 III-110]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141
[그림 III-111]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142
[그림 III-112]	가족관계 질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및 표준편차	143
[그림 III-113]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144
[그림 III-114]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145
[그림 III-115]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146
[그림 III-116]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147
[그림 III-117]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148
[그림 III-118]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및 표준편차	149
[그림 III-119]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151
[그림 III-120]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52
[그림 III-121]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153
[그림 III-122]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154
[그림 III-123]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한다	155
[그림 III-124]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 ..	156
[그림 III-125]	학교영역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및 표준편차	157
[그림 III-12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59
[그림 III-127]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160
[그림 III-128]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161
[그림 III-129]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162
[그림 III-130]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163
[그림 III-131]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164
[그림 III-132]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165
[그림 III-133]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166

[그림 III-134]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167
[그림 III-135]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168
[그림 III-136]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169
[그림 III-137]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170
[그림 III-138] 최근 1년 동안 사고유형별 사고경험 여부(중복응답)	171
[그림 III-139] 최근 1년 동안 사고유형별 경험한 사고의 병원치료율 ..	178
[그림 III-140]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사고 발생장소	184
[그림 III-141]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사고로 다친 부위(중복응답)	186
[그림 III-142] 안전행동 지표 영역별 비교	188
[그림 III-143] 안전행동 지표항목별 평균 비교	189
[그림 III-144] 비상문 위치 확인 정도	191
[그림 III-145] 소화기 위치 확인 정도	192
[그림 III-146] 전기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질 때 물 묻는 손 확인 정도	193
[그림 III-147] 가스 사용 후 (중간)밸브 사용 정도	194
[그림 III-148] 가스/전열기구 사용 중 자리를 비우지 않는 정도	195
[그림 III-149] 유독물질 눈/피부 접촉시 물로 씻어내는 정도	196
[그림 III-150] 날카로운 기구나 공구 제자리 정리 정돈 정도	197
[그림 III-151] 약품 사용 시 제품 확인 정도	198
[그림 III-152] 높은 가구 위 물건정리 및 전구교체시 안전한 의자 이용 정도	199
[그림 III-153] 자전거 타기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	200
[그림 III-154] 자전거 탈 때 주변 살핌 정도	201
[그림 III-155]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 건널 때 자전거 밀고 건너는 정도	202
[그림 III-156] 길 건널 때 횡단보도나 육교 이용 정도	203
[그림 III-157] 횡단보도 건널 때 차 멈춤 확인 정도	204
[그림 III-158]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승하차하는 정도	205
[그림 III-159] 하차 시 주변 살핌 정도	206
[그림 III-160] 자동차 승차 시 안전벨트 착용 정도	207
[그림 III-161] 실험/실습 시간에 약품이나 기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	208

[그림 III-162]	복도와 계단에서 뛰지 않는 정도	209
[그림 III-163]	수영장이나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요원 보이는 곳에서 수영 하는 정도	210
[그림 III-164]	운동 전 준비운동 정도	211
[그림 III-165]	운동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	212
[그림 III-166]	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 정도	213
[그림 III-167]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정도	214
[그림 III-168]	식품 구입 시 포장지의 유통기간 확인 정도	215
[그림 III-169]	유효기간 지난 음식을 먹지 않는 정도	216
[그림 III-170]	가정의 위험요소 존재여부	217
[그림 III-171]	학교의 위험요소 존재여부	223
[그림 III-172]	안전에 대한 부모, 학교, 교사의 관심도	229
[그림 III-173]	안전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	230
[그림 III-174]	안전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 정도	231
[그림 III-175]	안전에 대한 학교의 관심 정도	232
[그림 III-176]	안전에 대한 교사의 관심 정도	233
[그림 III-177]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안전교육 수혜여부(중복응답) ..	234
[그림 III-178]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 경험률(중복응답)	236
[그림 III-179]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 경험장소	240
[그림 III-180]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로 인한 병원치료 여부 및 기간 ·	242
[그림 III-181]	최근 1년 동안 폭력 가해 경험률	243
[그림 III-182]	최근 1년 동안 폭력 가해 장소	247
[그림 III-183]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부당한 폭력 피해 경험률 ···	249
[그림 III-184]	최근 1년 동안 교사로부터 부당한 폭력 경험률	251
[그림 III-185]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방임 경험 빈도	253
[그림 III-186]	청소년 보호시설 인지 여부	254
[그림 III-187]	최근 1년 동안 가출 경험여부	257
[그림 III-188]	최근 1년 동안 평균 가출 경험기간	259

[그림 III-216]	폭력 사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03
[그림 III-217]	고민이 있을 때 주위에 도움 청하는 정도	304
[그림 III-218]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305
[그림 III-219]	가출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06
[그림 III-220]	유해매체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07
[그림 III-221]	유해매체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08
[그림 III-222]	유해약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09
[그림 III-223]	유해약물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10
[그림 III-224]	유해업소 근처 피해 다니는 정도	311
[그림 III-225]	유해업소 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12
[그림 III-226]	유해업소 출입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13
[그림 III-227]	현재 집에 인터넷사용제한 프로그램 설치 여부	314
[그림 III-228]	부모님 음주여부 및 빈도	315
[그림 III-229]	부모님 흡연여부 및 빈도	317
[그림 III-230]	하교 후 집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	318
[그림 III-231]	현재 가정생활의 만족도	319
[그림 III-232]	청소년 위험행동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데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	320
[그림 III-233]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 정도	321
[그림 III-234]	친한 친구들의 친사회적 기대	322
[그림 III-235]	최근 한 달 동안 친한 친구들의 음주여부 및 빈도	323
[그림 III-236]	최근 한 달 동안 친한 친구들의 흡연여부 및 빈도	324
[그림 III-237]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학교의 노력 정도	325
[그림 III-238]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교사의 노력 정도	326
[그림 III-239]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교육 수혜 여부(복수응답)	327
[그림 III-240]	학교 주변의 위험 정도	328
[그림 III-241]	학교생활의 만족도	329

[그림 Ⅲ-242] 집 주변의 위험 정도	331
[그림 Ⅲ-243] 집주변 유해업소 실태	332
[그림 Ⅲ-244] 집주변 친사회적 시설 실태	334
[그림 Ⅲ-245]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어른의 노력 정도 ·	336
[그림 Ⅲ-246] 최근 한 달 동안 술, 담배 구매 시 판매인의 신분증 확인 여부 ·	337
[그림 Ⅲ-247]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시 업소주인 신분증 확인 ·	338
[그림 Ⅲ-248]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 시 신분증 확인 여부	339

I. 조사개요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3. 조사대상

I. 조사개요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가정, 학교 및 사회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대안 마련을 위해 청소년 건강과 안전(보호) 실태에 대한 파악과 기초자료 생산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010년도 청소년 지표 조사에서는 청소년 건강과 안전(보호) 영역에서 요구되는 핵심지표들을 중심으로 세부 지표항목들을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건강과 안전(보호)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영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표본설계 및 추출

1) 조사모집단

이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그리고 조사모집단은 전국 12개 시·도(제주도 제외)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들로서, 초등학생은 4~6학년 중·고교생은 1~3학년 학생들이다.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09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시도별 초·중·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하였다.

2) 표본크기 및 표본배분

이 조사의 표본크기는 2009년 교육통계연보 학생현황을 기초로 각 시도의 학생비율 분포에 근거하여 계산하였다. 이 조사의 목표 표본크기는 8,500명이며, 이 때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63\%P$ 이다.

<표 I-1> 목표 표본 수

구분	모집단		모집단수	모집단 합계		목표 표본 수	
초등학교	초등학교 4-6학년	초4	586,343	1,824,201 (31.7%)		2,698	
		초5	604,803				
		초6	633,055				
중학교	중학교 1-3학년	중1	648,244	1,981,600 (34.5%)		2,930	
		중2	668,278				
		중3	665,078				
고등학교	일반계고 1-3학년	일반고1	502,171	1,469,617 (25.6%)	1,942,356 (33.8%)	2,173	2,872
		일반고2	495,493				
		일반고3	471,953				
	전문계고 1-3학년	전문고1	159,722	472,739 (8.2%)		699	
		전문고2	158,017				
		전문고3	155,000				
합계	-	-	5,748,157	5,748,157(100.0%)		8,500(100.0%)	

다음 <표 I-2>는 각 부차모집단별 비례배분에 의하여 목표 표본 수를 사·도별로 할당한 결과표이다.

<표 I-2> 사·도별 조사모집단 층화 비율에 의한 표본 배분

구분	모집단	모집단수	시·도별·학년별 학생 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초등학교	초4	867	151	53	46	49	31	29	22	223	26	64	67	106
	초5	894	156	56	47	50	32	30	24	228	27	66	70	108
	초6	936	164	59	51	54	34	31	25	235	28	69	72	113
	소계	2,697	471	168	144	153	97	90	71	686	81	199	209	327
중학교	중1	959	170	64	53	55	34	33	26	237	29	70	74	115
	중2	988	177	67	56	57	35	34	27	241	29	71	76	118
	중3	983	180	68	55	58	35	33	27	239	29	69	75	116
	소계	2,930	527	199	164	170	104	100	80	717	87	210	225	349
고등학교	일반고1	743	151	51	43	45	26	27	21	177	17	50	50	85
	일반고2	733	153	52	43	45	26	27	21	170	16	49	50	83
	일반고3	698	150	50	42	42	24	25	20	158	15	45	46	80
	전문고1	236	30	18	12	13	8	6	6	57	12	20	25	30
	전문고2	234	30	18	12	13	8	6	5	58	12	19	24	30
	전문고3	229	31	18	12	13	8	6	5	56	12	18	23	29
	소계	2,873	545	207	164	171	100	97	78	676	84	201	218	337
합계		8,500	1,541	576	470	493	301	285	228	2,078	252	610	654	1,013

또한 <표 I-3>은 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5명임을 가정하여 목표 학급 수(일차추출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를 할당한 결과표이다.

조사는 추출된 학급의 전체 학생을 조사한다는 원칙 하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부차모집단별 예상되는 최종 학생 수(이차추출단위-SSU; secondary sampling unit)는 <표 I-4>와 같다. 따라서 예상되는 최종 표본크기는 10,815명이며, 이 때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45\%P$ 이다.

<표 I-3>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교(학급)수

구분	모집단	모집단수	시도별·학년별 학급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초등학교	초4	30	5	2	2	2	1	1	1	7	1	2	2	4
	초5	31	5	2	2	2	1	1	1	7	1	2	3	4
	초6	31	5	2	2	2	1	1	1	7	1	2	3	4
	소계	92	15	6	6	6	3	3	3	21	3	6	8	12
중학교	중1	31	5	2	2	2	1	1	1	7	1	2	3	4
	중2	34	6	2	2	2	2	1	1	7	1	3	3	4
	중3	32	6	2	2	2	1	1	1	7	1	2	3	4
	소계	97	17	6	6	6	4	3	3	21	3	7	9	12
고등학교	일반고1	28	5	2	2	2	1	1	1	6	1	2	2	3
	일반고2	27	5	2	2	2	1	1	1	5	1	2	2	3
	일반고3	27	5	2	2	2	1	1	1	5	1	2	2	3
	전문고1	13	1	1	1	1	1	1	1	2	1	1	1	1
	전문고2	13	1	1	1	1	1	1	1	2	1	1	1	1
	전문고3	13	1	1	1	1	1	1	1	2	1	1	1	1
	소계	121	18	9	9	9	6	6	6	22	6	9	9	12
합계		310	50	21	21	21	13	12	12	64	12	22	26	36

<표 I-4>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생수

구분	모집단	모집단수	시도별·학년별 학생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초등학교	초4	1,050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70	140
	초5	1,085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40
	초6	1,085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40
	소계	3,220	525	210	210	210	105	105	105	735	105	210	280	420
중학교	중1	1,085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40
	중2	1,190	210	70	70	70	70	35	35	245	35	105	105	140
	중3	1,120	210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40
	소계	3,395	595	210	210	210	140	105	105	735	105	245	315	420
고등학교	일반고1	980	175	70	70	70	35	35	35	210	35	70	70	105
	일반고2	945	175	70	70	70	35	35	35	175	35	70	70	105
	일반고3	945	175	70	70	70	35	35	35	175	35	70	70	105
	전문고1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35
	전문고2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35
	전문고3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35
	소계	4,235	630	315	315	315	210	210	210	770	210	315	315	420
합계		10,850	1,750	735	735	735	455	420	420	2,240	420	770	910	1,260

3) 표본추출

(1) 초등학교 표본추출

- ①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 지역별 층화
- ② 층화지역별 학생수 비례 목표표본수 할당
- ③ 할당표본수에 따른 추출 학교수 결정
 - ☞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후 1개 학급(최종 표집단위) 전원조사 원칙이므로, 층화지역별 학급당 평균학생수를 기준으로 추출 학교수 결정
- ④ 층화지역별 할당된 학교추출
 - ☞ 학교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12개 지역별로 초등학교 리스트 정렬 → 12개 지역별 초등학교 학생수 누적 → 12개 지역별 초등학교 전체 학교 학생수를 정해진 학교수로 나누어 추출간격 결정 → 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에 해당되는 학교 추출)
 - ☞ 단, 실사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학교, 학급수가 2개 이하인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학교 제외
- ⑤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 ☞ 학교추출 순으로 첫 번째는 4학년 → 두 번째는 5학년 → 세 번째는 6학년 → 네 번째는 다시 4학년을 뽑는 방식으로 추출
- ⑥ 추출된 1개 학년의 학급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 사전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습은 제외
 -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층화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
 - ☞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리스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아래, 위 학교 순으로 대체

(2) 중학교 표본추출

①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 지역별 층화

② 층화 지역별 학생 수 비례 목표 표본 수 할당

③ 할당 표본 수에 따른 추출 학교 수 결정

☞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후 1개 학급(최종 표집단위) 전원조사 원칙
이므로, 층화 지역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출 학교 수 결정

④ 층화 지역별 할당된 학교 추출

☞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12개 지역
별로 중학교 리스트 정렬 → 12개 지역별 중학교 학생 수 누적 → 12개
지역별 중학교 전체 학교 학생 수를 정해진 학교 수로 나눠 추출간격 결
정 → 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에 해당되는 학
교 추출)

☞ 단, 실사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학교, 학급 수가 2개 이하인 학교, 학급
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학교 제외

⑤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 학교 추출 순으로 첫 번째는 1학년 → 두 번째는 2학년 → 세 번째는
3학년 → 네 번째는 다시 1학년을 뽑는 방식으로 추출

⑥ 추출된 1개 학년의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
급은 제외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층화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

☞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리스
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아래, 위 학교 순으로 대체

(3) 고등학교 표본추출

①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 지역별 ×2개(일반고·전문고) 계열별 층화(two way : 24개 sector)

② 층화 sector별 학생 수 비례 목표 표본 수 할당

③ 할당 표본 수에 따른 추출 학교 수 결정

☞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후 1개 학급(최종 표집단위) 전원조사 원칙
이므로, 층화 sector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출 학교 수 결정

④ 층화 sector별 할당된 학교 추출

☞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층화 sector별로 고등학교리스트 정렬 → 층화 sector별 고등학교 학생 수 누적 → 층화 sector별 고등학교 전체 학교 학생 수를 정해진 학교 수로 나눠 추출간격 결정 → 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에 해당되는 학교 추출)

☞ 단, 실사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학교, 학급 수가 2개 이하인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학교 제외

⑤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 학교 추출 순으로 첫 번째는 1학년 → 두 번째는 2학년 → 세 번째는 3학년 → 네 번째는 다시 1학년을 뽑는 방식으로 추출

⑥ 추출된 1개 학년의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층화 sector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

☞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리스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아래, 위 학교 순으로 대체

(4) 모수추정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 학교구분×지역의 구분에 따른 번호.
 - 학교구분 : 4개(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고등학교, 전문고, 고등학교).
 - 지역 :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즉, Y_{hij} 는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의 j 번째 학생에 대한 관측치임.
- w_{hij} : 표본 가중치 (표본추출확률의 역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w_{hij} = (\pi_{hi}\pi_{jhi})^{-1}$
 - $\pi_{hi} = h$ 번째 층에서 i 번째 집락의 추출확률이며, 이는 집락 내의 학생수에 비례함.
 - $\pi_{j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에서 j 번째 학생의 추출확률.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_{\dots}$: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_{...}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④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률, n_h/N_h .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

$$\bar{e}_{h..}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 \text{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⑥ 목표 오차한계(표본오차)

- 집락효과를 무시하는 경우(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최대 표본크기를 구하도록 $p=0.5$ 로 할 때, 모비율에 대한 오차한계를 계산하면(95% 신뢰수준 하에서)

$$e = z_{\alpha/2} \times \sqrt{\frac{p(1-p)}{n}} \times \sqrt{\frac{N-n}{N-1}}$$

- 목표 표본 학생 수: $N=5,800,890$, $n=8,500 \Rightarrow e=\pm 1.06\%P$
-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생 수: $N=5,800,890$, $n=10,850 \Rightarrow e=\pm 0.94\%P$

- 대략 $M=35$ (집락크기), $\rho=0.04$ (급내상관계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의 경우)로 간주하여, $deff = 1 + (M-1)\rho=2.36$ 을 단순임의추출에 대한 집락추출의 설계효과로 하고 최대 표본크기를 구하도록 $p=0.5$ 로 할 때, 모비율에 대한 오차한계를 계산하면(95% 신뢰수준 하에서)

$$e = z_{\alpha/2} \times \sqrt{\frac{p(1-p)}{n}} \times \sqrt{\frac{N-n}{N-1}} \times \sqrt{deff}$$

- 목표 표본 학생 수: $N=5,800,890$, $n=8,500 \Rightarrow e=\pm 1.63\%P$
-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생 수: $N=5,800,890$, $n=10,850 \Rightarrow e=\pm 1.45\%P$
- 건강실태조사 최종 조사대상 수: $N=5,800,890$, $n=9,844 \Rightarrow e=\pm 1.52\%P$
- 안전(보호)실태조사 최종 조사대상 수: $N=5,800,890$, $n=9,727 \Rightarrow e=\pm 1.53\%P$

3. 조사대상

전국 12개 시·도의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1~3학년) 및 고등학교(1~3학년)에 재학 중인 남, 여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이 조사의 최종 분석대상 현황은 다음 <표 I-5> 및 <표 I-6>과 같다.

먼저 청소년 건강지표에 대한 최종분석 대상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은 총 2,657명(초4: 870명, 초5: 886명, 초6: 901명)이었으며, 중학교 학생은 총 3,254명(중1: 1,082명, 중2: 1,095명, 중3: 1,077명)이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3,933명(일반계고1: 953명, 전문계고1: 421명, 일반계고2: 946명, 전문계고2: 355명, 일반계고3: 915명, 전문계고3: 343명)이었다. 초등학교생과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합한 총계는 9,844명이다. 각 시도별 현황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5> 청소년 건강지표 최종 분석 대상자 현황

구분	교급	총계	시도별 · 학년별 학생 수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초등학교	초4	870	145	55	56	52	31	29	30	224	22	58	60	108
	초5	886	133	53	62	52	31	30	30	204	24	58	89	120
	초6	901	144	57	51	56	34	27	29	210	27	54	85	127
소계		2,657	422	165	169	160	96	86	89	638	73	170	234	355
중학교	중1	1,082	174	65	73	73	31	42	36	259	35	62	105	127
	중2	1,095	171	52	79	77	66	25	27	252	34	85	99	128
	중3	1,077	198	70	59	83	41	39	35	239	34	64	87	128
소계		3,254	543	187	211	233	138	106	98	750	103	211	291	383
고등학교	일반고1	953	162	65	71	65	34	43	41	199	39	72	70	92
	일반고2	946	170	80	66	70	39	35	35	182	37	68	67	97
	일반고3	915	183	74	80	50	40	45	35	184	24	57	47	96
	전문고1	421	30	25	30	25	39	33	72	51	30	35	24	27
	전문고2	355	24	29	32	29	32	22	15	69	31	19	28	25
	전문고3	343	29	28	29	28	19	22	0	64	31	43	21	29
소계		3,933	598	301	308	267	203	200	198	749	192	294	257	366
총계		9,844	1,563	653	688	660	437	392	385	2,137	368	675	782	1,104

다음으로 청소년 안전(보호) 지표에 대한 최종분석 대상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은 총 2,643명(초4: 873명, 초5: 883명, 초6: 887명)이었으며, 중학교 학생은 총 3,257명(중1: 1,017명, 중2: 1,168명, 중3: 1,072명)이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3,827명(일반계고1: 946명, 전문계고1: 365명, 일반계고2: 936명, 전문계고2: 353명, 일반계고3: 872명, 전문계고3: 355명)이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합한 총계는 9,727명이다. 각 시도별 현황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 -6> 청소년 안전(보호)지표 최종 분석 대상자 현황

구분	교급	총계	시도별 · 학년별 학생 수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초등학교	초4	873	143	51	54	53	34	25	30	206	37	62	63	115
	초5	883	143	45	64	48	36	29	29	202	26	62	85	114
	초6	887	135	52	53	55	30	23	30	209	27	58	90	125
소계		2,643	421	148	171	156	100	77	89	617	90	182	238	354
중학교	중1	1,017	155	56	71	74	30	35	15	253	33	68	95	132
	중2	1,168	202	57	65	73	75	31	31	257	35	95	109	138
	중3	1,072	206	68	71	69	37	36	37	244	30	62	88	124
소계		3,257	563	181	207	216	142	102	83	754	98	225	292	394
고등학교	일반고1	946	155	59	75	77	39	37	35	213	26	74	60	96
	일반고2	936	177	77	64	61	33	34	31	188	29	71	79	92
	일반고3	872	175	64	63	53	26	30	36	184	17	60	40	124
	전문고1	365	26	30	30	32	29	30	24	59	26	25	24	30
	전문고2	353	29	30	27	21	38	28	34	73	10	34	0	29
	전문고3	355	21	27	26	30	26	33	24	68	25	14	31	30
소계		3,827	583	287	285	274	191	192	184	785	133	278	234	401
총계		9,727	1,567	616	663	646	433	371	356	2,156	321	685	764	1,149



Ⅱ. 청소년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의 지표체계

1. 청소년 건강(신체/심리)지표 체계
2. 청소년 안전(보호)지표 체계

II. 청소년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의 지표체계

1. 청소년 건강(신체/심리)지표 체계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문헌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의견조사 및 예비조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지표체계는 아래 <표 II-1>, <표 II-2>와 같다.

<표 II-1> 한국 청소년 건강영역에 대한 지표체계

관심영역	세영부영	고유번호	지표항목	문항수
1 신체 건강	1-1 신체활동	1-1-1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	1
		1-1-2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걷기 시간	1
		1-1-3	최근 일주일간 체육시간 활용 신체활동 시간	1
	1-2 비만 및 체중조절	1-2-1	현재의 신장과 체중	1
		1-2-2	최근 1년간 체중 감소 시도 여부	1
		1-2-3	최근 1년간 다양한 체중 감소 방법 시도 여부	1(8)
		1-2-4	자신의 체형(몸매)에 대한 주관적 인식	1
		1-2-5	자신의 체형(몸매)에 대한 만족도	1
	1-3 영양 및 식습관	1-3-1	최근 일주일간 아침식사 일 수	1
		1-3-2	최근 일주일간 건강 유익/유해 식품 섭취 빈도	1(10)
		1-3-3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영양교육 경험 여부	1
	1-4 수면	1-4-1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1
		1-4-2	자신의 수면시간 대비 피로회복 도움 정도	1
		1-4-3	최근 일주일간 평균 취침 시간	1
		1-4-4	최근 일주일간 평균 기상 시간	1
	1-5 흡연	1-5-1	흡연경험 여부	1
		1-5-2	흡연시작 연령	1
		1-5-3	최근 한 달간 흡연 일 수	1
		1-5-4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흡연량	1
		1-5-5	부모의 흡연여부	1
		1-5-6	친한 친구의 흡연여부	1
		1-5-7	흡연에 대한 의식	1
		1-5-8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연교육 경험 여부	1
	1-6 음주	1-6-1	음주경험 여부	1
		1-6-2	음주시작 연령	1
		1-6-3	최근 한 달간 음주 일 수	1
		1-6-4	최근 한 달간 1회 평균 음주량	1
		1-6-5	부모의 음주여부	1

2 심리 건강		1-6-6	친한 친구의 음주여부	1
		1-6-7	음주에 대한 의식	1
		1-6-8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주교육 경험 여부	1
	1-7 구강보건	1-7-1	최근 1년간 구강질환 증상 경험 여부	1(5)
		1-7-2	최근 1년간 치과 방문 횟수	1
		1-7-3	최근 일주일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일수	1
		1-7-4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구강건강 교육 경험 여부	1
	1-8 개인위생	1-8-1	최근 일주일간 손 씻기 실천 여부	1(3)
		1-8-2	최근 일주일간 비누 사용 손 씻기 정도	1
		1-8-3	최근 일주일간 머리감기 빈도	1
		1-8-4	최근 일주일간 속옷 갈아입기 빈도	1
		1-8-5	손, 발톱 청결 정도	1
		1-8-6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 경험 여부	1
	1-9 활동제한	1-9-1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일수	1
		1-9-2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활동제한) 이유	1
	2-1 개인 내적 영역	2-1-1	우울감 최근 일주일간 외로움/울적한 기분/허무한 느낌 등의 정도	3
		2-1-2	불안감 최근 일주일간 신경예민 및 마음안정 안됨/이유 없이 불안함/긴장/심장이 마구 뛴 등의 정도	4
		2-1-3	적대감 최근 일주일간 울화가 치밀/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부수고 싶은 충동,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짐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내포하는 사고, 감정 및 행동 등의 정도	4
		2-1-4	스트레스 부모, 형제자매, 외모, 건강, 경제, 친구, 이성, 선·후배, 선생님 관계, 진로, 학업문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11
		2-1-5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정도	10
		2-1-6	자기효능감 자신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신념의 정도	3
		2-1-7	정서조절 부적 정서 체험 후에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정도	3
		2-1-8	낙관주의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긍정적이며, 희망적으로 보고, 또 통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의 정도	3
	2-2 가족영역	2-2-1	부모의 지원 정서, 정보, 경제적 지원의 정도	14
		2-2-2	가족관계 질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감이나 친밀의 정도	5
	2-3 지역사회 영역	2-3-1	지역사회 지원 가족, 친구, 선생님 이외에 지역사회의 돌봄과 지원의 정도	3
		2-3-2	지역사회 상호작용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3
	2-4 학교영역	2-4-1	학교수업 학업에 대한 유능감을 갖고 있는 정도	3
		2-4-2	교사관계 교사와의 긍정적인 태도와 친밀한 교류를 하는 정도	3
		2-4-3	친구관계 친구와 긍정적인 교류를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	3
		2-4-4	학교생활 학교시설과 물건을 아끼고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는 정도	3

2. 청소년 안전(보호)지표 체계

<표 II-2>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영역에 대한 지표 체계

관심 영역	세부영역	고유 번호	지표항목	문항수	
1 안전	1-1 사고 경험	1-1-1	최근 1년 동안 사고유형별 사고경험 여부	1(9)	
		1-1-2	최근 1년 동안 사고유형별 경험한 사고의 치료 여부	1(9)	
		1-1-3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사고 발생장소	1	
		1-1-4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사고로 인해 다친 부위	1	
	1-2 안전 행동	화재 안전 행동	1-2-1	비상문 위치 확인 정도	1
			1-2-2	소화기 위치 확인 정도	1
		가정 안전 행동	1-2-3	전기제품이나 콘센트 만질 때 물 묻은 손 확인 정도	1
			1-2-4	가스 사용 후 (중간)밸브 잠금 정도	1
			1-2-5	가스/전열기구 사용 중 자리 비우지 않는 정도	1
			1-2-6	유독물질 눈/피부 접촉 시 물로 씻어내는 정도	1
			1-2-7	날카로운 기구나 공구 제자리 정돈 정도	1
			1-2-8	약품 사용 시 제품 확인 정도	1
			1-2-9	높은 가구 위 물건 정리 및 전구 교체 시 안전한 의자 이용 정도	1
		교통 안전 행동	1-2-10	자전거 타기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	1
			1-2-11	자전거 탈 때 주변 살핌 정도	1
			1-2-12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길 건너릴 때 자전거 밀고 건너는 정도	1
			1-2-13	길 건너릴 때 횡단보도나 육교 이용 정도	1
			1-2-14	횡단보도 건너릴 때 차 멈춤 확인 정도	1
			1-2-15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승하차하는 정도	1
			1-2-16	하차 시 주변 살핌 정도	1
			1-2-17	자동차 승차 시 안전벨트 착용하는 정도	1
		학교 안전 행동	1-2-18	실험/실습시간에 약품이나 기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정도	1
			1-2-19	복도와 계단에서 뛰지 않는 정도	1
		운동/ 놀이 안전 행동	1-2-20	수영장이나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요원 보이는 곳에서 수영하는 정도	1
	1-2-21		운동 전 준비운동 정도	1	
	1-2-22		운동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	1	
1-2-23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 정도		1		
식품 안전 행동	1-2-24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정도	1		
	1-2-25	식품 구입 시 포장지의 유통기간 확인 정도	1		
	1-2-26	유효기간 지난 음식 먹지 않는 정도	1		

2 보 호	1-3 안전 환경		1-3-1	가정의 위험요소 존재여부	1(10)	
			1-3-2	학교의 위험요소 존재여부	1(10)	
			1-3-3	부모의 안전에 대한 관심 정도	1	
			1-3-4	부모의 안전에 대한 가르침 정도	1	
			1-3-5	학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정도	1	
			1-3-6	학교 교사의 안전에 대한 관심 정도	1	
			1-3-7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안전교육 수혜여부 및 교육내용	1	
	2-1 위험 행동 경험	폭력		2-1-1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 경험빈도	1(5)
				2-1-2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 경험장소	1
				2-1-3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로 인한 병원치료 여부 및 기간	1
				2-1-4	최근 1년 동안 폭력 가해 경험빈도	1(5)
				2-1-5	최근 1년 동안 폭력 가해 경험장소	1
				2-1-6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부당한 폭력(신체적 체벌, 심한 욕설) 피해 경험빈도	1(2)
				2-1-7	최근 1년 동안 교사로부터 부당한 폭력(신체적 체벌, 심한 욕설) 피해 경험빈도	1(2)
				2-1-8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방임 경험빈도	초등1
		가출		2-1-9	청소년 보호시설 인지여부	1(3)
				2-1-10	최근 1년 동안 가출 경험여부 및 횟수	1
				2-1-11	최근 1년 동안 평균 가출한 기간	1
				2-1-12	최근 1년 동안 가출 중 주로 잠을 잔 곳	1
				2-1-13	최근 1년 동안 가출 중 피해여부	1
				2-1-14	최근 1년 동안 가출 중 경험한 피해 유형	1
				2-1-15	최근 1년 동안 무단결석 여부 및 일수	1
		성		2-1-16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경험여부	1
				2-1-17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유형	1
				2-1-18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입힌 상대	1
				2-1-19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이후 치료 여부	1
				2-1-20	성폭력 피해 후 도움 줄 수 있는 기관 및 방법 인지 여부	1
		유해 매체		2-1-21	최근 한 달 동안 유해매체 이용 빈도	1(9)
				2-1-22	최근 한 달 동안 게임아이템 실제거래 경험빈도	1
				2-1-23	최근 한 달 동안 타인의 정보도용 경험여부	1
		유해 약물		2-1-24	최근 한 달 동안 음주여부 및 빈도	1
				2-1-25	최근 한 달 동안 음주장소	1
				2-1-26	최근 한 달 동안 흡연여부 및 빈도	1
				2-1-27	최근 한 달 동안 흡연장소	1
				2-1-28	최근 한 달 동안 흡입제 경험여부 및 빈도	1
				2-1-29	최근 한 달 동안 흡입제 경험장소	1
				2-1-30	최근 한 달 동안 환각 목적으로 약, 진통제 사용여부 및 빈도	1
		유해 업소		2-1-3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 경험여부 및 빈도	중등1(7)
				2-1-32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경험여부	중등1

2 보호	2-2 보호 행동	폭력 (성폭 력)	2-2-1	위험한 곳 피해 다니는 정도	1
			2-2-2	필요한 만큼만 돈 가지고 다니는 정도	1
			2-2-3	위험 상황 대비 호신용 도구 가지고 다니는 정도	1
			2-2-4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는 정도	1
			2-2-5	폭력 사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1
		가출	2-2-6	고민이 있을 때 주위에 도움 청하는 정도	1
			2-2-7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1
			2-2-8	가출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1
		유해 매체	2-2-9	유해매체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1
			2-2-10	유해매체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1
		유해 약물	2-2-11	유해약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1
			2-2-12	유해약물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1
		유해 업소	2-2-13	유해업소 근처 피해 다니는 정도	중등1
			2-2-14	유해업소 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중등1
			2-2-15	유해업소 출입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중등1
	2-3 보호 환경	가족	2-3-1	현재 집에 인터넷사용제한 프로그램 설치여부	1
			2-3-2	부모님 음주여부 및 빈도	1(2)
			2-3-3	부모님 흡연여부 및 빈도	1
			2-3-4	하교 후 집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	1
			2-3-5	현재 가정생활의 만족도	1
			2-3-6	청소년 위험행동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데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	1
		친구	2-3-7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 정도	1
			2-3-8	친한 친구들의 친사회적 기대	1
			2-3-9	최근 한 달 동안 친한 친구들의 음주여부 및 빈도	1
			2-3-10	최근 한 달 동안 친한 친구들의 흡연여부 및 빈도	1
		학교	2-3-11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학교의 노력 정도	1
			2-3-12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교사의 노력 정도	1
			2-3-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교육 수행여부	1(초등5) 1(중등6)
			2-3-14	학교주변 위험정도	1
			2-3-15	학교생활의 만족도	1
			2-3-16	학교폭력 발생횟수	*
			2-3-17	학교폭력 예방교육횟수	*
			2-3-18	학교상담프로그램횟수	*
			2-3-19	학업중단학생수	*
		지역 사회	2-3-20	집주변 위험정도	1
			2-3-21	집주변 유해업소 실태	중등1
			2-3-22	집주변 친사회적 시설 실태	중등1

			2-3-23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어른의 노력 정도	1
			2-3-24	최근 한 달 동안 술, 담배 구매 시 판매인의 신분증 확인여부	1
			2-3-25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시 업소주인 신분증 확인여부	중등1
			2-3-26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 시 신분증 확인여부	중등1

*학교알리미: 학교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해서 조사되는 지표로 설문 문항에는 포함되지 않음

Ⅲ. 조사결과

1. 청소년 건강(신체/심리)지표 조사 결과
2. 청소년 안전(보호)지표 조사 결과

III.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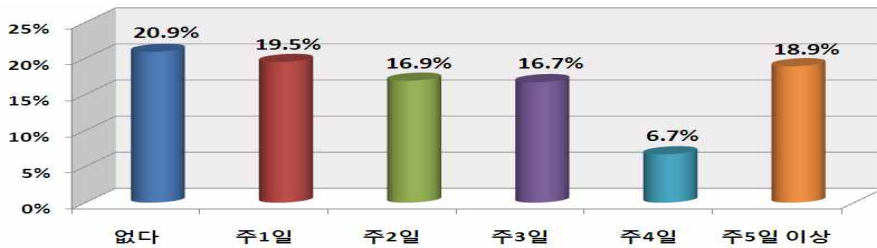
1. 청소년 건강(신체/심리)지표 조사 결과

1) 신체건강

1-1 신체활동

1-1-1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에 대해 ‘없다(20.9%)’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 1일(19.5%)’, ‘주 5일 이상(18.9%)’ 순으로 나타남
특히 남학생(10%)보다는 여학생(32.4%)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신체활동 일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

<표 III-1>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없다	주1일	주2일	주3일	주4일	주5일 이상	무응답
전체		100(9,844)	20.9	19.5	16.9	16.7	6.7	18.9	0.4
성별	남자	100(5,061)	10.0	16.5	17.2	19.6	9.2	27.2	0.3
	여자	100(4,783)	32.4	22.7	16.5	13.7	4.0	10.2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9	17.3	14.4	19.0	10.2	31.8	0.5
	중학교	100(3,254)	20.6	18.1	17.1	18.7	6.9	18.3	0.3
	고등학교	100(3,933)	30.5	22.2	18.4	13.5	4.2	10.8	0.4
거주지	서울	100(1,552)	16.9	18.8	18.2	18.8	6.8	20.0	0.5
	광역시	100(3,194)	22.3	20.4	17.3	16.3	6.6	16.9	0.2
	시·군	100(5,098)	21.1	19.2	16.2	16.4	6.7	19.8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20.7	19.2	17.3	16.9	6.6	19.0	0.4
	한부모가정	100(952)	24.6	22.1	16.9	14.4	6.8	14.9	0.3
	조손가정	100(163)	18.4	23.3	11.7	18.4	5.5	20.9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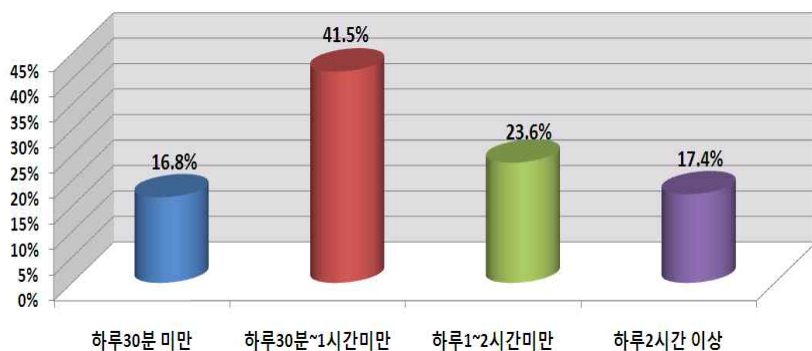
주 1) 표 내용의 단위는 %임. 이하 동일, 2) 무응답은 그림에서 표기를 제외함. 이하 동일

1-1-2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걷기 시간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걷기 시간’은
‘하루 30분~1시간 미만(41.5%)’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하루1~2시간 미만(23.6%)’, ‘하루 2시간 이상(17.4%)’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걷기 시간을 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1.5%가 하루 30분~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의 걷기 시간이 더 길었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 갈수록 걷기 시간이 점차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걷기 시간

<표 III-2>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걷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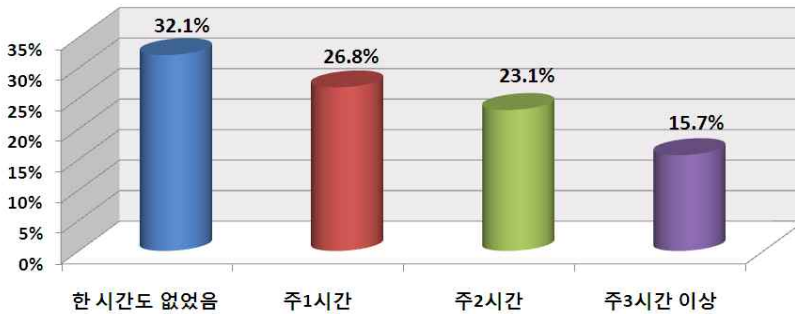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하루30분 미만	하루30분~1시간미만	하루1~2시간 미만	하루2시간 이상	무응답
전체		100(9,844)	16.8	41.5	23.6	17.4	0.9
성별	남자	100(5,061)	13.3	39.6	26.2	20.1	0.8
	여자	100(4,783)	20.4	43.4	20.8	14.5	0.9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12.2	34.6	28.2	23.3	1.7
	중학교	100(3,254)	13.3	42.3	24.2	19.5	0.7
	고등학교	100(3,933)	22.7	45.4	19.9	11.6	0.5
거주지	서울	100(1,552)	12.9	41.2	24.3	20.3	1.4
	광역시	100(3,194)	17.8	41.2	23.0	17.4	0.6
	시·군	100(5,098)	17.3	41.7	23.7	16.4	0.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6.4	42.2	23.6	17.0	0.8
	한부모가정	100(952)	19.3	38.7	24.3	17.0	0.7
	조손가정	100(163)	20.2	35.0	20.2	19.6	4.9

1-1-3 최근 일주일간 체육시간 활용 신체활동 시간

**‘최근 일주일간 체육시간 활용 신체활동 시간’에 있어서
‘한 시간도 없었음(32.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 1시간(26.8%)’, ‘주 2시간(23.1%)’ 순으로 나타남**

○ 일주일간 체육시간을 활용한 신체활동 시간을 보면, 응답자의 32.1%가 한 시간도 없었음이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의 경우 거의 절반(43.2%)에 가까운 학생들이 한 시간도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 최근 일주일간 체육시간활용 신체활동 시간

<표 III-3> 최근 일주일간 체육시간활용 신체활동 시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한 시간도 없었음	주1시간	주2시간	주3시간 이상	무응답
전체		100(9,844)	32.1	26.8	23.1	15.7	2.3
성별	남자	100(5,061)	21.6	27.4	27.8	20.9	2.3
	여자	100(4,783)	43.2	26.2	18.2	10.1	2.4
교육급별	초등학교	100(2,657)	15.9	36.6	24.4	18.5	4.6
	중학교	100(3,254)	30.9	23.8	20.4	23.3	1.7
	고등학교	100(3,933)	44.1	22.6	24.5	7.4	1.3
거주지	서울	100(1,552)	29.8	24.0	27.2	16.2	2.8
	광역시	100(3,194)	31.1	27.7	24.7	14.2	2.2
	시·군	100(5,098)	33.4	27.0	20.9	16.4	2.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1.8	26.0	23.8	16.2	2.2
	한부모가정	100(952)	37.2	31.1	18.9	10.6	2.2
	조손가정	100(163)	31.9	33.7	18.4	8.6	7.4

1-1-4 학생들의 평균 키와 평균 몸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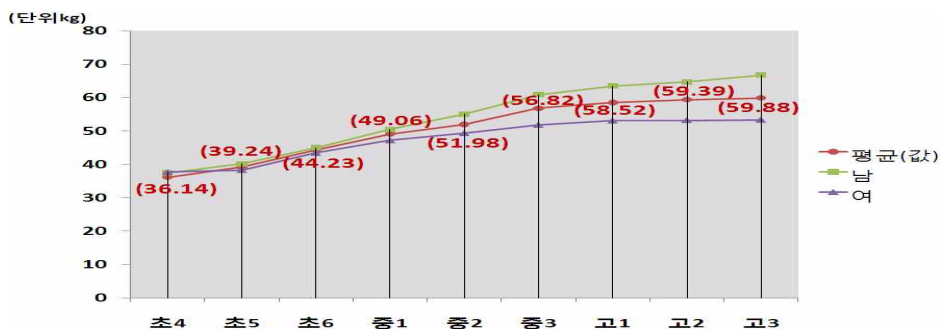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의 평균키는 146.06cm, 평균 몸무게는 39.92kg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의 평균키는 161.98cm, 평균 몸무게는 52.59kg로 나타남.
고등학생의 평균키는 167.58cm, 평균 몸무게는 59.24kg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평균 키와 평균 몸무게에 대한 성별 비교결과 평균 몸무게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에서 성별 차이가 줄어들기는 하나 학년의 증가와 관계없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무거웠다

○ 평균키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키가 더 컸으며,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키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학년별, 성별 평균 키



[그림 III-5] 학년별, 성별 평균 몸무게

<표 III-4> 평균 키와 평균 몸무게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키(cm)	몸무게(kg)
전체		100(9,844)	159.98	51.81
성별	남자	100(5,061)	163.30	55.35
	여자	100(4,783)	156.47	47.99
교육별	초등학교	100(2,657)	146.06	39.92
	중학교	100(3,254)	161.98	52.59
	고등학교	100(3,933)	167.58	59.24
거주지	서울	100(1,552)	160.72	52.47
	광역시	100(3,194)	161.09	52.95
	시·군	100(5,098)	159.07	50.9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60.00	51.74
	한부모가정	100(952)	161.85	54.29
	조손가정	100(163)	157.98	50.87

<표 III-5> 학년별, 성별 평균 키와 평균 몸무게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키(cm)	몸무게(kg)
초등학교 4학년	남자	100(445)	141.33	37.48
	여자	100(425)	140.28	34.74
초등학교 5학년	남자	100(444)	144.99	40.16
	여자	100(442)	145.60	38.31
초등학교 6학년	남자	100(456)	151.37	45.01
	여자	100(445)	152.18	43.43
중학교 1학년	남자	100(625)	158.94	50.42
	여자	100(457)	157.24	47.18
중학교 2학년	남자	100(501)	165.42	55.02
	여자	100(594)	158.97	49.34
중학교 3학년	남자	100(586)	170.13	60.87
	여자	100(491)	160.69	51.77
고등학교 1학년	남자	100(707)	172.85	63.46
	여자	100(667)	161.45	53.06
고등학교 2학년	남자	100(694)	173.19	64.67
	여자	100(607)	161.35	53.18
고등학교 3학년	남자	100(602)	174.49	66.75
	여자	100(656)	161.45	5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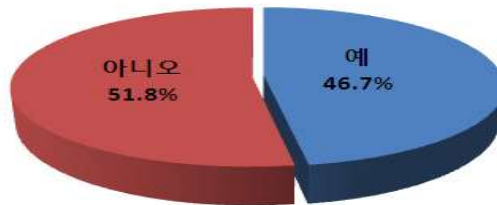
1-2 비만 및 체중조절

1-2-2 최근 1년간 체중감소 시도 여부

**‘최근 1년간 체중감소 시도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6.7%가 그렇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체중감소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전체 응답자 중 46.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의 경우 59.1%가 체중감소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들의 응답결과(34.9%)와는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체중감소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 최근 1년간 체중감소 시도 여부

<표 III-6> 최근 1년간 체중감소 시도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예	아니오	무응답	χ^2
전체		100(9,844)	46.7	51.8	1.5	
성별	남자	100(5,061)	34.9	63.2	1.9	570.602***
	여자	100(4,783)	59.1	39.7	1.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1.7	55.9	2.3	44.677***
	중학교	100(3,254)	45.8	52.2	1.9	
	고등학교	100(3,933)	50.8	48.6	0.7	
거주지	서울	100(1,552)	48.5	50.3	1.2	3.664
	광역시	100(3,194)	45.5	52.9	1.6	
	시·군	100(5,098)	46.9	51.5	1.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46.5	52.0	1.5	5.609
	한부모가정	100(952)	48.8	50.1	1.1	
	조손가정	100(163)	52.8	44.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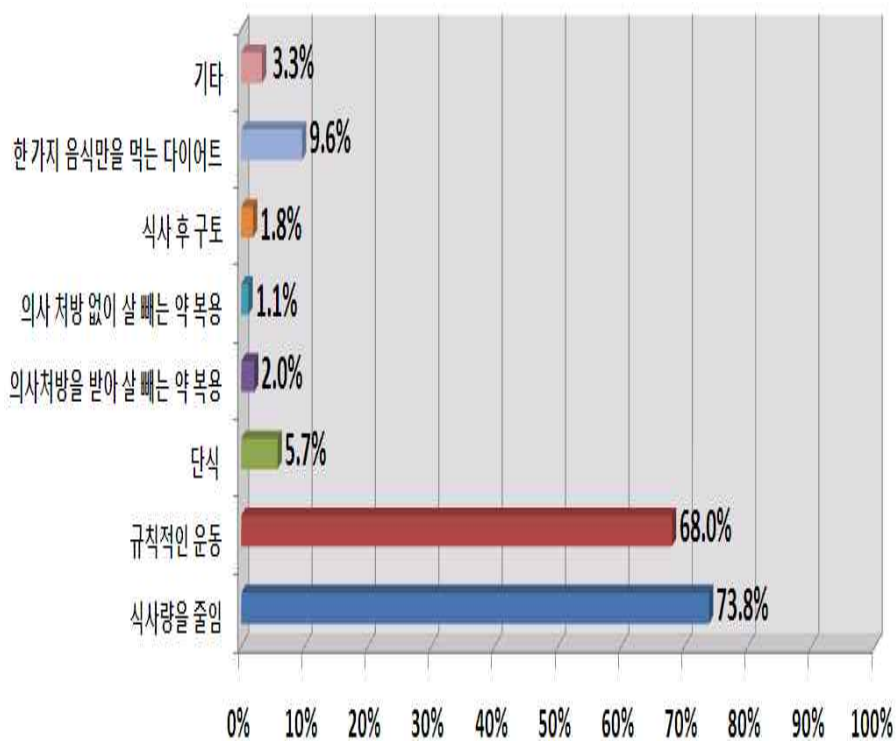
*** $p < .001$

1-2-3 최근 1년간 시도했던 체중 감소 방법

**‘식사량을 줄임(73.8%)’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규칙적인 운동(68.0%)’, ‘원푸드 다이어트(9.6%)’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시도했던 체중 감소 방법을 보면, ‘식사량을 줄임(73.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규칙적인 운동(68.0%)’으로 나타나 비교적 바람직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비록 소수 응답이기는 하나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인 식사 후 구토를 하는 경우나, 의사처방 없이 살 빼는 약을 먹는 경우도 각각 1.8%, 1.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림 III-7] 최근 1년간 시도했던 체중 감소 방법

<표 III-7> 최근 1년간 시도했던 체중 감소 방법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식사량을 줄임	규칙적인 운동	단식(24시간이상 굶는 경우)	의사처방 받아 약 복용
전체		100(9,844)	73.8	68.0	5.7	2.0
성별	남자	100(5,061)	64.3	74.9	4.2	2.0
	여자	100(4,783)	79.8	63.7	6.7	2.1
교육별	초등학교	100(2,657)	59.8	79.9	2.3	2.2
	중학교	100(3,254)	70.9	68.1	5.5	2.3
	고등학교	100(3,933)	83.9	61.3	7.8	1.8
거주지	서울	100(1,552)	72.4	72.9	5.2	2.0
	광역시	100(3,194)	72.5	66.6	5.5	1.9
	시·군	100(5,098)	75.1	67.3	6.0	2.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73.9	68.5	5.3	1.9
	한부모가정	100(952)	77.8	63.4	8.4	2.4
	조손가정	100(163)	72.1	69.8	4.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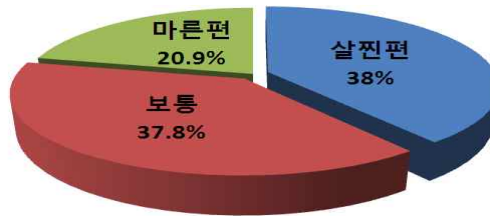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의사처방 없이 약복용	식사 후 구토	원푸드 다이어트	기타	무응답
전체		1.1	1.8	9.6	3.3	2.6
성별	남자	0.7	1.2	7.8	2.4	4.1
	여자	1.4	2.2	10.7	3.8	1.6
교육별	초등학교	0.8	1.3	11.0	3.8	3.1
	중학교	0.9	1.3	6.6	3.6	3.0
	고등학교	1.5	2.6	11.0	2.8	2.0
거주지	서울	1.2	1.6	9.8	2.9	3.2
	광역시	1.4	1.7	9.1	3.4	2.6
	시·군	1.0	2.1	9.8	3.3	2.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1	1.5	8.9	3.3	2.6
	한부모가정	1.5	4.3	14.0	3.4	1.7
	조손가정	0.0	1.2	14.0	1.2	3.5

1-2-4 자신의 체형(몸매)에 대한 주관적 인식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살찐 편이다’ 라는 응답은 38%, ‘마른 편이다’ 라는 응답은 20.9%로 나타남**

○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보면, ‘살찐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8%, ‘마른 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9%,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37.8%로 나타났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들(45.7%)의 경우 남학생들(30.8%)보다 자신의 체형을 좀 더 살찐 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자신을 좀 더 살찐 체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8] 자신의 체형(몸매)에 대한 주관적 인식

<표 III-8> 자신의 체형(몸매)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마른 편임	마른 편임	적당함	살이 찐 편임	매우 살이 찐 편임	무응답
전체		100(9,844)	4.0	16.9	37.8	33.6	4.4	3.3
성별	남자	100(5,061)	5.8	21.6	38.2	27.4	3.4	3.6
	여자	100(4,783)	2.0	12.0	37.3	40.1	5.6	3.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0	17.4	44.0	26.6	3.4	4.6
	중학교	100(3,254)	3.4	17.8	37.6	33.8	4.0	3.4
	고등학교	100(3,933)	4.3	15.9	33.8	38.1	5.5	2.4
거주지	서울	100(1,552)	3.7	16.9	38.6	31.3	5.5	4.1
	광역시	100(3,194)	4.0	17.0	38.2	32.8	4.5	3.5
	시·군	100(5,098)	4.0	16.9	37.3	34.8	4.1	3.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9	17.0	38.1	33.5	4.2	3.3
	한부모가정	100(952)	4.0	15.2	34.0	37.5	6.3	2.9
	조손가정	100(163)	1.2	22.1	34.4	31.3	5.5	5.5

1-2-5 자신의 체형(몸매)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한다’의 응답률은 40.7%, ‘불만족한다’의 응답률은 57.6%로 나타남**

○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의 응답률은 40.7%, ‘불만족한다’의 응답률은 57.6%로 나타났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들(32.6%)보다 남학생들(48.4%)의 경우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나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 III-9] 자신의 체형(몸매)에 대한 만족도

<표 III-9> 자신의 체형(몸매)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만족하지 못함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무응답
전체		100(9,844)	11.5	46.2	34.3	6.4	1.7
성별	남자	100(5,061)	7.3	42.4	40.3	8.1	2.0
	여자	100(4,783)	16.0	50.1	28.0	4.6	1.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5.5	29.5	49.2	12.3	3.4
	중학교	100(3,254)	9.8	49.2	34.2	5.6	1.2
	고등학교	100(3,933)	16.9	54.8	24.4	3.0	0.9
거주지	서울	100(1,552)	12.2	47.4	31.4	6.9	2.1
	광역시	100(3,194)	12.2	45.6	35.0	5.6	1.6
	시·군	100(5,098)	10.8	46.1	34.7	6.7	1.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1.2	46.4	34.6	6.2	1.5
	한부모가정	100(952)	14.8	48.9	28.7	5.7	1.9
	조손가정	100(163)	11.0	44.8	33.1	9.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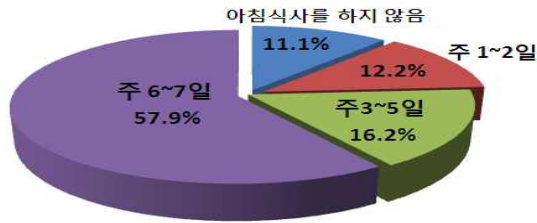
1-3 영양 및 식습관

1-3-1 최근 일주일간 아침식사 일 수

‘최근 일주일간 아침식사 일 수’는 ‘주 6~7일(57.9%)’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주 3~5일(16.2%)’, ‘주 1~2일(12.2%)’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최근 일주일간 아침식사 일수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9%가 ‘주 6~7일’에 응답하였다.

-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성에서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일수록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나 거주지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 III-10] 최근 일주일간 아침식사 일 수

<표 III-10> 최근 일주일간 아침식사 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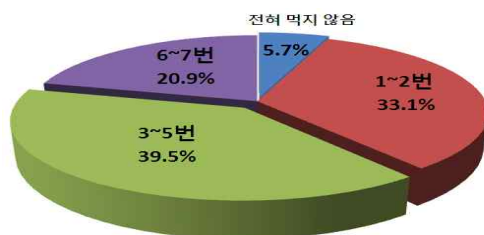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음	주1~2일	주3~5일	주6~7일	무응답
전체		100(9,844)	11.1	12.2	16.2	57.9	2.6
성별	남자	100(5,061)	11.1	11.4	15.7	58.6	3.2
	여자	100(4,783)	11.1	13.1	16.6	57.1	2.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5.8	10.7	13.6	64.1	5.8
	중학교	100(3,254)	10.5	12.7	16.1	58.8	1.9
	고등학교	100(3,933)	15.2	12.8	17.9	53.0	1.1
거주지	서울	100(1,552)	11.9	12.4	18.0	55.5	2.3
	광역시	100(3,194)	10.6	12.2	16.0	58.8	2.4
	시·군	100(5,098)	11.2	12.1	15.7	58.1	2.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9.7	11.1	16.2	60.5	2.4
	한부모가정	100(952)	20.2	19.5	16.7	41.5	2.1
	조손가정	100(163)	20.2	13.5	12.3	47.9	6.1

1-3-2-① 최근 일주일간 건강 유익/유해 식품 섭취 빈도 - 과일

‘최근 일주일간 과일섭취 빈도’는 ‘주 3~5번(39.5%)’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주 1~2번(33.1%)’, ‘주 6~7번(20.9%)’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최근 일주일간 과일섭취 빈도를 보면, ‘주 3~5번(39.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 1~2번(33.1%)’ ‘주 6~7번(20.9%)’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분석결과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일주일간 과일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성이 양부모 가정일 때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보다 과일섭취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1] 최근 일주일간 과일 섭취 빈도

<표 III-11> 최근 일주일간 과일 섭취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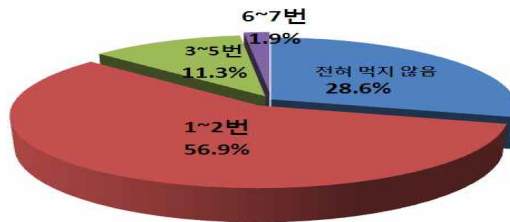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5번	1주일에 6~7번	무응답
전체		100(9,844)	5.7	33.1	39.5	20.9	0.8
성별	남자	100(5,061)	6.5	35.7	38.6	18.1	1.0
	여자	100(4,783)	4.8	30.3	40.4	23.9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5	26.9	41.1	27.4	1.1
	중학교	100(3,254)	5.8	31.0	42.0	20.4	0.8
	고등학교	100(3,933)	7.1	39.0	36.3	17.0	0.6
거주지	서울	100(1,552)	5.2	29.3	38.9	25.9	0.7
	광역시	100(3,194)	6.7	33.5	38.8	20.3	0.7
	시·군	100(5,098)	5.2	34.0	40.1	19.8	0.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5.1	32.1	40.3	21.9	0.7
	한부모가정	100(952)	10.4	39.3	36.3	12.5	1.5
	조손가정	100(163)	8.0	37.4	41.7	11.7	1.2

1-3-2-② 최근 일주일간 건강 유익/유해 식품 섭취 빈도 - 탄산음료

‘최근 일주일간 탄산음료 섭취 빈도’는 ‘주 1~2번(56.9%)’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전혀 먹지 않음(28.6%)’, ‘주 3~5번(11.3%)’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최근 일주일간 탄산음료 섭취 빈도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9%가 일주일에 1~2번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분석결과를 보면,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탄산음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탄산음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2] 최근 일주일간 탄산음료 섭취 빈도

<표 III-12> 최근 일주일간 탄산음료 섭취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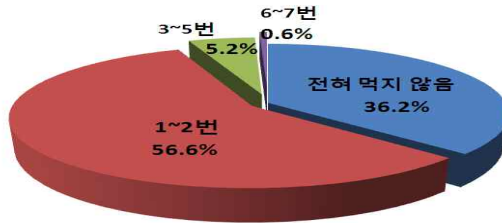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5번	1주일에 6~7번	무응답
전체		100(9,844)	28.6	56.9	11.3	1.9	1.2
성별	남자	100(5,061)	23.6	58.3	13.9	2.6	1.6
	여자	100(4,783)	34.0	55.5	8.6	1.2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0.4	59.2	7.2	0.9	2.2
	중학교	100(3,254)	27.9	56.1	13.1	2.2	0.8
	고등학교	100(3,933)	27.9	56.1	12.7	2.4	0.8
거주지	서울	100(1,552)	28.1	56.0	12.3	2.7	0.9
	광역시	100(3,194)	29.2	56.1	12.0	1.8	1.0
	시·군	100(5,098)	28.4	57.7	10.7	1.8	1.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28.7	57.5	11.2	1.7	0.9
	한부모가정	100(952)	27.7	54.3	13.0	2.6	2.3
	조손가정	100(163)	27.6	53.4	11.7	5.5	1.8

1-3-2-③ 최근 일주일간 건강 유익/유해 식품 섭취 빈도 - 패스트푸드

‘최근 일주일간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는 ‘주 1~2번(56.6%)’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전혀 먹지 않음(36.2%)’, ‘주 3~5번(5.2%)’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최근 일주일간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6.6%가 ‘일주일에 1~2번’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전혀 먹지 않음(36.2%)’, ‘일주일에 3~5번(5.2%)’, ‘일주일에 6~7번(0.6%)’ 순으로 나타났다.

- 교급별로 보면, 대체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최근 1주일간 패스트푸드를 전혀 먹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졌으며,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섭취빈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13] 최근 일주일간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표 III-13> 최근 일주일간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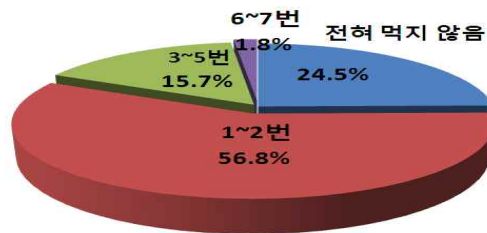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5번	1주일에 6~7번	무응답
전체		100(9,844)	36.2	56.6	5.2	0.6	1.4
성별	남자	100(5,061)	34.1	57.3	5.9	0.8	1.8
	여자	100(4,783)	38.3	55.9	4.4	0.4	1.0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0.2	53.4	3.5	0.6	2.3
	중학교	100(3,254)	36.6	56.9	4.7	0.5	1.3
	고등학교	100(3,933)	33.1	58.5	6.7	0.7	0.9
거주지	서울	100(1,552)	36.7	55.5	6.0	1.0	0.9
	광역시	100(3,194)	37.0	55.7	5.3	0.6	1.4
	시·군	100(5,098)	35.5	57.5	4.9	0.5	1.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6.0	57.2	5.0	0.6	1.2
	한부모가정	100(952)	38.1	52.8	6.5	0.4	2.1
	조손가정	100(163)	33.7	57.1	4.9	1.8	2.5

1-3-2-④ 최근 일주일간 건강 유익/유해 식품 섭취 빈도 - (컵)라면

‘최근 일주일간 라면/컵라면 섭취 빈도’는 ‘주 1~2번(56.8%)’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전혀 먹지 않음(24.5%)’, ‘주 3~5번(15.7%)’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최근 일주일간 라면/컵라면 섭취빈도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8%가 ‘일주일에 1~2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전혀 먹지 않음(24.5%)’, ‘일주일에 3~5번(15.7%)’, ‘일주일에 6~7번(1.8%)’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분석결과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의 라면 섭취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별, 가족구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 III-14] 최근 일주일간 라면 / 컵라면 섭취 빈도

<표 III-14> 최근 일주일간 라면 / 컵라면 섭취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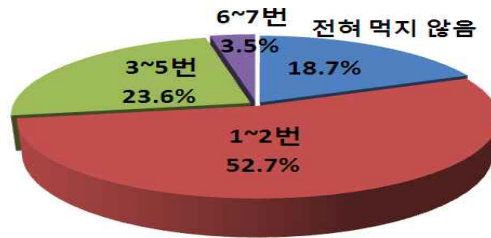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5번	1주일에 6~7번	무응답
전체		100(9,844)	24.5	56.8	15.7	1.8	1.2
성별	남자	100(5,061)	19.9	56.7	19.6	2.4	1.5
	여자	100(4,783)	29.4	57.0	11.7	1.2	0.8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6.5	59.1	11.1	1.1	2.3
	중학교	100(3,254)	20.8	57.4	19.3	1.7	0.8
	고등학교	100(3,933)	26.1	54.9	16.0	2.3	0.7
거주지	서울	100(1,552)	26.7	56.0	14.6	1.9	0.8
	광역시	100(3,194)	24.3	56.8	15.7	2.2	1.1
	시·군	100(5,098)	23.9	57.1	16.1	1.5	1.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24.6	57.6	15.3	1.5	1.0
	한부모가정	100(952)	23.5	52.5	19.4	2.9	1.6
	조손가정	100(163)	24.5	54.0	16.0	4.3	1.2

1-3-2-⑤ 최근 일주일간 건강 유익/유해 식품 섭취 빈도 - 과자

‘최근 일주일간 과자 섭취 빈도’는 ‘주 1~2번(52.7%)’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주 3~5번(23.6%)’, ‘전혀 먹지 않음(18.7%)’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최근 일주일간 과자 섭취 빈도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2.7%가 ‘일주일에 1~2번’ 과자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의 과자 섭취 빈도가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 보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과자 섭취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5] 최근 일주일간 과자 섭취 빈도

<표 III-15> 최근 일주일간 과자 섭취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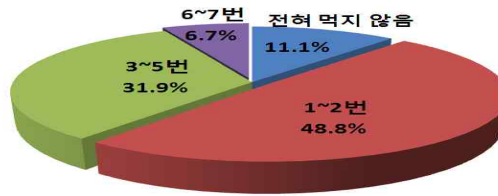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5번	1주일에 6~7번	무응답
전체		100(9,844)	18.7	52.7	23.6	3.5	1.5
성별	남자	100(5,061)	19.5	53.1	22.5	3.1	1.9
	여자	100(4,783)	17.9	52.3	24.8	3.9	1.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0.5	56.2	18.6	2.0	2.6
	중학교	100(3,254)	19.0	51.4	24.2	4.1	1.3
	고등학교	100(3,933)	17.3	51.5	26.5	4.0	0.8
거주지	서울	100(1,552)	21.6	51.4	22.2	3.2	1.6
	광역시	100(3,194)	17.7	53.4	23.4	4.1	1.3
	시·군	100(5,098)	18.5	52.7	24.2	3.1	1.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8.5	52.8	24.0	3.5	1.2
	한부모가정	100(952)	20.5	51.5	22.3	3.9	1.9
	조손가정	100(163)	20.2	51.5	22.7	2.5	3.1

1-3-2-⑥ 최근 일주일간 건강 유익/유해 식품 섭취 빈도 - 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

**‘최근 일주일간 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 섭취 빈도’는
‘주 1~2번(48.8%)’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주 3~5번(31.9%)’ 순으로 나타남**

○ 최근 일주일간 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 섭취 빈도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8%가 ‘일주일에 1~2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3~5번(31.9%)’, ‘전혀 먹지 않음(11.1%)’, ‘일주일에 6~7번(6.7%)’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들의 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 섭취 빈도가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 보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섭취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6] 최근 일주일간 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 섭취 빈도

<표 III-16> 최근 일주일간 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 섭취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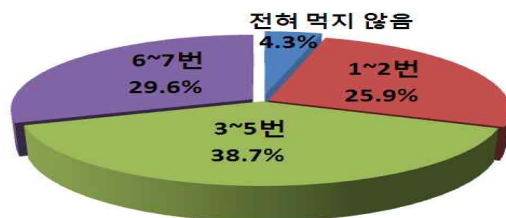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5번	1주일에 6~7번	무응답
전체		100(9,844)	11.1	48.8	31.9	6.7	1.5
성별	남자	100(5,061)	12.2	49.7	30.2	6.0	1.9
	여자	100(4,783)	9.9	47.8	33.7	7.4	1.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12.9	53.0	26.7	4.7	2.7
	중학교	100(3,254)	10.6	46.7	33.6	7.9	1.3
	고등학교	100(3,933)	10.3	47.6	33.9	7.2	0.9
거주지	서울	100(1,552)	11.8	47.7	31.3	7.9	1.4
	광역시	100(3,194)	11.0	49.2	32.5	6.0	1.4
	시·군	100(5,098)	10.9	48.9	31.7	6.8	1.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1.3	48.6	32.1	6.9	1.2
	한부모가정	100(952)	9.6	51.4	31.0	6.1	2.0
	조손가정	100(163)	11.7	50.9	29.4	4.9	3.1

1-3-2-⑦ 최근 일주일간 건강 유익/유해 식품 섭취 빈도 - 채소

‘최근 일주일간 채소 섭취 빈도’는 ‘주 3~5번(38.7%)’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주 6~7번(29.6%)’, ‘주 1~2번(25.9%)’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최근 일주일간 채소 섭취 빈도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38.7%가 ‘일주일에 3~5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6~7번(29.6%)’, ‘일주일에 1~2번(25.9%)’, ‘전혀 먹지 않음(4.3%)’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들의 채소 섭취율이 남학생들 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이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의 채소 섭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7] 최근 일주일간 채소 섭취 빈도

<표 III-17> 최근 일주일간 채소 섭취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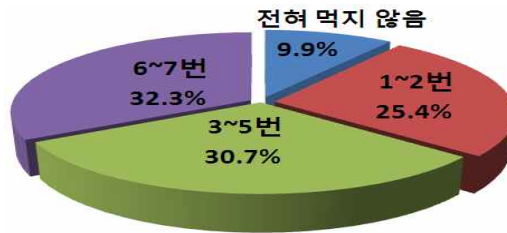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5번	1주일에 6~7번	무응답
전체		100(9,844)	4.3	25.9	38.7	29.6	1.5
성별	남자	100(5,061)	4.2	26.4	39.0	28.5	1.9
	여자	100(4,783)	4.4	25.4	38.4	30.7	1.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7	23.3	37.0	32.3	2.7
	중학교	100(3,254)	4.3	26.7	38.8	28.9	1.3
	고등학교	100(3,933)	4.1	27.0	39.7	28.3	0.9
거주지	서울	100(1,552)	4.4	24.3	41.8	28.1	1.4
	광역시	100(3,194)	4.7	27.1	38.2	28.6	1.5
	시·군	100(5,098)	4.1	25.7	38.1	30.6	1.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4.0	25.3	39.6	29.9	1.3
	한부모가정	100(952)	5.9	28.9	36.2	27.2	1.8
	조손가정	100(163)	7.4	33.7	30.7	25.2	3.1

1-3-2-⑧ 최근 일주일간 건강 유익/유해 식품 섭취 빈도 - 우유

‘최근 일주일간 우유 섭취 빈도’는 ‘주 6~7번(32.3%)’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주 3~5번(30.7%)’, ‘주 1~2번(25.4%)’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최근 일주일간 우유 섭취 빈도를 보면, ‘일주일에 6~7번(32.3%)’, ‘일주일에 3~5번(30.7%)’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의 우유 섭취 빈도가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우유 섭취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8] 최근 일주일간 우유 섭취 빈도

<표 III-18> 최근 일주일간 우유 섭취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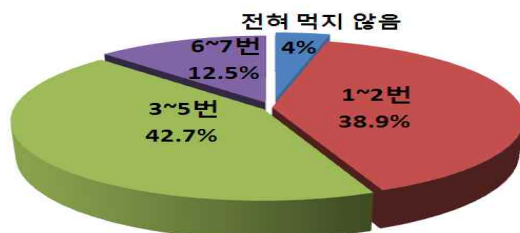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5번	1주일에 6~7번	무응답
전체		100(9,844)	9.9	25.4	30.7	32.3	1.8
성별	남자	100(5,061)	7.2	23.6	32.1	34.9	2.2
	여자	100(4,783)	12.7	27.3	29.2	29.5	1.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5.1	17.9	31.2	42.4	3.4
	중학교	100(3,254)	9.4	24.6	32.6	32.1	1.3
	고등학교	100(3,933)	13.5	31.2	28.7	25.6	1.0
거주지	서울	100(1,552)	9.9	27.7	30.2	30.9	1.4
	광역시	100(3,194)	10.6	27.8	29.8	30.2	1.6
	시·군	100(5,098)	9.5	23.2	31.3	34.0	2.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9.5	24.8	30.9	33.1	1.5
	한부모가정	100(952)	12.0	29.6	30.0	26.2	2.2
	조손가정	100(163)	9.2	31.3	27.0	29.4	3.1

1-3-2-⑨ 최근 일주일간 건강 유익/유해 식품 섭취 빈도 - 고기나 생선

‘최근 일주일간 고기나 생선 섭취 빈도’는 ‘주 3~5번(42.7%)’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주 1~2번(38.9%)’, ‘주 6~7번(12.5%)’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최근 일주일간 고기나 생선 섭취 빈도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7%가 ‘일주일에 3~5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고기나 생선 섭취 빈도가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고기나 생선 섭취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다른 가족 구성 청소년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19] 최근 일주일간 고기나 생선 섭취 빈도

<표 Ⅲ-19> 최근 일주일간 고기나 생선 섭취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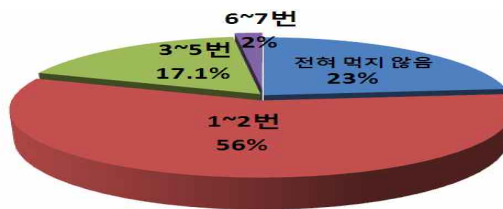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5번	1주일에 6~7번	무응답
전체		100(9,844)	4.0	38.9	42.7	12.5	1.8
성별	남자	100(5,061)	3.3	36.6	44.3	13.5	2.3
	여자	100(4,783)	4.6	41.4	41.1	11.5	1.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4	46.8	35.8	9.5	3.5
	중학교	100(3,254)	4.1	38.4	43.1	13.0	1.4
	고등학교	100(3,933)	3.5	34.1	47.1	14.2	1.1
거주지	서울	100(1,552)	3.2	37.2	43.8	14.0	1.7
	광역시	100(3,194)	4.2	38.3	42.3	13.7	1.6
	시·군	100(5,098)	4.0	39.9	42.7	11.4	2.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7	38.0	43.5	13.3	1.6
	한부모가정	100(952)	4.8	44.3	41.1	7.1	2.6
	조손가정	100(163)	7.4	50.3	27.6	11.7	3.1

1-3-2-⑩ 최근 일주일간 건강 유익/유해 식품 섭취 빈도 - 가공식품

‘최근 일주일간 가공식품 섭취 빈도’는 ‘주 1~2번(56.0%)’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전혀 먹지 않음(23.0%)’, ‘주 3~5번(17.1%)’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최근 일주일간 가공식품 섭취 빈도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가 ‘일주일에 1~2번’ 섭취한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대체로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의 가공식품 섭취 빈도가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가공식품 섭취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가공식품 섭취 빈도가 다른 가족구성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0] 최근 일주일간 가공식품 섭취 빈도

<표 III-20> 최근 일주일간 가공식품 섭취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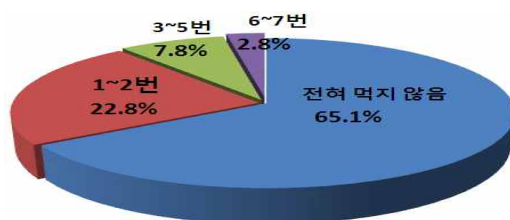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5번	1주일에 6~7번	무응답
전체		100(9,844)	23.0	56.0	17.1	2.0	1.8
성별	남자	100(5,061)	20.3	57.0	18.0	2.5	2.3
	여자	100(4,783)	25.9	55.1	16.1	1.5	1.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7.2	56.9	11.3	1.4	3.2
	중학교	100(3,254)	23.1	55.9	17.1	2.3	1.6
	고등학교	100(3,933)	20.2	55.6	21.0	2.3	1.0
거주지	서울	100(1,552)	24.4	55.0	17.2	1.7	1.7
	광역시	100(3,194)	20.5	57.9	17.8	2.2	1.7
	시·군	100(5,098)	24.2	55.2	16.6	2.0	1.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22.7	56.7	17.0	1.9	1.6
	한부모가정	100(952)	24.4	53.7	18.4	1.9	1.7
	조손가정	100(163)	23.3	50.9	17.8	4.3	3.7

1-3-2-⑪ 최근 일주일간 건강 유익/유해 식품 섭취 빈도 - 커피

‘최근 일주일간 커피 섭취 빈도’는 ‘전혀 먹지 않음(65.1%)’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주 1~2번(22.8%)’, ‘주 3~5번(7.8%)’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최근 일주일간 커피 섭취 빈도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5.1%가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1~2번(22.8%)’ 순으로 나타났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는 80.5%가 전혀 먹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나 고등학생은 절반에 가까운 학생(45.4%)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1] 최근 일주일간 커피 섭취 빈도

<표 III-21> 최근 일주일간 커피 섭취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5번	1주일에 6~7번	무응답
전체		100(9,844)	65.1	22.8	7.8	2.8	1.6
성별	남자	100(5,061)	65.7	22.0	7.3	2.9	2.0
	여자	100(4,783)	64.4	23.7	8.3	2.6	1.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80.5	12.9	2.7	1.1	2.9
	중학교	100(3,254)	65.2	24.2	6.9	2.5	1.3
	고등학교	100(3,933)	54.6	28.3	12.0	4.2	0.9
거주지	서울	100(1,552)	66.1	21.1	8.1	3.4	1.4
	광역시	100(3,194)	63.3	24.1	8.2	3.0	1.4
	시·군	100(5,098)	65.9	22.5	7.5	2.5	1.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65.3	22.6	8.0	2.7	1.4
	한부모가정	100(952)	64.0	25.0	6.8	2.7	1.5
	조손가정	100(163)	63.8	23.3	6.7	3.7	2.5

1-3-3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영양교육 경험 여부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2.8%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

○ 청소년들의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영양교육 경험 여부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8%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36.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62%)에서 중학교(37.1%) 및 고등학교(19.5%)로 올라 갈수록 학교에서 영양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아졌고, 광역시나 시/군 지역보다는 서울에서 영양 교육 경험 여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2]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영양교육 경험 여부

<표 III-22>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영양교육 경험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χ^2
전체		100(9,844)	36.8	62.8	0.4	
성별	남자	100(5,061)	37.1	62.3	0.6	0.663
	여자	100(4,783)	36.5	63.3	0.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2.0	37.6	0.4	1,235.886***
	중학교	100(3,254)	37.1	62.3	0.6	
	고등학교	100(3,933)	19.5	80.1	0.4	
거주지	서울	100(1,552)	43.2	56.4	0.5	32.310***
	광역시	100(3,194)	35.8	63.9	0.3	
	시·군	100(5,098)	35.5	64.0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7.4	62.2	0.4	24.000***
	한부모가정	100(952)	30.5	69.2	0.3	
	조손가정	100(163)	34.4	65.6	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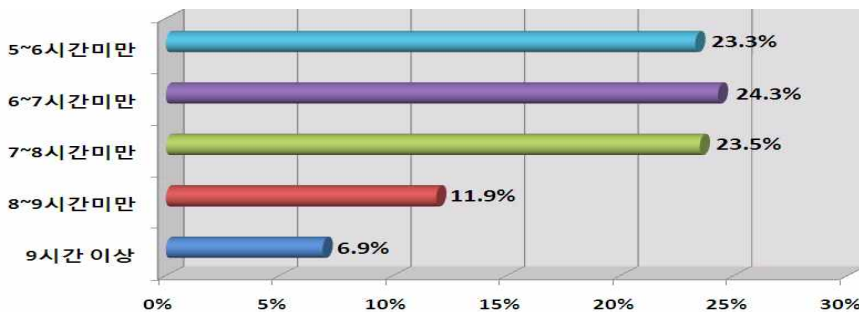
1-4 수면

1-4-1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7시간 미만(24.3%)’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7~8시간 미만(23.5%)’, ‘5~6시간 미만(23.3%)’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7시간 미만(24.3%)’이 가장 많았고, ‘7~8시간 미만(23.5%)’, ‘5~6시간 미만(23.3%)’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교급별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과반수 이상(56.9%)이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3]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표 III-23>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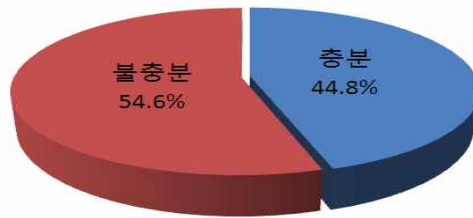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5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6~7시간 미만	7~8시간 미만	8~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무응답
전체		100(9,844)	9.8	23.3	24.3	23.5	11.9	6.9	0.2
성별	남자	100(5,061)	8.0	21.3	25.1	26.1	11.9	7.3	0.3
	여자	100(4,783)	11.6	25.5	23.5	20.8	11.9	6.6	0.2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4	6.4	13.6	31.9	27.1	17.2	0.4
	중학교	100(3,254)	5.2	18.1	30.1	31.4	10.2	4.8	0.2
	고등학교	100(3,933)	17.8	39.1	26.8	11.4	2.9	1.8	0.1
거주지	서울	100(1,552)	9.6	21.1	25.4	25.7	11.3	6.8	0.2
	광역시	100(3,194)	9.5	26.2	25.6	21.9	9.6	7.0	0.2
	시·군	100(5,098)	10.0	22.2	23.3	23.9	13.5	7.0	0.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9.4	23.2	24.6	23.7	12.2	6.8	0.2
	한부모가정	100(952)	12.5	27.5	24.6	21.0	8.8	5.4	0.2
	조손가정	100(163)	12.9	15.3	22.7	25.2	12.3	11.0	0.6

1-4-2 자신의 수면시간 대비 피로회복 도움 정도

**‘자신의 수면 시간 대비 피로 회복 도움정도’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응답은 44.8%,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54.6%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수면시간 대비 피로회복 도움정도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54.6%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44.8%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수면시간 대비 피로회복 도움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수면시간 대비 피로회복 도움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4] 자신의 수면시간 대비 피로회복 도움 정도

<표 III-24> 자신의 수면시간 대비 피로회복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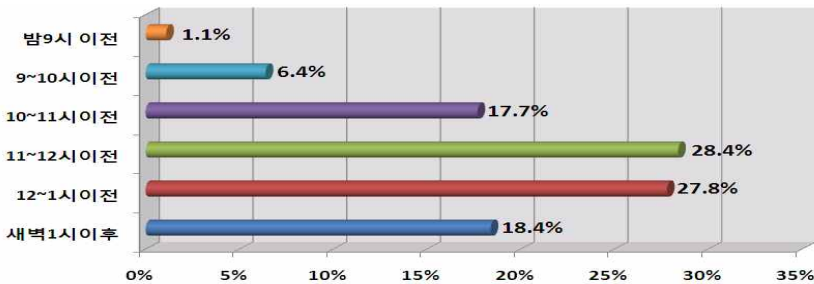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충분 하지 않음	별로 충분 하지 않음	대체로 충분함	매우 충분함	무응답
전체		100(9,844)	15.1	39.5	34.0	10.8	0.6
성별	남자	100(5,061)	14.1	37.6	35.3	12.2	0.8
	여자	100(4,783)	16.0	41.5	32.6	9.4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7	26.1	41.4	24.2	1.6
	중학교	100(3,254)	12.9	41.9	36.6	8.3	0.3
	고등학교	100(3,933)	22.5	46.6	26.8	3.9	0.2
거주지	서울	100(1,552)	14.3	39.6	34.0	11.5	0.6
	광역시	100(3,194)	15.3	41.5	33.2	9.6	0.4
	시·군	100(5,098)	15.1	38.3	34.4	11.4	0.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4.6	39.6	34.5	10.7	0.6
	한부모가정	100(952)	20.8	41.9	29.0	7.9	0.4
	조손가정	100(163)	10.4	35.6	34.4	19.0	0.6

1-4-3 최근 일주일간 평균 취침 시간

‘최근 일주일간 평균 취침 시간’은 ‘11~12시 이전(28.4%)’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12~1시 이전(27.8%)’, ‘새벽 1시 이후(18.4%)’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취침 시간은 ‘11시~12시 이전’이 28.4%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12~1시 이전(27.8%)’, ‘새벽 1시 이후(18.4%)’ 순으로 나타났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은 10~11시 이전에 취침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11~12시 이전’, 고등학생은 ‘12~새벽1시 이전’에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이 나타나 학년이 올라 갈수록 취침 시간이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5] 최근 일주일간 평균 취침 시간

<표 III-25> 최근 일주일간 평균 취침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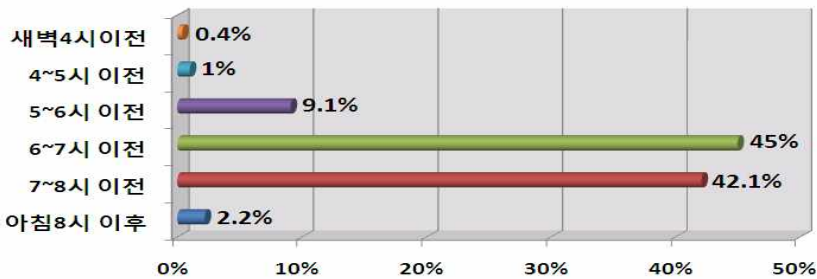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밤9시 이전	9~10시 이전	10~11시 이전	11~12시 이전	12~1시 이전	새벽1시 이후	무응답
전체		100(9,844)	1.1	6.4	17.7	28.4	27.8	18.4	0.2
성별	남자	100(5,061)	1.1	6.7	19.2	28.5	27.6	16.8	0.2
	여자	100(4,783)	1.2	6.0	16.1	28.3	28.1	20.2	0.2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9	17.8	36.5	30.4	9.4	2.6	0.4
	중학교	100(3,254)	0.5	3.3	17.2	35.4	30.1	13.3	0.2
	고등학교	100(3,933)	0.5	1.1	5.3	21.2	38.4	33.3	0.1
거주지	서울	100(1,552)	1.2	4.4	16.4	30.4	29.4	17.8	0.3
	광역시	100(3,194)	1.0	6.0	16.2	27.7	30.2	18.8	0.2
	시·군	100(5,098)	1.2	7.2	19.0	28.2	25.8	18.3	0.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0.9	5.9	17.5	28.7	28.2	18.6	0.2
	한부모가정	100(952)	0.9	6.3	16.2	25.6	30.6	20.2	0.2
	조손가정	100(163)	8.0	12.3	19.6	30.1	17.8	12.3	0.0

1-4-4 최근 일주일간 평균 기상시간

‘최근 일주일간 평균 기상 시간’은 ‘6~7시 이전(45.0%)’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7~8시 이전(42.1%)’, ‘5~6시 이전(9.1%)’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평균 기상 시간을 보면, 응답자의 45%가 ‘6~7시 이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8시 이전(42.1%)’, ‘5~6시 이전(9.1%)’ 순으로 나타났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7~8시 이전’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6~7시 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 기상시간이 점차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6] 최근 일주일간 평균 기상시간

<표 III-26> 최근 일주일간 평균 기상시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새벽4시 이전	4~5시 이전	5~6시 이전	6~7시 이전	7~8시 이전	아침8시 이후	무응답
전체		100(9,844)	0.4	1.0	9.1	45.0	42.1	2.2	0.2
성별	남자	100(5,061)	0.5	0.9	7.0	41.5	47.1	2.7	0.3
	여자	100(4,783)	0.3	1.1	11.3	48.6	36.9	1.7	0.2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0.4	0.6	4.3	28.0	61.8	4.4	0.5
	중학교	100(3,254)	0.2	1.0	5.5	37.6	54.3	1.3	0.2
	고등학교	100(3,933)	0.6	1.2	15.3	62.6	18.7	1.6	0.1
거주지	서울	100(1,552)	0.5	1.4	9.3	38.3	47.0	3.4	0.2
	광역시	100(3,194)	0.3	0.8	9.2	48.3	39.3	2.0	0.1
	시·군	100(5,098)	0.5	1.0	8.9	44.9	42.4	2.0	0.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0.3	0.9	8.4	45.2	42.9	2.0	0.2
	한부모가정	100(952)	0.8	1.3	15.1	45.8	34.5	2.3	0.2
	조손가정	100(163)	2.5	1.8	8.0	43.6	39.9	4.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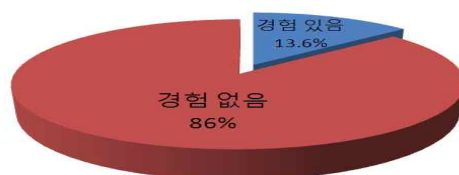
1-5 흡연

1-5-1 흡연경험 여부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3.6%가 그렇다고 응답**

○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13.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86%가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7%)보다는 남학생들(19.8%)의 경우 흡연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흡연 경험률이 2%에 불과하였으나 중학교(12.6%)와 고등학교(22.2%)로 올라갈수록 흡연 경험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양부모가정보다 두 배 가까운 흡연 경험률을 나타냈다.



[그림 III-27] 흡연경험 여부

<표 III-27> 흡연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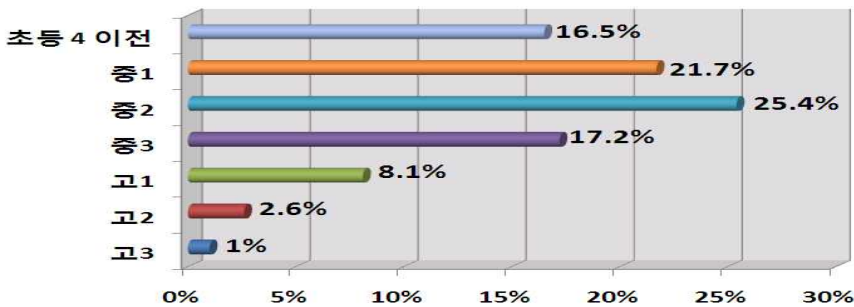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χ^2
전체		100(9,844)	13.6	86.0	0.4	
성별	남자	100(5,061)	19.8	79.8	0.4	341.566***
	여자	100(4,783)	7.0	92.6	0.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0	97.1	0.9	550.004***
	중학교	100(3,254)	12.6	87.2	0.2	
	고등학교	100(3,933)	22.2	77.6	0.2	
거주지	서울	100(1,552)	12.2	87.3	0.5	4.899
	광역시	100(3,194)	14.5	85.1	0.3	
	시·군	100(5,098)	13.4	86.2	0.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2.2	87.4	0.3	98.857***
	한부모가정	100(952)	23.6	76.2	0.2	
	조손가정	100(163)	16.6	82.2	1.2	

*** $p < .001$

1-5-2 흡연시작 연령

**‘흡연 시작 연령’은 ‘중 2(25.4%)’때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중 1(21.7%)’, ‘중 3(17.2%)’, ‘초등 4~6(16.5%)’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 연령을 보면, ‘중학교 2’가 25.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학교 1(21.7%)’, ‘중학교 3(17.2%)’, ‘초등학교4 이전 (16.5%)’, ‘고등학교 1(8.1%)’, ‘고등학교 2(2.6%)’, ‘고등학교 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구성에서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비율이 11.1%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8] 흡연시작 연령

<표 III-28> 흡연시작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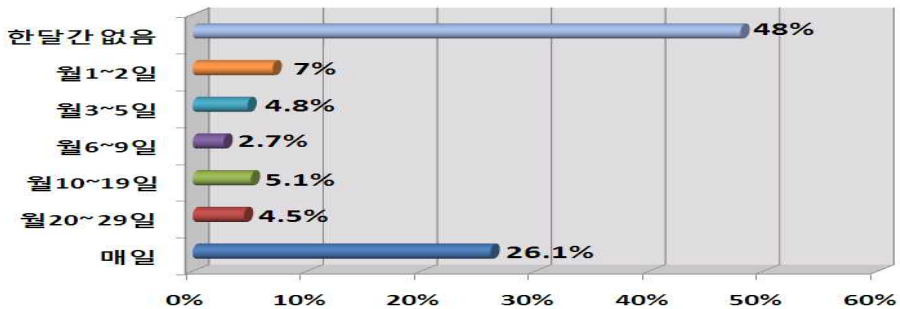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초등4 이전	초등 4-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무응답
전체		100(1,338)	6.3	16.5	21.7	25.4	17.2	8.1	2.5	1.0	1.3
성별	남자	100(1,002)	6.2	17.4	20.8	25.3	17.8	8.6	2.4	1.1	0.5
	여자	100(336)	6.5	14.0	24.7	25.6	15.5	6.8	3.3	0.6	3.0
교육별	초등학교	100(54)	48.1	48.1	0.0	0.0	0.0	0.0	0.0	0.0	3.6
	중학교	100(411)	7.8	31.1	34.5	19.7	4.4	0.0	0.0	0.0	2.4
	고등학교	100(873)	3.0	7.7	17.1	29.7	24.3	12.4	3.9	1.5	0.6
거주지	서울	100(190)	5.8	16.3	25.8	24.2	15.3	8.9	0.0	1.1	2.6
	광역시	100(464)	5.6	17.2	21.8	30.6	16.2	6.3	1.3	0.2	0.9
	시·군	100(684)	6.9	16.1	20.6	22.2	18.4	9.2	4.2	1.5	0.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1,030)	6.1	15.1	21.9	25.7	18.1	8.4	2.8	0.7	1.1
	한부모가정	100(225)	4.4	23.1	18.7	27.6	15.1	7.1	2.2	1.3	0.4
	조손가정	100(27)	11.1	14.8	33.3	25.9	11.1	3.7	0.0	0.0	0.0

1-5-3 최근 한 달간 흡연 일수(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최근 한 달간 흡연 일수’는 ‘한 달간 없음(48.0%)’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매일(26.1%)’, ‘월 1~2일(7.0%)’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한 달간 흡연 일수를 보면, 48%가 ‘한 달 간 없음’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매일(26.1%)’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의 흡연일수가 많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매일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9] 최근 한 달간 흡연 일수

<표 III-29> 최근 한 달간 흡연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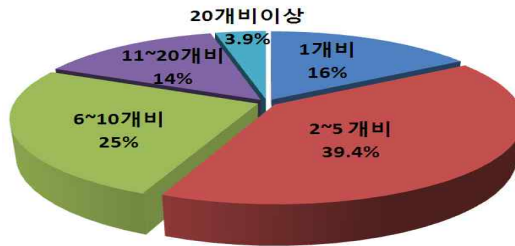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월1~2일	월3~5일	월6~9일	월10~19일	월20~29일	매일	한달간 없음	무응답
전체		100(1,337)	7.0	4.8	2.7	5.1	4.5	26.1	48.0	1.9
성별	남자	100(1,001)	6.5	4.4	2.9	4.7	5.1	28.0	47.4	1.1
	여자	100(336)	8.3	6.0	2.1	6.3	2.7	20.5	50.0	4.2
교급별	초등학교	100(54)	14.8	5.6	3.7	0.0	1.9	0.0	64.8	9.3
	중학교	100(410)	9.8	7.1	3.4	4.1	3.2	10.7	59.3	2.4
	고등학교	100(873)	5.2	3.7	2.3	5.8	5.3	34.9	41.7	1.1
거주지	서울	100(190)	11.1	4.7	3.2	5.8	2.1	29.5	41.1	2.6
	광역시	100(464)	6.9	3.0	1.5	5.2	3.7	25.6	52.2	1.9
	시·군	100(683)	5.9	6.0	3.4	4.8	5.7	25.5	47.1	1.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1,029)	6.4	4.8	2.8	5.2	4.9	24.4	50.0	1.7
	한부모가정	100(225)	7.1	4.9	2.2	6.7	3.6	32.0	41.3	2.2
	조손가정	100(27)	14.8	3.7	0.0	0.0	7.4	40.7	33.3	0.0

1-5-4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흡연량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흡연량은 ‘하루 2~5개비(39.4%)’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하루 6~10개비(25.0%)’, ‘하루 1개비(16.0%)’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한 달간 하루 평균 흡연량을 보면, ‘2~5개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39.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6~10개비(25%)’ 순 이었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하루 흡연량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0]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흡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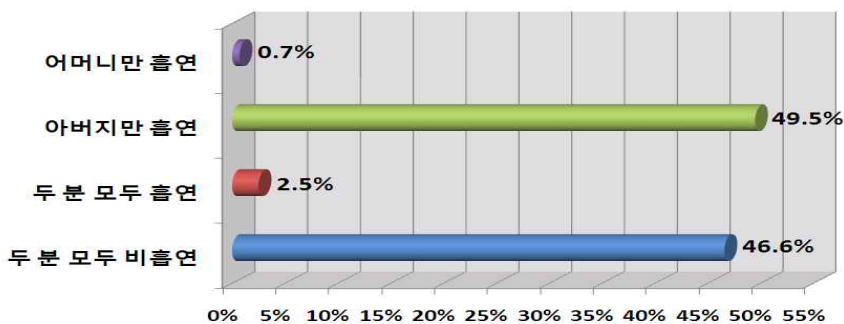
<표 III-30>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흡연량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하루1개비	하루2~5개비	하루6~10개비	하루11~20개비	하루20개비이상	무응답
전체		100(673)	16.0	39.4	25.0	14.0	3.9	1.8
성별	남자	100(518)	17.0	36.7	25.9	15.1	3.9	1.5
	여자	100(155)	12.9	48.4	21.9	10.3	3.9	2.6
교급별	초등학교	100(14)	42.9	28.6	0.0	0.0	0.0	28.6
	중학교	100(158)	29.1	43.0	13.9	6.3	5.7	1.9
	고등학교	100(501)	11.2	38.5	29.1	16.8	3.4	1.0
거주지	서울	100(108)	15.7	35.2	25.9	13.0	8.3	1.9
	광역시	100(214)	12.6	35.0	29.4	19.2	3.3	0.5
	시·군	100(351)	18.2	43.3	21.9	11.1	2.8	2.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499)	17.0	40.3	23.8	13.4	3.8	1.6
	한부모가정	100(129)	13.2	35.7	32.6	14.7	2.3	1.6
	조손가정	100(18)	11.1	38.9	27.8	11.1	11.1	0.0

1-5-5 부모의 흡연여부

‘부모의 흡연여부’에 대해서 ‘아버지만 피우심(49.5%)’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두 분 모두 피우지 않음(46.6%)’ 순으로 나타남

○ 부모님들의 흡연 여부를 보면, 응답자의 2.5%가 ‘두 분 모두 피우심’으로 응답했고, 부모님 두 분 모두 피우지 않는 경우는 46.6%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49.5%가 ‘아버지만 피우심’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I-31] 부모의 흡연여부

<표 III-31> 부모의 흡연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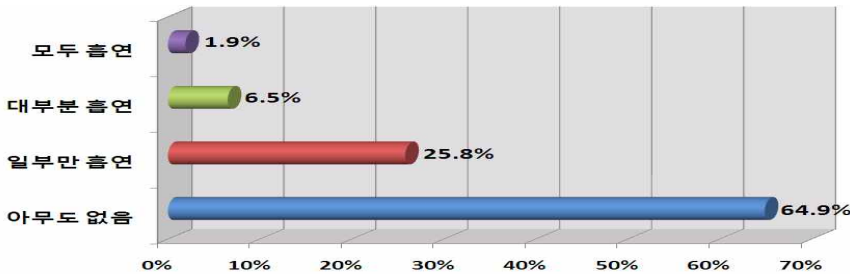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두 분 모두 피우지 않음	두 분 모두 피우심	아버지만 피우심	어머니만 피우심	무응답
전체		100(9,844)	46.6	2.5	49.5	0.7	0.7
성별	남자	100(5,061)	46.8	2.3	49.4	0.8	0.7
	여자	100(4,783)	46.4	2.7	49.5	0.6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7.2	1.6	49.8	0.5	1.0
	중학교	100(3,254)	46.4	2.2	50.1	0.6	0.6
	고등학교	100(3,933)	46.4	3.3	48.7	0.9	0.7
거주지	서울	100(1,552)	49.5	2.4	46.4	0.5	1.2
	광역시	100(3,194)	44.2	2.7	51.7	0.8	0.6
	시·군	100(5,098)	47.3	2.4	49.0	0.7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47.8	2.1	49.1	0.4	0.6
	한부모가정	100(952)	39.8	4.6	51.2	3.2	1.3
	조손가정	100(163)	33.7	6.1	58.9	0.0	1.2

1-5-6 친한 친구의 흡연 여부

‘친한 친구의 흡연 여부’에 대해서 ‘아무도 없음(64.9%)’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일부만 피움(25.8%)’, ‘대부분 피움(6.5%)’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의 흡연 여부에 대해 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9%가 흡연하는 친한 친구가 아무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의 경우 흡연하는 친한 친구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흡연을 하는 친한 친구가 점차 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2] 친한 친구의 흡연 여부

<표 III-32> 친한 친구의 흡연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아무도 없음	일부만 피움	대부분 피움	모두 피움	무응답
전체		100(9,844)	64.9	25.8	6.5	1.9	0.9
성별	남자	100(5,061)	55.0	31.7	9.6	2.8	0.8
	여자	100(4,783)	75.2	19.6	3.3	1.0	0.9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92.6	5.6	0.5	0.1	1.2
	중학교	100(3,254)	67.9	25.4	4.7	1.1	0.8
	고등학교	100(3,933)	43.5	39.8	12.2	3.9	0.6
거주지	서울	100(1,552)	64.7	26.0	5.7	2.3	1.4
	광역시	100(3,194)	61.6	28.3	7.0	2.2	0.9
	시·군	100(5,098)	66.9	24.2	6.5	1.7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65.7	25.8	6.0	1.7	0.8
	한부모가정	100(952)	55.8	28.7	11.1	3.3	1.2
	조손가정	100(163)	65.6	22.7	8.6	3.1	0.0

1-5-7 흡연에 대한 인식

**‘흡연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6.0%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응답**

○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의식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96%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단 3.3%만이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고, 가족구성별 응답 결과에서는 조손가정의 경우 양부모 가정이나 한 부모가정의 청소년들보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3] 흡연에 대한 인식

<표 III-33> 흡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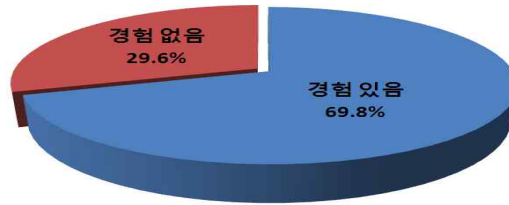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해롭지 않다	크게 해롭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	매우 나쁘다	무응답
전체		100(9,844)	0.9	2.4	14.9	81.1	0.7
성별	남자	100(5,061)	1.1	2.7	17.2	78.1	0.8
	여자	100(4,783)	0.6	2.0	12.5	84.2	0.6
교육급별	초등학교	100(2,657)	0.6	0.9	5.9	91.3	1.2
	중학교	100(3,254)	1.1	3.1	15.5	79.8	0.5
	고등학교	100(3,933)	0.9	2.8	20.6	75.2	0.6
거주지	서울	100(1,552)	1.3	2.0	14.7	81.1	1.0
	광역시	100(3,194)	1.0	2.5	15.8	79.9	0.8
	시·군	100(5,098)	0.7	2.4	14.5	81.9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0.7	2.1	14.9	81.6	0.7
	한부모가정	100(952)	1.1	3.3	17.8	77.3	0.6
	조손가정	100(163)	4.3	4.3	15.3	76.1	0.0

1-5-8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연교육 경험 여부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9.8%가 그렇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학교에서의 금연교육 경험 여부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69.8%가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9.6%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 비해 금연교육을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4]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연교육 경험 여부

<표 III-34>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연교육 경험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χ^2
전체		100(9,844)	69.8	29.6	0.7	
성별	남자	100(5,061)	71.6	27.8	0.6	16.639***
	여자	100(4,783)	67.8	31.5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6.9	32.0	1.1	113.387***
	중학교	100(3,254)	76.7	22.7	0.6	
	고등학교	100(3,933)	65.9	33.6	0.5	
거주지	서울	100(1,552)	65.0	34.1	0.9	18.870***
	광역시	100(3,194)	70.8	28.4	0.8	
	시·군	100(5,098)	70.5	28.9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70.1	29.2	0.6	10.009*
	한부모가정	100(952)	70.3	29.4	0.3	
	조손가정	100(163)	60.7	38.7	0.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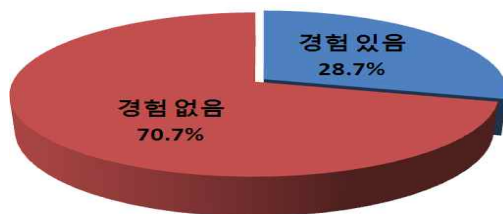
1-6 음주

1-6-1 음주 경험 여부

**‘지금까지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8.7%가 그렇다고 응답**

○ 청소년들의 음주 경험 여부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70.7%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28.7%가 음주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음주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음주 경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5] 음주 경험 여부

<표 III-35> 음주 경험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χ^2
전체		100(9,844)	28.7	70.7	0.6	
성별	남자	100(5,061)	31.2	68.0	0.8	32.595***
	여자	100(4,783)	26.1	73.5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9.7	89.0	1.2	1,372.242***
	중학교	100(3,254)	19.7	79.8	0.5	
	고등학교	100(3,933)	49.0	50.8	0.2	
거주지	서울	100(1,552)	25.8	73.5	0.6	8.061*
	광역시	100(3,194)	29.8	69.8	0.4	
	시·군	100(5,098)	28.9	70.4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27.3	72.3	0.4	81.249***
	한부모가정	100(952)	41.0	58.1	0.9	
	조손가정	100(163)	30.7	66.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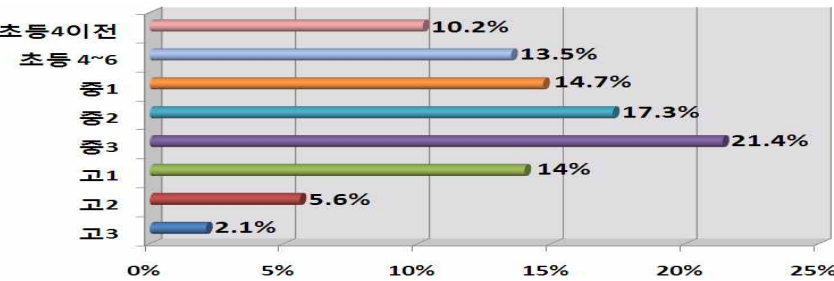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6-2 음주 시작 연령

**‘음주 시작 연령’은 ‘중 3(21.4%)’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중 2(17.3%)’, ‘중 1(14.7%)’, ‘고 1(14.0%)’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음주시작 연령은 ‘중학교 3학년(21.4%)’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 2(17.3%)’ ‘중 1(14.7%)’, ‘고 1(14%)’, ‘초 4~6(13.5%)’, ‘초 4학년 이전(10.2%)’, ‘고 3(2.1%)’ 순으로 나타났다.

- 조손가정의 경우 음주 시작 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로 나타나, 양부모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음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6] 음주 시작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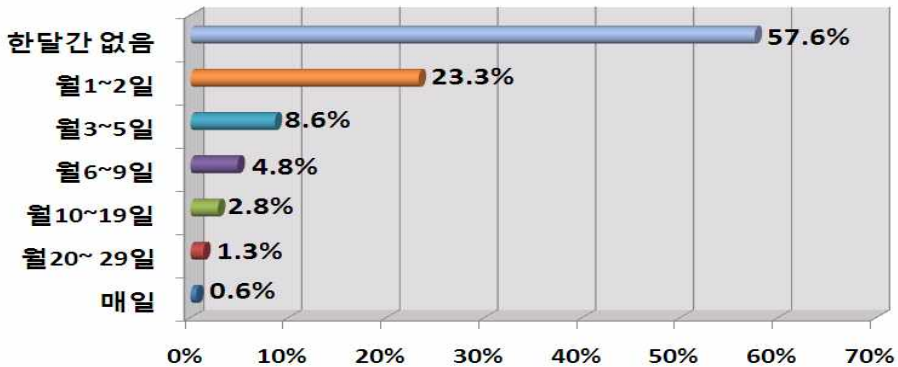
<표 III-36> 음주 시작 연령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초등4 이전	초등 4~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무응답
전체		100(2,828)	10.2	13.5	14.7	17.3	21.4	14.0	5.6	2.1	1.2
성별	남자	100(1,580)	11.9	14.8	13.2	14.4	21.3	15.3	5.8	2.2	1.1
	여자	100(1,248)	8.1	11.9	16.7	20.8	21.4	12.5	5.4	2.0	1.3
교육별	초등학교	100(260)	53.5	40.0	0.8	0.0	1.2	0.0	0.8	0.4	3.5
	중학교	100(641)	15.3	29.8	29.3	15.9	8.0	0.0	0.0	0.0	1.7
	고등학교	100(1,927)	2.7	4.5	11.7	20.0	28.5	20.6	8.1	3.0	0.7
거주지	서울	100(401)	13.2	15.0	16.5	16.2	17.5	13.2	4.7	2.5	1.2
	광역시	100(952)	9.3	12.6	14.3	19.0	23.8	13.1	4.9	2.0	0.8
	시·군	100(1,475)	10.0	13.7	14.5	16.4	20.8	14.8	6.3	2.0	1.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2,294)	10.1	13.5	14.7	17.3	21.9	13.6	5.7	2.0	1.2
	한부모가정	100(390)	7.9	13.1	13.3	19.2	19.7	17.9	5.4	3.1	0.3
	조손가정	100(50)	18.0	14.0	8.0	10.0	30.0	12.0	8.0	0.0	0.0

1-6-3 최근 한 달간 음주 일 수(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최근 한 달간 음주 일 수’는 ‘한 달간 없음(57.6%)’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월 1~2일(23.3%)’, ‘월 3~5일(8.6%)’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최근 한 달간 음주 일수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6%가 ‘한 달간 없음’ 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월 1~2일(23.3%)’, ‘월 3~5일(8.6%)’, ‘월 6~9일(4.8%)’, ‘월 10~19일(2.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가장 적었지만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0.6%를 차지했다.



[그림 Ⅲ-37] 최근 한 달간 음주 일 수

<표 Ⅲ-37> 최근 한 달간 음주 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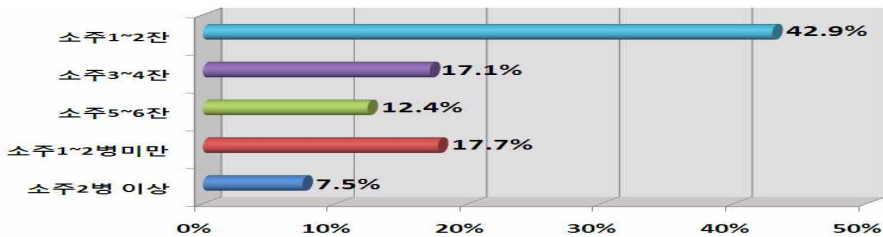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월1~2 일	월3~5 일	월6~9 일	월10~ 19일	월20~ 29일	매일	한달간 없음	무응답
전체		100(2,831)	23.3	8.6	4.8	2.8	1.3	0.6	57.6	1.0
성별	남자	100(1,581)	23.8	9.6	5.5	3.2	1.8	0.8	54.3	1.0
	여자	100(1,250)	22.7	7.4	3.9	2.2	0.6	0.4	61.8	1.0
교육별	초등학교	100(260)	21.9	5.4	3.5	0.4	2.3	0.4	60.8	5.4
	중학교	100(643)	19.6	4.7	3.6	2.6	0.5	0.8	66.7	1.6
	고등학교	100(1,928)	24.8	10.3	5.4	3.2	1.4	0.6	54.1	0.3
거주지	서울	100(401)	20.4	9.0	5.0	2.0	0.7	2.0	60.3	0.5
	광역시	100(953)	25.0	7.5	4.0	2.7	1.6	0.5	58.3	0.4
	시·군	100(1,477)	23.1	9.2	5.3	3.0	1.2	0.3	56.3	1.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2,294)	23.0	8.4	4.9	2.7	1.2	0.3	58.7	0.9
	한부모가정	100(392)	24.7	9.2	3.8	3.6	1.5	0.8	55.6	0.8
	조손가정	100(50)	32.0	16.0	2.0	2.0	2.0	6.0	40.0	0.0

1-6-4 최근 한 달간 1회 평균 음주량

‘최근 한 달간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1~2잔(42.9%)’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소주 1~2병 미만(17.7%)’, ‘소주 3~4잔(17.1%)’ 순으로 나타남

○ 한 달간 1회 평균 음주량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2.9%가 ‘소주 1~2잔’이라고 응답했고, ‘소주 1~2병 미만(17.7%)’, ‘소주 3~4잔(17.1%)’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의 1회 평균 음주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1회 평균 음주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8] 최근 한 달간 1회 평균 음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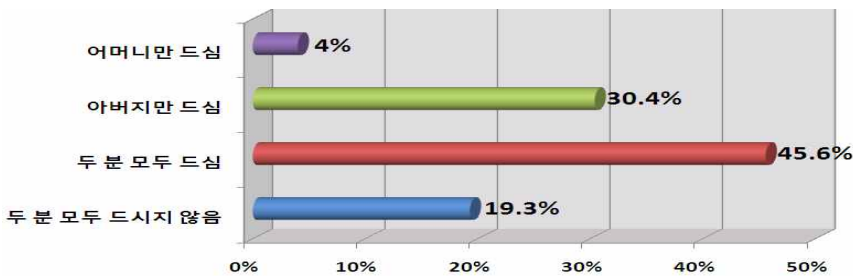
<표 III-38> 최근 한 달간 1회 평균 음주량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소주1~2잔	소주3~4잔	소주5~6잔	소주1~2병 미만	소주2병 이상	무응답
전체		100(1,175)	42.9	17.1	12.4	17.7	7.5	2.4
성별	남자	100(708)	38.6	17.2	11.6	20.1	9.7	2.8
	여자	100(467)	49.5	16.9	13.7	14.1	4.1	1.7
교급별	초등학교	100(90)	76.7	6.7	3.3	1.1	0.0	12.2
	중학교	100(204)	58.8	19.6	7.8	5.9	4.9	2.9
	고등학교	100(881)	35.8	17.6	14.4	22.1	8.9	1.2
거주지	서울	100(158)	41.1	19.0	11.4	17.1	8.9	2.5
	광역시	100(393)	43.5	17.6	12.0	17.6	7.4	2.0
	시·군	100(624)	42.9	16.3	13.0	17.9	7.2	2.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930)	45.3	16.9	12.8	16.6	6.2	2.3
	한부모가정	100(171)	35.1	19.9	10.5	23.4	9.9	1.2
	조손가정	100(30)	20.0	10.0	20.0	23.3	20.0	6.7

1-6-5 부모의 음주여부

‘부모의 음주여부’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드심(45.6%)’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아버지만 드심(30.4%)’ 순으로 나타남

○ 부모님들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 보면, 두 분 모두 드신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고, 아버지만 드시는 경우가 30.4%로 두 번째로 높았다. 두 분 모두 드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9.3%, 어머니만 드시는 비율은 4%로 나타났다.



[그림 III-39] 부모의 음주여부

<표 III-39> 부모의 음주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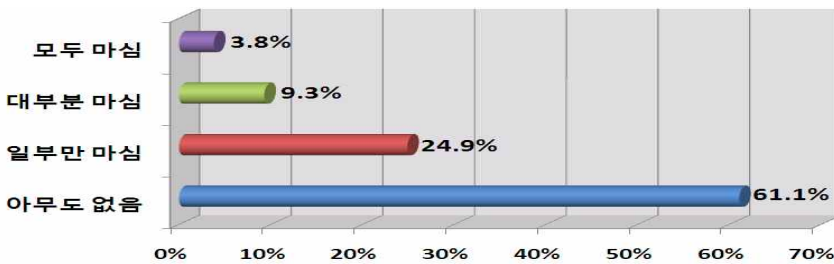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두 분 모두 드시지 않음	두 분 모두 드심	아버지만 드심	어머니만 드심	무응답
전체		100(9,844)	19.3	45.6	30.4	4.0	0.7
성별	남자	100(5,061)	20.4	42.0	32.9	4.0	0.7
	여자	100(4,783)	18.0	49.4	27.8	4.1	0.6
교육별	초등학교	100(2,657)	22.7	37.9	35.6	3.0	0.8
	중학교	100(3,254)	19.1	46.1	30.4	3.7	0.6
	고등학교	100(3,933)	17.1	50.3	27.0	4.9	0.7
거주지	서울	100(1,552)	20.5	45.8	29.8	2.8	1.1
	광역시	100(3,194)	18.8	44.9	30.5	5.0	0.8
	시·군	100(5,098)	19.2	46.0	30.6	3.8	0.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8.8	46.8	30.4	3.4	0.6
	한부모가정	100(952)	21.5	39.9	29.3	8.5	0.7
	조손가정	100(163)	23.3	31.9	36.2	6.1	2.5

1-6-6 친한 친구의 음주여부

‘친한 친구의 음주 여부’는 ‘아무도 없음(61.1%)’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일부만 마심(24.9%)’, ‘대부분 마심(9.3%)’ 순으로 나타남

○ 친한 친구의 음주 여부는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1.1%로 가장 많았고, 친구들의 일부만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로 그 뒤를 이었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음주를 하는 친구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성별로 보면 대체로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음주를 하는 친한 친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0] 친한 친구의 음주여부

<표 III-40> 친한 친구의 음주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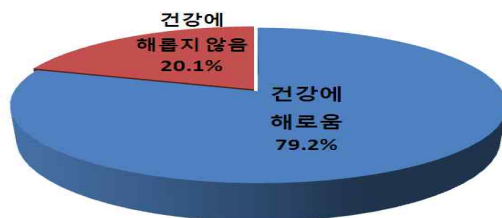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아무도 없음	일부만 마심	대부분 마심	모두 마심	무응답
전체		100(9,844)	61.1	24.9	9.3	3.8	0.9
성별	남자	100(5,061)	58.8	27.0	9.3	3.8	1.0
	여자	100(4,783)	63.6	22.6	9.3	3.8	0.8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90.1	7.2	1.2	0.2	1.3
	중학교	100(3,254)	72.7	21.7	3.9	0.9	0.9
	고등학교	100(3,933)	32.0	39.5	19.3	8.6	0.6
거주지	서울	100(1,552)	63.7	24.0	8.7	2.6	1.0
	광역시	100(3,194)	58.3	26.8	9.7	4.3	0.9
	시·군	100(5,098)	62.2	23.9	9.2	3.9	0.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61.8	25.2	8.8	3.4	0.8
	한부모가정	100(952)	50.8	27.4	13.4	7.4	0.9
	조손가정	100(163)	65.6	17.2	11.7	4.3	1.2

1-6-7 음주에 대한 인식

**‘술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9.2%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응답**

○ 청소년들의 음주에 대한 의식을 보면, 79.2%가 술이 건강에 해롭다고 응답하였고,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음주가 건강에 더 해롭다고 보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1] 음주에 대한 인식

<표 III-41> 음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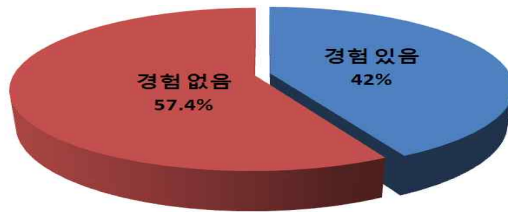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해롭지 않다	크게 해롭지 않다	별로 중지 않다	매우 나쁘다	무응답
전체		100(9,844)	1.6	18.5	42.4	36.8	0.7
성별	남자	100(5,061)	2.1	21.1	40.3	35.7	0.9
	여자	100(4,783)	1.1	15.7	44.7	37.9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0.6	4.4	28.6	65.4	1.1
	중학교	100(3,254)	1.6	16.3	45.9	35.5	0.6
	고등학교	100(3,933)	2.3	29.7	48.9	18.5	0.5
거주지	서울	100(1,552)	2.2	18.6	40.8	37.7	0.8
	광역시	100(3,194)	1.6	20.3	43.6	33.7	0.8
	시·군	100(5,098)	1.4	17.3	42.2	38.4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4	18.4	42.9	36.6	0.7
	한부모가정	100(952)	1.7	21.6	43.2	32.9	0.6
	조손가정	100(163)	4.9	16.6	30.7	46.6	1.2

1-6-8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주교육 경험 여부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주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2.0%가 그렇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학교에서의 금주 교육 경험여부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57.4%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42%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금주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가족 구성별로 보면 한 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의 학생들이 금주교육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42]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주교육 경험 여부

<표 III-42>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주교육 경험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χ^2
전체		100(9,844)	42.0	57.4	0.6	
성별	남자	100(5,061)	42.9	56.5	0.7	3.574
	여자	100(4,783)	41.0	58.4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52.5	46.5	1.0	383.329***
	중학교	100(3,254)	47.3	52.1	0.6	
	고등학교	100(3,933)	30.4	69.2	0.4	
거주지	서울	100(1,552)	40.5	58.8	0.8	3.016
	광역시	100(3,194)	43.0	56.2	0.8	
	시·군	100(5,098)	41.8	57.8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42.4	57.0	0.6	14.657**
	한부모가정	100(952)	37.4	62.1	0.5	
	조손가정	100(163)	36.8	62.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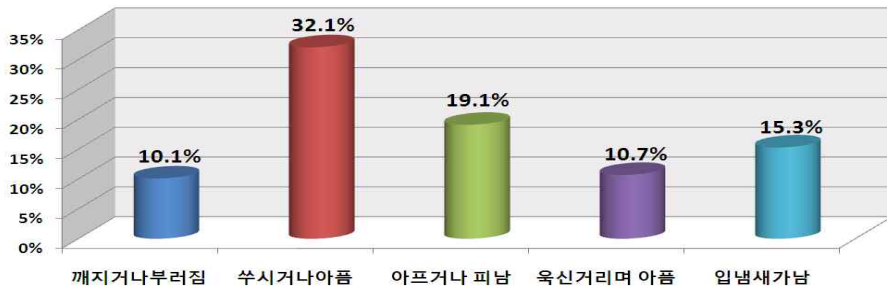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7 구강보건

1-7-1 최근 1년간 구강질환 증상 경험

‘최근 1년간 구강질환 증상경험’은 ‘썩시거나 아픔(32.1%)’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아프거나 피가 남(19.1%)’, ‘입 냄새가 남(15.3%)’ 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구강질환 증상경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2.1%가 ‘썩시거나 아픔’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고, ‘아프거나 피가 남(19.1%)’, ‘입 냄새가 남(15.3%)’, ‘웁신거리며 아픔(10.7%)’, ‘깨지거나 부러짐(10.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3] 최근 1년간 구강질환 증상 경험(복수 응답)

<표 III-43> 최근 1년간 구강질환 증상 경험(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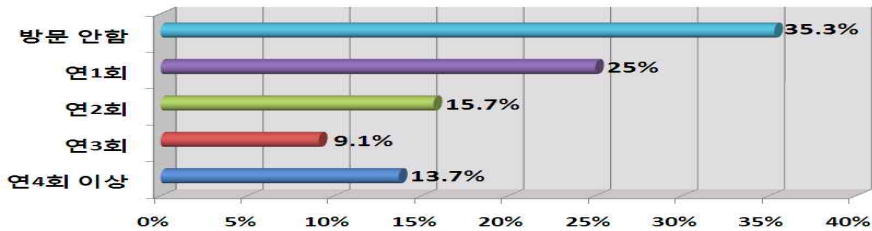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깨지거나 부러짐	썩시거나 아픔	아프거나 피가 남	웁신거리며 아픔	입냄새가 남	무응답
전체		100(9,844)	10.1	32.1	19.1	10.7	15.3	44.3
성별	남자	100(5,061)	11.1	29.7	16.7	8.5	17.5	45.8
	여자	100(4,783)	9.2	34.6	21.8	13.0	13.0	42.7
교육별	초등학교	100(2,657)	12.0	22.1	14.8	6.6	12.0	53.1
	중학교	100(3,254)	8.3	31.6	17.2	10.9	13.9	47.0
	고등학교	100(3,933)	10.4	39.2	23.7	13.3	18.7	36.0
거주지	서울	100(1,552)	7.8	32.1	20.0	13.4	16.3	44.2
	광역시	100(3,194)	11.0	33.1	19.9	10.3	14.7	43.1
	시·군	100(5,098)	10.3	31.4	18.4	10.1	15.4	45.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9.2	31.7	18.7	10.7	15.3	44.9
	한부모가정	100(952)	15.7	37.5	23.2	11.6	17.9	37.3
	조손가정	100(163)	17.2	33.1	22.1	9.8	12.3	40.5

1-7-2 최근 1년간 치과 방문 횟수

‘최근 1년간 치과 방문 횟수’는 ‘방문 안함(35.3%)’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연 1회(25.0%)’, ‘연 2회(15.7%)’ 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치과 방문 횟수에 대해서, ‘최근 1년간 방문안함(35.3%)’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연 1회(25%)’, ‘연 2회(15.7%)’, ‘연 4회 이상(13.7%)’, ‘연 3회(9.1%)’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치과 방문 횟수가 약간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치과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4] 최근 1년간 치과 방문 횟수

<표 III-44> 최근 1년간 치과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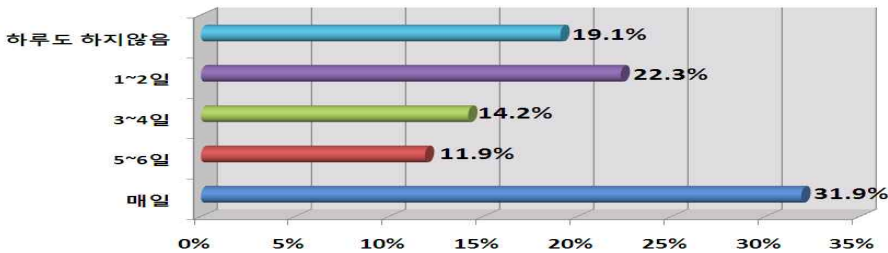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최근 1년 방문 안함	연1회	연2회	연3회	연4회 이상	무응답
전체		100(9,844)	35.3	25.0	15.7	9.1	13.7	1.2
성별	남자	100(5,061)	39.7	24.3	14.5	8.7	11.3	1.5
	여자	100(4,783)	30.7	25.7	17.0	9.6	16.2	0.9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16.2	27.8	22.5	15.5	16.7	1.2
	중학교	100(3,254)	39.3	25.2	14.8	7.2	12.2	1.3
	고등학교	100(3,933)	45.0	22.9	11.8	6.3	12.9	1.1
거주지	서울	100(1,552)	31.2	27.1	17.7	9.1	13.9	1.0
	광역시	100(3,194)	37.7	24.4	15.1	8.5	13.1	1.3
	시·군	100(5,098)	35.1	24.7	15.5	9.5	14.0	1.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4.6	25.0	16.4	9.1	13.8	1.1
	한부모가정	100(952)	43.1	23.2	11.9	7.8	12.6	1.5
	조손가정	100(163)	34.4	25.8	9.2	10.4	14.7	5.5

1-7-3 최근 일주일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일수

‘최근 일주일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일수’에 대해서 ‘매일(31.9%)’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1~2일(22.3%)’, ‘하루도 하지 않음(19.1%)’ 순으로 나타남

○ 최근 일주일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일수에 대해서, ‘매일(31.9%)’이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일(22.3%)’, ‘하루도 하지 않음(19.1%)’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들 보다 칫솔질 일수가 더 많았고, 교급별에서는 중학생(25.2%)이 초등학생(13.5%)이나 고등학생(17.8%) 보다 하루도 칫솔질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III-45] 최근 일주일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일수

<표 III-45> 최근 일주일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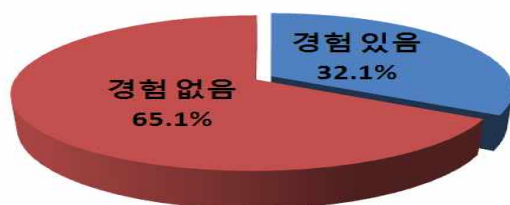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하루도 하지 않음	1~2일	3~4일	5~6일	매일	무응답
전체		100(9,844)	19.1	22.3	14.2	11.9	31.9	0.5
성별	남자	100(5,061)	24.5	23.2	14.3	11.1	26.3	0.5
	여자	100(4,783)	13.4	21.5	14.1	12.8	37.8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13.5	25.6	18.3	12.5	29.1	1.0
	중학교	100(3,254)	25.2	27.0	14.1	9.2	24.0	0.6
	고등학교	100(3,933)	17.8	16.3	11.6	13.8	40.3	0.1
거주지	서울	100(1,552)	27.8	26.8	13.7	9.7	21.4	0.6
	광역시	100(3,194)	19.0	21.0	14.3	12.1	33.1	0.4
	시·군	100(5,098)	16.5	21.8	14.3	12.5	34.3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9.0	22.6	13.9	11.9	32.2	0.4
	한부모가정	100(952)	22.7	20.6	14.8	11.7	29.7	0.5
	조손가정	100(163)	10.4	25.8	19.6	13.5	29.4	1.2

1-7-4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구강건강 교육 경험 여부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구강건강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2.1%가 그렇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구강건강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5.1%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32.1%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 대체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구강건강 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6]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구강건강 교육 경험 여부

<표 III-46>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구강건강 교육 경험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χ^2
전체		100(9,844)	32.1	65.1	2.8	
성별	남자	100(5,061)	33.8	62.8	3.4	16.646***
	여자	100(4,783)	30.3	67.4	2.2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3.7	29.4	6.8	2,045.703***
	중학교	100(3,254)	27.9	70.2	1.9	
	고등학교	100(3,933)	14.2	84.9	0.9	
거주지	서울	100(1,552)	31.0	66.4	2.6	26.002***
	광역시	100(3,194)	29.3	68.4	2.3	
	시·군	100(5,098)	34.2	62.6	3.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2.4	65.1	2.6	36.854***
	한부모가정	100(952)	26.4	70.9	2.7	
	조손가정	100(163)	35.0	56.4	8.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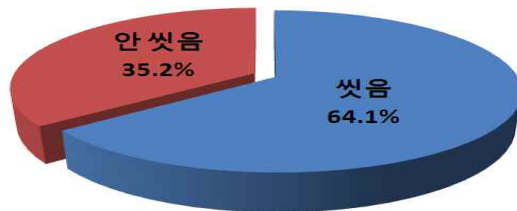
1-8 개인위생

1-8-1-① 최근 일주일간 식사하기 전 손 씻기 실천 정도

**‘최근 일주일간 식사하기 전 손 씻기 실천 정도’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64.1%가 씻는다고 응답**

○ 최근 일주일간 식사하기 전 손 씻기 실천 정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4.1%가 씻는다고 응답하였고, 35.2%가 씻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식사 전 손을 매번 씻는다는 응답이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조금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식사 전 손 씻기 실천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매번 씻는다는 응답 비율이 1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7] 최근 일주일간 식사하기 전 손 씻기 실천 정도

<표 III-47> 최근 일주일간 식사하기 전 손 씻기 실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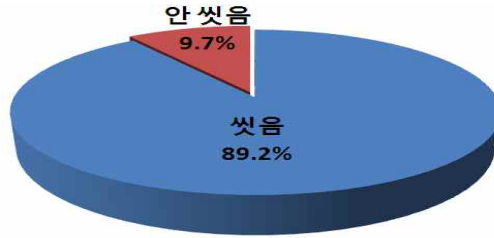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안 씻음	가끔 씻음	대부분 씻음	매번 씻음	무응답
전체		100(9,844)	3.8	31.4	33.5	30.6	0.7
성별	남자	100(5,061)	3.2	27.8	34.5	33.7	0.8
	여자	100(4,783)	4.5	35.2	32.5	27.2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1.3	13.1	32.3	52.4	0.9
	중학교	100(3,254)	2.7	27.4	38.3	30.9	0.6
	고등학교	100(3,933)	6.5	47.0	30.4	15.5	0.7
거주지	서울	100(1,552)	3.9	30.5	35.6	29.3	0.7
	광역시	100(3,194)	3.8	33.3	32.9	29.2	0.8
	시·군	100(5,098)	3.8	30.4	33.3	31.8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7	31.4	33.9	30.4	0.5
	한부모가정	100(952)	4.5	35.1	32.5	26.3	1.7
	조손가정	100(163)	4.9	28.8	26.4	39.3	0.6

1-8-1-② 최근 일주일간 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기 실천 여부

**‘최근 일주일간 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기 실천 정도’는
전체 응답자 중 89.2%가 씻는다고 응답**

○ 최근 일주일간 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기 실천 정도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다수인 89.2%가 씻는다고 응답하였고, 9.7%만이 씻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기를 더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I-48] 최근 일주일간 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기 실천 여부

<표 III-48> 최근 일주일간 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기 실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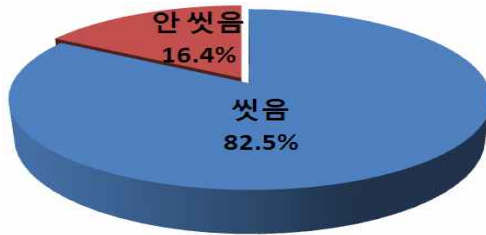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안씻음	가끔 씻음	대부분 씻음	매번 씻음	무응답
전체		100(9,844)	1.1	8.6	26.7	62.5	1.1
성별	남자	100(5,061)	1.4	9.5	28.2	59.4	1.5
	여자	100(4,783)	0.9	7.6	25.0	65.9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0.9	7.9	24.7	64.4	2.0
	중학교	100(3,254)	1.1	8.4	26.8	62.7	1.0
	고등학교	100(3,933)	1.3	9.2	27.9	61.1	0.5
거주지	서울	100(1,552)	1.9	9.9	27.1	59.6	1.5
	광역시	100(3,194)	0.8	7.9	25.9	64.5	0.9
	시·군	100(5,098)	1.1	8.6	27.0	62.2	1.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0	8.3	26.5	63.4	0.9
	한부모가정	100(952)	1.8	10.8	29.1	56.8	1.5
	조손가정	100(163)	3.7	9.8	27.6	57.7	1.2

1-8-1-③ 최근 일주일간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손 씻기 실천 여부

**‘최근 일주일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 정도’는
전체 응답자 중 82.5%가 씻는다고 응답**

○ 최근 일주일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정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2.5%가 씻는다고 응답했고, 16.4%가 씻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외출 후 손 씻기 실천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9] 최근 일주일간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손 씻기 실천 여부

<표 Ⅲ-49> 최근 일주일간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손 씻기 실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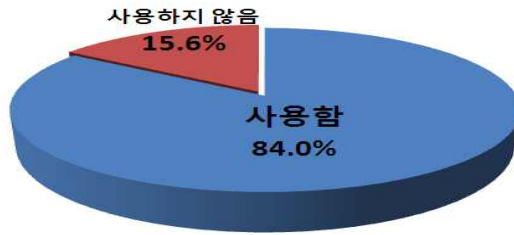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안씻음	가끔 씻음	대부분 씻음	매번 씻음	무응답
전체		100(9,844)	2.0	14.4	25.8	56.6	1.1
성별	남자	100(5,061)	2.1	15.4	25.4	55.7	1.4
	여자	100(4,783)	1.8	13.5	26.3	57.6	0.8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1.2	10.0	24.3	62.4	2.1
	중학교	100(3,254)	2.1	15.5	26.2	55.2	1.1
	고등학교	100(3,933)	2.5	16.6	26.5	53.9	0.5
거주지	서울	100(1,552)	2.0	14.8	24.3	57.2	1.7
	광역시	100(3,194)	2.1	13.9	25.6	57.6	0.8
	시·군	100(5,098)	1.9	14.7	26.4	55.9	1.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8	14.2	26.1	57.0	0.9
	한부모가정	100(952)	2.3	14.9	27.7	53.3	1.8
	조손가정	100(163)	4.3	16.0	14.1	63.8	1.8

1-8-2 최근 일주일간 비누 사용 손 씻기 정도

**‘최근 일주일간 비누사용 손 씻기 정도’는
전체 응답자 중 84%가 사용한다고 응답**

○ 청소년들의 일주일간 비누사용 손 씻기 정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4%가 사용, 15.6%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의 실천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이나 거주지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0] 최근 일주일간 비누 사용 손 씻기 정도

<표 III-50> 최근 일주일간 비누 사용 손 씻기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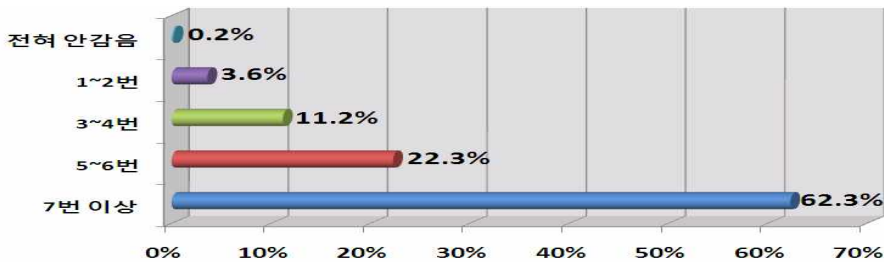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사용 하지 않음	거의사용 하지 않음	자주 사용함	매번 사용함	무응답
전체		100(9,844)	1.1	14.5	35.7	48.4	0.4
성별	남자	100(5,061)	1.2	14.1	33.5	50.7	0.5
	여자	100(4,783)	0.9	14.9	38.0	45.8	0.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0.8	8.0	34.8	55.7	0.7
	중학교	100(3,254)	0.9	13.5	35.1	50.1	0.4
	고등학교	100(3,933)	1.4	19.7	36.8	42.0	0.2
거주지	서울	100(1,552)	0.9	11.5	33.4	53.9	0.3
	광역시	100(3,194)	1.2	15.1	35.6	47.8	0.3
	시·군	100(5,098)	1.1	15.0	36.4	47.0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1	14.6	35.6	48.4	0.4
	한부모가정	100(952)	0.9	14.0	37.1	47.6	0.4
	조손가정	100(163)	2.5	11.7	35.6	49.7	0.6

1-8-3 최근 일주일간 머리감기 빈도

‘최근 일주일간 머리감기 빈도’는 ‘7번 이상(62.3%)’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5~6번(22.3%)’, ‘3~4번(11.2%)’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일주일간 머리감기 빈도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2.3%가 ‘7번 이상’에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5~6번(22.3%)’, ‘3~4번(11.2%)’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의 머리감기 빈도가 조금 더 잦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 빈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51] 최근 일주일간 머리감기 빈도

<표 III-51> 최근 일주일간 머리감기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감지 않음	1~2번	3~4번	5~6번	7번 이상	무응답
전체		100(9,844)	0.2	3.6	11.2	22.3	62.3	0.3
성별	남자	100(5,061)	0.2	4.7	8.5	17.4	68.9	0.3
	여자	100(4,783)	0.2	2.5	14.2	27.4	55.4	0.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0.2	5.4	21.5	29.3	42.9	0.7
	중학교	100(3,254)	0.1	3.0	9.4	20.6	66.6	0.2
	고등학교	100(3,933)	0.3	3.0	5.8	18.9	71.9	0.2
거주지	서울	100(1,552)	0.5	3.5	14.6	23.5	57.5	0.4
	광역시	100(3,194)	0.3	3.7	10.2	21.6	63.9	0.3
	시·군	100(5,098)	0.1	3.6	10.8	22.3	62.8	0.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0.1	3.4	11.2	22.3	62.8	0.3
	한부모가정	100(952)	0.4	3.6	10.4	21.4	63.7	0.5
	조손가정	100(163)	2.5	10.4	12.9	23.9	50.3	0.0

1-8-4 최근 일주일간 속옷 갈아입기 빈도

‘최근 일주일간 속옷 갈아입기 빈도’는 ‘7번 이상(45.3%)’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5~6번(29.4%)’, ‘3~4번(19.1%)’ 순으로 나타남

○ 속옷 갈아입기 빈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5.3%가 ‘7번 이상’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5~6번(29.4%)’, ‘3~4번(19.1%)’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자주 속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의 학생들이 조손가정의 학생들보다 더 자주 속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2] 최근 일주일간 속옷 갈아입기 빈도

<표 III-52> 최근 일주일간 속옷 갈아입기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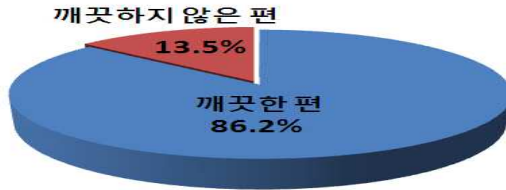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갈아 입지 않음	1~2번	3~4번	5~6번	7번 이상	무응답
전체		100(9,844)	0.3	5.6	19.1	29.4	45.3	0.4
성별	남자	100(5,061)	0.4	7.5	24.1	29.6	38.1	0.4
	여자	100(4,783)	0.2	3.6	13.8	29.1	52.9	0.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0.2	7.5	19.0	28.5	44.0	0.9
	중학교	100(3,254)	0.3	4.6	19.1	29.7	45.9	0.3
	고등학교	100(3,933)	0.4	5.2	19.1	29.6	45.6	0.1
거주지	서울	100(1,552)	0.8	5.7	19.4	29.6	43.9	0.6
	광역시	100(3,194)	0.3	5.4	20.5	30.1	43.5	0.3
	시·군	100(5,098)	0.2	5.7	18.1	28.8	46.8	0.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0.2	5.1	18.8	29.2	46.4	0.4
	한부모가정	100(952)	0.7	6.7	21.3	30.4	40.7	0.2
	조손가정	100(163)	1.8	14.1	22.7	28.2	33.1	0.0

1-8-5 손·발톱 청결 정도

**‘손·발톱 청결 정도’는 ‘깨끗한 편이다’의 응답이 86.2%,
‘지저분한 편이다’의 응답이 13.5%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손·발톱 청결정도는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6.2%가 ‘깨끗한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13.5%가 깨끗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보다 손·발톱 청결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성별에서는 조손가정보다 양부모가정이나 한 부모가정이 더 높은 청결 수준을 보였다.



[그림 III-53] 손·발톱 청결 정도

<표 III-53> 손·발톱 청결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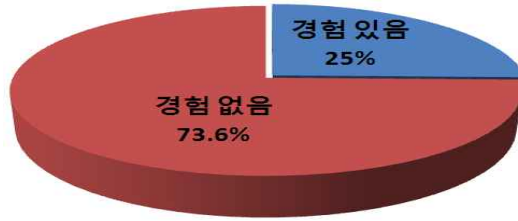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지저분함	지저분한 편임	깨끗한 편임	매우 깨끗함	무응답
전체		100(9,844)	0.5	12.9	72.2	14.0	0.4
성별	남자	100(5,061)	0.7	16.7	69.6	12.6	0.4
	여자	100(4,783)	0.3	9.0	74.9	15.5	0.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0.5	10.2	72.8	15.4	1.0
	중학교	100(3,254)	0.4	14.5	71.5	13.3	0.2
	고등학교	100(3,933)	0.6	13.5	72.3	13.6	0.1
거주지	서울	100(1,552)	0.6	11.4	72.6	15.0	0.4
	광역시	100(3,194)	0.6	13.0	72.4	13.7	0.3
	시·군	100(5,098)	0.4	13.4	71.9	13.8	0.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0.4	12.6	72.7	13.9	0.4
	한부모가정	100(952)	0.7	14.4	72.1	12.6	0.2
	조손가정	100(163)	1.8	19.0	62.0	17.2	0.0

1-8-6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 경험 여부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5.0%가 그렇다고 응답**

○ 학교에서의 개인위생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3.6%가 경험이 없다고 했고, 25%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경험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이나 거주지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I-54]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 경험 여부

<표 III-54>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 경험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χ^2
전체		100(9,844)	25.0	73.6	1.4	
성별	남자	100(5,061)	26.8	71.6	1.6	20.014***
	여자	100(4,783)	23.0	75.7	1.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9.1	47.6	3.3	1,345.908***
	중학교	100(3,254)	23.0	75.9	1.2	
	고등학교	100(3,933)	10.4	89.2	0.4	
거주지	서울	100(1,552)	28.0	70.9	1.1	9.006*
	광역시	100(3,194)	24.1	74.6	1.3	
	시·군	100(5,098)	24.6	73.7	1.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25.5	73.3	1.2	37.794***
	한부모가정	100(952)	17.8	79.8	2.4	
	조손가정	100(163)	31.3	65.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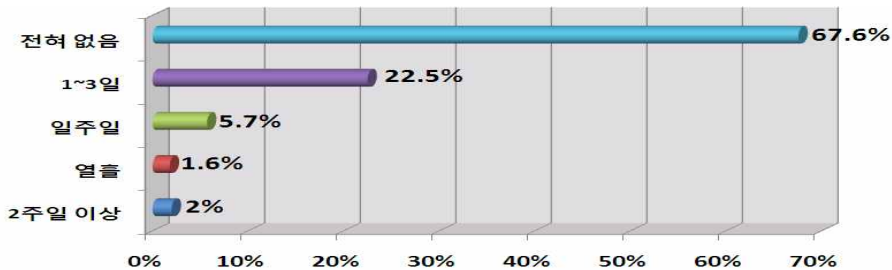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1-9 활동제한

1-9-1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 일수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 일 수’는
‘전혀 없음(67.6%)’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1~3일(22.5%)’ 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일 수에 대해서, 응답자의 67.6%가 ‘전혀 없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1~3일(22.5%)’, ‘일주일(5.7%)’, ‘열흘(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수 응답이었지만, ‘2 주일 이상’의 응답도 2%로 나타났다.



[그림 III-55]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 일수

<표 III-55>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 일수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음	1~3일	일주일 정도	열흘정도	2주일 이상	무응답
전체		100(9,844)	67.6	22.5	5.7	1.8	2.0	0.4
성별	남자	100(5,061)	66.6	22.7	5.9	2.2	2.1	0.5
	여자	100(4,783)	68.7	22.3	5.5	1.5	1.8	0.3
교육별	초등학교	100(2,657)	60.5	27.9	6.7	2.2	1.7	1.0
	중학교	100(3,254)	67.8	23.4	5.1	1.4	2.1	0.1
	고등학교	100(3,933)	72.2	18.1	5.5	1.9	2.1	0.2
거주지	서울	100(1,552)	60.6	28.4	6.1	2.0	2.4	0.5
	광역시	100(3,194)	70.6	19.5	5.7	1.9	1.9	0.4
	시·군	100(5,098)	67.8	22.6	5.6	1.7	1.8	0.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68.6	22.1	5.6	1.7	1.7	0.4
	한부모가정	100(952)	61.6	24.9	7.2	2.7	3.4	0.2
	조손가정	100(163)	65.6	24.5	6.1	1.8	1.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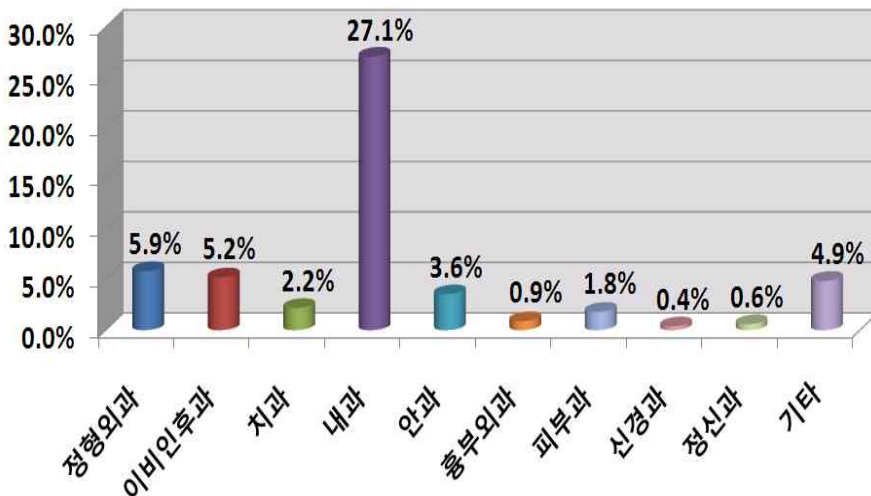
1-9-2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활동제한)이유

‘내과 질환(27.1%)’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 질환(5.9%)’, ‘이비인후과 질환(5.2%)’, ‘안과 질환(3.6%)’ 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 이유에 대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내과질환(27.1%)’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형외과 질환(5.9%)’, ‘이비인후과 질환(5.2%)’, ‘안과 질환(3.6%)’, ‘치과 질환(2.2%)’ 순으로 나타났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내과질환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안과질환이나 흉부외과, 정신과 질환의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분석결과에서는 남학생들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정형외과 질환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안과질환이나 이비인후과 질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56]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활동제한)이유

<표 III-56>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활동제한)이유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정형외과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치과 질환	내과 질환	안과 질환
전체		100(9,844)	5.9	5.2	2.2	27.1	3.6
성별	남자	100(5,061)	7.2	4.8	2.2	26.3	3.1
	여자	100(4,783)	4.4	5.6	2.2	27.9	4.1
교육별	초등학교	100(2,657)	4.8	5.4	2.1	32.1	3.1
	중학교	100(3,254)	6.4	4.9	1.8	27.2	3.3
	고등학교	100(3,933)	6.1	5.4	2.6	23.6	4.0
거주지	서울	100(1,552)	7.9	7.5	1.6	32.0	4.2
	광역시	100(3,194)	5.7	4.5	2.2	24.9	3.6
	시·군	100(5,098)	5.3	5.0	2.4	26.9	3.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5.6	5.4	1.9	26.7	3.4
	한부모가정	100(952)	7.4	3.6	4.0	31.5	3.6
	조손가정	100(163)	6.7	4.3	3.7	23.9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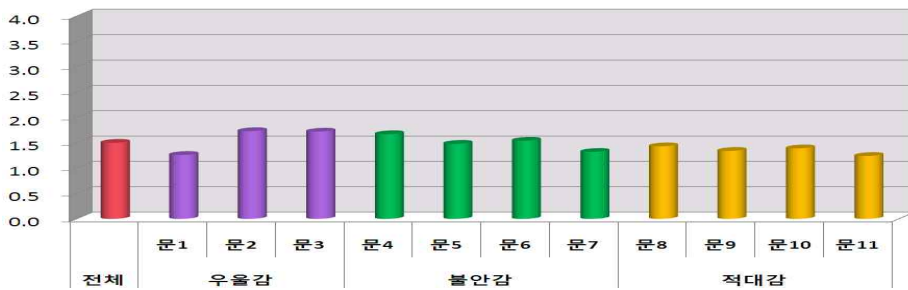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흉부외과 질환	피부과 질환	신경과 질환	정신과 질환	기타	무응답
전체		0.9	1.8	0.4	0.6	4.9	58.2
성별	남자	1.0	1.6	0.5	0.5	5.2	57.4
	여자	0.8	2.0	0.3	0.7	4.5	59.1
교육별	초등학교	0.5	1.9	0.4	0.3	7.5	50.9
	중학교	0.9	1.6	0.4	0.4	4.8	58.2
	고등학교	1.1	2.0	0.4	1.0	3.2	63.1
거주지	서울	0.7	1.6	0.3	0.8	5.9	50.1
	광역시	0.9	1.5	0.4	0.5	4.8	60.3
	시·군	1.0	2.1	0.4	0.6	4.6	59.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0.9	1.7	0.4	0.6	4.5	59.2
	한부모가정	0.9	2.3	0.5	0.4	6.3	53.3
	조손가정	1.2	2.5	0.6	1.8	6.7	55.2

2) 심리건강

2-1 개인영역

2-1-1~2-1-3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심리건강 중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우울, 불안, 적대감)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우울감(M=1.6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불안감(M=1.50)’, ‘적대감(M=1.35)’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III-57]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평균

<표 III-57>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우울감	1 외롭다	1.26	.750
	2 기분이 울적하다	1.73	.814
	3 허무한 느낌이 든다	1.72	.859
소계		1.68	.717
불안감	4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1.67	.844
	5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1.48	.778
	6 긴장이 된다	1.54	.767
	7 심장(가슴)이 마구 뛰다	1.32	.659
소계		1.50	.635
적대감	8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화가 치민다	1.43	.776
	9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34	.710
	10 무언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39	.751
	11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1.24	.617
소계		1.35	.602
부적응적 심리요인 (전체)		1.50	.561

■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청소년들의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들에 비해 중학생이 그리고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울, 불안, 적대감 등 부적응적 심리요인들의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I-5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58>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		부적응적 요인(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5,061)	1.55 (0.739)	-19.068 ***	1.42 (0.590)	-13.103 **	1.33 (0.585)	-3.984 ***	1.42 (0.526)	-13.552 ***
	여자 (n=4,783)	1.82 (0.739)		1.59 (0.669)		1.38 (0.618)		1.58 (0.586)	
교급별	초등학교 (n=2,657)	1.39 (0.590)	492.181 *** (ab, ac, bc)	1.31 (0.520)	237.826 *** (ab, ac, bc)	1.22 (0.501)	96.952 *** (ab, ac)	1.29 (0.460)	313.507 *** (ab, ac, bc)
	중학교 (n=3,254)	1.64 (0.701)		1.49 (0.642)		1.38 (0.642)		1.49 (0.579)	
	고등학교 (n=3,933)	1.92 (0.727)		1.64 (0.664)		1.42 (0.616)		1.64 (0.566)	
거주지	서울 (n=1,552)	1.71 (0.762)	1.969	1.53 (0.666)	1.915	1.36 (0.642)	0.626	1.52 (0.597)	1.799
	광역시 (n=3,194)	1.66 (0.695)		1.49 (0.626)		1.34 (0.580)		1.48 (0.547)	
	시·군 (n=5,098)	1.69 (0.712)		1.51 (0.630)		1.35 (0.591)		1.50 (0.553)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n=8,411)	1.67 (0.707)	19.543 *** (gh)	1.50 (0.730)	4.923 ** (gh)	1.33 (0.717)	5.006 ** (gh)	1.49 (0.550)	10.393 *** (gh)
	한부모 가정 (n=952)	1.83 (0.750)		1.56 (0.682)		1.42 (0.672)		1.58 (0.598)	
	조손가정 (n=163)	1.69 (0.750)		1.56 (0.699)		1.37 (0.600)		1.53 (0.584)	
전체 M(SD)		1.68(0.717)		1.50(0.635)		1.35(0.602)		1.50(0.561)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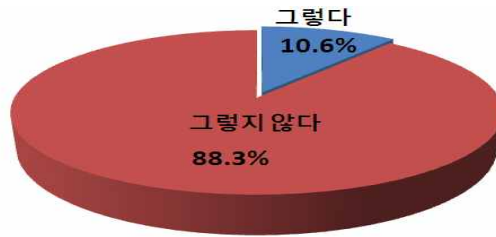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2-1-1-① 최근 1주일간 우울감 경험 정도 - 외로움

**‘외롭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0.6%가 그렇다고 응답**

○ ‘외롭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8.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0.6%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외롭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8] 외롭다

<표 III-59> 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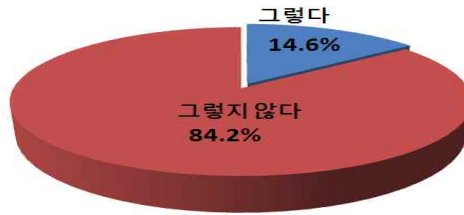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무응답
전체		100(9,844)	51.1	37.2	7.9	2.8	1.1
성별	남자	100(5,061)	60.5	30.5	5.6	2.1	1.3
	여자	100(4,783)	41.1	44.3	10.2	3.4	0.9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6.6	26.7	3.9	1.4	1.4
	중학교	100(3,254)	52.8	35.7	7.5	2.5	1.5
	고등학교	100(3,933)	39.2	45.5	10.8	4.0	0.6
거주지	서울	100(1,552)	49.4	36.9	8.5	3.5	1.6
	광역시	100(3,194)	51.4	37.2	7.6	2.7	1.1
	시·군	100(5,098)	51.4	37.2	7.8	2.6	0.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52.2	36.7	7.5	2.5	1.0
	한부모가정	100(952)	38.4	44.7	11.4	3.8	1.6
	조손가정	100(163)	50.9	35.0	9.2	4.3	0.6

2-1-1-② 최근 1주일간 우울감 경험 정도 - **울적한 기분**

**‘기분이 울적하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4.6%가 그렇다고 응답**

○ ‘기분이 울적하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4.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4.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울적하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울적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서 기분이 울적한 감정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9] 기분이 울적하다

<표 III-60> 기분이 울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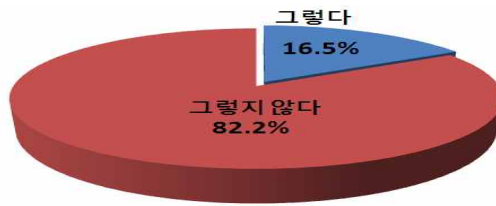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무응답
전체		100(9,844)	43.4	40.9	10.9	3.7	1.2
성별	남자	100(5,061)	53.7	34.9	7.5	2.4	1.4
	여자	100(4,783)	32.4	47.2	14.4	5.1	0.9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3.9	28.0	5.0	1.5	1.6
	중학교	100(3,254)	44.1	41.4	9.3	3.5	1.6
	고등학교	100(3,933)	28.9	49.0	16.1	5.4	0.6
거주지	서울	100(1,552)	43.0	39.5	11.5	4.6	1.5
	광역시	100(3,194)	44.0	40.4	11.4	3.1	1.2
	시·군	100(5,098)	43.1	41.6	10.4	3.9	1.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43.8	40.9	10.7	3.5	1.0
	한부모가정	100(952)	34.8	44.4	14.1	5.0	1.7
	조손가정	100(163)	47.2	36.2	11.0	4.3	1.2

2-1-1-③ 최근 1주일간 우울감 경험 정도 - 허무한 느낌

**‘허무한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6.5%가 그렇다고 응답**

○ ‘허무한 느낌이 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2.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16.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허무한 느낌이 더 든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허무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0] 허무한 느낌이 든다

<표 III-61> 허무한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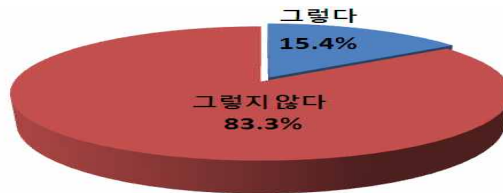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무응답
전체		100(9,844)	46.2	36.0	12.0	4.6	1.2
성별	남자	100(5,061)	50.9	34.6	9.8	3.4	1.4
	여자	100(4,783)	41.3	37.5	14.3	5.8	1.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7.1	25.3	4.4	1.7	1.6
	중학교	100(3,254)	48.4	35.4	10.6	3.9	1.6
	고등학교	100(3,933)	30.3	43.7	18.2	7.0	0.7
거주지	서울	100(1,552)	45.6	35.2	11.7	5.7	1.8
	광역시	100(3,194)	46.5	36.7	11.8	3.8	1.3
	시·군	100(5,098)	46.2	35.8	12.2	4.7	1.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46.6	36.0	11.9	4.3	1.1
	한부모가정	100(952)	37.8	40.1	14.2	6.2	1.7
	조손가정	100(163)	50.3	30.1	14.7	4.3	0.6

2-1-2-① 최근 1주일간 불안감 경험 정도 - 신경 예민 및 불안정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5.4%가 그렇다고 응답**

○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3.3%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15.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이러한 상태를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에서는 조손가정의 청소년이 이와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III-61]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표 III-62>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무응답
전체		100(9,844)	49.7	33.7	11.4	3.9	1.3
성별	남자	100(5,061)	56.2	30.2	9.4	2.7	1.5
	여자	100(4,783)	42.7	37.3	13.7	5.2	1.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6.8	24.5	5.5	1.6	1.6
	중학교	100(3,254)	50.2	33.1	11.0	4.0	1.7
	고등학교	100(3,933)	37.7	40.3	15.8	5.5	0.7
거주지	서울	100(1,552)	48.1	33.6	12.0	4.6	1.7
	광역시	100(3,194)	50.3	33.5	11.6	3.3	1.3
	시·군	100(5,098)	49.7	33.8	11.2	4.2	1.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50.1	33.6	11.5	3.6	1.1
	한부모가정	100(952)	43.0	37.4	11.7	5.9	2.1
	조손가정	100(163)	53.4	22.7	17.2	6.1	0.6

2-1-2-② 최근 1주일간 불안감 경험 정도 - 아무 이유 없이 불안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0.4%가 그렇다고 응답**

○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9.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10.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이유 없이 불안함을 더 느낀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이유 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손가정 청소년이 양부모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림 III-62]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표 III-63>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무응답
전체		100(9,844)	63.1	25.2	7.3	3.1	1.2
성별	남자	100(5,061)	69.4	21.6	5.4	2.1	1.4
	여자	100(4,783)	56.4	29.1	9.3	4.1	1.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76.3	16.8	3.7	1.5	1.8
	중학교	100(3,254)	62.8	25.4	7.0	3.2	1.6
	고등학교	100(3,933)	54.5	30.8	9.9	4.1	0.6
거주지	서울	100(1,552)	61.5	25.5	7.7	3.5	1.8
	광역시	100(3,194)	64.0	24.9	7.2	2.6	1.3
	시·군	100(5,098)	63.0	25.4	7.2	3.3	1.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63.6	25.1	7.3	2.8	1.1
	한부모가정	100(952)	57.4	28.4	7.7	4.7	1.9
	조손가정	100(163)	62.0	22.7	8.6	5.5	1.2

2-1-2-③ 최근 1주일간 불안감 경험 정도 - **긴장이 됨**

**‘긴장이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0.5%가 그렇다고 응답**

○ ‘긴장이 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8.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10.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긴장이 된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긴장감을 느끼는 비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63] 긴장이 된다

<표 Ⅲ-64> 긴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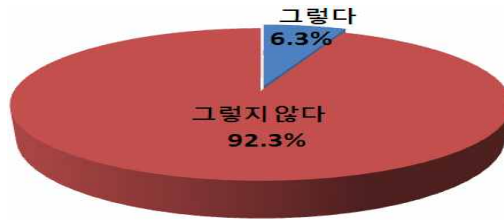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무응답
전체		100(9,844)	56.7	31.5	7.9	2.6	1.3
성별	남자	100(5,061)	59.8	29.7	6.9	2.1	1.4
	여자	100(4,783)	53.3	33.5	8.9	3.1	1.2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7.3	25.7	3.8	1.5	1.8
	중학교	100(3,254)	57.1	30.8	8.0	2.6	1.6
	고등학교	100(3,933)	49.1	36.1	10.6	3.4	0.7
거주지	서울	100(1,552)	55.0	32.2	8.2	2.9	1.7
	광역시	100(3,194)	57.5	30.9	7.9	2.5	1.3
	시·군	100(5,098)	56.7	31.8	7.8	2.6	1.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56.7	31.9	7.8	2.5	1.1
	한부모가정	100(952)	54.3	31.2	9.0	3.3	2.2
	조손가정	100(163)	54.0	35.0	8.6	1.8	0.6

2-1-2-④ 최근 1주일간 불안감 경험 정도 - 심장이 마구 뼉

**‘심장(가슴)이 마구 뼉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3%가 그렇다고 응답**

○ ‘심장(가슴)이 마구 뼉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92.3%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6.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심장이 마구 뼉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이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림 III-64] 심장(가슴)이 마구 뼉다

<표 III-65> 심장(가슴)이 마구 뼉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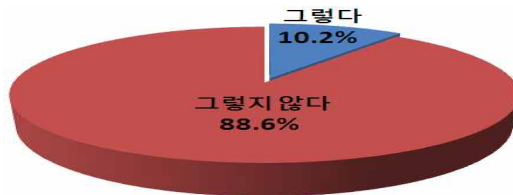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무응답
전체		100(9,844)	72.7	19.6	4.8	1.6	1.4
성별	남자	100(5,061)	75.9	17.6	3.7	1.3	1.6
	여자	100(4,783)	69.4	21.8	5.9	1.8	1.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80.1	14.4	2.8	0.8	1.9
	중학교	100(3,254)	73.0	18.8	4.7	1.8	1.7
	고등학교	100(3,933)	67.5	23.8	6.1	1.9	0.7
거주지	서울	100(1,552)	72.4	18.1	5.5	2.4	1.5
	광역시	100(3,194)	72.6	20.3	4.7	1.2	1.3
	시·군	100(5,098)	72.9	19.7	4.6	1.5	1.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73.1	19.7	4.6	1.4	1.2
	한부모가정	100(952)	69.1	20.9	5.5	2.0	2.5
	조손가정	100(163)	69.9	22.1	5.5	1.8	0.6

2-1-3-① 최근 1주일간 적대감 경험 정도 - 화가 치밀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화가 치민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0.2%가 그렇다고 응답**

○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화가 치민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8.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10.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5]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화가 치민다

<표 III-66>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화가 치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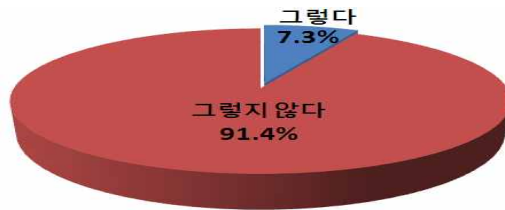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무응답
전체		100(9,844)	67.3	21.2	7.0	3.2	1.3
성별	남자	100(5,061)	70.3	19.8	5.8	2.6	1.5
	여자	100(4,783)	64.2	22.8	8.2	3.7	1.0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75.5	16.4	4.1	2.0	1.9
	중학교	100(3,254)	66.1	21.4	7.2	3.8	1.5
	고등학교	100(3,933)	62.9	24.3	8.7	3.4	0.7
거주지	서울	100(1,552)	65.3	21.8	7.0	4.3	1.7
	광역시	100(3,194)	68.0	21.4	6.7	2.7	1.2
	시·군	100(5,098)	67.5	21.0	7.2	3.2	1.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68.0	21.1	6.8	3.0	1.1
	한부모가정	100(952)	61.8	22.5	8.8	4.6	2.3
	조손가정	100(163)	61.3	27.6	6.7	1.8	2.5

2-1-3-② 최근 1주일간 적대감 경험 정도 - 누군가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3%가 그렇다고 응답**

○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91.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7.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6] 누군가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표 III-67> 누군가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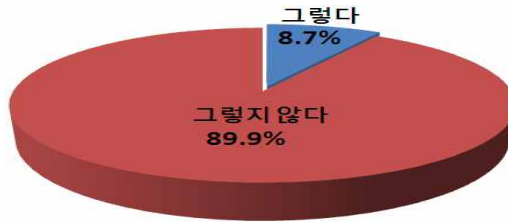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무응답
전체		100(9,844)	73.3	18.2	4.6	2.7	1.3
성별	남자	100(5,061)	71.5	19.8	4.4	2.7	1.5
	여자	100(4,783)	75.1	16.4	4.7	2.7	1.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82.5	11.6	2.3	1.5	2.0
	중학교	100(3,254)	70.0	20.7	4.3	3.4	1.6
	고등학교	100(3,933)	69.7	20.5	6.3	2.8	0.6
거주지	서울	100(1,552)	72.1	18.4	4.1	3.8	1.6
	광역시	100(3,194)	73.2	18.0	5.1	2.3	1.3
	시·군	100(5,098)	73.6	18.2	4.4	2.6	1.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73.9	18.1	4.5	2.5	1.1
	한부모가정	100(952)	68.3	19.3	5.9	3.9	2.6
	조손가정	100(163)	69.3	21.5	4.9	2.5	1.8

2-1-3-③ 최근 1주일간 적대감 경험 정도 -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7%가 그렇다고 응답**

○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9.9%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8.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7]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표 III-68>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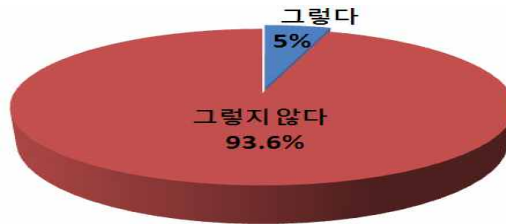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무응답
전체		100(9,844)	70.4	19.5	5.6	3.1	1.4
성별	남자	100(5,061)	70.8	19.2	5.3	3.1	1.6
	여자	100(4,783)	69.9	19.9	5.9	3.2	1.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80.6	12.6	3.0	1.7	2.1
	중학교	100(3,254)	68.0	20.6	5.8	4.0	1.6
	고등학교	100(3,933)	65.5	23.4	7.2	3.3	0.6
거주지	서울	100(1,552)	69.7	18.9	5.1	4.1	2.1
	광역시	100(3,194)	70.2	19.6	6.1	2.8	1.3
	시·군	100(5,098)	70.7	19.7	5.4	3.0	1.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71.1	19.4	5.5	2.9	1.1
	한부모가정	100(952)	64.4	21.4	7.5	4.2	2.5
	조손가정	100(163)	66.9	23.9	3.7	3.7	1.8

2-1-3-④ 최근 1주일간 적대감 경험 정도 - 고함을 치거나 물건 내 던짐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0%가 그렇다고 응답**

○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3.9%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단 5%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8]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표 III-69>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무응답
전체		100(9,844)	79.9	13.7	3.3	1.7	1.4
성별	남자	100(5,061)	82.1	12.2	2.6	1.5	1.6
	여자	100(4,783)	77.5	15.3	4.0	2.0	1.2
교육별	초등학교	100(2,657)	83.5	10.9	2.2	1.2	2.2
	중학교	100(3,254)	78.1	14.4	3.8	2.1	1.6
	고등학교	100(3,933)	78.9	15.1	3.5	1.8	0.7
거주지	서울	100(1,552)	79.9	12.6	3.2	2.5	1.8
	광역시	100(3,194)	80.0	13.9	3.2	1.7	1.3
	시·군	100(5,098)	79.7	14.0	3.3	1.6	1.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80.8	13.4	3.1	1.6	1.2
	한부모가정	100(952)	73.6	16.9	4.5	2.3	2.6
	조손가정	100(163)	76.7	16.0	2.5	3.1	1.8

2-1-4-①~⑫ 개인 내(內) ‘스트레스 요인’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심리건강 중 개인 내(內)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학업문제(M=2.7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진로문제(M=2.27)’,
‘외모(M=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9] 개인 내(內) 스트레스 요인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표 III-70> 개인 내(內) 스트레스 요인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스트레스	1 부모님과과의 관계	2.13	.984
	2 형제·자매와의 관계	1.99	1.015
	3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2.17	1.010
	4 신체건강	1.66	.854
	5 심리건강	1.69	.903
	6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1.58	.853
	7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1.76	.927
	8 이성과의 관계	1.43	.780
	9 선·후배 관계	1.26	.622
	10 선생님과의 관계	1.44	.786
	11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2.27	1.169
	12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2.74	1.126
스트레스 요인 (전체)		1.84	.556

□ 개인 내(內) 스트레스 요인의 요인별 차이

청소년들의 개인 내(內) 스트레스 심리요인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그리고 가족구성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고, 한 부모 가정이 양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I-7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71> 개인 내(內) 스트레스 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 관계		외모		신체 건강		심리 건강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5,061)	2.06 (0.988)	-7.222 ***	1.91 (0.103)	-7.786 **	1.91 (0.963)	-27.832 ***	1.56 (0.816)	-12.141 ***	1.52 (0.816)	-19.262 ***
	여자 (n=4,783)	2.20 (0.974)		2.07 (1.011)		2.45 (0.982)		1.77 (0.880)		1.87 (0.956)	
교급 별	초등학교 (n=2,657)	1.80 (0.947)	208.830 *** (ab, ac)	2.09 (1.087)	62.981 *** (ac, bc)	1.66 (0.934)	605.834 *** (ab, ac, bc)	1.39 (0.740)	255.965 *** (ab, ac, bc)	1.30 (0.689)	460.632 *** (ab, ac, bc)
	중학교 (n=3,254)	2.24 (0.994)		2.08 (1.039)		2.20 (0.987)		1.65 (0.838)		1.69 (0.884)	
	고등학교 (n=3,933)	2.25 (0.949)		1.85 (0.925)		2.49 (0.936)		1.85 (0.886)		1.96 (0.949)	
거주 지	서울 (n=1,552)	2.24 (1.001)	12.639 *** (de, ef)	2.03 (1.036)	3.392	2.21 (1.030)	1.413	1.71 (0.891)	2.947	1.76 (0.945)	4.656 ** (de, df)
	광역시 (n=3,194)	2.10 (0.971)		1.95 (1.000)		2.16 (0.996)		1.65 (0.838)		1.68 (0.887)	
	시·군 (n=5,098)	2.11 (0.984)		2.00 (1.017)		2.17 (1.011)		1.66 (0.852)		1.68 (0.900)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n=8,411)	2.12 (0.975)	6.591 ** (gh, hi)	1.99 (1.005)	1.270	2.18 (1.001)	7.018 ** (gi, hi)	1.65 (0.842)	7.483 ** (gh, hi)	1.68 (0.892)	10.080 *** (gh, hi)
	한부모 가정 (n=952)	2.21 (1.001)		2.00 (1.060)		2.24 (1.029)		1.76 (0.900)		1.82 (0.963)	
	조손가정 (n=163)	1.94 (1.004)		1.87 (1.045)		1.93 (1.057)		1.63 (0.846)		1.71 (0.962)	
전체 M(SD)		2.13(0.984)		1.99(1.015)		1.27(1.010)		1.66(0.854)		1.69(0.903)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가정 형편		친구 관계		이성 관계		선후배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5,061)	1.49 (0.813)	-10.834 ***	1.65 (0.889)	-12.066 ***	1.39 (0.762)	-4.764 ***	1.26 (0.623)	-1.202	1.40 (0.764)	-5.731 ***
	여자 (n=4,783)	1.67 (0.883)		1.88 (0.952)		1.47 (0.796)		1.27 (0.621)		1.49 (0.807)	
교급 별	초등학교 (n=2,657)	1.25 (0.645)	400.982 ** (ab, ac, bc)	1.63 (0.936)	42.571 *** (ab, ac, bc)	1.20 (0.586)	223.276 *** (ab, ac, bc)	1.22 (0.617)	15.516 *** (ab, ac, bc)	1.25 (0.659)	122.419 *** (ab, ac, bc)
	중학교 (n=3,254)	1.53 (0.811)		1.77 (0.932)		1.41 (0.761)		1.31 (0.667)		1.45 (0.789)	
	고등학교 (n=3,933)	1.83 (0.927)		1.84 (0.907)		1.60 (0.864)		1.26 (0.584)		1.56 (0.838)	
거주 지	서울 (n=1,552)	1.63 (0.898)	3.900 * (df)	1.74 (0.932)	0.700	1.47 (0.822)	2.025	1.28 (0.656)	2.526	1.44 (0.793)	0.134
	광역시 (n=3,194)	1.57 (0.836)		1.75 (0.907)		1.43 (0.764)		1.24 (0.590)		1.44 (0.778)	
	사군 (n=5,098)	1.56 (0.849)		1.77 (0.938)		1.42 (0.776)		1.27 (0.631)		1.45 (0.790)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n=8,411)	1.53 (0.811)	124.275 *** (gh, gi, hi)	1.75 (0.915)	14.363 *** (gh, hi)	1.42 (0.762)	12.039 *** (gh, gi)	1.25 (0.604)	5.237 * (gi)	1.44 (0.777)	0.840
	한부모 가정 (n=952)	1.97 (1.012)		1.91 (0.984)		1.52 (0.837)		1.29 (0.638)		1.47 (0.808)	
	조손가정 (n=163)	1.75 (0.969)		1.75 (0.952)		1.61 (0.958)		1.39 (0.772)		1.47 (0.780)	
전체 M(SD)		1.58(0.853)		1.76(0.927)		1.43(0.780)		1.26(0.622)		1.44(0.786)	

응답자의 특성		진로 문제		학업 문제		스트레스(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5,061)	2.10 (1.140)	-15.195 ***	2.57 (1.151)	-15.292 ***	1.73 (0.542)	-20.385 ***
	여자 (n=4,783)	2.46 (1.171)		2.91 (1.071)		1.96 (0.548)	
교급 별	초등학교 (n=2,657)	1.35 (0.767)	1983.686 *** (ab, ac, bc)	2.05 (1.104)	846.686 *** (ab, ac, bc)	1.52 (0.499)	843.109 *** (ab, ac, bc)
	중학교 (n=3,254)	2.25 (1.104)		2.83 (1.063)		1.87 (0.544)	
	고등학교 (n=3,933)	2.91 (1.016)		3.11 (0.974)		2.04 (0.498)	
거주 지	서울 (n=1,552)	2.31 (1.188)	0.879	2.82 (1.103)	4.779 ** (de, df)	1.88 (0.572)	5.240 ** (de, df)
	광역시 (n=3,194)	2.27 (1.148)		2.72 (1.112)		1.83 (0.540)	
	시·군 (n=5,098)	2.26 (1.169)		2.74 (1.141)		1.84 (0.562)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n=1,232)	2.27 (1.161)	16.847 *** (gh, gi, hi)	2.76 (1.114)	9.969 *** (gi, hi)	1.84 (0.543)	20.558 *** (gh, hi)
	한 부모가정 (n=952)	2.47 (1.189)		2.78 (1.128)		1.95 (0.573)	
	조손가정 (n=163)	2.00 (1.192)		2.37 (1.207)		1.78 (0.593)	
전체 M(SD)		2.27(1.169)		2.74(1.126)		1.84(0.55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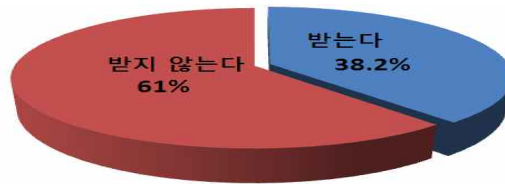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2-1-4-①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 부모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받는다’의 응답률이 38.2%, ‘받지 않는다’는 61.0%로 나타남**

○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8.2%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61%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 양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청소년들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모와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0] 부모님과의 관계

<표 III-72> 부모님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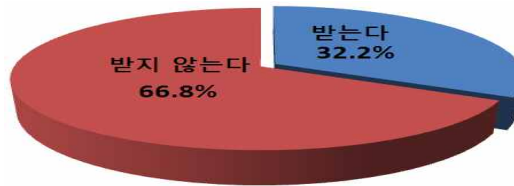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2.2	28.8	30.0	8.3	0.8
성별	남자	100(5,061)	35.1	28.9	27.1	7.9	1.0
	여자	100(4,783)	29.2	28.6	33.0	8.6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8.1	24.5	21.4	4.7	1.3
	중학교	100(3,254)	27.4	28.4	33.2	10.2	0.9
	고등학교	100(3,933)	25.5	31.9	33.2	9.1	0.4
거주지	서울	100(1,552)	28.5	27.7	32.6	10.6	0.6
	광역시	100(3,194)	32.7	29.5	29.6	7.5	0.8
	시·군	100(5,098)	33.1	28.6	29.4	8.0	0.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2.0	29.1	30.2	7.9	0.7
	한부모가정	100(952)	29.5	28.8	30.6	10.6	0.5
	조손가정	100(163)	46.0	21.5	25.2	7.4	0.0

2-1-4-②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 형제 자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받는다’의 응답률이 32.2%, ‘받지 않는다’는 66.8%로 나타남**

○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2.2%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66.8%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형제·자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들이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 양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형제·자매 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1] 형제·자매와의 관계

<표 III-73> 형제·자매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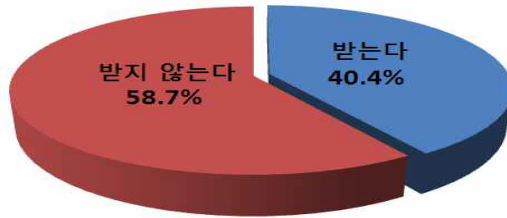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40.2	26.6	23.3	8.9	0.9
성별	남자	100(5,061)	43.9	25.4	21.2	8.3	1.3
	여자	100(4,783)	36.4	27.9	25.5	9.6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8.5	21.9	26.0	12.1	1.5
	중학교	100(3,254)	36.7	26.5	25.1	10.8	0.9
	고등학교	100(3,933)	44.3	30.0	19.9	5.3	0.6
거주지	서울	100(1,552)	38.6	26.8	23.2	10.2	1.2
	광역시	100(3,194)	41.3	28.2	21.1	8.6	0.8
	시·군	100(5,098)	40.1	25.6	24.7	8.8	0.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9.7	27.5	23.3	8.6	0.9
	한부모가정	100(952)	42.9	23.1	22.3	10.9	0.8
	조손가정	100(163)	51.5	17.2	22.1	8.6	0.6

2-1-4-③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 외모

**‘외모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받는다’의 응답률이 40.4%, ‘받지 않는다’는 58.7%로 응답**

○ ‘외모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0.4%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58.7%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2]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표 III-74>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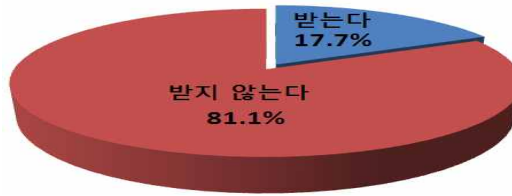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1.3	27.4	30.5	9.8	0.9
성별	남자	100(5,061)	41.5	28.4	22.9	5.9	1.3
	여자	100(4,783)	20.5	26.4	38.7	14.0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56.2	22.1	14.9	5.3	1.6
	중학교	100(3,254)	28.3	30.1	31.2	9.5	1.0
	고등학교	100(3,933)	16.9	28.9	40.6	13.2	0.4
거주지	서울	100(1,552)	30.3	26.7	30.5	11.4	1.0
	광역시	100(3,194)	30.7	28.6	30.6	9.1	1.0
	시·군	100(5,098)	31.9	26.9	30.5	9.8	0.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0.6	27.8	31.2	9.5	0.9
	한부모가정	100(952)	29.3	27.1	30.7	12.2	0.7
	조손가정	100(163)	48.5	21.5	19.0	11.0	0.0

2-1-4-④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 신체건강

**‘신체건강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받는다’의 응답률이 17.7%, ‘받지 않는다’는 81.1%로 응답**

○ ‘신체건강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7.7%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81.8%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신체건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신체건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 양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신체건강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73] 신체건강

<표 Ⅲ-75> 신체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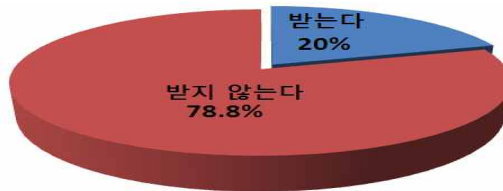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52.5	28.6	14.6	3.2	1.1
성별	남자	100(5,061)	58.0	26.1	11.8	2.5	1.5
	여자	100(4,783)	46.8	31.2	17.4	3.8	0.8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70.4	18.1	7.8	2.0	1.7
	중학교	100(3,254)	51.4	30.5	13.9	2.8	1.4
	고등학교	100(3,933)	41.5	34.0	19.7	4.2	0.6
거주지	서울	100(1,552)	49.7	30.0	14.4	4.5	1.4
	광역시	100(3,194)	52.5	29.2	14.4	2.6	1.3
	시·군	100(5,098)	53.4	27.8	14.7	3.1	1.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52.9	28.7	14.4	2.9	1.1
	한부모가정	100(952)	47.3	30.8	16.2	4.7	1.1
	조손가정	100(163)	56.4	28.2	11.0	4.3	0.0

2-1-4-⑤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 심리건강

**‘심리건강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받는다’의 응답률이 20.0%, ‘받지 않는다’는 78.8%로 응답**

○ ‘심리건강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0%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78.8%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심리건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심리건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 양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심리건강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74] 심리건강

<표 Ⅲ-76> 심리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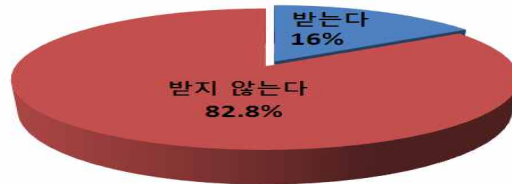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52.8	25.9	15.6	4.5	1.2
성별	남자	100(5,061)	61.1	23.7	11.0	2.8	1.5
	여자	100(4,783)	44.1	28.3	20.4	6.3	0.9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75.5	15.3	5.4	2.0	1.9
	중학교	100(3,254)	51.8	27.8	15.2	4.0	1.3
	고등학교	100(3,933)	38.4	31.6	22.7	6.6	0.7
거주지	서울	100(1,552)	49.5	27.3	15.7	6.1	1.4
	광역시	100(3,194)	52.8	26.5	15.6	3.9	1.2
	시·군	100(5,098)	53.8	25.1	15.5	4.3	1.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53.2	26.2	15.3	4.1	1.1
	한부모가정	100(952)	47.2	25.8	19.7	6.0	1.3
	조손가정	100(163)	54.6	27.0	9.2	8.6	0.6

2-1-4-⑥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 가정형편

**‘가정형편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받는다’의 응답률이 16.0%, ‘받지 않는다’는 82.8%로 응답**

○ ‘가정형편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6%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82.8%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가정형편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가정형편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 양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가정형편으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5]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표 III-77>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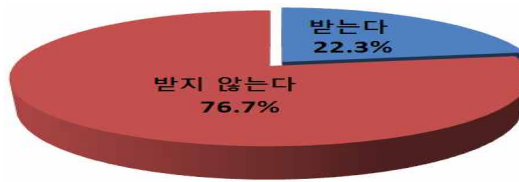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59.6	23.3	12.5	3.5	1.2
성별	남자	100(5,061)	64.5	21.0	10.0	3.0	1.5
	여자	100(4,783)	54.3	25.7	15.2	4.0	0.9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79.2	12.2	5.3	1.4	1.9
	중학교	100(3,254)	60.6	24.8	10.5	2.9	1.2
	고등학교	100(3,933)	45.4	29.4	19.1	5.4	0.7
거주지	서울	100(1,552)	57.5	23.4	13.2	4.8	1.2
	광역시	100(3,194)	58.9	24.2	12.8	2.9	1.2
	시·군	100(5,098)	60.6	22.6	12.1	3.5	1.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61.7	23.2	11.2	2.7	1.1
	한부모가정	100(952)	41.7	25.0	24.2	8.2	0.9
	조손가정	100(163)	53.4	26.4	11.7	8.6	0.0

2-1-4-⑦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 친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받는다’의 응답률이 22.3%, ‘받지 않는다’는 76.7%로 응답**

○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2.3%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76.7%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 양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친구 관계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6]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표 III-78>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49.5	27.2	17.0	5.3	1.0
성별	남자	100(5,061)	54.7	26.1	13.4	4.5	1.3
	여자	100(4,783)	43.9	28.3	20.9	6.1	0.8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59.2	19.9	13.8	5.6	1.5
	중학교	100(3,254)	48.3	27.7	17.5	5.3	1.2
	고등학교	100(3,933)	43.9	31.7	18.9	5.0	0.5
거주지	서울	100(1,552)	49.8	27.4	15.8	5.5	1.4
	광역시	100(3,194)	49.1	28.6	16.8	4.7	0.9
	시·군	100(5,098)	49.6	26.3	17.6	5.5	1.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50.0	27.5	16.7	4.9	0.9
	한부모가정	100(952)	42.5	28.2	20.8	7.6	0.9
	조손가정	100(163)	52.1	23.3	19.6	4.3	0.6

2-1-4-⑧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 이성과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받는다’의 응답률이 11.5%, ‘받지 않는다’는 87.4%로 응답**

○ ‘이성과의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1.5%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대다수인 87.4%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이성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이성과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7] 이성과의 관계

<표 III-79> 이성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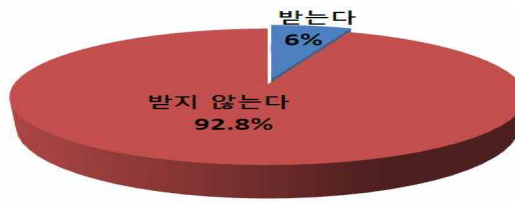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68.9	18.4	8.7	2.8	1.2
성별	남자	100(5,061)	70.6	18.0	7.1	2.9	1.4
	여자	100(4,783)	67.2	18.9	10.5	2.6	0.9
고급별	초등학교	100(2,657)	83.1	9.9	4.0	1.2	1.8
	중학교	100(3,254)	69.0	19.0	8.3	2.4	1.3
	고등학교	100(3,933)	59.3	23.6	12.3	4.1	0.6
거주지	서울	100(1,552)	66.8	19.1	9.0	3.6	1.5
	광역시	100(3,194)	68.5	18.9	9.2	2.2	1.1
	시·군	100(5,098)	69.9	17.9	8.4	2.8	1.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69.6	18.3	8.5	2.4	1.1
	한부모가정	100(952)	64.0	20.9	10.4	3.7	1.1
	조손가정	100(163)	64.4	17.8	9.8	8.0	0.0

2-1-4-⑨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 선·후배와의 관계

**‘선·후배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받는다’의 응답률이 6.0%, ‘받지 않는다’는 92.8%로 응답**

○ ‘선·후배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대다수인 92.8%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선·후배 관계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 가정 청소년들이 양부모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청소년들보다 친구 관계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8] 선·후배 관계

<표 III-80> 선·후배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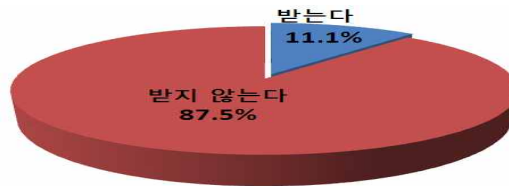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78.4	14.3	4.8	1.2	1.2
성별	남자	100(5,061)	78.6	14.1	4.4	1.3	1.4
	여자	100(4,783)	78.2	14.5	5.2	1.1	1.0
교육급별	초등학교	100(2,657)	82.5	9.6	4.9	1.3	1.7
	중학교	100(3,254)	75.0	16.4	5.7	1.5	1.5
	고등학교	100(3,933)	78.5	15.8	4.0	0.9	0.7
거주지	서울	100(1,552)	77.5	14.2	5.1	1.6	1.6
	광역시	100(3,194)	79.7	14.0	4.3	0.9	1.1
	시·군	100(5,098)	77.9	14.6	5.0	1.3	1.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79.1	14.0	4.7	1.0	1.2
	한부모가정	100(952)	76.2	16.3	5.0	1.3	1.3
	조손가정	100(163)	76.1	12.3	8.6	3.1	0.0

2-1-4-⑩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 선생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받는다’의 응답률이 11.1%, ‘받지 않는다’는 87.5%로 응답**

○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1.1%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대다수인 87.5%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선생님과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선생님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9] 선생님과의 관계

<표 III-81> 선생님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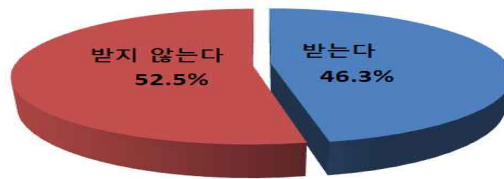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67.1	20.3	8.1	3.0	1.4
성별	남자	100(5,061)	69.4	19.2	6.7	2.9	1.7
	여자	100(4,783)	64.7	21.5	9.6	3.1	1.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79.3	12.2	4.8	1.8	1.8
	중학교	100(3,254)	65.9	20.7	9.2	2.7	1.6
	고등학교	100(3,933)	59.9	25.6	9.5	4.1	0.9
거주지	서울	100(1,552)	66.8	20.4	7.9	3.2	1.7
	광역시	100(3,194)	67.2	20.4	8.2	2.8	1.4
	시·군	100(5,098)	67.2	20.2	8.2	3.1	1.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67.4	20.4	8.1	2.8	1.3
	한부모가정	100(952)	65.0	21.5	8.5	3.4	1.6
	조손가정	100(163)	68.1	20.2	8.6	3.1	0.0

2-1-4-⑪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 진로문제

**‘진로문제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받는다’의 응답률이 46.3%, ‘받지 않는다’는 52.5%로 응답**

○ ‘진로문제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6.3%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52.5%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진로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진로문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한 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문제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80]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표 III-82>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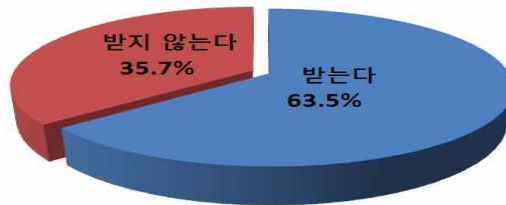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5.4	17.0	27.2	19.1	1.3
성별	남자	100(5,061)	40.7	18.1	24.8	14.7	1.6
	여자	100(4,783)	29.8	15.9	29.7	23.7	0.9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73.6	14.2	7.3	2.9	2.1
	중학교	100(3,254)	32.1	22.1	29.1	15.5	1.3
	고등학교	100(3,933)	12.4	14.8	39.0	33.1	0.7
거주지	서울	100(1,552)	34.2	17.0	26.2	21.0	1.5
	광역시	100(3,194)	34.6	18.2	28.2	17.9	1.2
	시·군	100(5,098)	36.3	16.4	26.8	19.3	1.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5.1	17.5	27.6	18.7	1.2
	한부모가정	100(952)	30.3	14.4	29.5	24.8	1.1
	조손가정	100(163)	52.1	14.1	15.3	18.4	0.0

2-1-4-⑫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 학업문제

**‘학업문제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받는다’의 응답률이 63.5%, ‘받지 않는다’는 35.7%로 응답**

○ ‘학업문제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3.5%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35.7%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학업문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업문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81]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표 III-83>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19.8	15.9	32.1	31.4	0.8
성별	남자	100(5,061)	24.3	17.8	30.4	26.5	1.1
	여자	100(4,783)	15.1	13.8	34.0	36.6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1.0	20.2	24.6	12.5	1.6
	중학교	100(3,254)	15.3	16.5	35.2	32.4	0.6
	고등학교	100(3,933)	9.2	12.4	34.7	43.4	0.4
거주지	서울	100(1,552)	17.4	15.3	32.9	33.8	0.7
	광역시	100(3,194)	19.3	16.9	32.9	30.2	0.8
	시·군	100(5,098)	20.9	15.4	31.4	31.4	0.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9.0	15.9	32.7	31.7	0.7
	한부모가정	100(952)	19.2	15.1	31.4	33.5	0.7
	조손가정	100(163)	35.0	19.0	20.2	25.8	0.0

2-1-5~2-1-8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자기 효능감(M=2.8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아 존중감(M=2.82)’, ‘낙관주의(M=2.71)’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Ⅲ-82]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표 Ⅲ-84>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지표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자아 존중감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83	.844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2.71	.821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2.95	.787
	4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85	.811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2.83	.833
소계		2.82	.679
자기 효능감	6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3.03	.684
	7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2.87	.720
	8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80	.729
소계		2.88	.647
정서 조절	9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2.34	.805
	10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2.56	.826
	11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	2.70	.806
소계		2.52	.686
낙관 주의	12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2.53	.814
	13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79	.815
	14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2.85	.739
소계		2.71	.664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전체)		2.74	.553

□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에 전체 평균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정 청소년들의 점수가 다른 가족구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표 III-85>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85>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적응적 요인(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5,061)	2.83 (0.701)	1.407	2.91 (0.665)	3.383 **	2.60 (0.687)	11.502 ***	2.73 (0.687)	3.680 ***	2.78 (0.566)	5.606 ***
	여자 (n=4,783)	2.81 (0.655)		2.86 (0.627)		2.44 (0.675)		2.68 (0.647)		2.71 (0.536)	
교급 별	초등학교 (n=2,657)	2.81 (0.781)	7.218 ** (bc)	2.99 (0.698)	50.164 *** (ab, ac)	2.75 (0.727)	239.792 *** (ab, ac, bc)	2.83 (0.744)	61.537 *** (ab, ac)	2.84 (0.628)	38.859 *** (ab, ac)
	중학교 (n=3,254)	2.80 (0.675)		2.83 (0.672)		2.50 (0.676)		2.65 (0.672)		2.71 (0.672)	
	고등학교 (n=3,933)	2.85 (0.605)		2.86 (0.580)		2.38 (0.624)		2.67 (0.585)		2.71 (0.478)	
거주 지	서울 (n=1,552)	2.87 (0.682)	6.060 ** (de, df, ef)	2.91 (0.659)	1.178	2.52 (0.720)	1.809	2.71 (0.675)	0.071	2.77 (0.579)	2.848
	광역시 (n=3,194)	2.83 (0.663)		2.89 (0.645)		2.54 (0.681)		2.71 (0.658)		2.76 (0.540)	
	시·군 (n=5,098)	2.81 (0.676)		2.88 (0.60)		2.51 (0.672)		2.71 (0.655)		2.74 (0.544)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n=8,411)	2.85 (0.667)	31.132 *** (gh, gi, hi)	2.90 (0.634)	15.753 *** (gh)	2.53 (0.677)	13.715 *** (gh)	2.72 (0.651)	12.091 *** (gh, gi)	2.77 (0.541)	25.346 *** (gh, gi)
	한부모 가정 (n=952)	2.71 (0.671)		2.77 (0.637)		2.39 (0.649)		2.61 (0.640)		2.63 (0.533)	
	조손가정 (n=163)	2.53 (0.776)		2.78 (0.787)		2.47 (0.840)		2.59 (0.814)		2.58 (0.681)	
전체 M(SD)		2.82(0.679)		2.88(0.647)		2.52(0.686)		2.71(0.664)		2.74(0.553)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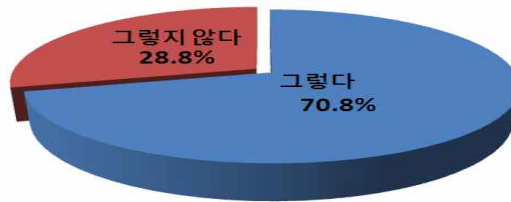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2-1-5-① 자아존중감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0.8%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70.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8.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자신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 가정이 한 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83]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표 III-86>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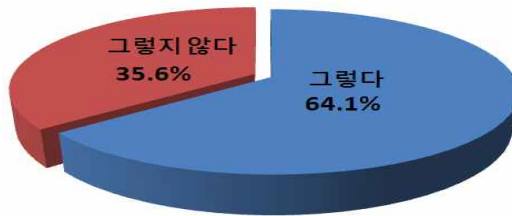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8.3	20.5	50.8	20.1	0.3
성별	남자	100(5,061)	9.5	20.0	49.9	20.2	0.4
	여자	100(4,783)	7.1	21.1	51.6	19.9	0.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15.0	18.9	43.7	21.7	0.7
	중학교	100(3,254)	7.8	21.9	51.5	18.6	0.2
	고등학교	100(3,933)	4.3	20.4	54.9	20.2	0.2
거주지	서울	100(1,552)	6.8	20.3	50.5	22.0	0.3
	광역시	100(3,194)	7.5	19.9	53.1	19.1	0.3
	시·군	100(5,098)	9.3	20.9	49.3	20.1	0.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7.6	19.7	51.7	20.7	0.3
	한부모가정	100(952)	9.3	25.3	48.3	16.5	0.5
	조손가정	100(163)	19.0	28.8	36.2	16.0	0.0

2-1-5-② 자아존중감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4.1%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4.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5.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 가정이 한 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본인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84]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표 III-87>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8.3	27.3	49.0	15.1	0.4
성별	남자	100(5,061)	9.3	26.2	47.7	16.3	0.5
	여자	100(4,783)	7.2	28.4	50.4	13.8	0.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14.5	25.3	43.9	15.4	0.9
	중학교	100(3,254)	8.1	31.0	47.4	13.2	0.3
	고등학교	100(3,933)	4.1	25.5	53.8	16.4	0.2
거주지	서울	100(1,552)	6.8	24.5	50.7	17.3	0.6
	광역시	100(3,194)	7.6	26.8	49.4	15.8	0.3
	시·군	100(5,098)	9.1	28.4	48.2	13.9	0.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7.6	26.6	50.0	15.4	0.3
	한부모가정	100(952)	8.8	32.8	45.3	12.4	0.7
	조손가정	100(163)	22.1	33.7	32.5	11.7	0.0

2-1-5-③ 자아존중감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6%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0.9%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85]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표 III-88>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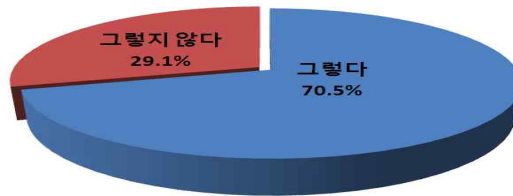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5.4	15.6	57.0	21.7	0.4
성별	남자	100(5,061)	6.1	15.8	55.5	22.1	0.5
	여자	100(4,783)	4.6	15.2	58.5	21.2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9.6	13.7	50.4	25.5	0.8
	중학교	100(3,254)	4.9	17.2	57.6	19.9	0.3
	고등학교	100(3,933)	2.9	15.4	60.9	20.5	0.2
거주지	서울	100(1,552)	5.3	14.0	55.2	25.3	0.3
	광역시	100(3,194)	4.7	15.4	58.3	21.3	0.4
	시·군	100(5,098)	5.8	16.1	56.7	20.8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4.8	14.9	57.7	22.3	0.4
	한부모가정	100(952)	6.7	18.9	56.6	17.4	0.3
	조손가정	100(163)	13.5	25.8	46.6	14.1	0.0

2-1-5-④ 자아존중감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0.5%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70.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9.1%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III-8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표 III-89>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6.2	22.8	50.4	20.1	0.4
성별	남자	100(5,061)	6.6	20.7	50.2	21.9	0.6
	여자	100(4,783)	5.8	25.1	50.7	18.1	0.3
교육급별	초등학교	100(2,657)	9.3	18.7	48.0	23.1	0.9
	중학교	100(3,254)	5.8	23.9	51.0	18.9	0.3
	고등학교	100(3,933)	4.5	24.7	51.6	18.9	0.3
거주지	서울	100(1,552)	6.6	21.7	48.3	22.9	0.4
	광역시	100(3,194)	5.7	22.5	51.5	20.0	0.3
	시·군	100(5,098)	6.5	23.4	50.4	19.2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5.8	21.9	51.2	20.7	0.4
	한부모가정	100(952)	6.6	28.5	49.3	15.1	0.5
	조손가정	100(163)	13.5	29.4	38.7	17.8	0.6

2-1-5-⑤ 자아존중감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9.1%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9.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0.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III-8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표 III-90>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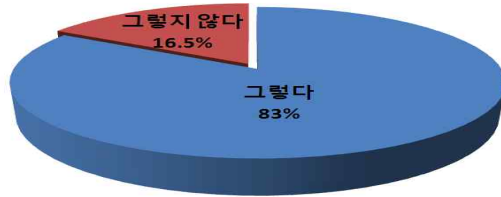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7.1	23.4	48.8	20.3	0.3
성별	남자	100(5,061)	7.1	19.7	49.5	23.3	0.4
	여자	100(4,783)	7.2	27.4	48.1	17.1	0.2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7.5	12.9	47.6	31.4	0.6
	중학교	100(3,254)	7.4	24.3	50.3	17.8	0.3
	고등학교	100(3,933)	6.7	29.8	48.4	14.9	0.2
거주지	서울	100(1,552)	8.0	23.5	46.2	22.0	0.4
	광역시	100(3,194)	6.8	22.8	50.4	19.7	0.3
	시·군	100(5,098)	7.1	23.9	48.6	20.2	0.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6.6	22.8	49.8	20.5	0.3
	한부모가정	100(952)	9.0	29.1	45.1	16.3	0.5
	조손가정	100(163)	12.9	31.3	35.6	20.2	0.0

2-1-6-① 자기효능감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3.0%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6.5%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중학교에 비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이 노력하면 일들을 잘해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I-88]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표 III-9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2.7	13.9	60.9	22.1	0.5
성별	남자	100(5,061)	3.1	13.9	59.4	23.0	0.6
	여자	100(4,783)	2.2	13.8	62.4	21.2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7	9.6	55.6	30.5	0.6
	중학교	100(3,254)	3.4	16.2	59.6	20.1	0.6
	고등학교	100(3,933)	1.4	14.7	65.5	18.2	0.2
거주지	서울	100(1,552)	3.3	14.8	58.1	23.5	0.5
	광역시	100(3,194)	2.7	13.4	61.0	22.4	0.5
	시·군	100(5,098)	2.5	13.8	61.7	21.6	0.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2.3	13.3	61.6	22.4	0.4
	한부모가정	100(952)	3.4	18.2	60.1	17.9	0.5
	조손가정	100(163)	8.6	14.1	52.1	23.9	1.2

2-1-6-② 자기효능감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2.6%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2.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6.9%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러한 믿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III-89]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표 III-9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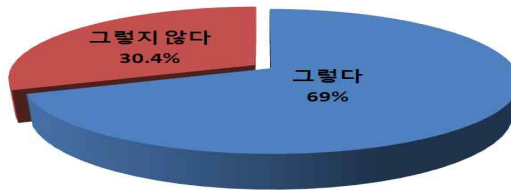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1	23.8	55.5	17.1	0.5
성별	남자	100(5,061)	3.2	21.5	56.4	18.3	0.6
	여자	100(4,783)	3.0	26.2	54.7	15.8	0.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9	15.7	55.4	24.4	0.6
	중학교	100(3,254)	3.8	25.5	54.8	15.3	0.6
	고등학교	100(3,933)	2.0	27.8	56.2	13.7	0.2
거주지	서울	100(1,552)	3.4	22.9	53.7	19.5	0.5
	광역시	100(3,194)	3.3	22.5	57.1	16.6	0.5
	시·군	100(5,098)	2.9	24.9	55.1	16.7	0.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2.8	23.1	56.3	17.4	0.4
	한부모가정	100(952)	3.9	30.8	52.0	12.8	0.5
	조손가정	100(163)	7.4	27.0	47.2	17.2	1.2

2-1-6-③ 자기효능감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9.0%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6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0.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III-90]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표 III-9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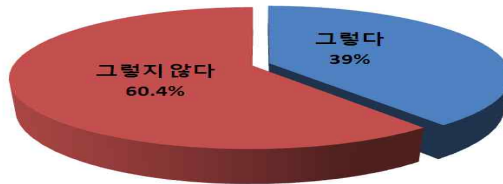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4.1	26.3	54.7	14.3	0.6
성별	남자	100(5,061)	4.1	23.9	55.3	16.1	0.7
	여자	100(4,783)	4.1	28.9	54.1	12.4	0.5
교육급별	초등학교	100(2,657)	5.1	21.5	52.9	19.9	0.7
	중학교	100(3,254)	4.9	27.1	54.7	12.5	0.8
	고등학교	100(3,933)	2.7	29.0	56.0	12.0	0.4
거주지	서울	100(1,552)	4.3	24.4	54.6	16.1	0.6
	광역시	100(3,194)	4.0	25.6	55.2	14.6	0.6
	시·군	100(5,098)	4.0	27.4	54.5	13.6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7	25.7	55.5	14.5	0.5
	한부모가정	100(952)	4.9	33.1	51.4	10.3	0.3
	조손가정	100(163)	7.4	25.8	49.7	16.0	1.2

2-1-7-① 정서조절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9.0%가 그렇다고 응답

○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0.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3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런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가정에 비해 조손가정이나 양부모 가정에서 감정에 상관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III-91]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표 III-94>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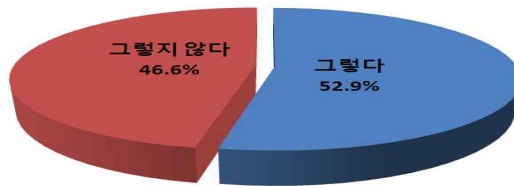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13.0	47.4	31.0	8.0	0.6
성별	남자	100(5,061)	11.8	46.1	32.1	9.3	0.7
	여자	100(4,783)	14.3	48.7	29.9	6.6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7.8	32.4	43.2	15.9	0.7
	중학교	100(3,254)	12.3	48.7	31.6	6.6	0.8
	고등학교	100(3,933)	17.1	56.4	22.3	3.8	0.3
거주지	서울	100(1,552)	15.1	43.8	30.8	9.5	0.8
	광역시	100(3,194)	12.4	47.4	31.6	8.0	0.6
	시·군	100(5,098)	12.8	48.5	30.8	7.5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2.5	47.4	31.7	8.0	0.5
	한부모가정	100(952)	16.7	52.9	25.1	4.9	0.3
	조손가정	100(163)	16.0	41.7	27.0	14.1	1.2

2-1-7-② 정서조절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2.9%가 그렇다고 응답

○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2.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46.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슬플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런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에서 슬플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III-92]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표 III-95>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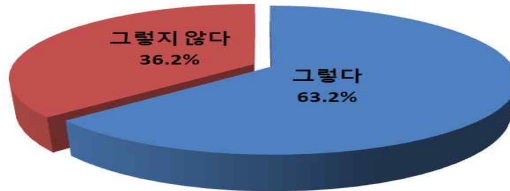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9.4	37.1	40.7	12.2	0.5
성별	남자	100(5,061)	7.7	31.9	44.6	15.1	0.7
	여자	100(4,783)	11.3	42.7	36.6	9.1	0.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7.8	25.9	44.8	20.8	0.6
	중학교	100(3,254)	9.6	37.5	40.8	11.2	0.8
	고등학교	100(3,933)	10.4	44.4	37.8	7.2	0.2
거주지	서울	100(1,552)	10.4	35.8	39.8	13.5	0.6
	광역시	100(3,194)	9.0	36.5	41.8	12.0	0.6
	시·군	100(5,098)	9.4	37.9	40.3	11.9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8.9	37.0	41.2	12.4	0.5
	한부모가정	100(952)	11.7	42.2	38.0	7.8	0.3
	조손가정	100(163)	14.7	34.4	33.1	16.0	1.8

2-1-7-③ 정서조절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3.2%가 그렇다고 응답

○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3.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6.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런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에서 기분이 상했을 때에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III-93]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표 III-96>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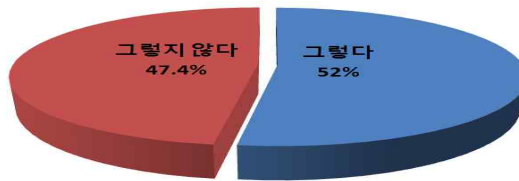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7.9	28.4	49.3	13.9	0.6
성별	남자	100(5,061)	7.0	25.0	51.0	16.4	0.7
	여자	100(4,783)	8.8	32.0	47.6	11.2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7.1	22.2	50.5	19.5	0.8
	중학교	100(3,254)	7.4	28.9	49.8	13.2	0.7
	고등학교	100(3,933)	8.8	32.1	48.2	10.7	0.3
거주지	서울	100(1,552)	9.2	26.5	47.9	15.9	0.5
	광역시	100(3,194)	7.1	28.1	49.7	14.4	0.6
	시·군	100(5,098)	7.9	29.1	49.5	12.9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7.3	28.3	50.0	14.0	0.5
	한부모가정	100(952)	10.8	31.3	46.3	11.1	0.4
	조손가정	100(163)	12.9	28.2	40.5	16.6	1.8

2-1-8-① 낙관주의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2.0%가 그렇다고 응답

○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절반정도인 5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47.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런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구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94]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표 III-97>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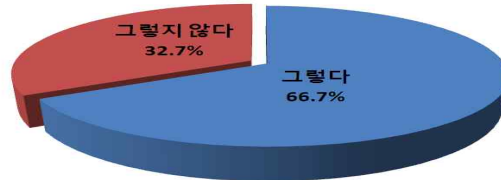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9.9	37.6	41.3	10.7	0.6
성별	남자	100(5,061)	8.6	34.2	44.1	12.5	0.7
	여자	100(4,783)	11.3	41.1	38.4	8.8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8.7	25.3	46.9	18.4	0.7
	중학교	100(3,254)	9.9	39.0	40.7	9.6	0.8
	고등학교	100(3,933)	10.7	44.7	38.0	6.4	0.3
거주지	서울	100(1,552)	11.1	35.2	41.1	12.0	0.6
	광역시	100(3,194)	9.2	38.0	42.3	10.0	0.6
	시·군	100(5,098)	9.9	38.0	40.8	10.7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9.4	38.0	41.4	10.7	0.5
	한부모가정	100(952)	11.8	40.0	40.1	7.7	0.4
	조손가정	100(163)	17.2	28.8	38.7	14.1	1.2

2-1-8-② 낙관주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6.7%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6.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2.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중학교 보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림 III-95]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III-98>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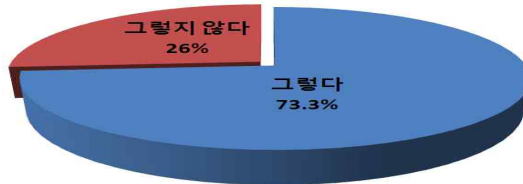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6.6	26.1	48.7	18.0	0.6
성별	남자	100(5,061)	7.2	26.2	47.6	18.2	0.8
	여자	100(4,783)	6.0	26.0	49.8	17.7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9.2	23.2	44.4	22.2	0.9
	중학교	100(3,254)	7.3	27.9	48.9	15.2	0.8
	고등학교	100(3,933)	4.3	26.5	51.4	17.4	0.3
거주지	서울	100(1,552)	7.5	24.9	48.1	18.9	0.6
	광역시	100(3,194)	6.8	24.7	49.7	18.1	0.8
	시·군	100(5,098)	6.2	27.3	48.3	17.6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6.0	25.7	49.4	18.3	0.5
	한부모가정	100(952)	8.1	30.0	46.7	14.6	0.5
	조손가정	100(163)	12.3	31.9	39.3	15.3	1.2

2-1-8-③ 낙관주의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3.3%가 그렇다고 응답**

○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3.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실패하더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구성별로는 한 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가정에서 실패하더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림 III-96]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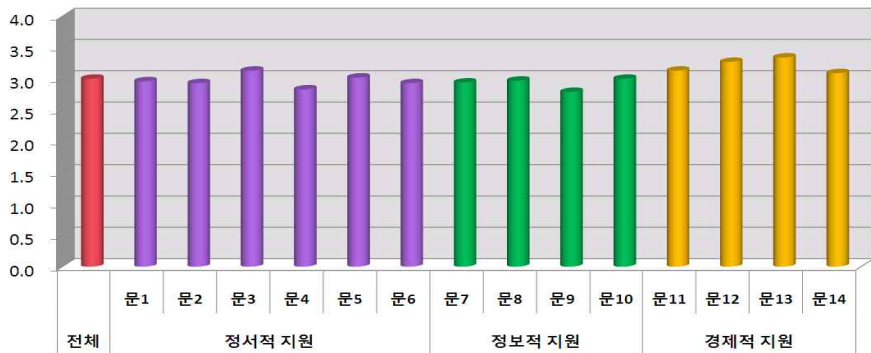
<표 III-99>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4.7	21.3	57.0	16.3	0.7
성별	남자	100(5,061)	5.0	20.2	56.6	17.4	0.8
	여자	100(4,783)	4.3	22.6	57.5	15.1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5.5	14.8	52.8	25.9	1.1
	중학교	100(3,254)	5.7	22.9	56.9	13.9	0.8
	고등학교	100(3,933)	3.4	24.5	60.0	11.8	0.3
거주지	서울	100(1,552)	5.3	21.5	56.8	15.9	0.5
	광역시	100(3,194)	4.6	20.8	57.7	16.2	0.8
	시·군	100(5,098)	4.6	21.7	56.7	16.5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4.3	21.0	57.4	16.7	0.6
	한부모가정	100(952)	5.8	25.3	58.1	10.3	0.5
	조손가정	100(163)	9.2	23.9	46.0	19.6	1.2

2-2 가족영역

2-2-1~2-2-2 부모의 지원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부모의 지원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경제적 지원(M3.19)’, ‘정서적 지원(M2.95)’, ‘정보적 지원(M2.87)’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M3.3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그림 III-97]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및 표준편차

<표 III-100>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지원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2.96	.802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2.93	.824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3.13	.733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2.83	.883
	5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3.02	.798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2.93	.841
소계		2.95	.733
정보적 지원	7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2.94	.849
	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2.97	.843
	9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2.79	.910
	10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3.00	.840
소계		2.87	.779
경제적 지원	11 용돈을 주신다	3.13	.845
	12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3.27	.740
	13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3.34	.688
	14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3.09	.805
소계		3.19	.637
부모의 지원 영역(전체)		3.00	.627

■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차이 분석

부모의 지원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급별 및 거주지별, 그리고 가족구성별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의 지원 전체 평균을 보면, 초등학교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 가정이 다른 가족구성의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I-10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01>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부모의 지원(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5,061)	2.96 (0.752)	1.135	2.89 (0.793)	1.715	3.16 (0.674)	-4.225 ***	3.00 (0.655)	-0.202
	여자 (n=4,783)	2.94 (0.726)		2.86 (0.780)		3.21 (0.618)		3.00 (0.616)	
교급 별	초등학교 (n=2,657)	3.22 (0.743)	268.567 *** (ab, ac, bc)	3.20 (0.760)	370.673 *** (ab, ac, bc)	3.27 (0.672)	38.593 *** (ab, ac, bc)	3.23 (0.653)	252.192 *** (ab, ac, bc)
	중학교 (n=3,254)	2.87 (0.752)		2.85 (0.783)		3.13 (0.667)		2.95 (0.650)	
	고등학교 (n=3,933)	2.82 (0.675)		2.68 (0.737)		3.17 (0.607)		2.89 (0.572)	
거주 지	서울 (n=1,552)	2.88 (0.789)	8.478 *** (de, df)	2.87 (0.833)	0.094	3.15 (0.696)	1.769	2.96 (0.688)	3.830 * (de, df)
	광역시 (n=3,194)	2.97 (0.722)		2.87 (0.772)		3.19 (0.640)		3.01 (0.625)	
	시·군 (n=5,098)	2.96 (0.733)		2.88 (0.781)		3.19 (0.638)		3.00 (0.627)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n=8,411)	2.97 (0.723)	30.304 *** (gh, gi)	2.91 (0.768)	61.325 *** (gh, gi)	3.21 (0.621)	50.801 *** (gh, gi)	3.03 (0.615)	56.045 *** (gh, gi)
	한부모 가정 (n=952)	2.79 (0.758)		2.62 (0.790)		3.02 (0.687)		2.82 (0.651)	
	조손가정 (n=163)	2.80 (0.934)		2.75 (0.997)		2.94 (0.886)		2.83 (0.859)	
전체 M(SD)		2.95(0.733)		2.87(0.779)		3.19(0.637)		3.00(0.627)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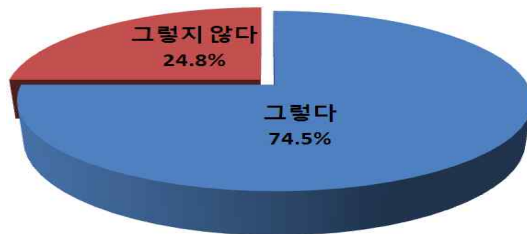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2-2-1-① 부모의 지원(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나를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4.5%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나를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4.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4.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응답률이 낮아졌고,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가정에서 그러한 믿음이 더 크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림 III-98]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표 III-102>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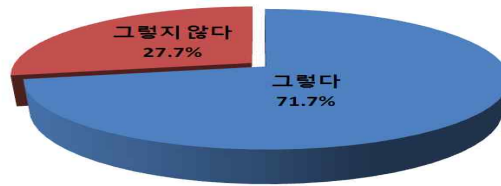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4.7	20.1	49.4	25.1	0.6
성별	남자	100(5,061)	5.2	18.9	49.2	25.9	0.8
	여자	100(4,783)	4.2	21.4	49.6	24.3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4	10.5	43.2	41.9	1.0
	중학교	100(3,254)	5.5	22.1	50.0	21.6	0.7
	고등학교	100(3,933)	5.0	25.0	53.1	16.7	0.3
거주지	서울	100(1,552)	6.4	23.2	45.7	23.8	0.9
	광역시	100(3,194)	4.3	19.2	51.3	24.6	0.6
	시·군	100(5,098)	4.5	19.8	49.4	25.8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4.1	19.7	50.0	25.7	0.5
	한부모가정	100(952)	7.5	23.9	49.4	18.5	0.7
	조손가정	100(163)	11.7	25.8	36.2	25.2	1.2

2-2-1-② 부모의 지원(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1.7%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1.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7.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부모님께서 자신을 잘 이해해 주신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러한 믿음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99]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표 Ⅲ-103>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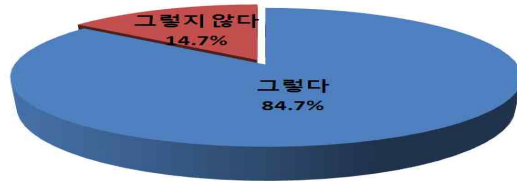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5.0	22.7	46.4	25.3	0.6
성별	남자	100(5,061)	4.8	20.9	46.9	26.6	0.8
	여자	100(4,783)	5.2	24.6	45.9	23.9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5	12.0	40.1	43.5	0.8
	중학교	100(3,254)	6.1	24.5	47.2	21.4	0.8
	고등학교	100(3,933)	5.1	28.4	50.0	16.1	0.4
거주지	서울	100(1,552)	6.3	25.6	43.0	24.2	1.0
	광역시	100(3,194)	4.9	21.8	48.1	24.7	0.5
	시·군	100(5,098)	4.7	22.4	46.4	26.0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4.5	22.5	46.7	25.7	0.5
	한부모가정	100(952)	7.2	24.8	48.5	18.7	0.7
	조손가정	100(163)	12.9	24.5	30.1	31.3	1.2

2-2-1-③ 부모의 지원(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4.7%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4.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4.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낮아지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I-100]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표 III-104>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1	11.6	53.6	31.1	0.7
성별	남자	100(5,061)	3.4	11.6	52.5	31.5	0.9
	여자	100(4,783)	2.8	11.5	54.7	30.7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8	7.7	42.6	45.9	0.9
	중학교	100(3,254)	3.7	12.7	55.7	27.2	0.8
	고등학교	100(3,933)	2.8	13.3	59.2	24.3	0.4
거주지	서울	100(1,552)	4.0	13.5	51.7	29.9	0.9
	광역시	100(3,194)	2.7	11.3	54.1	31.4	0.6
	시·군	100(5,098)	3.1	11.2	53.8	31.3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2.7	11.1	53.9	31.7	0.5
	한부모가정	100(952)	4.3	14.0	55.9	24.9	0.9
	조손가정	100(163)	6.7	19.6	39.9	30.7	3.1

2-2-1-④ 부모의 지원(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6.9%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6.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2.5%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고민을 들어주신다는 응답률이 낮아지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에서 그러한 믿음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I-101] 고민을 들어 주신다

<표 III-105> 고민을 들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7.9	24.5	43.0	23.9	0.6
성별	남자	100(5,061)	7.9	24.3	42.8	24.3	0.8
	여자	100(4,783)	8.0	24.8	43.3	23.5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5.1	14.1	40.2	39.9	0.8
	중학교	100(3,254)	9.2	26.3	43.7	20.1	0.8
	고등학교	100(3,933)	8.8	30.1	44.4	16.3	0.4
거주지	서울	100(1,552)	9.5	26.9	39.2	23.5	1.0
	광역시	100(3,194)	7.5	24.2	43.9	23.9	0.5
	시·군	100(5,098)	7.7	24.0	43.6	24.0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7.4	24.1	43.6	24.4	0.5
	한부모가정	100(952)	10.8	29.3	41.6	17.6	0.6
	조손가정	100(163)	14.1	24.5	30.7	29.4	1.2

2-2-1-⑤ 부모의 지원(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1%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1.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어려울 때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러한 믿음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I-102]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표 III-106>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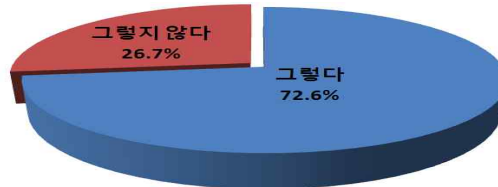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4.6	16.6	49.9	28.3	0.6
성별	남자	100(5,061)	4.5	15.4	50.1	29.2	0.8
	여자	100(4,783)	4.7	17.9	49.6	27.3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8	8.9	42.2	45.3	0.8
	중학교	100(3,254)	5.6	17.2	51.6	24.8	0.8
	고등학교	100(3,933)	5.1	21.3	53.6	19.6	0.4
거주지	서울	100(1,552)	5.7	18.6	47.4	27.3	1.0
	광역시	100(3,194)	4.1	15.9	50.9	28.5	0.6
	시·군	100(5,098)	4.6	16.4	50.0	28.5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4.1	16.0	50.4	28.9	0.5
	한부모가정	100(952)	7.7	21.4	49.4	20.8	0.7
	조손가정	100(163)	9.8	20.2	35.0	33.1	1.8

2-2-1-⑥ 부모의 지원(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2.6%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2.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6.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부모님께서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러한 믿음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에서 실망할 때 위로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I-103]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표 III-107>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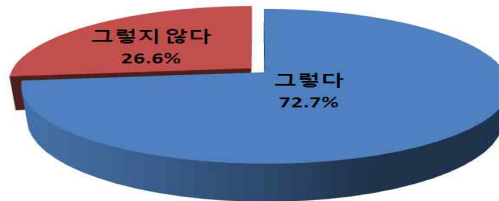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6.0	20.7	46.7	25.8	0.7
성별	남자	100(5,061)	6.1	19.9	46.8	26.3	0.9
	여자	100(4,783)	6.0	21.6	46.6	25.4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1	11.5	41.7	41.6	1.1
	중학교	100(3,254)	7.0	22.3	47.4	22.4	0.9
	고등학교	100(3,933)	6.5	25.7	49.5	18.1	0.3
거주지	서울	100(1,552)	7.5	23.3	42.7	25.5	1.0
	광역시	100(3,194)	5.0	20.4	48.1	25.9	0.6
	시·군	100(5,098)	6.2	20.1	47.1	26.0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5.5	20.3	47.1	26.6	0.6
	한부모가정	100(952)	8.9	25.5	45.6	19.0	0.9
	조손가정	100(163)	12.3	17.8	40.5	27.6	1.8

2-2-1-⑦ 부모의 지원(정보적 지원)

‘부모님께서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2.7%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2.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6.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에서 그러한 믿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III-104]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표 III-108>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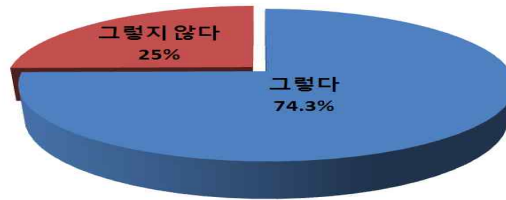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6.2	20.4	45.9	26.8	0.7
성별	남자	100(5,061)	6.4	19.5	45.9	27.4	0.8
	여자	100(4,783)	5.9	21.4	45.9	26.3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5.3	14.6	40.8	38.4	0.9
	중학교	100(3,254)	6.2	20.0	47.0	26.0	0.8
	고등학교	100(3,933)	6.7	24.6	48.5	19.7	0.5
거주지	서울	100(1,552)	7.3	20.6	44.1	27.0	1.0
	광역시	100(3,194)	5.4	20.8	46.2	26.9	0.7
	시·군	100(5,098)	6.3	20.1	46.3	26.8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5.5	19.8	46.5	27.6	0.6
	한부모가정	100(952)	9.5	27.2	43.9	18.8	0.6
	조손가정	100(163)	11.7	21.5	35.0	30.1	1.8

2-2-1-⑧ 부모의 지원(정보적 지원)

**‘부모님께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4.3%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4.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5%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에서 그러한 믿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III-105]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표 III-109>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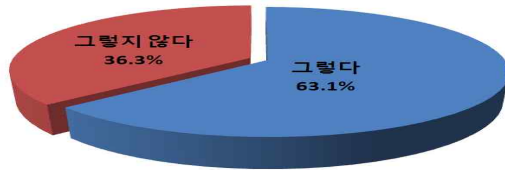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6.0	19.0	46.5	27.7	0.7
성별	남자	100(5,061)	6.0	18.3	46.7	28.1	0.9
	여자	100(4,783)	6.0	19.8	46.3	27.4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7	8.6	41.9	44.7	1.0
	중학교	100(3,254)	6.1	19.0	48.5	25.7	0.8
	고등학교	100(3,933)	7.5	26.1	48.0	18.0	0.4
거주지	서울	100(1,552)	6.8	19.3	43.9	29.1	0.9
	광역시	100(3,194)	5.5	19.9	46.6	27.2	0.8
	시·군	100(5,098)	6.0	18.4	47.3	27.7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5.3	18.1	47.4	28.6	0.6
	한부모가정	100(952)	9.9	27.1	43.2	18.9	0.9
	조손가정	100(163)	10.4	22.1	33.7	30.7	3.1

2-2-1-⑨ 부모의 지원(정보적 지원)

‘부모님께서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3.1%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3.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6.3%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부모님께서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러한 믿음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I-106]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표 III-110>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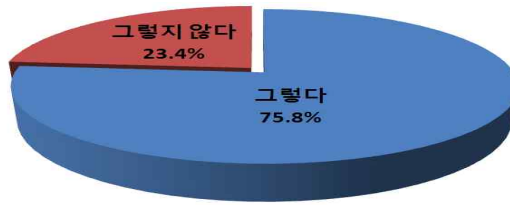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8.9	27.4	39.2	23.9	0.7
성별	남자	100(5,061)	8.5	26.1	39.6	25.0	0.8
	여자	100(4,783)	9.3	28.7	38.7	22.8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4	12.5	39.7	42.5	0.8
	중학교	100(3,254)	8.7	27.3	42.0	21.2	0.8
	고등학교	100(3,933)	12.1	37.5	36.4	13.6	0.4
거주지	서울	100(1,552)	9.6	25.6	37.8	26.0	1.0
	광역시	100(3,194)	8.5	27.6	41.0	22.2	0.7
	시·군	100(5,098)	8.9	27.8	38.5	24.3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8.1	26.6	40.1	24.7	0.5
	한부모가정	100(952)	14.2	36.3	33.5	15.1	0.8
	조손가정	100(163)	13.5	25.8	28.8	29.4	2.5

2-2-1-⑩ 부모의 지원(정보적 지원)

**‘부모님께서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5.8%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5.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3.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에서 그러한 믿음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Ⅲ-107]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표 Ⅲ-111>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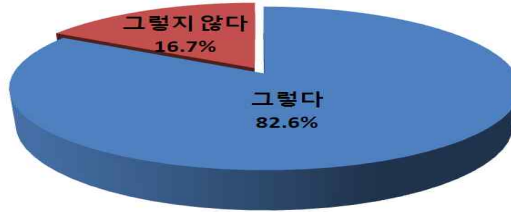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5.8	17.6	46.7	29.1	0.8
성별	남자	100(5,061)	5.9	16.7	47.6	29.0	0.9
	여자	100(4,783)	5.8	18.5	45.9	29.1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4	9.2	41.3	44.9	1.1
	중학교	100(3,254)	6.1	19.1	48.0	25.9	1.0
	고등학교	100(3,933)	7.2	22.1	49.4	20.9	0.4
거주지	서울	100(1,552)	6.9	18.2	42.7	31.3	0.9
	광역시	100(3,194)	5.5	17.9	47.1	28.9	0.7
	시·군	100(5,098)	5.7	17.2	47.8	28.5	0.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5.2	16.8	47.3	30.0	0.6
	한부모가정	100(952)	8.7	23.5	48.2	18.6	0.9
	조손가정	100(163)	9.8	23.9	31.3	31.9	3.1

2-2-1-⑪ 부모의 지원(경제적 지원)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2.6%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2.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6.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용돈을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Ⅲ-108] 용돈을 주신다

<표 Ⅲ-112> 용돈을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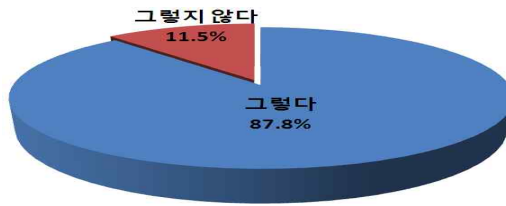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6.6	10.1	46.6	36.0	0.7
성별	남자	100(5,061)	7.2	10.8	46.2	35.1	0.8
	여자	100(4,783)	6.0	9.4	47.0	37.1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8.7	10.5	38.2	41.7	1.0
	중학교	100(3,254)	7.4	11.2	47.3	33.3	0.8
	고등학교	100(3,933)	4.5	9.0	51.7	34.5	0.3
거주지	서울	100(1,552)	8.1	11.0	43.4	36.5	1.0
	광역시	100(3,194)	5.7	9.5	48.7	35.4	0.7
	시·군	100(5,098)	6.7	10.2	46.3	36.3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6.4	9.9	46.8	36.3	0.5
	한부모가정	100(952)	7.0	10.5	47.6	34.0	0.8
	조손가정	100(163)	9.8	14.1	37.4	36.2	2.5

2-2-1-⑫ 부모의 지원(경제적 지원)

**‘부모님께서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7.8%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7.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1.5%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부모님께서 공부에 필요한 것을 사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공부에 필요한 것을 사 주신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III-109]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표 III-113>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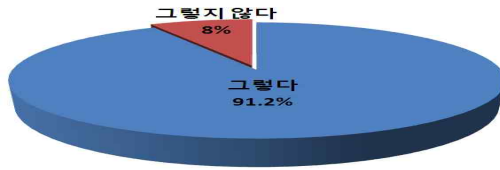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0	8.6	46.7	41.1	0.7
성별	남자	100(5,061)	3.6	9.4	47.1	39.0	0.9
	여자	100(4,783)	2.3	7.7	46.1	43.3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7	6.8	40.7	48.9	0.9
	중학교	100(3,254)	3.4	9.5	49.3	37.0	0.8
	고등학교	100(3,933)	2.7	9.1	48.5	39.3	0.5
거주지	서울	100(1,552)	3.8	8.7	44.2	42.1	1.2
	광역시	100(3,194)	2.7	8.4	48.5	39.7	0.7
	시·군	100(5,098)	2.9	8.7	46.2	41.7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2.4	7.9	46.7	42.5	0.5
	한부모가정	100(952)	5.1	12.4	48.8	32.7	0.9
	조손가정	100(163)	9.2	12.3	43.6	33.1	1.8

2-2-1-⑬ 부모의 지원(경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내가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1.2%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내가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1.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부모님께서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교에 비해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준비물을 위한 돈을 주신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준비물을 위한 돈을 주신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I-110]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표 III-114>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2.2	5.9	47.1	44.0	0.8
성별	남자	100(5,061)	2.6	6.3	47.4	42.7	1.0
	여자	100(4,783)	1.7	5.4	46.9	45.5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3	5.3	39.3	51.9	1.3
	중학교	100(3,254)	2.4	7.3	50.1	39.2	0.9
	고등학교	100(3,933)	1.9	5.0	50.0	42.7	0.4
거주지	서울	100(1,552)	3.0	5.9	45.6	44.4	1.2
	광역시	100(3,194)	1.9	5.7	47.6	44.0	0.8
	시·군	100(5,098)	2.1	6.0	47.3	43.9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8	5.4	46.9	45.2	0.7
	한부모가정	100(952)	2.9	8.2	50.9	36.8	1.2
	조손가정	100(163)	8.0	10.4	42.3	36.8	2.5

2-2-1-⑭ 부모의 지원(경제적 지원)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9.4%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9.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9.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주신다는 응답률이 낮아졌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에서 그러한 믿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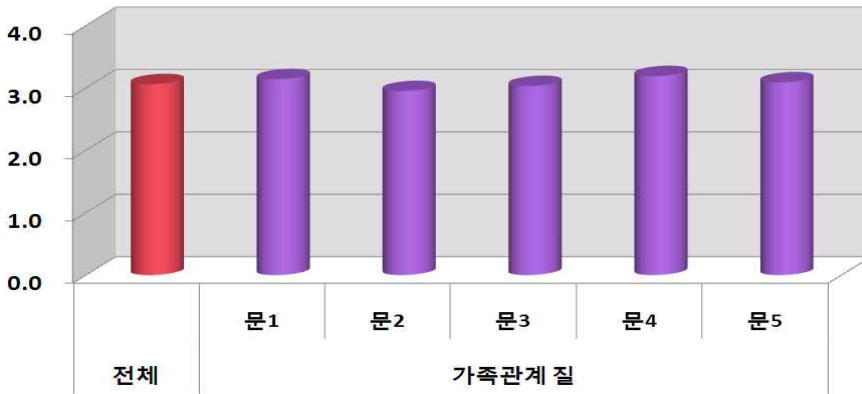
[그림 III-111]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표 III-115>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4.2	15.6	46.7	32.8	0.8
성별	남자	100(5,061)	4.0	15.1	46.9	33.1	0.9
	여자	100(4,783)	4.3	16.2	46.4	32.4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5	8.8	41.5	45.0	1.1
	중학교	100(3,254)	4.1	15.2	50.5	29.3	1.0
	고등학교	100(3,933)	4.6	20.5	47.0	27.4	0.4
거주지	서울	100(1,552)	5.2	15.4	44.8	33.6	1.0
	광역시	100(3,194)	3.9	15.9	47.3	32.1	0.8
	시·군	100(5,098)	4.0	15.5	46.9	32.9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4	14.3	47.4	34.2	0.6
	한부모가정	100(952)	7.1	26.7	43.8	21.1	1.3
	조손가정	100(163)	10.4	22.1	34.4	31.3	1.8

2-2-2-①~⑤ 가족관계 질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가족관계 질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M²3.1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M²3.1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M²3.09)’,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M²3.03)’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III-112] 가족관계 질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및 표준편차

<표 III-116> 가족관계 질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및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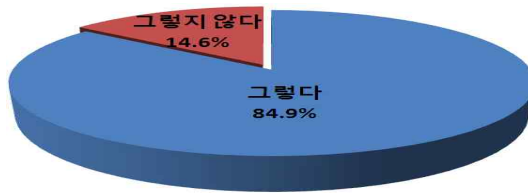
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가족관계 질	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3.14	.726
	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2.95	.840
	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3.03	.771
	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3.19	.744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3.09	.789
가족관계 질 영역(전체)			3.06	.708

2-2-2-① 가족관계 질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4.9%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4.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4.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중학교에 비해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족이 서로 아낀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에서 그러한 믿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I-113]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표 III-117>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2.9	11.7	53.8	31.1	0.5
성별	남자	100(5,061)	3.0	11.6	53.4	31.3	0.7
	여자	100(4,783)	2.7	11.8	54.2	30.9	0.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4	7.1	43.9	46.0	0.7
	중학교	100(3,254)	3.7	13.6	54.5	27.6	0.6
	고등학교	100(3,933)	2.5	13.3	60.0	24.0	0.2
거주지	서울	100(1,552)	4.7	13.1	51.7	30.0	0.5
	광역시	100(3,194)	2.8	10.9	55.0	30.7	0.7
	시·군	100(5,098)	2.4	11.8	53.7	31.8	0.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2.3	11.2	54.3	31.8	0.4
	한부모가정	100(952)	5.3	15.3	56.7	22.1	0.6
	조손가정	100(163)	9.2	15.3	43.6	30.1	1.8

2-2-2-② 가족관계 질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1.9%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1.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7.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는 응답률이 낮아졌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에서 그러한 믿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I-114]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표 III-118>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5.2	22.4	44.6	27.3	0.5
성별	남자	100(5,061)	5.3	22.6	44.9	26.5	0.7
	여자	100(4,783)	5.0	22.3	44.2	28.2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7	13.4	40.3	41.9	0.6
	중학교	100(3,254)	5.6	23.3	46.6	23.7	0.8
	고등학교	100(3,933)	5.8	27.8	45.8	20.4	0.2
거주지	서울	100(1,552)	7.5	23.1	42.0	27.0	0.5
	광역시	100(3,194)	4.7	22.5	46.0	26.2	0.7
	시·군	100(5,098)	4.8	22.2	44.4	28.1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4.5	22.0	45.0	28.1	0.4
	한부모가정	100(952)	8.8	27.5	45.0	18.1	0.6
	조손가정	100(163)	11.0	28.8	32.5	25.8	1.8

2-2-2-③ 가족관계 질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9%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8.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0.5%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가족이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돕는다는 응답률이 낮아졌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에서 그러한 믿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I-115]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표 III-119>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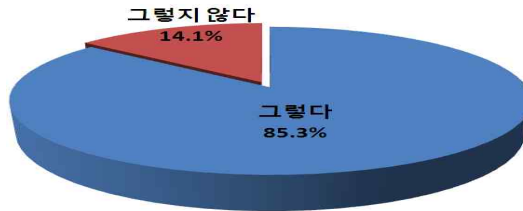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8	16.6	51.6	27.3	0.6
성별	남자	100(5,061)	3.9	15.8	52.1	27.5	0.7
	여자	100(4,783)	3.7	17.5	51.0	27.2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6	9.9	42.9	43.6	0.9
	중학교	100(3,254)	4.7	18.1	52.6	23.9	0.8
	고등학교	100(3,933)	3.9	20.0	56.6	19.2	0.3
거주지	서울	100(1,552)	6.2	18.9	47.4	26.9	0.6
	광역시	100(3,194)	3.2	15.5	54.0	26.6	0.8
	시·군	100(5,098)	3.5	16.7	51.3	28.0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2	16.2	52.0	28.1	0.5
	한부모가정	100(952)	7.2	20.8	53.3	18.0	0.7
	조손가정	100(163)	8.6	20.9	41.7	26.4	2.5

2-2-2-④ 가족관계 질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5.3%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5.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4.1%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는 응답률이 낮아졌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에서 그러한 믿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I-116]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표 III-120>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2.9	11.2	49.3	36.0	0.6
성별	남자	100(5,061)	3.0	11.4	49.7	35.1	0.8
	여자	100(4,783)	2.7	11.0	48.9	37.0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5	7.4	40.6	48.6	0.9
	중학교	100(3,254)	3.4	12.4	51.0	32.4	0.8
	고등학교	100(3,933)	2.6	12.8	53.8	30.5	0.3
거주지	서울	100(1,552)	4.7	12.3	48.0	34.5	0.5
	광역시	100(3,194)	2.5	11.1	50.0	35.5	0.9
	시·군	100(5,098)	2.5	11.0	49.2	36.8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2.4	10.6	49.6	37.0	0.5
	한부모가정	100(952)	5.0	14.8	53.2	26.2	0.8
	조손가정	100(163)	8.6	16.0	41.1	32.5	1.8

2-2-2-⑤ 가족관계 질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0.3%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0.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9%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률이 낮아졌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에서 그러한 믿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I-117]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표 III-121>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9	15.1	48.3	32.0	0.7
성별	남자	100(5,061)	3.8	14.6	49.3	31.5	0.9
	여자	100(4,783)	4.0	15.6	47.2	32.5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3	10.8	39.9	44.9	1.1
	중학교	100(3,254)	4.4	16.3	49.6	28.7	1.0
	고등학교	100(3,933)	3.9	17.0	52.9	25.9	0.3
거주지	서울	100(1,552)	5.7	16.0	45.9	31.6	0.7
	광역시	100(3,194)	3.4	15.4	48.7	31.6	0.9
	시·군	100(5,098)	3.7	14.6	48.8	32.3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3	14.5	48.8	32.8	0.6
	한부모가정	100(952)	6.8	19.1	50.4	22.6	1.1
	조손가정	100(163)	9.2	20.9	35.0	32.5	2.5

2-3 지역사회 영역

2-3-1~2-3-2 지역사회 영역-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지역사회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지역사회 지원(M=2.72)', '지역사회 상호작용(M=2.12)'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에서는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M=2.9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그림 III-118]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표 III-122>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지역사회 지원	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2.92	.928
	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2.88	.981
	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2.41	.929
소계			2.72	.816
지역사회 상호작용	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2.32	.890
	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1.91	.851
	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	2.20	1.013
소계			2.12	.788
지역사회 영역(전체)			2.42	.688

■ 지역사회 의 요인별 차이 분석

지역사회 영역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급별 및 가족 구성별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사회 영역 전체 평균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교급별에서는 중학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 가정이 조손가정 보다, 조손가정은 한 부모가정 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I-123>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23>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지역사회 지원		지역사회 상호작용		지역사회 영역(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5,061)	2.76 (0.629)	5.737 ***	2.14 (0.814)	2.000 *	2.45 (0.702)	4.546 ***
	여자 (n=4,783)	2.67 (0.823)		2.11 (0.758)		2.39 (0.672)	
교급 별	초등학교 (n=2,657)	3.09 (1.071)	295.948 *** (ab, ac, bc)	3.14 (0.976)	137.713 *** (ab, ac, bc)	3.42 (0.575)	288.416 *** (ab, ac, bc)
	중학교 (n=3,254)	3.12 (1.087)		3.07 (0.969)		3.54 (0.586)	
	고등학교 (n=3,933)	2.94 (2.018)		3.05 (0.915)		3.38 (0.563)	
거주 지	서울 (n=1,552)	2.71 (0.021)	0.477	2.14 (0.823)	1.110	2.42 (0.728)	0.446
	광역시 (n=3,194)	2.72 (0.805)		2.12 (0.774)		2.42 (0.678)	
	시·군 (n=5,098)	2.73 (0.803)		2.12 (0.780)		2.43 (0.674)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n=1,232)	2.73 (0.808)	14.180 *** (gh, hi)	2.12 (0.777)	16.372 *** (gh)	2.60 (0.676)	18.332 *** (gh, hi)
	한부모 가정 (n=952)	2.56 (0.808)		2.03 (0.751)		2.30 (0.671)	
	조손가정 (n=163)	2.75 (0.943)		2.16 (0.865)		2.46 (0.832)	
전체 M(SD)		2.72(0.816)		2.12(0.788)		2.42(0.68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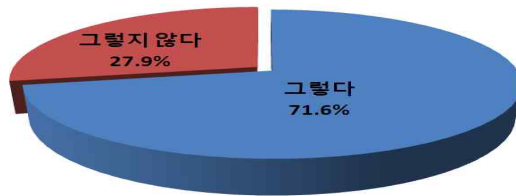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2-3-1-① 지역사회 지원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1.6%가 그렇다고 응답

○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1.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7.9%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가족, 친구, 선생님이외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런 믿음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에 비해 조손가정이나 양부모 가정에서 가족, 친구 등 이외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I-119]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표 III-124>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9.7	18.2	42.1	29.4	0.5
성별	남자	100(5,061)	8.7	16.2	44.7	29.8	0.6
	여자	100(4,783)	10.7	20.4	39.4	29.0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1	11.3	38.8	42.9	0.8
	중학교	100(3,254)	9.3	18.9	45.4	25.6	0.7
	고등학교	100(3,933)	12.3	22.4	41.7	23.4	0.2
거주지	서울	100(1,552)	12.2	17.4	39.8	30.2	0.5
	광역시	100(3,194)	9.3	17.9	43.7	28.4	0.7
	시·군	100(5,098)	9.1	18.7	41.9	29.8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9.4	18.1	42.3	29.8	0.4
	한부모가정	100(952)	12.9	20.9	41.9	23.7	0.5
	조손가정	100(163)	11.7	14.7	36.2	35.6	1.8

2-3-1-② 지역사회 지원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9.7%가 그렇다고 응답

○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69.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9.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가족, 친구, 선생님이외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런 믿음이 낮아졌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 가정에 비해 조손가정이나 양부모 가정에서 가족, 친구 이외에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Ⅲ-120]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표 Ⅲ-125>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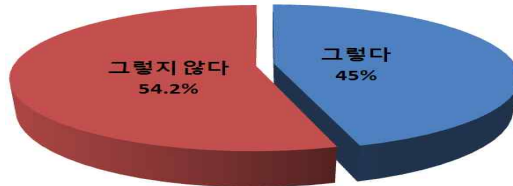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9.6	20.0	42.6	27.2	0.6
성별	남자	100(5,061)	8.7	18.4	45.0	27.2	0.7
	여자	100(4,783)	10.6	21.6	40.0	27.2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4	13.2	39.1	40.3	1.0
	중학교	100(3,254)	9.2	20.9	45.6	23.6	0.8
	고등학교	100(3,933)	12.2	23.8	42.4	21.3	0.2
거주지	서울	100(1,552)	11.4	19.5	40.5	28.0	0.5
	광역시	100(3,194)	9.6	19.2	43.5	26.8	0.8
	시·군	100(5,098)	9.1	20.6	42.6	27.1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9.3	19.9	42.6	27.7	0.5
	한부모가정	100(952)	12.5	23.9	41.7	21.1	0.7
	조손가정	100(163)	11.7	14.1	39.9	31.9	2.5

2-3-1-③ 지역사회 지원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45.0%가 그렇다고 응답

○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54.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런 믿음이 낮아졌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에 비해 조손가정이나 양부모 가정에서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I-121]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표 III-126>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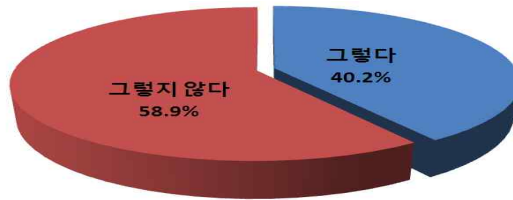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17.3	36.9	31.5	13.4	0.8
성별	남자	100(5,061)	16.4	33.3	34.7	14.7	0.9
	여자	100(4,783)	18.3	40.7	28.2	12.1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10.0	24.7	37.4	26.8	1.2
	중학교	100(3,254)	16.3	37.7	34.1	10.8	1.0
	고등학교	100(3,933)	23.1	44.4	25.4	6.6	0.4
거주지	서울	100(1,552)	19.7	34.7	29.4	15.5	0.6
	광역시	100(3,194)	16.9	37.5	32.0	12.6	1.0
	시·군	100(5,098)	16.8	37.1	31.9	13.3	0.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7.0	37.2	31.4	13.6	0.7
	한부모가정	100(952)	21.5	39.3	29.9	8.4	0.8
	조손가정	100(163)	17.2	28.2	33.1	18.4	3.1

2-3-2-① 지역사회 상호작용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 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0.2%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 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0.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58.9%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낮아졌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에 비해 조손가정이나 양부모 가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림 Ⅲ-122]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표 Ⅲ-127>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18.7	40.3	30.3	9.8	0.9
성별	남자	100(5,061)	19.1	40.0	29.8	10.1	1.0
	여자	100(4,783)	18.1	40.6	30.9	9.6	0.8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16.3	34.2	32.3	15.9	1.3
	중학교	100(3,254)	17.5	40.7	31.7	8.9	1.3
	고등학교	100(3,933)	21.2	44.0	27.9	6.5	0.3
거주지	서울	100(1,552)	21.4	36.9	29.6	11.3	0.8
	광역시	100(3,194)	18.5	40.6	30.9	9.0	0.9
	시·군	100(5,098)	17.9	41.1	30.2	9.9	0.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8.3	40.6	30.6	9.7	0.7
	한부모가정	100(952)	22.0	41.6	28.9	6.6	0.9
	조손가정	100(163)	19.6	39.3	23.3	15.3	2.5

2-3-2-② 지역사회 상호작용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9.7%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9.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79.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지역사회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응답률이 낮아졌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 가정에 비해 조손가정이나 양부모 가정이 지역사회 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I-123]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한다

<표 III-128>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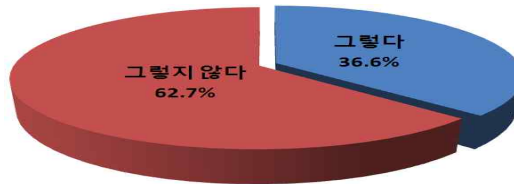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5.0	44.5	13.7	6.0	0.8
성별	남자	100(5,061)	34.3	41.8	16.0	7.0	0.9
	여자	100(4,783)	35.7	47.3	11.4	5.0	0.8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1.4	39.1	17.3	11.0	1.3
	중학교	100(3,254)	33.7	45.2	14.5	5.6	1.1
	고등학교	100(3,933)	38.5	47.5	10.8	3.0	0.3
거주지	서울	100(1,552)	36.5	41.0	14.8	7.2	0.6
	광역시	100(3,194)	34.9	44.4	14.3	5.5	0.9
	시·군	100(5,098)	34.5	45.6	13.1	6.0	0.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5.2	44.7	13.6	5.8	0.7
	한부모가정	100(952)	37.0	46.3	12.7	3.2	0.8
	조손가정	100(163)	27.6	48.5	10.4	11.0	2.5

2-3-2-③ 지역사회 상호작용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 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6.6%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 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6.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62.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복지관, 교회, 절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낮아졌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이 복지관, 교회, 절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I-124]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

<표 III-129>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0.0	32.6	23.6	13.0	0.7
성별	남자	100(5,061)	30.3	31.2	24.4	13.1	0.9
	여자	100(4,783)	29.8	34.1	22.7	12.9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3.8	25.7	26.9	22.4	1.2
	중학교	100(3,254)	29.4	34.1	24.3	11.3	0.9
	고등학교	100(3,933)	34.8	36.1	20.8	8.1	0.2
거주지	서울	100(1,552)	31.3	29.1	23.7	15.5	0.4
	광역시	100(3,194)	30.3	33.5	23.5	11.8	0.8
	시·군	100(5,098)	29.5	33.1	23.6	13.0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0.2	32.9	23.6	12.9	0.6
	한부모가정	100(952)	32.4	33.0	22.9	10.8	0.9
	조손가정	100(163)	25.8	37.4	18.4	16.0	2.5

2-4 학교영역

2-4-1~2-4-4 학교영역 -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평균비교

학교영역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친구관계(M3.13)’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생활(M2.94)’, ‘학교수업(M2.76)’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III-125] 학교영역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및 표준편차

<표 III-130> 학교영역의 요인별 및 지표 항목별 및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학교 수업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 한다	3.04	.721
	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2.66	.788
	3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2.57	.798
소계			2.76	.667
교사 관계	4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2.73	.857
	5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2.42	.931
	6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53	.918
소계			2.56	.817
친구 관계	7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3.16	.793
	8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3.11	.793
	9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3.14	.789
소계			3.13	.703
학교 생활	10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2.93	.757
	11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 한다	2.81	.777
	12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3.11	.876
소계			2.94	.648
학교영역 역량(전체)			2.85	.553

■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학교 영역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급별, 거주지별 및 가족 구성별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학교 영역의 전체 평균을 보면, 초등학교가 중학교 보다 중학교는 고등학교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거주지별에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I-13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31>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학교 수업		교사 관계		친구 관계		학교 생활		학교 영역(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5,061)	2.73 (0.732)	-4.305 ***	2.60 (0.809)	4.852 ***	3.11 (0.708)	-2.802 **	2.93 (0.670)	-2.460 *	2.84 (0.572)	-1.116
	여자 (n=4,783)	2.79 (0.646)		2.52 (0.823)		3.15 (0.697)		2.96 (0.622)		2.86 (0.531)	
교급 별	초등학교 (n=2,657)	2.98 (0.706)	205.700 *** (ab, ac, bc)	2.96 (0.813)	498.525 *** (ab, ac, bc)	3.24 (0.765)	50.153 *** (ab, ac, bc)	3.07 (0.693)	67.640 *** (ab, ac)	3.06 (0.623)	292.477 *** (ab, ac, bc)
	중학교 (n=3,254)	2.71 (0.673)		2.49 (0.801)		3.13 (0.716)		2.90 (0.666)		2.80 (0.560)	
	고등학교 (n=3,933)	2.66 (0.598)		2.35 (0.734)		3.07 (0.637)		2.91 (0.584)		2.75 (0.448)	
거주 지	서울 (n=1,552)	2.80 (0.687)	2.935	2.61 (0.830)	3.179 * (de)	3.14 (0.714)	4.019 * (ef)	3.01 (0.654)	6.053 ** (de, df)	2.89 (0.566)	3.403 * (de)
	광역시 (n=3,194)	2.77 (0.665)		2.54 (0.798)		3.12 (0.703)		2.95 (0.643)		2.84 (0.551)	
	시·군 (n=5,098)	2.75 (0.651)		2.56 (0.816)		3.16 (0.682)		2.94 (0.632)		2.85 (0.534)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n=8,411)	2.78 (0.666)	37.395 *** (gh)	2.57 (0.810)	24.608 *** (gh, hi)	3.16 (0.681)	38.024 *** (gh, gi)	2.97 (0.629)	43.834 *** (gh, gi)	2.87 (0.535)	55.478 *** (gh, gi)
	한부모 가정 (n=952)	2.59 (0.666)		2.38 (0.799)		2.97 (0.736)		2.79 (0.673)		2.68 (0.539)	
	조손가정 (n=163)	2.69 (0.818)		2.62 (0.886)		2.95 (0.925)		2.76 (0.853)		2.75 (0.762)	
전체 M(SD)		2.76(0.667)		2.56(0.817)		3.13(0.703)		2.94(0.648)		2.85(0.553)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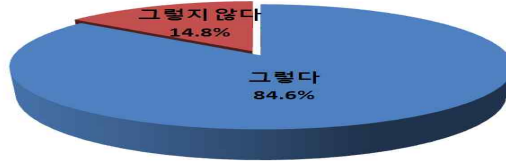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2-4-1-① 학교수업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4.6%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4.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4.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응답률이 낮아졌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I-12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표 III-13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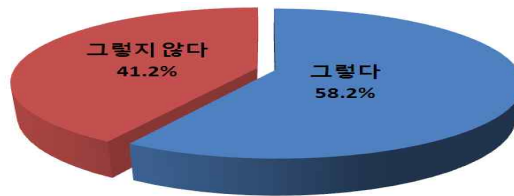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2.7	12.1	60.8	23.8	0.6
성별	남자	100(5,061)	3.4	13.4	59.6	22.9	0.7
	여자	100(4,783)	2.0	10.7	62.0	24.8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0	7.2	53.8	36.2	0.8
	중학교	100(3,254)	3.3	12.8	61.4	21.8	0.8
	고등학교	100(3,933)	2.7	14.8	65.0	17.1	0.3
거주지	서울	100(1,552)	4.0	11.8	58.2	25.5	0.5
	광역시	100(3,194)	2.5	11.9	61.3	23.5	0.8
	시·군	100(5,098)	2.4	12.3	61.2	23.5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2.2	11.7	61.2	24.4	0.5
	한부모가정	100(952)	5.1	15.4	61.3	17.3	0.7
	조손가정	100(163)	4.9	13.5	54.6	25.2	1.8

2-4-1-② 학교수업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8.2%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8.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41.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고 응답하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다는 응답률이 낮아졌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 청소년이 양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청소년들보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다는 응답률이 더 낮았다.



[그림 III-127]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표 III-133>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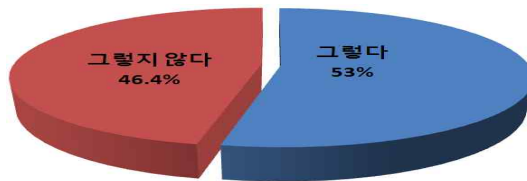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4.5	36.7	44.6	13.6	0.6
성별	남자	100(5,061)	5.3	38.8	42.4	12.8	0.7
	여자	100(4,783)	3.7	34.4	47.0	14.4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8	26.0	46.3	23.0	0.9
	중학교	100(3,254)	5.2	39.4	43.2	11.5	0.8
	고등학교	100(3,933)	4.4	41.7	44.7	9.0	0.2
거주지	서울	100(1,552)	6.4	33.2	45.1	14.6	0.6
	광역시	100(3,194)	4.0	36.1	45.5	13.8	0.7
	시·군	100(5,098)	4.2	38.1	44.0	13.2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9	36.3	45.5	13.8	0.5
	한부모가정	100(952)	7.8	42.4	40.0	9.0	0.7
	조손가정	100(163)	8.0	33.1	39.3	18.4	1.2

2-4-1-③ 학교수업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듣는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3.0%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듣는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46.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수업시간에 집중하여 듣는다는 응답률이 낮아졌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양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청소년들보다 수업시간에 집중하여 듣는다는 응답률이 낮았다.



[그림 III-128]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표 III-134>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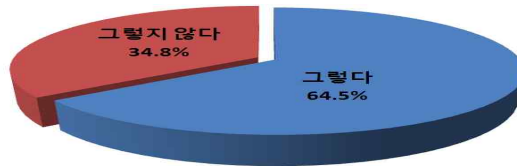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6.1	40.3	41.3	11.6	0.6
성별	남자	100(5,061)	6.3	39.8	41.1	12.0	0.8
	여자	100(4,783)	5.8	40.9	41.6	11.2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3	27.8	46.7	21.2	1.0
	중학교	100(3,254)	6.6	41.8	40.6	10.2	0.8
	고등학교	100(3,933)	7.5	47.5	38.3	6.4	0.3
거주지	서울	100(1,552)	6.3	34.1	44.8	14.2	0.6
	광역시	100(3,194)	6.2	39.8	41.8	11.5	0.8
	시·군	100(5,098)	5.9	42.5	40.0	10.9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5.5	39.9	42.3	11.8	0.5
	한부모가정	100(952)	9.3	46.6	36.2	6.8	0.9
	조손가정	100(163)	10.4	38.7	34.4	13.5	3.1

2-4-2-① 교사관계

‘나는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4.5%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4.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34.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에 나를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응답률이 낮아졌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양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청소년들보다 학교에 나를 인정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129]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표 III-135>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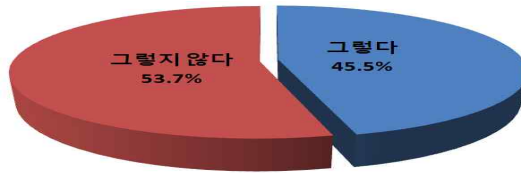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7.4	27.4	47.0	17.5	0.7
성별	남자	100(5,061)	6.9	26.6	48.0	17.8	0.8
	여자	100(4,783)	8.0	28.3	45.9	17.3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1	11.9	49.3	33.7	1.0
	중학교	100(3,254)	8.5	28.5	48.3	13.8	0.9
	고등학교	100(3,933)	8.8	37.0	44.2	9.7	0.3
거주지	서울	100(1,552)	7.6	24.9	46.5	20.5	0.5
	광역시	100(3,194)	7.5	28.5	47.1	16.0	0.8
	시·군	100(5,098)	7.3	27.5	47.0	17.6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7.0	27.3	47.3	17.9	0.6
	한부모가정	100(952)	10.9	32.2	44.6	11.6	0.6
	조손가정	100(163)	7.4	28.2	41.7	20.9	1.8

2-4-2-② 교사관계

‘나는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5.5%가 그렇다고 응답

○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 45.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53.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학교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마음을 터놓을 선생님이 있다는 응답률이 낮아졌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양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청소년들보다 학교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낮았다.



[그림 III-130]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표 III-136>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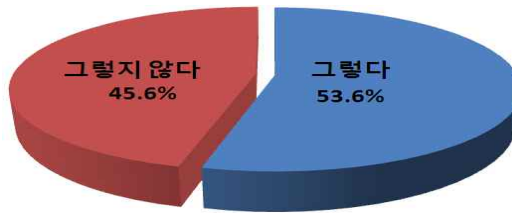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15.6	38.1	32.2	13.3	0.8
성별	남자	100(5,061)	13.9	36.8	34.4	14.0	0.9
	여자	100(4,783)	17.4	39.5	30.0	12.6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8.4	24.1	40.3	26.1	1.1
	중학교	100(3,254)	16.6	39.2	32.8	10.4	1.0
	고등학교	100(3,933)	19.6	46.7	26.3	7.1	0.3
거주지	서울	100(1,552)	15.6	37.7	30.3	15.7	0.7
	광역시	100(3,194)	15.5	39.3	32.4	11.9	0.8
	시·군	100(5,098)	15.7	37.5	32.7	13.5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5.1	38.7	32.2	13.4	0.6
	한부모가정	100(952)	21.1	39.0	30.5	8.1	1.4
	조손가정	100(163)	13.5	31.3	35.0	18.4	1.8

2-4-2-③ 교사관계

‘나는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3.6%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3.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45.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학교에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힘들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응답률이 낮아졌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양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청소년들보다 학교에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낮았다.



[그림 III-131]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표 III-137>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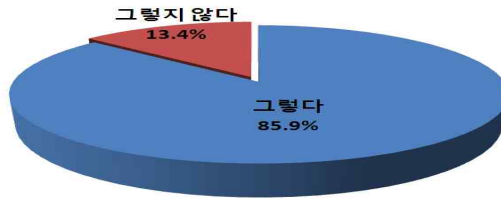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13.3	32.3	39.6	14.1	0.8
성별	남자	100(5,061)	11.9	30.6	42.0	14.7	0.8
	여자	100(4,783)	14.9	34.0	37.0	13.5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7	17.2	46.5	28.4	1.2
	중학교	100(3,254)	14.2	34.4	39.2	11.1	1.0
	고등학교	100(3,933)	17.1	40.7	35.1	6.9	0.2
거주지	서울	100(1,552)	13.9	29.9	38.9	16.5	0.8
	광역시	100(3,194)	13.0	33.8	39.9	12.5	0.8
	시·군	100(5,098)	13.4	32.1	39.5	14.3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3.0	32.4	39.7	14.3	0.6
	한부모가정	100(952)	17.2	34.8	38.7	8.2	1.2
	조손가정	100(163)	13.5	31.9	33.1	20.2	1.2

2-4-3-① 친구관계

‘나는 학교에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5.9%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학교에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5.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3.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가족구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이 학교에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성별, 교급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I-132]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표 III-138>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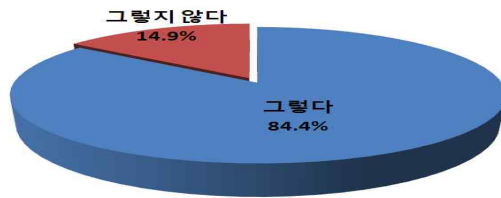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7	9.7	51.1	34.8	0.7
성별	남자	100(5,061)	3.5	10.6	52.2	32.9	0.8
	여자	100(4,783)	3.9	8.8	50.0	36.7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6	8.2	43.6	43.6	0.9
	중학교	100(3,254)	3.9	9.8	51.4	33.9	1.0
	고등학교	100(3,933)	3.6	10.6	56.0	29.5	0.3
거주지	서울	100(1,552)	4.8	10.1	49.3	35.2	0.6
	광역시	100(3,194)	3.5	10.0	51.7	34.0	0.8
	시·군	100(5,098)	3.5	9.4	51.4	35.1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3	9.3	51.2	35.8	0.5
	한부모가정	100(952)	5.5	11.7	53.9	27.7	1.3
	조손가정	100(163)	8.6	15.3	42.9	31.3	1.8

2-4-3-② 친구관계

‘나는 학교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4.4%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학교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4.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4.9%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는 응답률이 낮아졌고,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이 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I-133]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표 III-139>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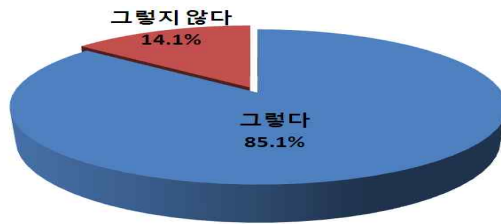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8	11.1	53.0	31.5	0.7
성별	남자	100(5,061)	4.0	10.6	54.0	30.6	0.8
	여자	100(4,783)	3.6	11.6	52.0	32.3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1	8.4	44.0	42.5	1.1
	중학교	100(3,254)	3.8	10.4	54.1	30.8	0.9
	고등학교	100(3,933)	3.6	13.5	58.1	24.6	0.3
거주지	서울	100(1,552)	4.4	11.6	51.4	32.0	0.6
	광역시	100(3,194)	4.0	11.4	53.5	30.2	0.9
	시·군	100(5,098)	3.5	10.7	53.2	32.1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3	10.6	53.0	32.5	0.6
	한부모가정	100(952)	6.1	14.3	56.0	22.6	1.1
	조손가정	100(163)	6.7	18.4	41.7	31.9	1.2

2-4-3-③ 친구관계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5.1%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5.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4.1%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의 경우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는 응답률이 낮았고,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I-134]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표 III-140>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3	10.8	51.6	33.5	0.7
성별	남자	100(5,061)	3.6	11.2	52.1	32.3	0.7
	여자	100(4,783)	3.0	10.4	51.1	34.8	0.8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2	8.4	41.7	44.6	1.1
	중학교	100(3,254)	3.3	9.3	52.6	33.8	1.0
	고등학교	100(3,933)	2.6	13.8	57.5	25.8	0.3
거주지	서울	100(1,552)	3.4	11.5	49.8	34.3	1.0
	광역시	100(3,194)	3.4	11.3	52.5	31.9	0.9
	시·군	100(5,098)	3.2	10.3	51.6	34.3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2.7	10.5	51.7	34.4	0.6
	한부모가정	100(952)	5.8	13.0	54.8	25.3	1.1
	조손가정	100(163)	9.8	14.7	38.7	35.0	1.8

2-4-4-① 학교생활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7.4%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7.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1.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의 경우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률이 낮았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이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I-135]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표 III-141>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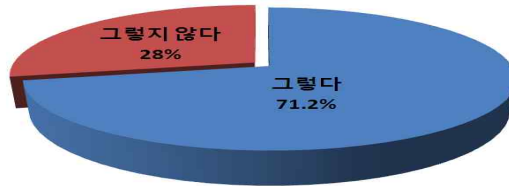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1	18.7	57.4	20.1	0.7
성별	남자	100(5,061)	3.7	19.4	55.6	20.4	0.8
	여자	100(4,783)	2.5	18.0	59.2	19.7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9	15.9	53.4	26.4	1.3
	중학교	100(3,254)	3.6	19.8	57.5	18.3	0.8
	고등학교	100(3,933)	2.8	19.8	59.9	17.2	0.3
거주지	서울	100(1,552)	3.4	16.7	54.4	24.9	0.7
	광역시	100(3,194)	2.8	18.7	58.4	19.3	0.8
	시·군	100(5,098)	3.2	19.4	57.7	19.0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2.7	17.9	58.4	20.4	0.6
	한부모가정	100(952)	4.4	24.7	54.5	15.3	1.1
	조손가정	100(163)	8.6	24.5	42.9	21.5	2.5

2-4-4-② 학교생활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1.2%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1.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아껴서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 시설을 아껴서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낮아졌다.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이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아껴서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I-136]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표 III-142>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4.3	23.7	55.4	15.8	0.8
성별	남자	100(5,061)	5.2	24.4	52.8	16.7	0.9
	여자	100(4,783)	3.4	22.8	58.2	14.8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5	13.3	54.7	28.2	1.3
	중학교	100(3,254)	5.4	25.6	54.3	13.7	1.0
	고등학교	100(3,933)	4.7	29.0	56.9	9.1	0.3
거주지	서울	100(1,552)	5.3	20.4	54.5	19.2	0.6
	광역시	100(3,194)	3.7	23.8	57.0	14.5	1.0
	시·군	100(5,098)	4.4	24.6	54.8	15.5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4.1	23.3	56.0	15.9	0.7
	한부모가정	100(952)	5.6	27.6	55.5	10.5	0.8
	조손가정	100(163)	6.1	30.1	41.1	20.2	2.5

2-4-4-③ 학교생활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5%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8.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0.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낮아졌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이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I-137]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표 III-143>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844)	4.2	16.5	40.8	37.7	0.7
성별	남자	100(5,061)	4.7	16.8	39.5	38.1	0.8
	여자	100(4,783)	3.7	16.2	42.1	37.3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3	14.6	41.2	39.8	1.1
	중학교	100(3,254)	4.9	16.4	43.0	34.8	0.9
	고등학교	100(3,933)	4.3	17.9	38.7	38.7	0.3
거주지	서울	100(1,552)	4.9	15.3	40.5	38.9	0.5
	광역시	100(3,194)	4.0	16.6	40.9	37.6	1.0
	시·군	100(5,098)	4.2	16.8	40.8	37.4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3.7	15.6	41.2	38.9	0.7
	한부모가정	100(952)	7.4	24.5	38.8	28.8	0.6
	조손가정	100(163)	11.0	22.1	30.1	35.0	1.8

2. 청소년 안전(보호) 지표 조사결과

1) 안전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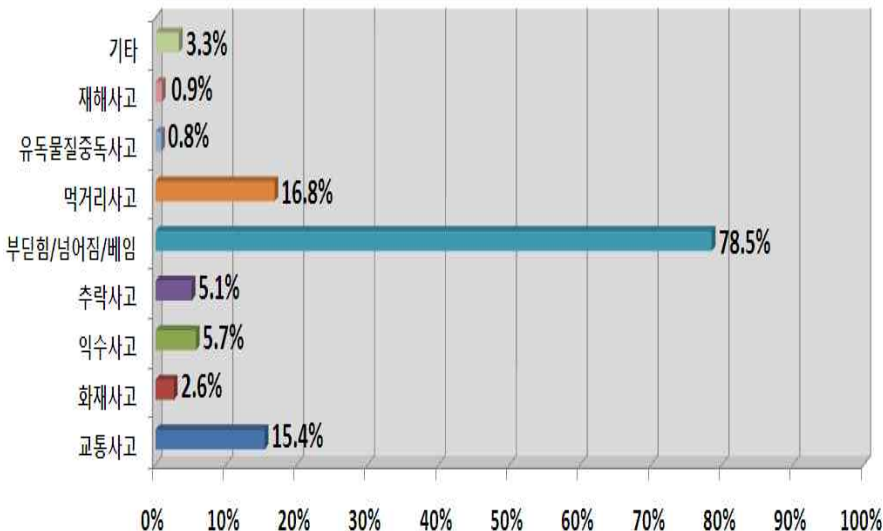
1-1 사고경험

1-1-1 최근 1년 동안 사고유형별 사고경험 여부(중복응답)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부딪힘/넘어짐/베임 사고(78.5%)’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먹거리사고(16.8%)’, ‘교통사고(15.4%)’, ‘익수사고(5.7%)’, ‘추락사고(5.1%)’ 순으로 사고를 경험하였음

○ 청소년들의 10명 중 8명은 부딪힘/넘어짐/베임 사고를 경험하였고, 먹거리사고와 교통사고는 청소년들의 10% 이상이 경험하였다.

- 성별로는 대부분의 사고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많았고, 교급별로는 대체로 중학교가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 양부모가정의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138] 최근 1년 동안 사고유형별 사고경험 여부(중복응답)

<표 III-144> 최근 1년 동안 사고유형별 사고경험 여부(중복응답)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교통사고	화재사고	익수사고	추락사고
전체		100(9,727)	15.4	2.6	5.7	5.1
성별	남자	100(4,793)	18.4	3.1	6.6	6.0
	여자	100(4,925)	12.5	2.2	4.9	4.3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12.7	3.0	5.6	4.6
	중학교	100(3,257)	16.6	2.7	6.4	6.3
	고등학교	100(3,794)	16.4	2.3	5.3	4.6
거주지	서울	100(1,533)	17.1	3.2	5.4	5.0
	광역시	100(3,077)	15.8	2.4	6.0	4.9
	시·군	100(5,097)	14.7	2.6	5.7	5.3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14.8	2.5	5.5	5.0
	한부모가정	100(868)	17.3	2.6	6.5	6.0
	조손가정	100(172)	20.3	6.4	7.0	7.6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부딪힘/넘어짐/배임	먹거리 사고	유독물질 중독사고	재해사고	기타
전체		100(9,727)	78.5	16.8	0.8	0.9	3.3
성별	남자	100(4,793)	76.6	17.2	1.0	1.1	3.6
	여자	100(4,925)	80.3	16.4	0.6	0.7	3.0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80.5	13.5	0.9	0.9	7.2
	중학교	100(3,257)	81.2	18.1	0.6	1.0	2.3
	고등학교	100(3,794)	74.7	18.0	1.0	0.9	1.5
거주지	서울	100(1,533)	80.6	19.0	0.9	1.4	4.6
	광역시	100(3,077)	76.9	16.5	0.6	0.9	3.1
	시·군	100(5,097)	78.8	16.2	1.0	0.8	3.0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79.0	16.6	0.7	0.8	3.3
	한부모가정	100(868)	75.6	18.7	1.2	0.9	3.2
	조손가정	100(172)	76.7	20.3	4.1	2.3	2.3

1-1-1 최근 1년 동안 사고유형별 사고경험 여부 - 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1-1-1-① 최근 1년 동안 교통사고 경험여부

<표 III-145> 최근 1년 동안 교통사고 경험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없음	경험있음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82.9	15.4	1.6	
성별	남자	100(4,793)	79.5	18.4	2.1	69.256***
	여자	100(4,925)	86.3	12.5	1.2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85.4	12.7	1.9	20.314***
	중학교	100(3,257)	81.5	16.6	1.9	
	고등학교	100(3,794)	82.3	16.4	1.3	
거주지	서울	100(1,533)	80.8	17.1	2.1	5.833
	광역시	100(3,077)	83.1	15.8	1.1	
	시·군	100(5,097)	83.4	14.7	1.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3.7	14.8	1.5	8.666*
	한부모가정	100(868)	80.5	17.3	2.2	
	조손가정	100(172)	75.6	20.3	4.1	

* $p<.05$, *** $p<.001$

1-1-1-② 최근 1년 동안 화재사고 경험여부

<표 III-146> 최근 1년 동안 화재사고 경험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없음	경험있음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95.4	2.6	2.0	
성별	남자	100(4,793)	94.5	3.1	2.4	8.354**
	여자	100(4,925)	96.2	2.2	1.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4.7	3.0	2.3	3.514
	중학교	100(3,257)	95.2	2.7	2.1	
	고등학교	100(3,794)	96.0	2.3	1.7	
거주지	서울	100(1,533)	94.5	3.2	2.3	2.428
	광역시	100(3,077)	96.0	2.4	1.6	
	시·군	100(5,097)	95.3	2.6	2.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5.6	2.5	1.9	10.773**
	한부모가정	100(868)	95.0	2.6	2.3	
	조손가정	100(172)	90.7	6.4	2.9	

** $p<.01$

1-1-1-③ 최근 1년 동안 익수사고 경험여부

<표 III-147> 최근 1년 동안 익수사고 경험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없음	경험있음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92.1	5.7	2.1	
성별	남자	100(4,793)	90.8	6.6	2.6	14.115***
	여자	100(4,925)	93.4	4.9	1.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2.0	5.6	2.4	4.296
	중학교	100(3,257)	91.3	6.4	2.3	
	고등학교	100(3,794)	92.9	5.3	1.8	
거주지	서울	100(1,533)	92.1	5.4	2.4	0.674
	광역시	100(3,077)	92.2	6.0	1.8	
	시·군	100(5,097)	92.1	5.7	2.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2.4	5.5	2.0	2.005
	한부모가정	100(868)	91.1	6.5	2.4	
	조손가정	100(172)	89.5	7.0	3.5	

*** $p < .001$

1-1-1-④ 최근 1년 동안 추락사고 경험여부

<표 III-148> 최근 1년 동안 추락사고 경험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없음	경험있음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92.3	5.1	2.6	
성별	남자	100(4,793)	91.1	6.0	2.9	15.727***
	여자	100(4,925)	93.4	4.3	2.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2.7	4.6	2.8	12.970**
	중학교	100(3,257)	90.9	6.3	2.8	
	고등학교	100(3,794)	93.1	4.6	2.2	
거주지	서울	100(1,533)	92.0	5.0	3.0	0.770
	광역시	100(3,077)	92.9	4.9	2.2	
	시·군	100(5,097)	92.0	5.3	2.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2.6	5.0	2.5	4.099
	한부모가정	100(868)	91.1	6.0	2.9	
	조손가정	100(172)	89.0	7.6	3.5	

** $p < .01$, *** $p < .001$

1-1-1-⑤ 최근 1년 동안 부딪힘/넘어짐/베임사고 경험여부

<표 III-149> 최근 1년 동안 부딪힘/넘어짐/베임사고 경험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없음	경험있음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20.2	78.5	1.3	
성별	남자	100(4,793)	21.8	76.6	1.6	16.405***
	여자	100(4,925)	18.6	80.3	1.1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18.0	80.5	1.4	60.075***
	중학교	100(3,257)	17.3	81.2	1.5	
	고등학교	100(3,794)	24.1	74.7	1.2	
거주지	서울	100(1,533)	17.4	80.6	2.1	11.989**
	광역시	100(3,077)	21.8	76.9	1.3	
	시·군	100(5,097)	20.0	78.8	1.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19.8	79.0	1.3	4.846
	한부모가정	100(868)	22.8	75.6	1.6	
	조손가정	100(172)	20.3	76.7	2.9	

** $p<.01$, *** $p<.001$

1-1-1-⑥ 최근 1년 동안 먹거리사고 경험여부

<표 III-150> 최근 1년 동안 먹거리사고 경험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없음	경험있음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80.9	16.8	2.4	
성별	남자	100(4,793)	80.1	17.2	2.7	1.186
	여자	100(4,925)	81.5	16.4	2.0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83.6	13.5	2.9	27.136***
	중학교	100(3,257)	79.5	18.1	2.4	
	고등학교	100(3,794)	80.0	18.0	2.0	
거주지	서울	100(1,533)	78.2	19.0	2.8	7.128*
	광역시	100(3,077)	81.4	16.5	2.0	
	시·군	100(5,097)	81.3	16.2	2.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1.1	16.6	2.3	4.198
	한부모가정	100(868)	78.9	18.7	2.4	
	조손가정	100(172)	76.2	20.3	3.5	

* $p<.05$, ** $p<.01$, *** $p<.001$

1-1-1-⑦ 최근 1년 동안 유독물질 중독사고 경험여부

<표 III-151> 최근 1년 동안 유독물질 중독사고 경험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없음	경험있음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96.8	0.8	2.4	
성별	남자	100(4,793)	96.3	1.0	2.7	5.175*
	여자	100(4,925)	97.4	0.6	2.0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6.2	0.9	2.9	4.803
	중학교	100(3,257)	96.9	0.6	2.5	
	고등학교	100(3,794)	97.1	1.0	1.8	
거주지	서울	100(1,533)	96.3	0.9	2.8	3.472
	광역시	100(3,077)	97.4	0.6	2.0	
	시·군	100(5,097)	96.6	1.0	2.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7.1	0.7	2.3	28.345***
	한부모가정	100(868)	96.4	1.2	2.4	
	조손가정	100(172)	92.4	4.1	3.5	

* $p<.05$, *** $p<.001$

1-1-1-⑧ 최근 1년 동안 재해사고 경험여부

<표 III-152> 최근 1년 동안 재해사고 경험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없음	경험있음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96.8	0.9	2.3	
성별	남자	100(4,793)	96.2	1.1	2.7	4.820*
	여자	100(4,925)	97.5	0.7	1.8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6.6	0.9	2.6	0.105
	중학교	100(3,257)	96.6	1.0	2.4	
	고등학교	100(3,794)	97.2	0.9	1.9	
거주지	서울	100(1,533)	95.8	1.4	2.8	5.662
	광역시	100(3,077)	97.3	0.9	1.8	
	시·군	100(5,097)	96.8	0.8	2.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7.0	0.8	2.2	4.525
	한부모가정	100(868)	96.8	0.9	2.3	
	조손가정	100(172)	93.6	2.3	4.1	

* $p<.05$

1-1-1-⑨ 최근 1년 동안 기타사고 경험여부

<표 III-153> 최근 1년 동안 기타사고 경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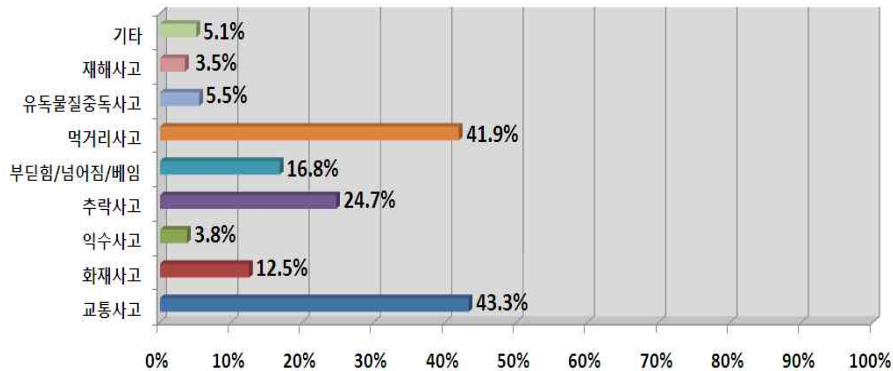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없음	경험있음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54.3	3.3	42.4	
성별	남자	100(4,793)	54.1	3.6	42.3	2.760***
	여자	100(4,925)	54.5	3.0	42.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47.0	7.2	45.8	200.734***
	중학교	100(3,257)	54.2	2.3	43.4	
	고등학교	100(3,794)	59.2	1.5	39.3	
거주지	서울	100(1,533)	52.9	4.6	42.5	10.475**
	광역시	100(3,077)	57.3	3.1	39.6	
	시·군	100(5,097)	52.9	3.0	44.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54.2	3.3	42.5	0.475
	한부모가정	100(868)	58.1	3.2	38.7	
	조손가정	100(172)	51.2	2.3	46.5	

** $p<.01$, *** $p<.001$

1-1-2 최근 1년 동안 사고유형별 경험한 사고의 치료 여부 - 지표 항목별 비교

사고를 경험한 청소년들 중 병원치료를 받은 사고는 ‘교통사고(43.3%)’, ‘먹거리사고(41.9%)’, ‘추락사고(24.7%)’, ‘부딪힘/넘어짐/베임(16.8%)’, ‘화재사고(12.5%)’ 순이었음

- 병원치료를 한 경우는 교통사고와 먹거리사고가 많았고, 간단한 치료를 한 경우는 부딪힘/넘어짐/베임사고(68.4%)와 먹거리사고(34.1%)가 많았다.
-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치료여부는 사고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I-139] 최근 1년 동안 사고유형별 경험한 사고의 병원치료를

<표 III-154> 최근 1년 동안 사고유형별 경험한 사고의 치료여부

번호	문항	전체 (빈도)	치료하지 않았다	간단한 치료를 하였다	병원에서 치료하였다	무응답
1	교통사고	100(1,661)	24.6	22.4	43.3	9.6
2	화재사고	100(449)	20.5	23.8	12.5	43.2
3	익수사고(물놀이사고)	100(765)	47.5	21.7	3.8	27.1
4	추락사고	100(750)	18.1	23.9	24.7	33.3
5	부딪힘/넘어짐/베임	100(7,766)	13.1	68.4	16.8	1.7
6	먹거리사고(예; 식중독)	100(1,862)	11.6	34.1	41.9	12.4
7	유독물질(먹거나 마시면 위험한 물질) 중독사고	100(310)	12.3	8.4	5.5	73.9
8	재해사고(예; 홍수, 태풍)	100(310)	19.0	6.1	3.5	71.3
9	기타	100(4,447)	0.7	1.5	5.1	92.7

1-1-2 최근 1년 동안 사고유형별 경험한 사고의 치료여부 - 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1-1-2-①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교통사고의 치료여부

<표 III-155>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교통사고의 치료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치료하지 않았다	간단한 치료를 하였다	병원에서 치료하였다	무응답
전체		100(1,661)	24.6	22.4	43.3	9.6
성별	남자	100(983)	25.6	22.4	41.9	10.1
	여자	100(675)	23.3	22.4	45.5	8.9
교육별	초등학교	100(385)	24.9	24.9	37.4	12.7
	중학교	100(602)	25.7	20.4	43.5	10.3
	고등학교	100(673)	23.5	22.7	46.5	7.3
거주지	서울	100(298)	23.5	20.1	45.6	10.7
	광역시	100(519)	28.3	23.9	41.4	6.4
	시·군	100(844)	22.7	22.3	43.7	11.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1,323)	25.0	22.8	42.9	9.3
	한부모가정	100(169)	20.7	24.3	43.8	11.2
	조손가정	100(42)	21.4	16.7	45.2	16.7

1-1-2-②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화재사고의 치료여부

<표 III-156>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화재사고의 치료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치료하지 않았다	간단한 치료를 하였다	병원에서 치료하였다	무응답
전체		100(449)	20.5	23.8	12.5	43.2
성별	남자	100(263)	23.6	23.6	9.1	43.7
	여자	100(185)	16.2	24.3	17.3	42.2
교육별	초등학교	100(139)	15.8	28.8	12.2	43.2
	중학교	100(157)	18.5	22.9	15.3	43.3
	고등학교	100(152)	27.0	20.4	9.9	42.8
거주지	서울	100(85)	22.4	24.7	10.6	42.4
	광역시	100(124)	21.8	28.2	9.7	40.3
	시·군	100(240)	19.2	21.3	14.6	45.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355)	19.4	24.2	12.7	43.7
	한부모가정	100(43)	25.6	18.6	9.3	46.5
	조손가정	100(16)	18.8	31.3	18.8	31.3

1-1-2-③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익수사고의 치료여부

<표 Ⅲ-157>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익수사고의 치료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치료하지 않았다	간단한 치료를 하였다	병원에서 치료하였다	무응답
전체		100(765)	47.5	21.7	3.8	27.1
성별	남자	100(440)	47.7	20.0	4.3	28.0
	여자	100(324)	47.2	24.1	3.1	25.6
교육별	초등학교	100(212)	42.0	24.1	3.8	30.2
	중학교	100(282)	48.9	21.3	3.5	26.2
	고등학교	100(269)	50.6	20.1	4.1	25.3
거주지	서울	100(122)	36.9	24.6	7.4	31.1
	광역시	100(239)	49.4	24.7	3.3	22.6
	시·군	100(404)	49.5	19.1	3.0	28.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615)	47.6	21.8	3.6	27.0
	한부모가정	100(77)	57.1	14.3	1.3	27.3
	조손가정	100(18)	33.3	27.8	5.6	33.3

1-1-2-④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추락사고의 치료여부

<표 Ⅲ-158>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추락사고의 치료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치료하지 않았다	간단한 치료를 하였다	병원에서 치료하였다	무응답
전체		100(750)	18.1	23.9	24.7	33.3
성별	남자	100(426)	19.0	22.1	26.8	32.2
	여자	100(323)	17.0	26.3	22.0	34.7
교육별	초등학교	100(194)	16.5	23.2	22.7	37.6
	중학교	100(295)	19.7	23.7	25.8	30.8
	고등학교	100(260)	17.7	24.6	25.0	32.7
거주지	서울	100(125)	12.8	21.6	28.0	37.6
	광역시	100(219)	17.4	23.7	27.9	31.1
	시·군	100(406)	20.2	24.6	21.9	33.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604)	18.0	23.8	24.8	33.3
	한부모가정	100(77)	18.2	27.3	22.1	32.5
	조손가정	100(19)	26.3	15.8	26.3	31.6

1-1-2-⑤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부딪힘/넘어짐/베임 사고의 치료여부

<표 III-159>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부딪힘/넘어짐/베임사고의 치료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치료하지 않았다	간단한 치료를 하였다	병원에서 치료하였다	무응답
전체		100(7,766)	13.1	68.4	16.8	1.7
성별	남자	100(3,750)	13.8	64.2	19.9	2.1
	여자	100(4,010)	12.4	72.4	13.9	1.3
교육별	초등학교	100(2,166)	9.8	71.7	16.7	1.8
	중학교	100(2,695)	12.3	69.5	16.3	1.8
	고등학교	100(26)	15.4	69.2	15.4	0.0
거주지	서울	100(1,283)	10.7	70.7	16.1	2.5
	광역시	100(2,406)	14.4	66.1	17.8	1.7
	시·군	100(4,077)	13.1	69.1	16.4	1.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6,522)	12.7	69.0	16.7	1.6
	한부모가정	100(670)	15.8	66.4	15.7	2.1
	조손가정	100(137)	13.9	64.2	18.2	3.6

1-1-2-⑥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먹거리사고의 치료여부

<표 III-160>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먹거리사고의 치료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치료하지 않았다	간단한 치료를 하였다	병원에서 치료하였다	무응답
전체		100(1,862)	11.6	34.1	41.9	12.4
성별	남자	100(952)	13.6	33.2	39.6	13.7
	여자	100(909)	9.6	35.1	44.4	10.9
교육별	초등학교	100(433)	11.1	32.6	38.6	17.8
	중학교	100(667)	9.6	35.2	43.5	11.7
	고등학교	100(758)	13.7	33.9	42.6	9.8
거주지	서울	100(339)	11.8	36.9	38.3	13.0
	광역시	100(572)	12.1	34.8	42.1	11.0
	시·군	100(951)	11.3	32.7	43.1	12.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1,533)	11.3	34.5	42.2	12.0
	한부모가정	100(183)	16.4	32.2	39.9	11.5
	조손가정	100(41)	17.1	36.6	31.7	14.6

1-1-2-⑦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유독물질 중독사고의 치료여부

<표 Ⅲ-161>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유독물질 중독사고의 치료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치료하지 않았다	간단한 치료를 하였다	병원에서 치료하였다	무응답
전체		100(310)	12.3	8.4	5.5	73.9
성별	남자	100(179)	14.5	7.8	5.6	72.1
	여자	100(130)	9.2	9.2	5.4	76.2
교육별	초등학교	100(100)	14.0	5.0	5.0	76.0
	중학교	100(100)	9.0	6.0	3.0	82.0
	고등학교	100(109)	13.8	13.8	8.3	64.2
거주지	서울	100(57)	10.5	8.8	5.3	75.4
	광역시	100(79)	8.9	6.3	7.6	77.2
	사·군	100(174)	14.4	9.2	4.6	7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237)	10.1	7.2	5.1	77.6
	한부모가정	100(31)	16.1	12.9	3.2	67.7
	조손가정	100(13)	38.5	7.7	7.7	46.2

1-1-2-⑧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재해사고의 치료여부

<표 Ⅲ-162>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재해사고의 치료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치료하지 않았다	간단한 치료를 하였다	병원에서 치료하였다	무응답
전체		100(310)	19.0	6.1	3.5	71.3
성별	남자	100(184)	20.1	4.9	4.3	70.7
	여자	100(125)	17.6	8.0	2.4	72.0
교육별	초등학교	100(91)	15.4	4.4	5.5	74.7
	중학교	100(110)	24.5	2.7	0.9	71.8
	고등학교	100(108)	16.7	11.1	4.6	67.6
거주지	서울	100(65)	23.1	3.1	7.7	66.2
	광역시	100(84)	22.6	8.3	2.4	66.7
	사·군	100(161)	15.5	6.2	2.5	75.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246)	19.5	4.9	3.3	72.4
	한부모가정	100(28)	17.9	10.7	0.0	71.4
	조손가정	100(11)	18.2	9.1	9.1	63.6

1-1-2-⑨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기타사고의 치료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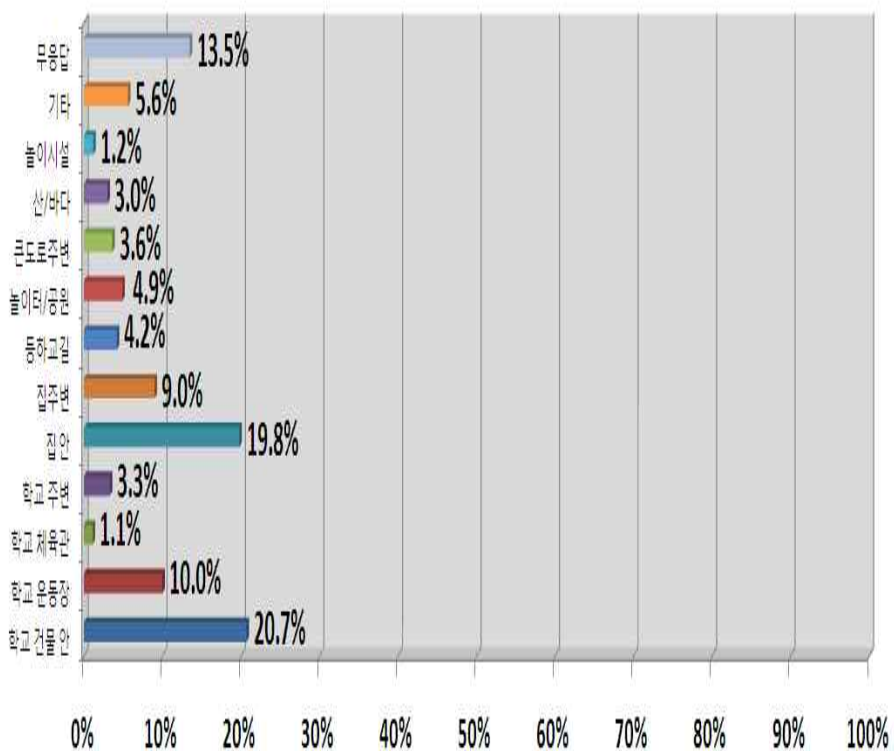
<표 III-163>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기타사고의 치료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치료하지 않았다	간단한 치료를 하였다	병원에서 치료하였다	무응답
전체		100(4,447)	0.7	1.5	5.1	92.7
성별	남자	100(2,202)	0.9	1.5	5.5	92.1
	여자	100(2,240)	0.5	1.4	4.7	93.3
교급별	초등학교	100(1,400)	0.9	3.0	9.6	86.5
	중학교	100(1,491)	0.6	0.9	3.6	94.9
	고등학교	100(1,548)	0.6	0.6	2.5	96.3
거주지	서울	100(732)	1.0	2.5	6.4	90.2
	광역시	100(1,315)	0.8	1.1	5.3	92.7
	시·군	100(2,400)	0.5	1.3	4.6	93.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3,720)	0.7	1.5	5.0	92.8
	한부모가정	100(364)	0.5	1.4	5.8	92.3
	조손가정	100(84)	0.0	1.2	3.6	95.2

1-1-3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사고 발생장소

**최근 1년 동안 청소년들이 경험한 사고는 ‘학교 건물 안(20.7%)’과
‘집 안(19.8%)’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학교 운동장(10.0%)’, ‘집주변(9.0%)’순이었음**

- 청소년들이 경험한 사고는 대부분 학교안팎(31.8%)과 집안팎(28.8%)이었다.
- 성별로는 학교운동장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사고가 세 배 정도 많았고, 교급별로 학교건물 안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사고가 많았고 집안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사고가 많았다.



[그림 III-140]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사고 발생장소

<표 Ⅲ-164>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사고 발생장소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학교 건물 안	학교 운동장	학교 체육관	학교 주변	집 안	집주변
전체		100(8,511)	20.7	10.0	1.1	3.3	19.8	9.0
성별	남자	100(4,167)	19.6	15.7	1.2	4.0	14.0	8.4
	여자	100(4,337)	21.7	4.5	1.0	2.6	25.4	9.5
교육별	초등학교	100(2,364)	9.7	12.1	0.8	2.7	22.3	10.2
	중학교	100(2,918)	24.1	9.1	1.1	3.3	21.7	8.0
	고등학교	100(3,202)	25.5	9.2	1.3	3.5	16.4	8.9
거주지	서울	100(1,372)	16.5	10.0	0.8	2.3	24.7	9.0
	광역시	100(2,665)	22.3	10.8	1.7	3.6	17.2	8.7
	시·군	100(4,474)	21.0	9.5	0.9	3.4	19.9	9.1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100(7,126)	21.3	10.0	1.2	3.0	20.2	8.6
	한부모가정	100(747)	19.5	8.8	0.8	5.4	18.6	10.0
	조손가정	100(149)	17.4	11.4	0.7	3.4	16.1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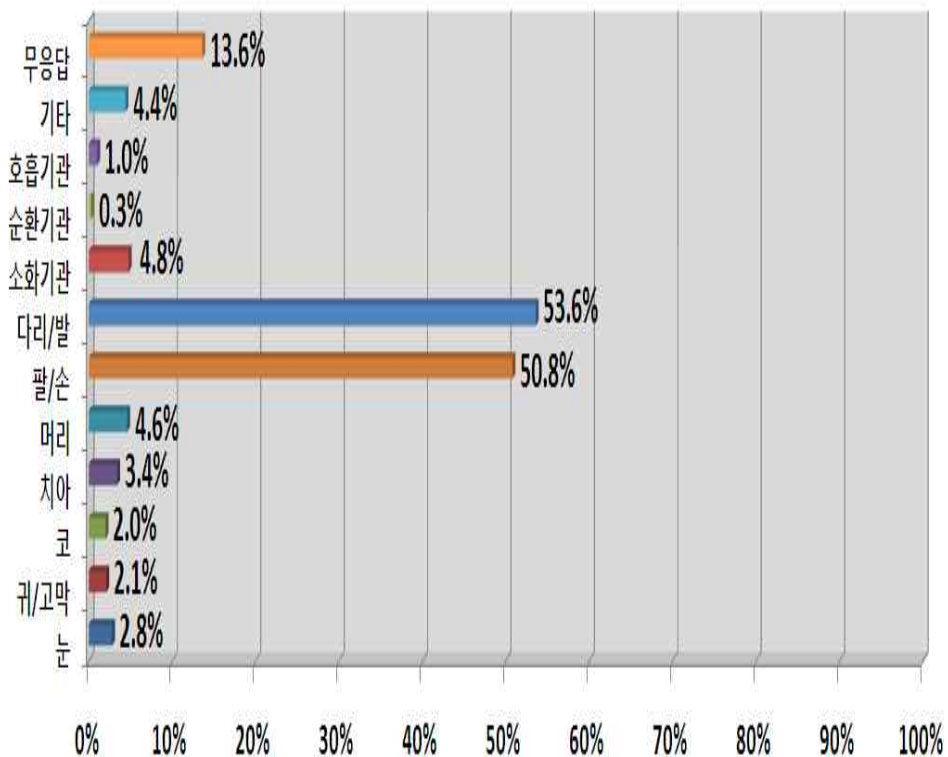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등하교길	놀이터/ 공원	큰도로 주변	산/바다	놀이시설	기타	무응 답
전체		100(8,511)	4.2	4.9	3.6	3.0	1.2	5.6	13.5
성별	남자	100(4,167)	3.8	5.3	4.1	3.4	1.5	5.8	13.2
	여자	100(4,337)	4.5	4.6	3.2	2.7	0.9	5.5	13.8
교육 별	초등학교	100(2,364)	3.3	10.1	3.6	3.6	2.9	6.6	12.1
	중학교	100(2,918)	4.1	3.6	3.5	3.2	0.8	4.8	12.8
	고등학교	100(3,202)	4.9	2.4	3.7	2.5	0.4	5.8	15.3
거주 지	서울	100(1,372)	4.1	5.9	3.3	3.8	1.2	6.3	12.2
	광역시	100(2,665)	4.3	4.8	3.6	2.7	1.2	5.5	13.6
	시·군	100(4,474)	4.1	4.8	3.7	3.0	1.2	5.5	13.9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100(7,126)	4.3	4.9	3.5	3.1	1.1	5.5	13.3
	한부모가정	100(747)	3.2	4.7	4.3	2.5	1.3	5.9	14.9
	조손가정	100(149)	4.7	3.4	3.4	2.7	3.4	7.4	12.8

1-1-4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사고로 다친 부위(중복응답)

**최근 1년 동안 청소년들이 경험한 사고로 다친 부위는
‘다리나 발(53.6%)’과 ‘팔이나 손(50.8%)’이 대부분이었음**

○ 청소년들이 경험한 사고는 대부분 다리/발, 팔/손, 얼굴 부위와 소화 기관이었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얼굴 부위를 많이 다쳤고, 교급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얼굴부위와 다리/발을 많이 다쳤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보다 얼굴부위를 많이 다쳤다.



[그림 III-141]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사고로 다친 부위(중복응답)

<표 III-165>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사고로 다친 부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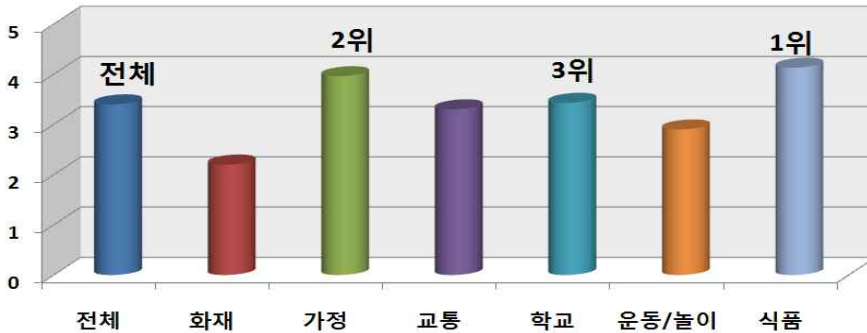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눈	귀/고막	코	치아	머리	팔/손
전체		100(8,511)	2.8	2.1	2.0	3.4	4.6	50.8
성별	남자	100(4,167)	3.1	2.3	2.6	3.6	6.0	50.1
	여자	100(4,337)	2.6	1.9	1.3	3.1	3.2	51.5
교육별	초등학교	100(2,364)	3.3	2.9	2.9	5.7	7.0	51.4
	중학교	100(2,918)	2.8	2.0	1.6	3.0	4.5	53.0
	고등학교	100(3,202)	2.6	1.6	1.6	2.0	2.9	48.3
거주지	서울	100(1,372)	4.2	2.3	2.3	5.2	4.7	53.4
	광역시	100(2,665)	2.5	1.8	1.8	2.2	4.3	49.4
	시·군	100(4,474)	2.6	2.2	2.0	3.5	4.7	50.8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100(7,126)	2.8	2.0	1.8	3.3	4.3	51.7
	한부모가정	100(747)	2.4	1.5	2.1	2.3	4.6	47.5
	조손가정	100(149)	3.4	6.7	6.0	4.7	7.4	47.7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다리/발	소화기관	순환기관	호흡기관	기타	무응답
전체		100(8,511)	53.6	4.8	0.3	1.0	4.4	13.6
성별	남자	100(4,167)	52.3	4.1	0.5	1.0	4.8	12.6
	여자	100(4,337)	54.8	5.6	0.1	1.1	4.0	14.5
교육별	초등학교	100(2,364)	60.1	3.2	0.3	1.0	5.5	11.5
	중학교	100(2,918)	51.7	5.0	0.3	0.9	3.9	12.7
	고등학교	100(3,202)	50.3	5.8	0.3	1.2	4.1	15.9
거주지	서울	100(1,372)	58.0	5.0	0.3	1.1	4.3	11.6
	광역시	100(2,665)	51.6	4.8	0.3	0.8	4.5	14.0
	시·군	100(4,474)	53.4	4.8	0.3	1.2	4.4	13.9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100(7,126)	54.0	4.9	0.3	1.1	4.1	13.4
	한부모가정	100(747)	52.3	5.4	0.5	0.9	5.6	15.1
	조손가정	100(149)	52.3	5.4	0.0	3.4	6.7	14.1

1-2 안전행동 - 지표 영역별 평균 비교

청소년의 평소 안전행동 습관 요인은 ‘식품안전행동(M=4.13)’, ‘가정안전행동(M=3.96)’, ‘학교안전행동(M=3.43)’, ‘교통안전행동(M=3.30)’, ‘운동/놀이안전행동(M=2.90)’ 순이었음

○ 청소년들의 안전행동 습관은 식품안전, 가정안전, 학교안전, 교통안전의 경우 보통(M=3.0)보다 높은 편이었지만, 운동/놀이안전과 화재안전의 경우 보통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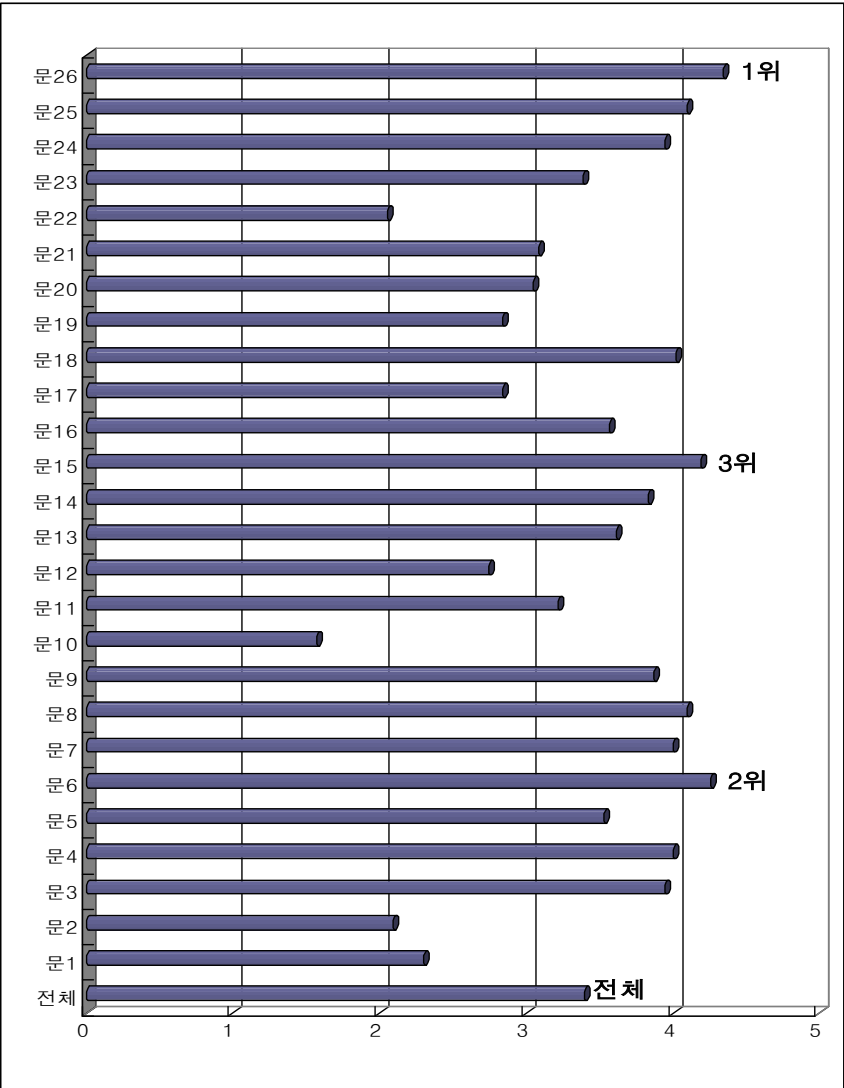
[그림 III-142] 안전행동 지표 영역별 비교

<표 III-166> 안전행동 지표 영역별 기술 통계치

안전행동 요인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화재안전행동	1, 2	2.20	1.02
가정안전행동	3-9	3.96	0.75
교통안전행동	10-17	3.30	0.83
학교안전행동	18-19	3.43	0.87
운동/놀이안전행동	20-23	2.90	0.90
식품안전행동	24-26	4.13	0.78
전체	1-26	3.40	1.15

1-2 안전행동 -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청소년의 평소 안전행동 습관은 ‘유효기간 지난 음식 먹지 않는 정도(M=4.3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독물질 눈/피부 접촉 시 물로 씻어내는 정도(M=4.26)’,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승하차하는 정도(M=4.19)’ 순이었음



[그림 III-143] 안전행동 지표항목별 평균 비교

<표 III-167> 안전행동 지표항목별 기술통계치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비상문 위치 확인 정도	2.30	1.11
2	소화기 위치 확인 정도	2.09	1.07
3	전기제품이나 콘센트 만질 때 물 묻은 손 확인 정도	3.95	1.16
4	가스 사용 후 (중간)밸브 잠금 정도	4.00	1.30
5	가스/전열기구 사용 중 자리 비우지 않는 정도	3.53	1.16
6	유독물질 눈/피부 접촉 시 물로 씻어내는 정도	4.26	1.02
7	날카로운 기구나 공구 제자리 정돈 정도	4.00	1.06
8	약품 사용 시 제품 확인 정도	4.10	1.07
9	높은 가구 위 물건 정리 및 전구 교체 시 안전한 의자 이용 정도	3.87	1.17
10	자전거 타기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	1.57	.99
11	자전거 탈 때 주변 살핌 정도	3.22	1.35
12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길 건널 때 자전거 밀고 건너는 정도	2.75	1.43
13	길 건널 때 횡단보도나 육교 이용 정도	3.62	1.22
14	횡단보도 건널 때 차 멈춤 확인 정도	3.83	1.16
15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승하차하는 정도	4.19	1.05
16	하차 시 주변 살핌 정도	3.57	1.25
17	자동차 승차 시 안전벨트 착용하는 정도	2.84	1.33
18	실험/실습시간에 약품이나 기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정도	4.02	1.04
19	복도와 계단에서 뛰지 않는 정도	2.84	1.11
20	수영장이나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요원 보이는 곳에서 수영하는 정도	3.05	1.21
21	운동 전 준비운동 정도	3.09	1.22
22	운동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	2.06	1.19
23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 정도	3.39	1.16
24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정도	3.95	.97
25	식품 구입 시 포장지의 유통기간 확인 정도	4.10	1.07
26	유통기간 지난 음식 먹지 않는 정도	4.34	1.11
전체		3.40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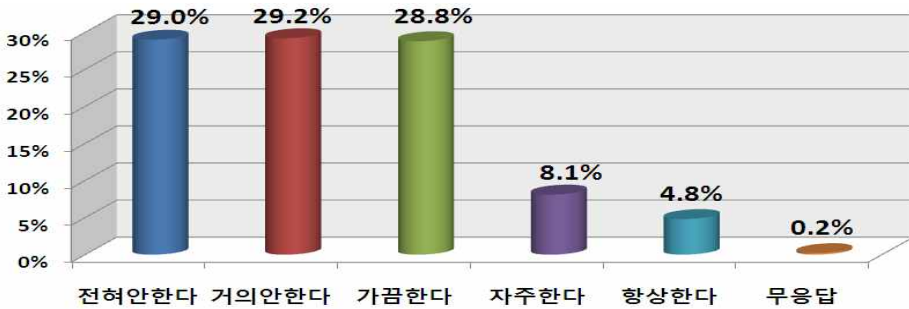
1-2 안전행동

1-2-1 비상문 위치 확인 정도

건물 안에 들어갈 때 비상문의 위치를 ‘전혀’ 또는 ‘거의’ 확인 안하는 경우(58.2%)가 ‘자주’ 또는 ‘항상’ 확인하는 경우(12.9%)보다 매우 많음

○ ‘건물 안에 들어갈 때 비상문 위치 확인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144] 비상문 위치 확인 정도

<표 III-168> 비상문 위치 확인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29.0	29.2	28.8	8.1	4.8	0.2	2.30(1.11)	
성별	남자	100(4,793)	29.9	27.2	27.6	9.3	5.8	0.2	2.34(1.17)	2.922**
	여자	100(4,925)	28.0	31.1	30.0	7.0	3.7	0.1	2.27(1.06)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19.6	21.4	34.4	14.2	10.2	0.2	2.74(1.22)	311.821***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30.9	30.4	27.7	7.3	3.6	0.2	2.22(1.07)	
	고등학교 ^다	100(3,794)	33.8	33.6	25.8	4.7	2.0	0.1	2.07(.98)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27.6	27.9	29.8	9.3	5.3	0.2	2.37(1.14)	2.960
	광역시 ²	100(3,077)	29.5	29.0	28.7	8.0	4.8	0.1	2.30(1.12)	
	시·군 ³	100(5,097)	29.1	29.8	28.5	7.9	4.6	0.2	2.29(1.11)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28.1	29.7	29.2	8.3	4.5	0.1	2.31(1.10)	8.696*** (a>b)
	한부모가정 ^b	100(868)	35.0	28.5	26.6	6.2	3.6	0.1	2.15(1.08)	
	조손가정 ^c	100(172)	36.6	21.5	27.3	7.0	7.6	0.0	2.27(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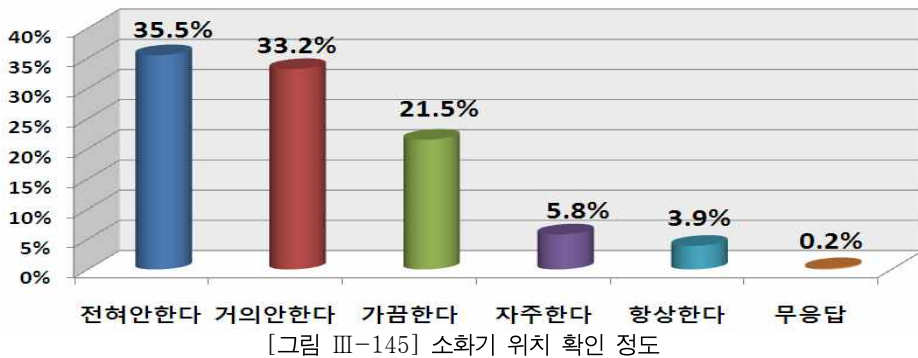
** $p<.01$, *** $p<.001$

1-2-2 소화기 위치 확인 정도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소화기의 위치를 ‘전혀’ 또는 ‘거의’ 확인 안하는 경우(68.7%)가 ‘자주’ 또는 ‘항상’ 확인하는 경우(9.7%)보다 많음

○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소화기 위치 확인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한 부모가정보다 많았다.



<표 III-169> 소화기 위치 확인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35.5	33.2	21.5	5.8	3.9	0.2	2.09(1.07)	
성별									7.329***
남자	100(4,793)	34.2	31.2	22.5	6.8	5.1	0.3	2.17(1.13)	
여자	100(4,925)	36.8	35.1	20.4	4.8	2.7	0.2	2.01(1.00)	
교급별									438.635*** (가>나>다)
초등학교 ^가	100(2,643)	21.9	28.2	28.7	11.5	9.4	0.3	2.58(1.22)	
중학교 ^나	100(3,257)	37.5	34.0	21.2	4.4	2.5	0.3	2.00(1.00)	
고등학교 ^다	100(3,794)	43.1	35.8	16.8	3.0	1.2	0.1	1.83(.89)	
거주지									3.515* (1,3>2)
서울 ¹	100(1,533)	34.8	32.3	21.3	6.9	4.5	0.2	2.14(1.11)	
광역시 ²	100(3,077)	36.0	34.4	21.1	4.7	3.7	0.2	2.05(1.04)	
시·군 ³	100(5,097)	35.4	32.7	21.7	6.1	3.8	0.3	2.10(1.07)	
가족구성									6.667** (a,c>b)
양부모가정 ^a	100(8,128)	35.1	33.8	21.5	5.7	3.7	0.2	2.09(1.06)	
한부모가정 ^b	100(868)	40.8	31.8	20.3	4.5	2.4	0.2	1.96(1.00)	
조손가정 ^c	100(172)	38.4	25.6	22.1	9.3	4.7	0.0	2.16(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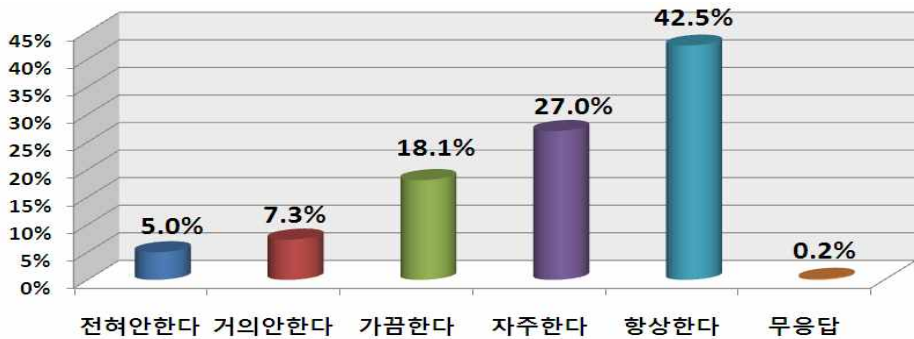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2-3 전기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질 때 물 묻은 손 확인 정도

전기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질 때 물 묻은 손을 ‘자주’ 또는 ‘항상’ 확인하는 경우(69.5%)가 ‘전혀’ 또는 ‘거의’ 확인 안하는 경우(12.3%)보다 많음

○ ‘전기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질 때 물 묻은 손 확인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와 시·군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146] 전기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질 때 물 묻은 손 확인 정도

<표 III-170> 전기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질 때 물 묻은 손 확인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5.0	7.3	18.1	27.0	42.5	0.2	3.95(1.16)	
성별	남자	100(4,793)	6.7	7.6	17.6	26.9	41.1	0.1	3.88(1.22)	5.558***
	여자	100(4,925)	3.4	7.0	18.5	27.1	43.8	0.2	4.01(1.10)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5.0	5.8	13.7	22.5	52.9	0.2	4.13(1.15)	44.400***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5.7	8.0	19.7	27.5	38.8	0.2	3.86(1.19)	
	고등학교 ^다	100(3,794)	4.5	7.7	19.7	29.7	38.4	0.1	3.90(1.13)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3.8	6.5	16.6	27.9	45.0	0.2	4.04(1.10)	5.877** (1>2,3)
	광역시 ²	100(3,077)	5.2	6.9	18.8	28.4	40.7	0.1	3.93(1.15)	
	시·군 ³	100(5,097)	5.3	7.8	18.0	25.8	42.8	0.2	3.93(1.18)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4.4	7.2	17.6	27.5	43.2	0.1	3.98(1.14)	13.314*** (a>b,c)
	한부모가정 ^b	100(868)	6.7	7.5	20.7	26.8	38.0	0.2	3.82(1.21)	
	조손가정 ^c	100(172)	11.6	11.6	15.7	20.9	39.5	0.6	3.65(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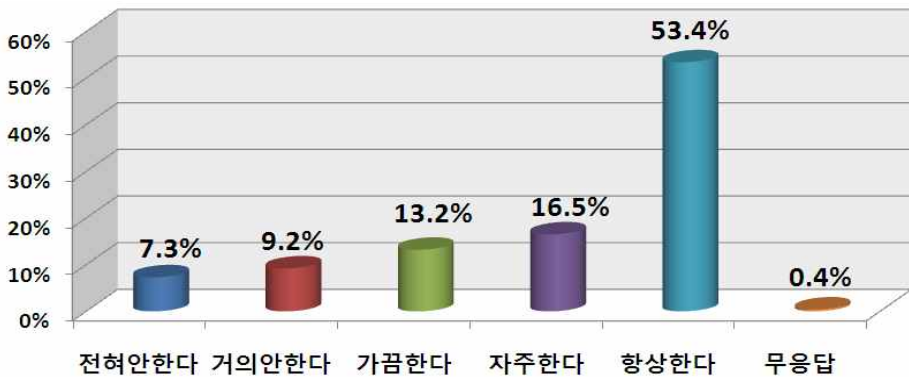
** $p<.01$, *** $p<.001$

1-2-4 가스 사용 후 (중간)밸브 잠금 정도

**가스사용후 (중간)밸브를 ‘자주’ 또는 ‘항상’ 잠그는 경우(69.9%)가
‘전혀’ 또는 ‘거의’ 잠그지 않는 경우(16.5%)보다 많음**

○ ‘가스 사용 후 (중간)밸브 잠금 정도’는 교급별과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147] 가스 사용 후 (중간)밸브 사용 정도

<표 III-171> 가스 사용 후 (중간)밸브 사용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7.3	9.2	13.2	16.5	53.4	0.4	4.00(1.30)	
성별	남자	100(4,793)	7.9	8.5	13.3	17.5	52.4	0.4	3.98(1.31)	1.233
	여자	100(4,925)	6.7	9.8	13.1	15.5	54.5	0.4	4.02(1.30)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7.0	5.6	11.8	16.2	58.6	0.8	4.15(1.24)	31.545***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6.8	9.2	13.4	16.9	53.4	0.2	4.01(1.29)	
	고등학교 ^다	100(3,794)	8.0	11.6	14.1	16.3	49.8	0.2	3.89(1.35)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7.3	8.3	14.0	16.3	53.8	0.3	4.01(1.29)	1.257
	광역시 ²	100(3,077)	6.9	9.3	12.2	17.1	54.1	0.3	4.03(1.29)	
	시·군 ³	100(5,097)	7.6	9.3	13.5	16.2	52.9	0.5	3.98(1.31)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6.8	9.0	12.8	16.8	54.4	0.3	4.03(1.28)	13.036*** (a>b,c)
	한부모가정 ^b	100(868)	8.9	10.8	15.8	15.7	48.2	0.7	3.84(1.36)	
	조손가정 ^c	100(172)	15.1	9.3	12.2	14.5	48.3	0.6	3.72(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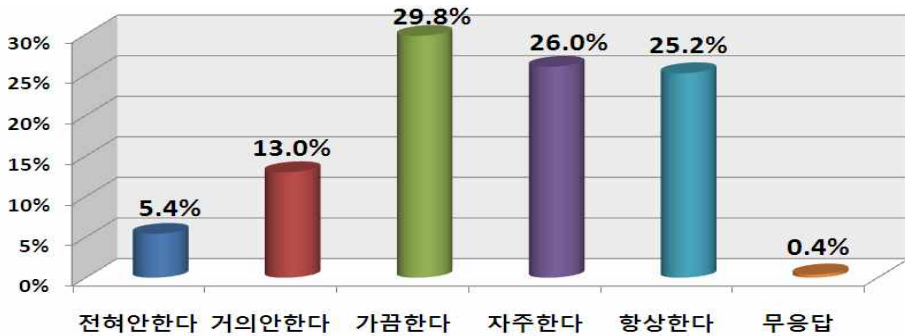
*** $p<.001$

1-2-5 가스/전열기구 사용 중 자리 비우지 않는 정도

가스/전열기구 사용 중 자리를 비우지 않는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51.2%)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18.4%)보다 많음

○ ‘가스/전열기구 사용 중 자리 비우지 않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 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148] 가스/전열기구 사용 중 자리를 비우지 않는 정도

<표 III-172> 가스/전열기구 사용 중 자리를 비우지 않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5.4	13.0	29.8	26.0	25.2	0.4	3.53(1.16)	
성별									5.057***
남자	100(4,793)	6.9	13.7	29.4	24.9	24.6	0.4	3.47(1.20)	
여자	100(4,925)	4.0	12.4	30.2	27.1	25.8	0.4	3.59(1.12)	
교급별									116.452*** (가>나>다)
초등학교 ^가	100(2,643)	6.5	8.8	21.1	23.5	39.3	0.8	3.81(1.23)	
중학교 ^나	100(3,257)	5.3	13.2	31.6	26.8	22.7	0.5	3.49(1.14)	
고등학교 ^다	100(3,794)	4.8	15.9	34.4	26.9	17.7	0.2	3.37(1.09)	
거주지									1.890
서울 ¹	100(1,533)	4.8	12.9	29.0	25.8	27.3	0.2	3.58(1.16)	
광역시 ²	100(3,077)	5.8	12.3	30.4	26.5	24.2	0.7	3.51(1.16)	
시·군 ³	100(5,097)	5.4	13.5	29.7	25.8	25.2	0.4	3.52(1.16)	
가족구성									8.353*** (a>b,c)
양부모가정 ^a	100(8,128)	4.9	12.9	30.0	26.6	25.3	0.4	3.55(1.14)	
한부모가정 ^b	100(868)	6.3	14.2	32.9	24.9	21.0	0.7	3.40(1.15)	
조손가정 ^c	100(172)	13.4	16.3	19.2	23.3	26.7	1.2	3.34(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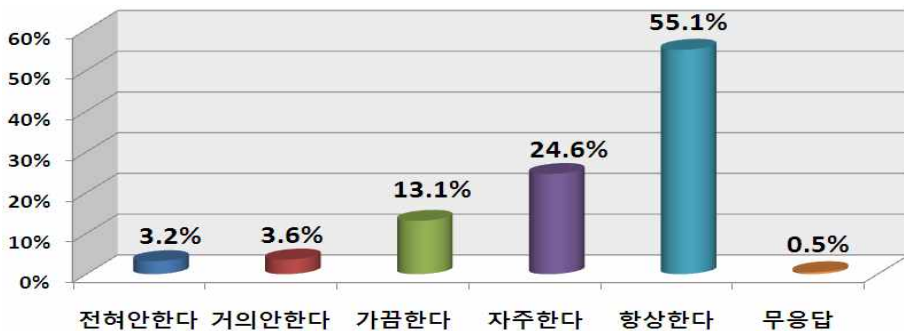
*** $p<.001$

1-2-6 유독물질 눈/피부 접촉 시 물로 씻어내는 정도

유독물질 눈/피부 접촉 시 물로 씻어내는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79.7%)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6.8%)보다 많음

○ ‘유독물질 눈/피부 접촉 시 물로 씻어내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149] 유독물질 눈/피부 접촉시 물로 씻어내는 정도

<표 III-173> 유독물질 눈/피부 접촉시 물로 씻어내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3.2	3.6	13.1	24.6	55.1	0.5	4.26(1.02)	
성별	남자	100(4,793)	4.2	3.9	13.6	24.2	53.6	0.5	4.20(1.08)	5.514***
	여자	100(4,925)	2.2	3.2	12.6	25.0	56.6	0.4	4.31(.96)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3.4	3.5	11.5	19.9	60.7	1.0	4.32(1.04)	8.880***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3.2	3.6	13.3	24.6	54.8	0.4	4.25(1.03)	
	고등학교 ^다	100(3,794)	3.0	3.7	14.1	27.9	51.3	0.1	4.21(1.01)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2.7	2.8	14.3	23.2	56.9	0.2	4.29(.99)	1.134
	광역시 ²	100(3,077)	3.1	3.5	13.6	25.3	54.0	0.5	4.24(1.02)	
	시·군 ³	100(5,097)	3.3	3.9	12.4	24.6	55.2	0.5	4.25(1.04)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2.7	3.4	12.7	24.7	56.1	0.4	4.29(1.00)	16.277*** (a>b>c)
	한부모가정 ^b	100(868)	4.0	4.5	14.2	26.3	50.6	0.5	4.15(1.08)	
	조손가정 ^c	100(172)	9.9	6.4	14.5	18.0	50.0	1.2	3.93(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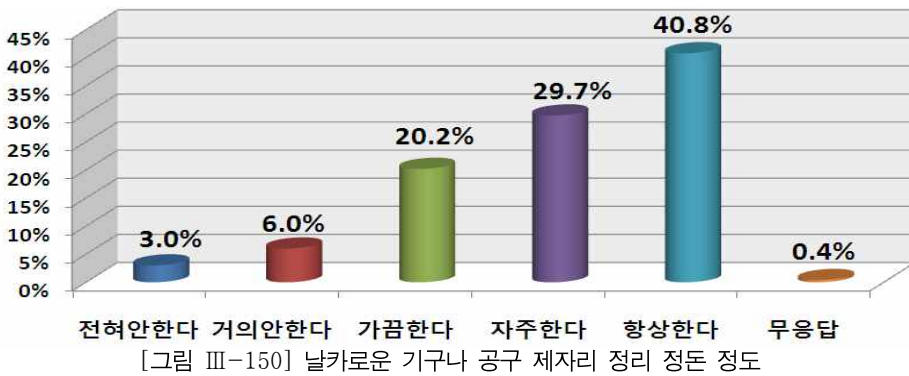
***p<.001

1-2-7 날카로운 기구나 공구 제자리 정리 정돈하는 정도

날카로운 기구나 공구 제자리 정리 정돈하는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70.5%)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9.0%)보다 많음

○ ‘날카로운 기구나 공구 제자리 정리 정돈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와 시·군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표 III-174> 날카로운 기구나 공구 제자리 정리 정돈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3.0	6.0	20.2	29.7	40.8	0.4	4.00(1.06)	
성별									
남자	100(4,793)	4.2	6.5	21.3	28.4	39.3	0.4	3.93(1.11)	6.615***
여자	100(4,925)	1.9	5.4	19.1	30.9	42.3	0.3	4.07(1.00)	
교급별									
초등학교 ^가	100(2,643)	2.5	4.7	13.0	24.4	54.7	0.7	4.25(1.02)	104.155*** (가>나, 다)
중학교 ^나	100(3,257)	3.7	6.4	21.6	30.6	37.4	0.3	3.92(1.09)	
고등학교 ^다	100(3,794)	2.7	6.5	24.0	32.4	34.2	0.2	3.89(1.04)	
거주지									
서울 ¹	100(1,533)	2.4	5.2	19.1	30.2	42.9	0.3	4.06(1.02)	3.688* (1>2,3)
광역시 ²	100(3,077)	3.2	6.0	20.9	29.2	40.3	0.4	3.98(1.07)	
시·군 ³	100(5,097)	3.0	6.1	20.1	29.8	40.5	0.4	3.99(1.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2.5	5.8	20.2	29.6	41.5	0.3	4.02(1.04)	15.529*** (a>b>c)
한부모가정 ^b	100(868)	4.0	6.9	20.9	31.7	36.2	0.3	3.89(1.10)	
조손가정 ^c	100(172)	11.6	8.1	18.0	25.6	34.9	1.7	3.65(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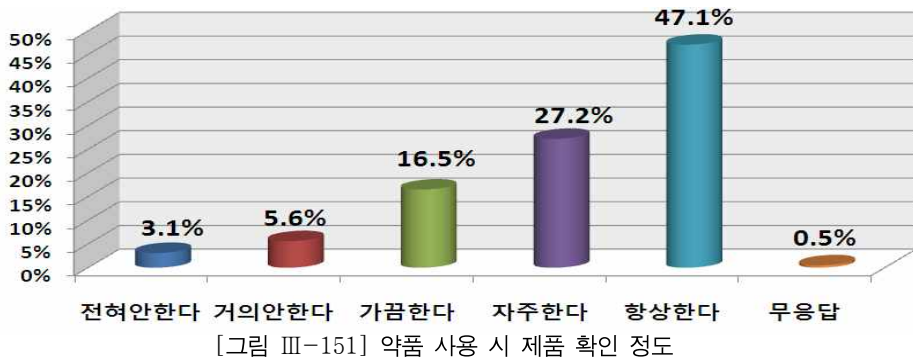
* $p<.05$, *** $p<.001$

1-2-8 약품 사용 시 제품 확인 정도

약품 사용 시 제품 확인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74.3%)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8.7%)보다 많음

○ ‘약품 사용 시 제품 확인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표 III-175> 약품 사용 시 제품 확인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3.1	5.6	16.5	27.2	47.1	0.5	4.10(1.07)	
성별									
남자	100(4,793)	4.5	6.2	18.5	26.9	43.2	0.6	3.99(1.13)	10.441***
여자	100(4,925)	1.8	5.0	14.4	27.6	50.9	0.4	4.21(1.99)	
교급별									
초등학교 ^가	100(2,643)	3.5	5.5	14.0	23.2	53.0	0.8	4.18(1.09)	9.497***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3.3	5.6	17.8	28.0	44.8	0.5	4.06(1.07)	
고등학교 ^다	100(3,794)	2.8	5.5	17.2	29.3	44.9	0.3	4.08(1.04)	
거주지									
서울 ¹	100(1,533)	2.6	4.7	17.3	27.9	47.1	0.3	4.12(1.03)	1.519
광역시 ²	100(3,077)	3.0	6.1	16.9	27.9	45.6	0.5	4.08(1.07)	
시·군 ³	100(5,097)	3.3	5.5	15.9	26.6	48.0	0.6	4.11(1.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2.7	5.4	16.1	27.5	48.0	0.4	4.13(1.04)	10.620*** (가>b,c)
한부모가정 ^b	100(868)	3.7	7.3	18.7	25.1	44.7	0.6	4.00(1.12)	
조손가정 ^c	100(172)	9.3	6.4	15.1	26.2	42.4	0.6	3.87(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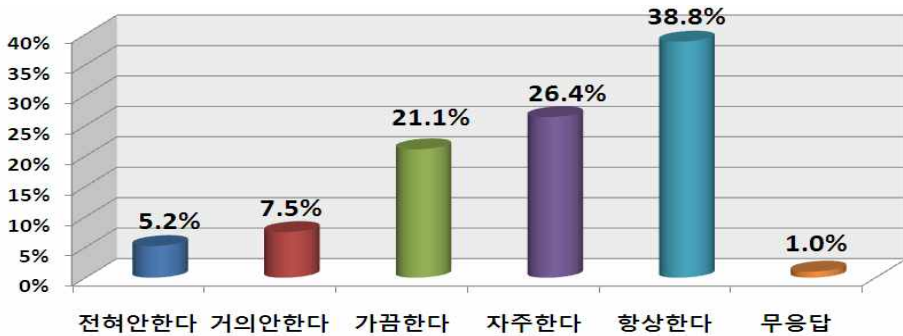
***p<.001

1-2-9 높은 가구 위 물건정리 및 전구교체시 안전한 의자 이용 정도

높은 가구 위 물건정리 및 전구교체시 안전한 의자 이용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65.2%)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12.7%)보다 많음

○ ‘높은 가구 위 물건정리 및 전구교체시 안전한 의자 이용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152] 높은 가구 위 물건정리 및 전구교체시 안전한 의자 이용 정도

<표 III-176> 높은 가구 위 물건정리 및 전구교체시 안전한 의자 이용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5.2	7.5	21.1	26.4	38.8	1.0	3.87(1.17)	
성별	남자	100(4,793)	7.1	8.1	21.6	24.7	37.3	1.1	3.78(1.23)	7.242***
	여자	100(4,925)	3.4	7.0	20.7	27.9	40.2	0.8	3.95(1.10)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5.9	4.8	14.8	23.3	49.3	1.8	4.07(1.18)	55.021***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5.6	8.2	22.6	27.8	34.8	1.0	3.79(1.17)	
	고등학교 ^다	100(3,794)	4.4	8.8	24.3	27.2	34.8	0.5	3.80(1.14)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5.0	6.4	20.8	27.8	39.3	0.7	3.90(1.15)	1.167
	광역시 ²	100(3,077)	4.5	7.7	22.3	26.1	38.6	0.8	3.87(1.15)	
	시·군 ³	100(5,097)	5.7	7.8	20.5	26.1	38.7	1.2	3.85(1.19)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4.7	7.5	20.9	26.8	39.2	0.9	3.89(1.15)	13.638*** (a>b,c)
	한부모가정 ^나	100(868)	7.3	8.6	23.5	25.6	34.2	0.8	3.71(1.23)	
	조손가정 ^다	100(172)	11.6	8.1	24.4	18.0	36.0	1.7	3.60(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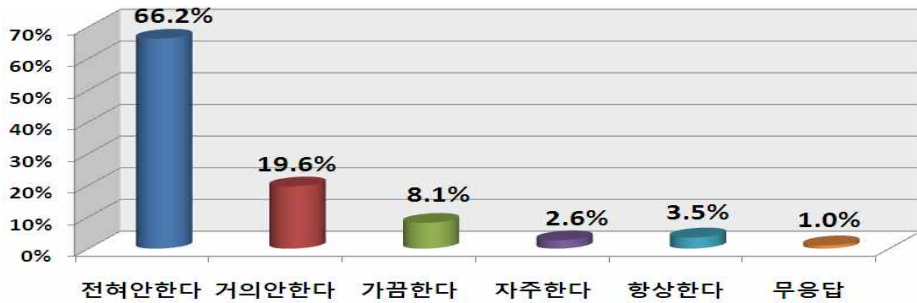
***p<.001

1-2-10 자전거 타기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

자전거 타기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85.8%)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6.1%)보다 많음

○ 자전거 타기 전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가 시·군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153] 자전거 타기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

<표 III-177> 자전거 타기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7,407)	66.2	19.6	8.1	2.6	3.5	1.57(.99)	
성별	남자	100(3,877)	71.4	16.3	6.7	2.4	3.2	1.50(.96)	7.014***
	여자	100(3,525)	60.5	23.3	9.6	2.8	3.7	1.66(1.02)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155)	55.4	20.0	11.9	5.0	7.7	1.90(1.25)	167.036*** (가>나,다)
	중학교 ^나	100(2,508)	70.8	19.1	6.1	2.0	2.0	1.45(.85)	
	고등학교 ^다	100(2,721)	70.6	19.8	6.7	1.3	1.5	1.43(.80)	
거 주 지	서울 ¹	100(1,198)	63.4	21.0	8.3	3.3	4.2	1.64(1.05)	7.150** (1,2>3)
	광역시 ²	100(2,275)	64.7	19.6	9.5	2.5	3.7	1.61(1.01)	
	시·군 ³	100(3,934)	67.9	19.3	7.2	2.5	3.1	1.54(.96)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6,166)	65.5	20.1	8.3	2.7	3.4	1.58(.99)	6.547** (a>b)
	한부모가정 ^나	100(643)	73.6	16.5	5.3	1.9	2.8	1.44(.90)	
	조손가정 ^다	100(141)	70.2	17.0	7.8	0.7	4.3	1.5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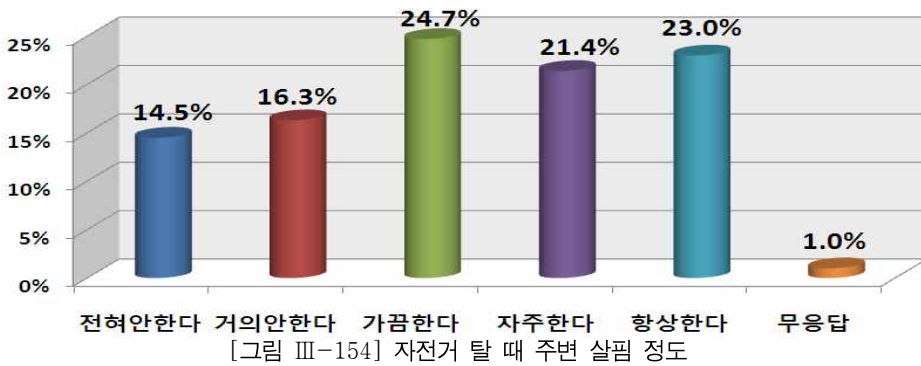
** $p<.01$, *** $p<.001$

1-2-11 자전거 탈 때 주변 살핌 정도

자전거 탈 때 주변 살핌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44.4%)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30.8%)보다 많음

○ 자전거를 탈 때 주변 살핌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표 III-178> 자전거 탈 때 주변 살핌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평균(표준편차)	t, F
전체		100(7,371)	14.5	16.3	24.7	21.4	23.0	3.22(1.35)	
성별	남자	100(3,866)	18.8	16.1	23.1	19.9	22.2	3.11(1.41)	7.631***
	여자	100(3,499)	9.9	16.5	26.6	23.1	23.9	3.35(1.28)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151)	11.0	10.3	17.6	21.9	39.3	3.68(1.37)	185.558*** (가>나,다)
	중학교 ^나	100(2,499)	17.2	18.5	26.3	19.8	18.2	3.03(1.34)	
	고등학교 ^다	100(2,698)	14.9	19.1	29.1	22.3	14.6	3.03(1.26)	
거 주 지	서울 ¹	100(1,192)	13.1	16.4	23.6	21.4	25.6	3.30(1.35)	185.558*** (1>2)
	광역시 ²	100(2,261)	15.3	16.4	24.7	21.6	22.0	3.19(1.36)	
	시·군 ³	100(3,918)	14.5	16.2	25.1	21.3	22.9	3.22(1.35)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6,139)	13.6	16.0	24.6	22.2	23.7	3.26(1.34)	25.667*** (a>b,c)
	한부모가정 ^b	100(636)	19.2	19.2	27.2	17.8	16.7	2.94(1.34)	
	조손가정 ^c	100(141)	24.1	17.0	31.9	12.8	14.2	2.76(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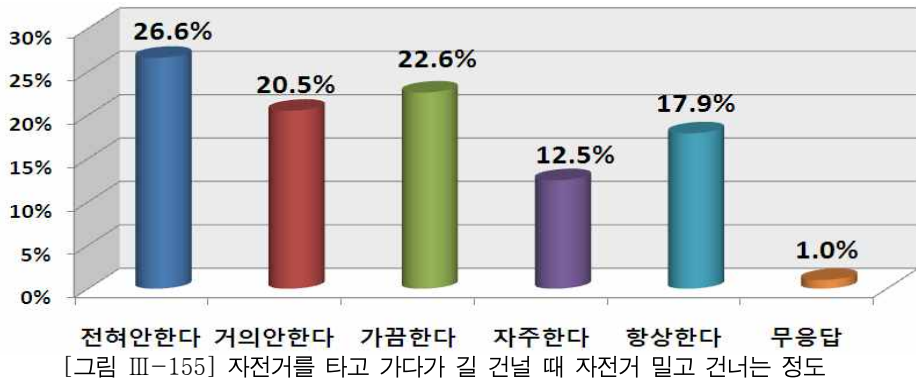
*** $p<.001$

1-2-12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길 건널 때 자전거 밀고 건너는 정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길 건널 때 자전거 밀고 건너는 정도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47.1%)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30.4%)보다 많음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 건널 때 자전거를 밀고 건너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155]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 건널 때 자전거 밀고 건너는 정도

<표 III-179>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 건널 때 자전거 밀고 건너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평균(표준편차)	t, F
전체	100(7,378)	26.6	20.5	22.6	12.5	17.9	2.75(1.43)	
성별	남자	100(3,873)	36.6	21.5	19.4	9.4	2.41(1.39)	21.979***
	여자	100(3,499)	15.6	19.3	26.0	15.9	3.12(1.37)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154)	14.6	13.6	22.2	15.9	33.7	386.173*** (가>나>다)
	중학교 ^나	100(2,503)	28.6	21.1	23.3	12.6	14.4	
	고등학교 ^다	100(2,698)	34.3	25.3	22.2	9.7	8.5	
거 주 지	서울 ¹	100(1,192)	25.8	20.6	21.6	12.9	19.2	2.79(1.45)
	광역시 ²	100(2,262)	27.8	19.8	22.2	13.1	17.0	
	시·군 ³	100(3,924)	26.1	20.8	23.1	12.0	18.0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6,143)	25.8	20.5	22.9	12.4	18.4	2.77(1.43)
	한부모가정 ^나	100(641)	31.5	23.2	20.0	12.3	12.9	
	조손가정 ^다	100(141)	36.2	22.7	19.1	9.9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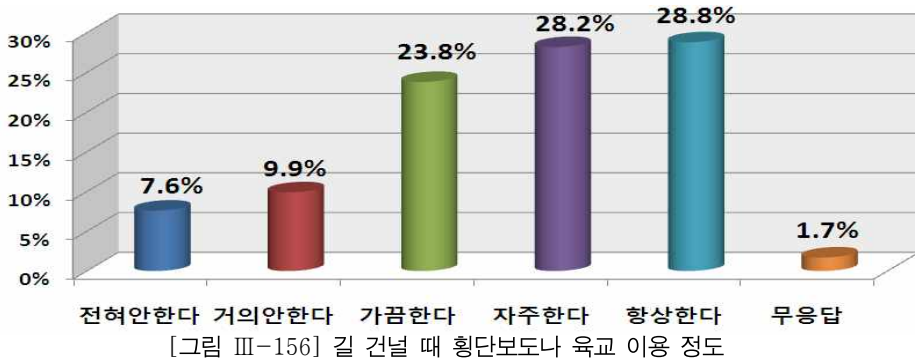
*** $p < .001$

1-2-13 길 건널 때 횡단보도나 육교 이용 정도

길 건널 때 횡단보도나 육교 이용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57.0%)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17.5%)보다 많음

○ ‘길 건널 때 횡단보도나 육교 이용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 광역시, 시·군 순으로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표 III-180> 길 건널 때 횡단보도나 육교 이용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7.6	9.9	23.8	28.2	28.8	1.7	3.62(1.22)	
성별	남자	100(4,793)	10.7	11.2	24.2	25.5	26.9	1.5	3.47(1.29)	11.496***
	여자	100(4,925)	4.6	8.6	23.5	30.7	30.7	2.0	3.76(1.12)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5.6	5.1	13.9	21.6	52.1	1.7	4.12(1.17)	318.783*** (가>나, 다)
	중학교 ^나	100(3,257)	8.8	12.1	25.9	28.3	23.4	1.4	3.46(1.23)	
	고등학교 ^다	100(3,794)	8.0	11.3	28.9	32.6	17.2	2.0	3.40(1.15)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7.2	7.3	20.2	28.7	35.1	1.4	3.78(1.21)	26.160*** (1>2>3)
	광역시 ²	100(3,077)	6.6	9.0	23.9	29.7	28.7	2.1	3.66(1.18)	
	시·군 ³	100(5,097)	8.3	11.1	24.9	27.1	27.0	1.6	3.54(1.24)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7.0	9.6	23.4	28.7	29.6	1.7	3.65(1.20)	21.306*** (a>b>c)
	한부모가정 ^b	100(868)	9.4	10.4	26.7	30.6	20.9	2.0	3.44(1.21)	
	조손가정 ^c	100(172)	15.7	12.2	29.7	16.9	25.0	0.6	3.23(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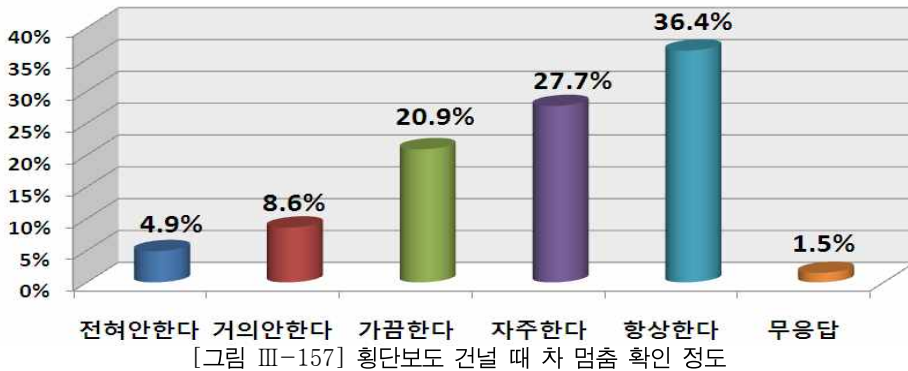
*** $p < .001$

1-2-14 횡단보도 건널 때 차 멈춤 확인 정도

횡단보도 건널 때 멈춤 확인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64.1%)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13.5%)보다 많음

○ ‘횡단보도 건널 때 차 멈춤 확인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표 III-181> 횡단보도 건널 때 차 멈춤 확인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4.9	8.6	20.9	27.7	36.4	1.5	3.83(1.16)	
성별	남자	100(4,793)	7.1	9.5	21.7	26.5	33.9	1.3	3.72(1.23)	9.721***
	여자	100(4,925)	2.8	7.7	20.2	28.8	38.9	1.6	3.95(1.08)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3.8	5.3	14.6	24.9	49.5	1.8	4.13(1.10)	120.601*** (가>다>나)
	중학교 ^나	100(3,257)	6.3	10.1	23.2	27.3	31.8	1.2	3.69(1.20)	
	고등학교 ^다	100(3,794)	4.5	9.5	23.4	29.9	31.2	1.4	3.75(1.13)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5.4	7.4	19.4	29.6	37.0	1.2	3.86(1.16)	0.679
	광역시 ²	100(3,077)	4.6	8.9	22.2	26.3	36.3	1.7	3.82(1.16)	
	시·군 ³	100(5,097)	4.9	8.8	20.6	27.9	36.3	1.4	3.83(1.16)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4.5	8.4	20.5	28.0	37.1	1.5	3.86(1.15)	16.344*** (a>b>c)
	한부모가정 ^나	100(868)	6.6	10.1	22.4	27.0	32.5	1.5	3.70(1.22)	
	조손가정 ^다	100(172)	10.5	11.0	26.7	23.3	27.9	0.6	3.47(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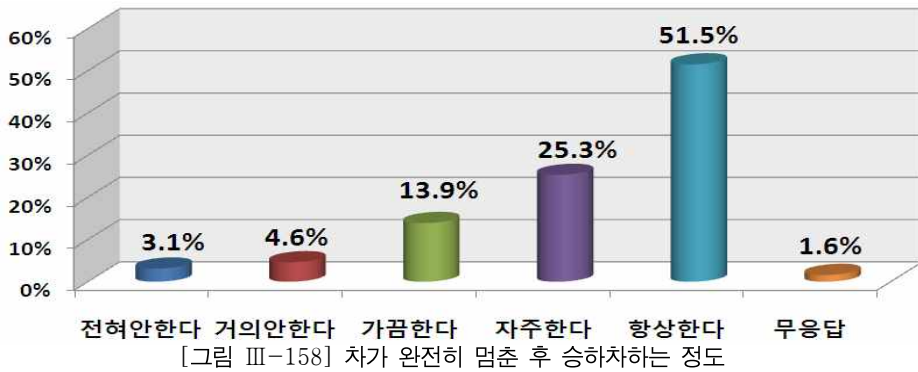
*** $p<.001$

1-2-15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승하차하는 정도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승하차하는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76.8%)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7.7%)보다 많음

○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승하차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시·군이 광역시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표 III-182>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승하차하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3.1	4.6	13.9	25.3	51.5	1.6	4.19(1.05)	
성별									8.375***
남자	100(4,793)	4.5	5.3	14.7	24.7	49.2	1.5	4.10(1.13)	
여자	100(4,925)	1.7	3.9	13.2	25.9	53.6	1.7	4.28(.95)	
교급별									109.583*** (가>나, 다)
초등학교 ^가	100(2,643)	2.3	3.1	7.8	19.6	65.3	1.8	4.45(.94)	
중학교 ^나	100(3,257)	3.6	5.6	15.8	25.9	47.5	1.6	4.10(1.09)	
고등학교 ^다	100(3,794)	3.2	4.8	16.6	28.6	45.2	1.6	4.10(1.05)	
거주지									3.247* (3>2)
서울 ¹	100(1,533)	3.2	3.3	14.2	27.0	50.7	1.5	4.20(1.02)	
광역시 ²	100(3,077)	3.1	4.7	15.2	26.3	49.0	1.7	4.15(1.05)	
시·군 ³	100(5,097)	3.0	4.9	13.0	24.2	53.2	1.6	4.22(1.05)	
가족구성									10.451*** (a>b>c)
양부모가정 ^a	100(8,128)	2.8	4.4	13.5	25.6	52.1	1.6	4.22(1.03)	
한부모가정 ^b	100(868)	2.9	5.5	15.0	28.3	46.7	1.6	4.12(1.05)	
조손가정 ^c	100(172)	9.3	7.6	16.3	16.3	50.0	0.6	3.91(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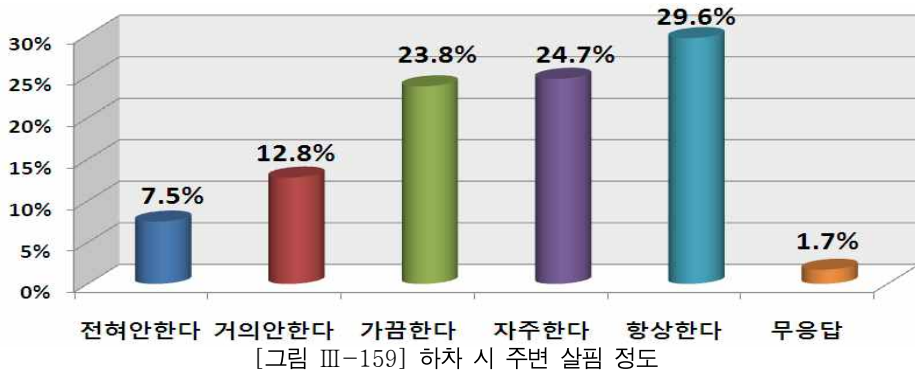
* $p<.05$, *** $p<.001$

1-2-16 하차 시 주변 살핌 정도

하차 시 주변 살핌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54.3%)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20.3%)보다 많음

○ ‘하차 시 주변 살핌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와 시·군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표 Ⅲ-183> 하차 시 주변 살핌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7.5	12.8	23.8	24.7	29.6	1.7	3.57(1.25)	
성별	남자	100(4,793)	10.5	13.0	25.0	22.2	27.9	1.5	3.45(1.31)	9.654***
	여자	100(4,925)	4.5	12.6	22.7	27.1	31.2	1.8	3.69(1.18)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5.5	7.6	15.5	24.3	45.0	2.1	3.98(1.20)	207.059***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8.0	12.8	26.8	24.3	26.6	1.5	3.49(1.24)	
	고등학교 ^다	100(3,794)	8.4	16.4	27.1	25.2	21.4	1.5	3.35(1.23)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7.5	12.9	25.2	25.2	27.6	1.5	3.53(1.24)	12.041*** (3>1,2)
	광역시 ²	100(3,077)	8.3	14.0	24.3	24.0	27.6	1.9	3.49(1.27)	
	시·군 ³	100(5,097)	6.9	11.9	23.1	25.0	31.4	1.6	3.63(1.24)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아	100(8,128)	6.8	12.5	23.3	25.5	30.2	1.6	3.61(1.23)	22.247*** (a>b,c)
	한부모가정 ^비	100(868)	9.0	17.2	27.1	20.7	23.7	2.3	3.34(1.27)	
	조손가정 ^가	100(172)	16.3	9.3	26.7	22.7	24.4	0.6	3.30(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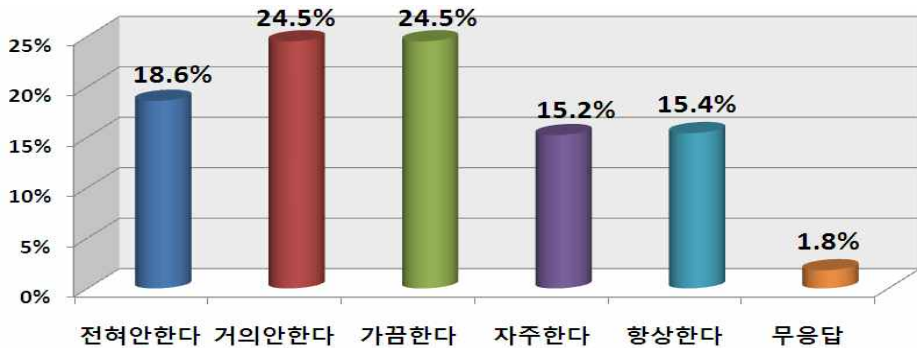
***p<.001

1-2-17 자동차 승차 시 안전벨트 착용하는 정도

자동차 승차 시 안전벨트 착용하는 정도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43.1%)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30.6%)보다 많음

○ ‘자동차 승차 시 안전벨트 착용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광역시가 시·군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160] 자동차 승차 시 안전벨트 착용 정도

<표 III-184> 자동차 승차 시 안전벨트 착용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18.6	24.5	24.5	15.2	15.4	1.8	2.84(1.33)	
성별	남자	100(4,793)	18.5	22.7	23.9	15.7	17.5	1.7	2.91(1.36)
	여자	100(4,925)	18.6	26.2	25.1	14.8	13.3	1.8	2.78(1.29)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14.8	19.7	24.4	17.1	21.5	2.5	3.11(1.36)
	중학교 ^가	100(3,257)	22.7	26.5	23.0	13.8	12.6	1.5	2.66(1.31)
	고등학교 ^가	100(3,794)	17.6	26.1	25.9	15.2	13.7	1.5	2.81(1.29)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19.1	22.9	26.6	14.9	15.3	1.2	2.84(1.32)
	광역시 ²	100(3,077)	17.5	23.1	25.6	15.6	16.1	2.0	2.89(1.33)
	시·군 ³	100(5,097)	19.0	25.7	23.2	15.1	15.0	1.8	2.81(1.33)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18.3	24.9	24.2	15.5	15.4	1.8	2.84(1.33)
	한부모가정 ^b	100(868)	20.3	26.2	25.2	13.9	12.6	1.8	2.72(1.29)
	조손가정 ^c	100(172)	20.9	20.3	29.1	13.4	15.7	0.6	2.82(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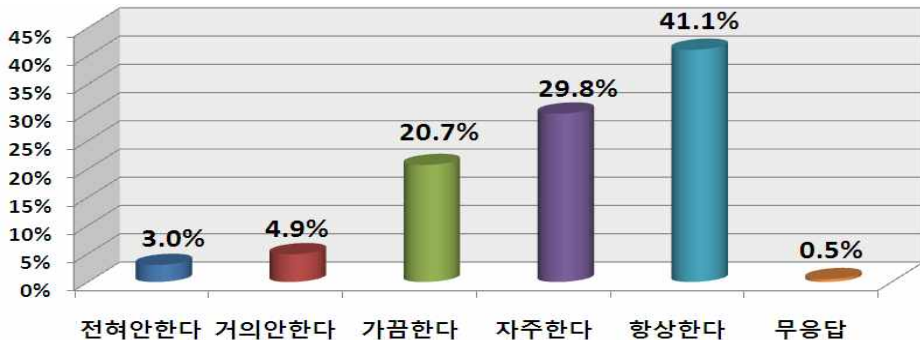
* $p<.05$, *** $p<.001$

1-2-18 실험/실습 시간에 약품이나 기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정도

실험/실습 시간에 약품이나 기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70.9%)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7.9%)보다 많음

○ ‘실험/실습 시간에 약품이나 기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와 시·군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그림 Ⅲ-161] 실험/실습 시간에 약품이나 기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표 Ⅲ-185> 실험/실습 시간에 약품이나 기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3.0	4.9	20.7	29.8	41.1	0.5	4.02(1.04)	
성별	남자	100(4,793)	3.9	5.8	22.0	28.9	38.6	0.6	3.93(1.09)	8.047***
	여자	100(4,925)	2.1	4.0	19.4	30.6	43.5	0.4	4.10(.98)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2.6	3.6	12.4	23.9	56.6	0.9	4.29(1.00)	135.185***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3.0	5.5	21.6	31.7	37.7	0.5	3.96(1.04)	
	고등학교 ^다	100(3,794)	3.2	5.4	25.6	32.3	33.2	0.4	3.87(1.04)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2.6	3.9	20.1	29.3	43.7	0.5	4.08(1.01)	3.422* (1>2,3)
	광역시 ²	100(3,077)	3.0	4.6	21.2	31.1	39.5	0.6	4.00(1.04)	
	시·군 ³	100(5,097)	3.1	5.4	20.5	29.2	41.2	0.5	4.01(1.06)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2.5	4.6	19.8	30.3	42.2	0.5	4.06(1.02)	28.398*** (a>b>c)
	한부모가정 ^b	100(868)	3.6	6.2	27.3	28.1	34.4	0.3	3.84(1.08)	
	조손가정 ^c	100(172)	7.6	11.0	23.3	23.3	34.3	0.6	3.66(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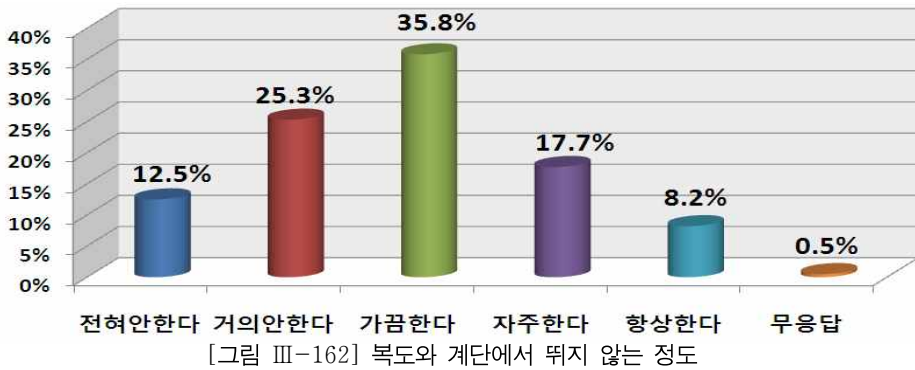
* $p<.05$, *** $p<.001$

1-2-19 복도와 계단에서 뛰지 않는 정도

복도와 계단에서 뛰지 않는 정도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37.8%)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25.9%)보다 많음

○ ‘복도와 계단에서 뛰지 않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와 시·군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표 III-186> 복도와 계단에서 뛰지 않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12.5	25.3	35.8	17.7	8.2	0.5	2.84(1.11)	
성별									
남자	100(4,793)	16.2	27.7	34.0	14.1	7.5	0.6	2.69(1.13)	13.163***
여자	100(4,925)	8.9	23.0	37.5	21.3	8.9	0.5	2.98(1.08)	
교급별									
초등학교 ^가	100(2,643)	8.4	16.7	35.8	24.6	13.5	0.9	3.18(1.13)	184.851*** (가>다>나)
중학교 ^나	100(3,257)	15.0	29.7	34.8	14.2	6.0	0.4	2.66(1.08)	
고등학교 ^다	100(3,794)	13.3	27.4	36.6	16.0	6.4	0.3	2.75(1.08)	
거주지									
서울 ¹	100(1,533)	9.8	25.2	36.6	18.0	10.0	0.3	2.93(1.11)	6.759** (1>2,3)
광역시 ²	100(3,077)	13.1	25.4	35.7	16.7	8.6	0.5	2.82(1.12)	
시·군 ³	100(5,097)	13.0	25.3	35.5	18.3	7.4	0.6	2.82(1.1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12.0	25.4	35.9	18.1	8.1	0.5	2.85(1.11)	6.875** (가>b,c)
한부모가정 ^b	100(868)	14.1	27.0	36.4	15.1	6.8	0.7	2.73(1.09)	
조손가정 ^c	100(172)	18.6	27.3	33.1	11.6	8.7	0.6	2.64(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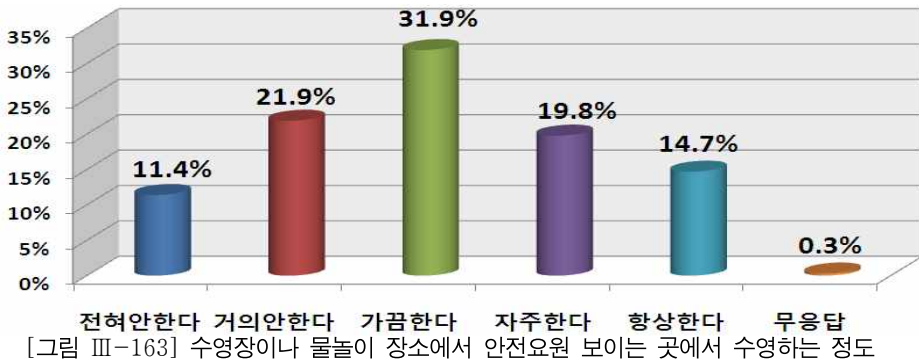
** $p<.01$, *** $p<.001$

1-2-20 수영장이나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요원 보이는 곳에서 수영하는 정도

수영장이나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요원 보이는 곳에서 수영하는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34.5%)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33.3%)와 유사함

○ ‘수영장이나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요원이 보이는 곳에서 수영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차이가 유의하였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시 광역시와 시·군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표 III-187> 수영장이나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요원 보이는 곳에서 수영하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11.4	21.9	31.9	19.8	14.7	0.3	3.05(1.21)	
성별									7.753***
남자	100(4,793)	14.5	22.2	30.7	18.1	14.1	0.4	2.95(1.25)	
여자	100(4,925)	8.3	21.5	33.1	21.5	15.4	0.2	3.14(1.17)	
교급별									346.155*** (가>나>다)
초등학교 ^가	100(2,643)	8.5	11.9	24.4	25.3	29.4	0.5	3.55(1.26)	
중학교 ^나	100(3,257)	12.3	25.0	32.6	18.6	11.1	0.3	2.91(1.17)	
고등학교 ^다	100(3,794)	12.6	26.1	36.5	16.9	7.7	0.2	2.81(1.10)	
거주지									14.101*** (1>2,3)
서울 ¹	100(1,533)	10.0	18.6	31.2	21.6	18.2	0.4	3.20(1.22)	
광역시 ²	100(3,077)	11.0	21.6	34.4	18.6	14.0	0.4	3.03(1.19)	
시·군 ³	100(5,097)	12.0	23.0	30.6	20.0	14.1	0.3	3.01(1.22)	
가족구성									22.864*** (a>b,c)
양부모가정 ^a	100(8,128)	10.8	21.4	32.2	20.4	15.0	0.3	3.07(1.20)	
한부모가정 ^b	100(868)	13.0	27.0	32.8	16.9	9.7	0.6	2.83(1.15)	
조손가정 ^c	100(172)	19.8	26.2	30.2	10.5	12.8	0.6	2.70(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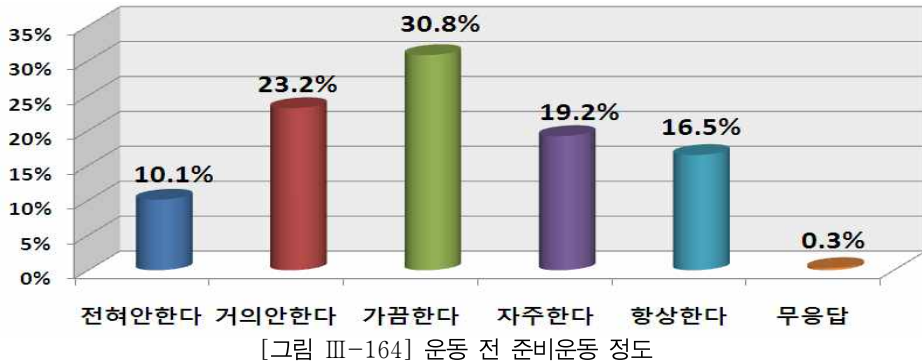
***p<.001

1-2-21 운동 전 준비운동 정도

운동 전 준비운동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35.7%)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33.3%)와 유사함

○ ‘운동 전 준비운동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 광역시, 시·군 순으로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표 III-188> 운동 전 준비운동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10.1	23.2	30.8	19.2	16.5	0.3	3.09(1.22)	
성별	남자	100(4,793)	10.7	20.2	29.3	19.9	19.4	0.5	3.17(1.26)	6.693***
	여자	100(4,925)	9.5	26.1	32.2	18.5	13.6	0.1	3.01(1.17)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6.9	14.6	23.8	22.7	31.4	0.6	3.57(1.26)	304.589*** (가>나, 다)
	중학교 ^나	100(3,257)	13.0	25.7	30.7	17.7	12.6	0.3	2.91(1.21)	
	고등학교 ^다	100(3,794)	9.8	26.9	35.6	18.0	9.4	0.2	2.90(1.10)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7.5	19.9	32.5	20.3	19.4	0.3	3.24(1.19)	16.760*** (1>2>3)
	광역시 ²	100(3,077)	9.7	23.3	31.2	18.7	16.7	0.3	3.09(1.21)	
	시·군 ³	100(5,097)	11.0	24.1	29.9	19.1	15.4	0.3	3.04(1.22)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9.7	23.1	30.8	19.5	16.5	0.3	3.10(1.21)	9.106*** (a>b,c)
	한부모가정 ^b	100(868)	11.3	26.0	31.8	17.7	12.7	0.5	2.94(1.18)	
	조손가정 ^c	100(172)	18.6	20.3	30.2	14.5	15.1	1.2	2.87(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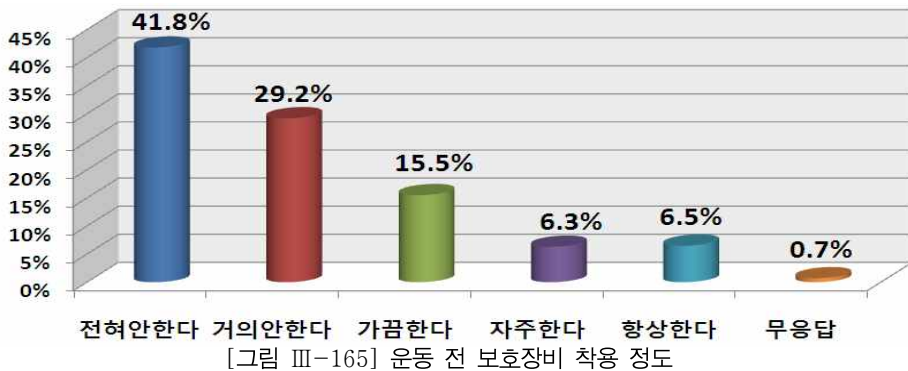
*** $p<.001$

1-2-22 운동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

운동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71.0%)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12.8%)보다 많음

○ ‘운동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 광역시, 시·군 순으로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표 III-189> 운동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41.8	29.2	15.5	6.3	6.5	0.7	2.06(1.19)	
성별	남자	100(4,793)	46.7	26.5	13.7	5.9	6.4	0.8	1.98(1.20)	6.126***
	여자	100(4,925)	37.2	31.9	17.3	6.6	6.5	0.5	2.13(1.18)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35.1	20.5	17.4	10.8	14.6	1.5	2.48(1.44)	241.338***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46.0	30.0	14.0	5.0	4.5	0.5	1.92(1.10)	
	고등학교 ^다	100(3,794)	42.9	34.6	15.6	4.2	2.5	0.2	1.89(.98)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37.2	28.9	17.8	7.2	8.4	0.6	2.20(1.25)	17.824*** (1>2>3)
	광역시 ²	100(3,077)	40.6	29.7	16.5	6.2	6.5	0.5	2.08(1.18)	
	시·군 ³	100(5,097)	44.0	29.1	14.2	6.1	5.9	0.8	2.00(1.17)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41.2	29.7	15.7	6.5	6.3	0.6	2.06(1.18)	12.288*** (a>b,c)
	한부모가정 ^b	100(868)	47.1	30.8	12.4	4.1	4.5	1.0	1.87(1.08)	
	조손가정 ^c	100(172)	51.7	25.0	10.5	3.5	7.6	1.7	1.88(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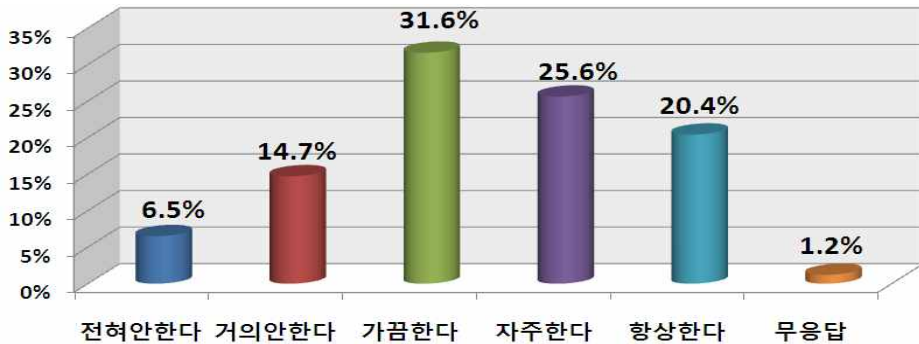
*** $p<.001$

1-2-23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 정도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46.0%)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21.2%)보다 많음

○ ‘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와 시·군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166] 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 정도

<표 III-190> 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6.5	14.7	31.6	25.6	20.4	1.2	3.39(1.16)	
성별	남자	100(4,793)	8.8	15.7	32.2	23.5	18.4	1.4	3.27(1.20)	9.804***
	여자	100(4,925)	4.2	13.8	31.2	27.5	22.3	1.0	3.50(1.11)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4.5	9.9	22.5	25.2	35.7	2.2	3.79(1.17)	222.629***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7.8	17.0	31.8	25.6	16.8	1.0	3.27(1.16)	
	고등학교 ^다	100(3,794)	6.7	16.2	37.9	25.7	12.9	0.7	3.22(1.08)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4.9	12.0	30.3	27.2	24.3	1.2	3.55(1.13)	16.940*** (1>2,3)
	광역시 ²	100(3,077)	5.8	14.7	33.6	26.1	18.9	0.9	3.38(1.13)	
	시·군 ³	100(5,097)	7.3	15.6	30.9	24.7	20.1	1.4	3.35(1.18)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5.8	14.5	31.3	26.4	21.0	1.1	3.43(1.15)	28.565*** (a>b,c)
	한부모가정 ^b	100(868)	8.6	18.1	35.4	21.2	15.0	1.7	3.16(1.16)	
	조손가정 ^c	100(172)	16.3	15.1	34.3	14.5	18.6	1.2	3.04(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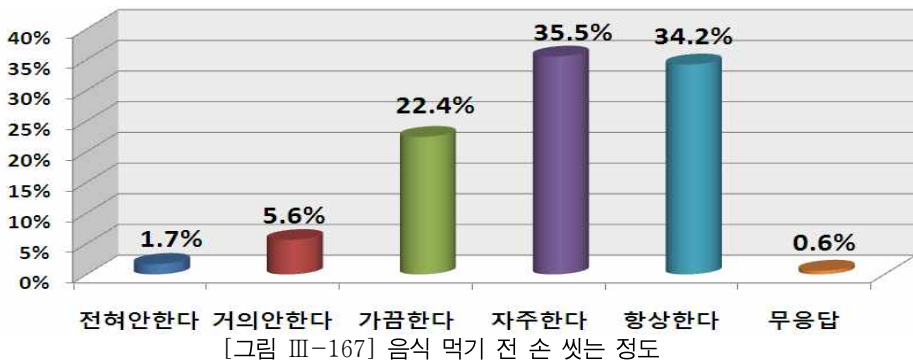
*** $p<.001$

1-2-24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정도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69.7%)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7.3%)보다 많음**

○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정도’는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과 시·군이 광역시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표 III-191>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1.7	5.6	22.4	35.5	34.2	0.6	3.95(.97)	
성별									
남자	100(4,793)	2.0	5.7	22.1	34.6	34.7	0.9	3.95(.99)	0.449
여자	100(4,925)	1.4	5.4	22.6	36.4	33.7	0.4	3.96(.95)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1.0	2.7	12.7	30.7	51.7	1.2	4.31(.87)	315.927***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2.0	5.4	21.3	37.2	33.7	0.4	3.96(.97)	
고등학교 ^다	100(3,794)	2.0	7.7	29.8	37.5	22.5	0.4	3.71(.97)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1.5	4.8	21.4	37.3	34.2	0.7	3.98(.95)	4.820** (1,3>2)
광역시 ²	100(3,077)	1.9	6.0	23.7	35.1	32.7	0.6	3.91(.99)	
시·군 ³	100(5,097)	1.6	5.5	21.8	35.3	35.1	0.7	3.97(.97)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1.4	5.3	22.2	35.7	34.9	0.6	3.98(.96)	15.367*** (a>b,c)
한부모가정 ^나	100(868)	2.3	6.7	26.2	38.0	26.3	0.6	3.80(.98)	
조손가정 ^다	100(172)	6.4	5.8	21.5	29.7	35.5	1.2	3.83(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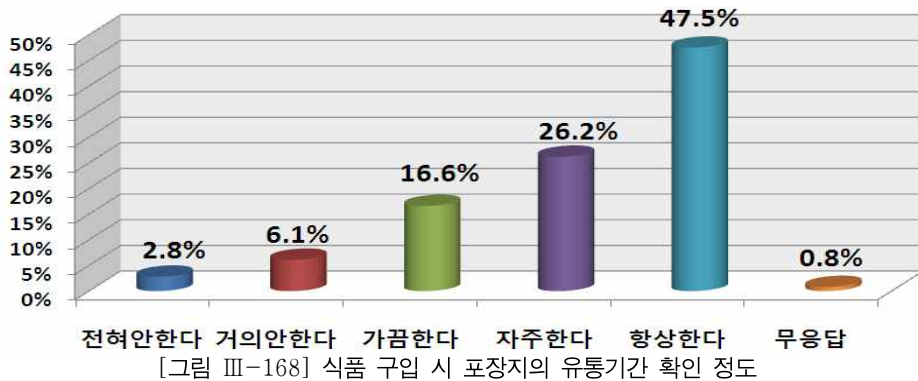
** $p<.01$, *** $p<.001$

1-2-25 식품 구입 시 포장지의 유통기간 확인 정도

식품 구입 시 포장지의 유통기간 확인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73.7%)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8.9%)보다 많음

○ ‘식품 구입시 포장지의 유통기간을 확인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과 시·군이 광역시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표 III-192> 식품 구입 시 포장지의 유통기간 확인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2.8	6.1	16.6	26.2	47.5	0.8	4.10(1.07)	
성별									
남자	100(4,793)	4.1	6.5	18.9	26.0	43.4	1.0	3.99(1.13)	10.134***
여자	100(4,925)	1.6	5.6	14.4	26.3	51.4	0.6	4.21(1.99)	
교급별									
초등학교 ^가	100(2,643)	2.9	4.8	13.5	20.8	56.4	1.7	4.25(1.05)	35.045*** (가>나, 다)
중학교 ^나	100(3,257)	3.0	6.6	17.2	26.9	45.8	0.6	4.07(1.08)	
고등학교 ^다	100(3,794)	2.7	6.6	18.4	29.3	42.6	0.5	4.03(1.06)	
거주지									
서울 ¹	100(1,533)	2.8	5.2	16.1	26.3	48.7	0.9	4.14(1.05)	3.826* (1,3>2)
광역시 ²	100(3,077)	2.9	6.4	17.6	27.1	45.2	0.7	4.06(1.07)	
시·군 ³	100(5,097)	2.8	6.1	16.2	25.5	48.5	0.9	4.12(1.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2.6	5.8	16.2	26.2	48.5	0.8	4.13(1.05)	10.167*** (가>b,c)
한부모가정 ^b	100(868)	2.9	7.6	19.2	25.0	44.4	0.9	4.01(1.10)	
조손가정 ^c	100(172)	7.6	5.8	18.0	30.2	37.2	1.2	3.85(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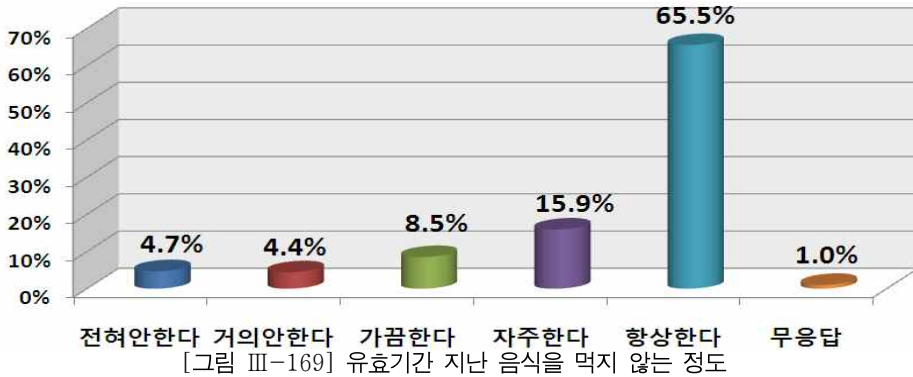
* $p<.05$, *** $p<.001$

1-2-26 유효기간 지난 음식 먹지 않는 정도

유효기간 지난 음식 먹지 않는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인 경우(81.4%)가 ‘전혀’ 또는 ‘거의’ 안하는 경우(9.1%)보다 많음

○ ‘유효기간 지난 음식 먹지 않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표 III-193> 유효기간 지난 음식을 먹지 않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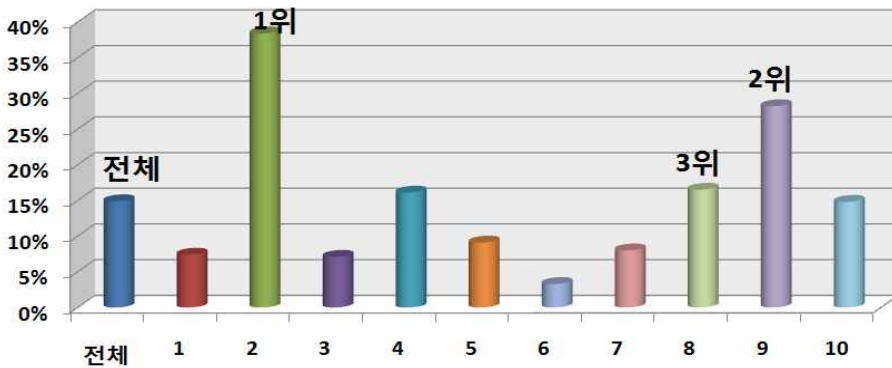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4.7	4.4	8.5	15.9	65.5	1.0	4.34(1.11)	
성별									5.718***
남자	100(4,793)	5.8	4.8	9.3	15.1	63.7	1.3	4.28(1.18)	
여자	100(4,925)	3.7	4.0	7.8	16.6	67.2	0.7	4.41(1.04)	
교급별									67.601*** (가>나>다)
초등학교 ^가	100(2,643)	4.3	2.6	4.3	10.4	76.5	1.8	4.55(1.01)	
중학교 ^나	100(3,257)	5.8	4.1	8.4	16.4	64.5	0.9	4.31(1.15)	
고등학교 ^다	100(3,794)	4.2	5.9	11.6	19.1	58.7	0.5	4.23(1.13)	
거주지									0.793
서울 ¹	100(1,533)	4.5	4.2	8.0	15.5	66.9	0.9	4.37(1.09)	
광역시 ²	100(3,077)	4.5	4.7	8.5	17.3	64.0	1.0	4.33(1.10)	
시군 ³	100(5,097)	5.0	4.2	8.7	15.2	66.0	1.0	4.34(1.12)	
가족구성									10.813*** (a>b>c)
양부모가정 ^a	100(8,128)	4.5	4.2	8.2	16.1	66.2	0.8	4.36(1.09)	
한부모가정 ^b	100(868)	4.7	6.0	10.4	15.8	61.8	1.4	4.26(1.16)	
조손가정 ^c	100(172)	10.5	5.8	11.0	14.0	57.0	1.7	4.03(1.38)	

*** $p<.001$

1-3 안전환경

1-3-1 가정의 위험요소 존재여부 - 지표 항목별 비교

위험요소 중 가정에서는 ‘전기선이나 코드가 어지럽게 널려있음(38.4%)’이 가장 많았고,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표시가 없음(28.2%)’, ‘가구들이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움직일 때 부딪힘(16.5%)’ 순이었음



[그림 III-170] 가정의 위험요소 존재여부

<표 III-194> 가정의 위험요소 존재여부

번호	문항	전체 (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1	쇠조각이나 철사와 같은 날카로운 것 노출	100(9,727)	7.4	92.2	0.4
2	전기선이나 코드가 어지럽게 널려있음	100(9,727)	38.4	61.1	0.5
3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패이거나 파손됨	100(9,727)	7.1	92.3	0.6
4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음	100(9,727)	16.1	83.3	0.6
5	부서진 가구나 수납장이 있음	100(9,727)	9.1	90.4	0.6
6	계단이나 난간에 파손된 곳이 있음	100(9,727)	3.3	96.1	0.6
7	문의 손잡이가 고장나거나 작동하지 않음	100(9,727)	8.0	91.4	0.5
8	가구(책걸상)들이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움직일 때 부딪힘	100(9,727)	16.5	82.6	0.9
9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표시가 없음	100(9,727)	28.2	71.0	0.9
10	조명이 없거나 어두워서 밤에 다니기 어려운 곳이 있음	100(9,727)	14.8	84.6	0.6
전체		100(9,727)	14.89	84.50	0.62

1-3-1 가정의 위험요소 존재여부 - 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1-3-1-① 쇠조각이나 철사와 같은 날카로운 것 노출 정도

<표 III-195> 가정에서 날카로운 것 노출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7.4	92.2	0.4	
성별	남자	100(4,793)	8.4	91.1	0.5	16.438***
	여자	100(4,925)	6.3	93.4	0.3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8.8	90.7	0.5	17.023***
	중학교	100(3,257)	7.6	92.0	0.4	
	고등학교	100(3,794)	6.1	93.5	0.3	
거주지	서울	100(1,533)	8.6	91.2	0.2	4.527
	광역시	100(3,077)	6.8	92.8	0.4	
	시·군	100(5,097)	7.3	92.3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6.8	92.9	0.3	8.788*
	한부모가정	100(868)	9.0	90.2	0.8	
	조손가정	100(172)	10.5	88.4	1.2	

*** $p < .001$

1-3-1-② 전기선이나 코드 어지럽게 널려있는지 여부

<표 III-196> 가정에서 전기선이나 코드 어지럽게 널려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38.4	61.1	0.5	
성별	남자	100(4,793)	35.3	64.2	0.5	37.564***
	여자	100(4,925)	41.4	58.2	0.4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24.6	74.8	0.6	303.287***
	중학교	100(3,257)	41.2	58.3	0.5	
	고등학교	100(3,794)	45.7	54.0	0.3	
거주지	서울	100(1,533)	42.3	57.5	0.2	11.436**
	광역시	100(3,077)	37.4	62.0	0.6	
	시·군	100(5,097)	37.8	61.8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38.1	61.6	0.3	25.749***
	한부모가정	100(868)	46.3	52.9	0.8	
	조손가정	100(172)	44.2	54.1	1.7	

** $p < .01$, *** $p < .001$

1-3-1-③ 바닥이 고르지 못하거나 패이거나 파손된 곳 있는지 여부

<표 III-197> 가정에서 바닥이 고르지 못하거나 패이거나 파손된 곳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7.1	92.3	0.6	
성별	남자	100(4,793)	7.9	91.4	0.7	10.823**
	여자	100(4,925)	6.2	93.3	0.5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7.8	91.4	0.8	5.208
	중학교	100(3,257)	7.3	92.0	0.6	
	고등학교	100(3,794)	6.4	93.2	0.4	
거주지	서울	100(1,533)	9.1	90.3	0.6	11.462**
	광역시	100(3,077)	6.6	92.9	0.5	
	시·군	100(5,097)	6.7	92.6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6.7	92.8	0.5	10.654**
	한부모가정	100(868)	8.6	90.3	1.0	
	조손가정	100(172)	11.6	86.6	1.7	

** $p<.01$

1-3-1-④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표 III-198> 가정에서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16.1	83.3	0.6	
성별	남자	100(4,793)	15.0	84.3	0.7	8.035**
	여자	100(4,925)	17.2	82.3	0.5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17.6	81.4	0.9	14.825**
	중학교	100(3,257)	16.8	82.5	0.6	
	고등학교	100(3,794)	14.4	85.2	0.4	
거주지	서울	100(1,533)	16.2	83.2	0.6	2.222
	광역시	100(3,077)	15.3	84.1	0.6	
	시·군	100(5,097)	16.5	82.8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16.0	83.5	0.5	1.514
	한부모가정	100(868)	15.2	83.9	0.9	
	조손가정	100(172)	18.6	78.5	2.9	

** $p<.01$

1-3-1-⑤ 부서진 가구나 수납장이 있는지 여부

<표 III-199> 가정에서 부서진 가구나 수납장이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9.1	90.4	0.6	
성별	남자	100(4,793)	8.8	90.5	0.7	0.803
	여자	100(4,925)	9.3	90.2	0.5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6.2	92.8	1.0	49.377***
	중학교	100(3,257)	8.8	90.8	0.4	
	고등학교	100(3,794)	11.4	88.2	0.4	
거주지	서울	100(1,533)	8.5	91.0	0.5	2.036
	광역시	100(3,077)	8.7	90.9	0.4	
	시·군	100(5,097)	9.4	89.9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7	90.8	0.5	13.724**
	한부모가정	100(868)	12.4	86.6	0.9	
	조손가정	100(172)	9.3	89.0	1.7	

** $p<.01$, *** $p<.001$

1-3-1-⑥ 계단이나 난간에 파손된 곳 있는지 여부

<표 III-200> 가정에서 계단이나 난간에 파손된 곳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3.3	96.1	0.6	
성별	남자	100(4,793)	3.7	95.6	0.8	4.622**
	여자	100(4,925)	2.9	96.6	0.5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3.6	95.3	1.1	2.411
	중학교	100(3,257)	3.4	96.1	0.5	
	고등학교	100(3,794)	3.0	96.6	0.4	
거주지	서울	100(1,533)	3.8	95.6	0.6	1.844
	광역시	100(3,077)	3.3	96.1	0.6	
	시·군	100(5,097)	3.1	96.3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3.1	96.4	0.5	4.838
	한부모가정	100(868)	3.7	95.4	0.9	
	조손가정	100(172)	5.8	93.6	0.6	

** $p<.01$

1-3-1-⑦ 문의 손잡이가 고장 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여부

<표 III-201> 가정에서 문의 손잡이가 고장 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8.0	91.4	0.5	
성별	남자	100(4,793)	7.9	91.4	0.7	0.039
	여자	100(4,925)	8.1	91.5	0.4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8.6	90.9	0.6	5.972
	중학교	100(3,257)	8.4	91.2	0.4	
	고등학교	100(3,794)	10.0	89.5	0.5	
거주지	서울	100(1,533)	7.7	91.7	0.6	9.511**
	광역시	100(3,077)	7.7	91.8	0.5	
	시·군	100(5,097)	7.8	91.7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1	90.1	0.8	3.179
	한부모가정	100(868)	10.5	89.0	0.6	
	조손가정	100(172)	8.3	90.7	1.1	

* $p<.05$, ** $p<.01$, *** $p<.001$

1-3-1-⑧ 가구들이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표 III-202> 가정에서 가구들이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16.5	82.6	0.9	
성별	남자	100(4,793)	14.3	84.7	1.0	31.950***
	여자	100(4,925)	18.6	80.6	0.8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14.4	84.2	1.4	11.152**
	중학교	100(3,257)	16.9	82.4	0.7	
	고등학교	100(3,794)	17.6	81.6	0.8	
거주지	서울	100(1,533)	18.3	80.9	0.8	9.187*
	광역시	100(3,077)	15.0	84.2	0.8	
	시·군	100(5,097)	16.8	82.2	1.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16.3	82.8	0.8	4.663
	한부모가정	100(868)	18.9	79.8	1.3	
	조손가정	100(172)	14.0	83.7	2.3	

* $p<.05$, ** $p<.01$, *** $p<.001$

1-3-1-⑨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표시 있는지 여부

<표 III-203> 가정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표시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28.2	71.0	0.9	
성별	남자	100(4,793)	26.6	72.5	0.9	11.365**
	여자	100(4,925)	29.7	69.5	0.8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32.3	66.3	1.4	46.118***
	중학교	100(3,257)	28.6	70.6	0.9	
	고등학교	100(3,794)	25.0	74.6	0.5	
거주지	서울	100(1,533)	27.1	71.7	1.2	2.286
	광역시	100(3,077)	29.2	70.1	0.7	
	시·군	100(5,097)	27.9	71.3	0.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28.5	70.7	0.8	5.704
	한부모가정	100(868)	25.5	73.5	1.0	
	조손가정	100(172)	22.7	75.6	1.7	

** $p<.01$, *** $p<.001$

1-3-1-⑩ 조명이 없거나 어두워서 밤에 다니기 어려운 곳이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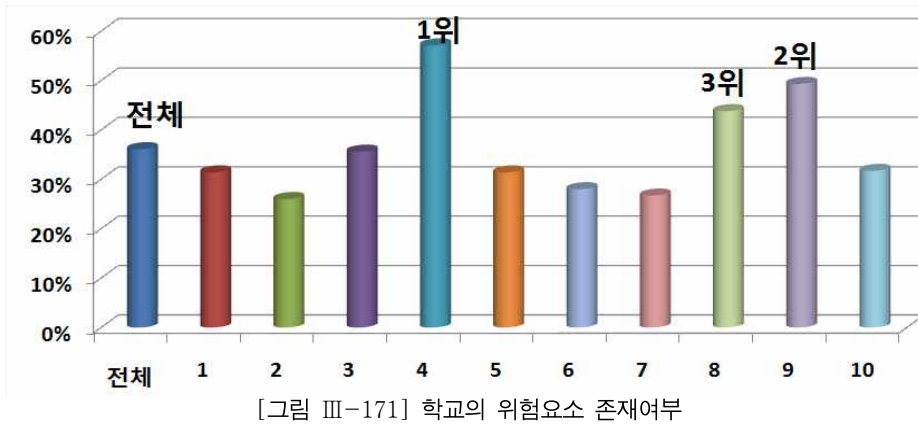
<표 III-204> 가정에서 조명이 없거나 어두워서 밤에 다니기 어려운 곳이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14.8	84.6	0.6	
성별	남자	100(4,793)	12.1	87.3	0.6	56.054***
	여자	100(4,925)	17.5	82.0	0.5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13.0	86.2	0.8	8.997**
	중학교	100(3,257)	15.2	84.2	0.5	
	고등학교	100(3,794)	15.6	83.9	0.5	
거주지	서울	100(1,533)	14.0	85.3	0.6	2.457
	광역시	100(3,077)	14.3	85.2	0.5	
	시·군	100(5,097)	15.3	84.1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14.2	85.3	0.5	19.908***
	한부모가정	100(868)	19.2	79.6	1.2	
	조손가정	100(172)	19.8	78.5	1.7	

** $p<.01$, *** $p<.001$

1-3-2 학교의 위험요소 존재여부 - 지표 항목별 비교

위험요소 중 학교에서는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음(57.1%)’이 가장 많았고,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표시가 없음(49.3%)’, ‘가구들이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움직일 때 부딪힘(43.8%)’이 다음 순이었음



<표 III-205> 학교의 위험요소 존재여부

번호	문항	전체 (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1	쇠조각이나 철사와 같은 날카로운 것 노출	100(9,727)	31.4	67.6	1.1
2	전기선이나 코드가 어지럽게 널려있음	100(9,727)	26.0	72.8	1.2
3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패이거나 파손됨	100(9,727)	35.6	63.3	1.2
4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음	100(9,727)	57.1	41.9	1.1
5	부서진 가구나 수납장이 있음	100(9,727)	31.4	67.3	1.3
6	계단이나 난간에 파손된 곳이 있음	100(9,727)	28.0	70.8	1.2
7	문의 손잡이가 고장나거나 작동하지 않음	100(9,727)	26.7	71.9	1.3
8	가구(책걸상)들이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움직일 때 부딪힘	100(9,727)	43.8	54.8	1.5
9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표시가 없음	100(9,727)	49.3	49.1	1.6
10	조명이 없거나 어두워서 밤에 다니기 어려운 곳이 있음	100(9,727)	31.7	66.9	1.3
		100(9,727)	36.10	62.64	1.28

1-3-2 학교의 위험요소 존재여부 - 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1-3-2-① 쇠조각이나 철사와 같은 날카로운 것 노출 정도

<표 III-206> 학교에서 날카로운 것 노출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31.4	67.6	1.1	
성별	남자	100(4,793)	35.4	63.3	1.3	73.001***
	여자	100(4,925)	27.5	71.7	0.8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22.6	75.5	1.9	123.414***
	중학교	100(3,257)	34.9	64.3	0.8	
	고등학교	100(3,794)	34.5	64.8	0.7	
거주지	서울	100(1,533)	33.1	66.2	0.7	2.294
	광역시	100(3,077)	30.9	68.0	1.1	
	시·군	100(5,097)	31.1	67.8	1.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31.4	67.7	0.9	2.694
	한부모가정	100(868)	29.6	68.9	1.5	
	조손가정	100(172)	34.9	61.0	4.1	

*** $p<.001$

1-3-2-② 전기선이나 코드 어지럽게 널려있는지 여부

<표 III-207> 학교에서 전기선이나 코드 어지럽게 널려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26.0	72.8	1.2	
성별	남자	100(4,793)	28.0	70.5	1.5	20.327***
	여자	100(4,925)	24.1	74.9	1.0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16.8	81.2	2.0	162.315***
	중학교	100(3,257)	27.8	71.2	1.0	
	고등학교	100(3,794)	30.6	68.6	0.8	
거주지	서울	100(1,533)	18.7	80.2	1.0	51.963***
	광역시	100(3,077)	27.1	71.8	1.1	
	시·군	100(5,097)	27.6	71.1	1.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26.1	72.8	1.1	2.392
	한부모가정	100(868)	26.6	72.2	1.2	
	조손가정	100(172)	20.3	75.6	4.1	

*** $p<.001$

1-3-2-③ 바닥이 고르지 못하거나 패이거나 파손된 곳 있는지 여부

<표 III-208> 학교에서 바닥이 고르지 못하거나 패이거나 파손된 곳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35.6	63.3	1.2	
성별	남자	100(4,793)	38.3	60.3	1.5	32.539***
	여자	100(4,925)	33.0	66.2	0.8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23.5	74.2	2.3	217.124***
	중학교	100(3,257)	40.1	59.0	0.9	
	고등학교	100(3,794)	40.0	59.3	0.6	
거주지	서울	100(1,533)	35.7	63.6	0.7	3.642
	광역시	100(3,077)	36.9	62.0	1.1	
	시·군	100(5,097)	34.7	63.9	1.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36.0	63.0	0.9	4.050
	한부모가정	100(868)	33.5	65.0	1.5	
	조손가정	100(172)	29.1	66.3	4.7	

*** $p < .001$

1-3-2-④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표 III-209> 학교에서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57.1	41.9	1.1	
성별	남자	100(4,793)	57.3	41.4	1.3	0.557
	여자	100(4,925)	56.8	42.3	0.9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47.7	50.2	2.0	117.143***
	중학교	100(3,257)	60.7	38.5	0.8	
	고등학교	100(3,794)	60.6	38.8	0.7	
거주지	서울	100(1,533)	54.2	45.0	0.8	8.750*
	광역시	100(3,077)	56.7	42.2	1.1	
	시·군	100(5,097)	58.1	40.7	1.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57.4	41.7	0.9	0.798
	한부모가정	100(868)	58.5	40.2	1.3	
	조손가정	100(172)	56.4	37.8	5.8	

* $p < .05$, *** $p < .001$

1-3-2-⑤ 부서진 가구나 수납장이 있는지 여부

<표 III-210> 학교에서 부서진 가구나 수납장이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31.4	67.3	1.3	
성별	남자	100(4,793)	35.1	63.2	1.8	63.932***
	여자	100(4,925)	27.8	71.3	0.8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15.1	82.4	2.5	442.111***
	중학교	100(3,257)	35.6	63.4	1.0	
	고등학교	100(3,794)	39.3	60.0	0.7	
거주지	서울	100(1,533)	26.3	72.7	1.0	23.092***
	광역시	100(3,077)	32.1	66.7	1.3	
	시·군	100(5,097)	32.5	66.1	1.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31.8	67.1	1.1	0.187
	한부모가정	100(868)	32.3	66.7	1.0	
	조손가정	100(172)	32.0	63.4	4.7	

*** $p < .001$

1-3-2-⑥ 계단이나 난간에 파손된 곳 있는지 여부

<표 III-211> 학교에서 계단이나 난간에 파손된 곳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28.0	70.8	1.2	
성별	남자	100(4,793)	31.3	67.4	1.3	50.272***
	여자	100(4,925)	24.9	74.1	1.0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22.1	75.7	2.2	57.570***
	중학교	100(3,257)	30.3	68.8	0.9	
	고등학교	100(3,794)	30.3	69.0	0.7	
거주지	서울	100(1,533)	26.9	72.2	0.8	1.380
	광역시	100(3,077)	28.4	70.5	1.1	
	시·군	100(5,097)	28.2	70.5	1.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28.7	70.4	0.9	8.090*
	한부모가정	100(868)	24.0	74.4	1.6	
	조손가정	100(172)	26.2	68.6	5.2	

* $p < .05$, *** $p < .001$

1-3-2-⑦ 문의 손잡이가 고장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여부

<표 III-212> 학교에서 문의 손잡이가 고장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26.7	71.9	1.3	
성별	남자	100(4,793)	30.4	68.1	1.5	65.623***
	여자	100(4,925)	23.2	75.6	1.2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12.7	84.8	2.5	356.096***
	중학교	100(3,257)	31.1	67.8	1.1	
	고등학교	100(3,794)	32.8	66.5	0.7	
거주지	서울	100(1,533)	20.4	78.8	0.8	39.954***
	광역시	100(3,077)	27.5	71.1	1.4	
	시·군	100(5,097)	28.2	70.3	1.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27.2	71.7	1.1	4.617
	한부모가정	100(868)	24.0	74.4	1.6	
	조손가정	100(172)	22.7	70.9	6.4	

*** $p < .001$

1-3-2-⑧ 가구들이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표 III-213> 학교에서 가구들이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43.8	54.8	1.5	
성별	남자	100(4,793)	42.0	56.4	1.6	11.089**
	여자	100(4,925)	45.5	53.2	1.4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29.4	67.9	2.8	295.975***
	중학교	100(3,257)	47.3	51.7	1.0	
	고등학교	100(3,794)	50.6	48.4	1.0	
거주지	서울	100(1,533)	41.9	56.7	1.4	4.975
	광역시	100(3,077)	43.2	55.6	1.2	
	시·군	100(5,097)	44.7	53.7	1.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44.4	54.3	1.3	2.831
	한부모가정	100(868)	45.0	53.5	1.5	
	조손가정	100(172)	36.6	58.1	5.2	

** $p < .01$, *** $p < .001$

1-3-2-⑨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표시 있는지 여부

<표 III-214> 학교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표시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49.3	49.1	1.6	
성별	남자	100(4,793)	49.1	49.2	1.7	0.119
	여자	100(4,925)	49.5	49.0	1.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48.8	48.4	2.8	0.211
	중학교	100(3,257)	49.6	49.0	1.4	
	고등학교	100(3,794)	49.6	49.5	0.9	
거주지	서울	100(1,533)	47.5	50.8	1.7	7.573*
	광역시	100(3,077)	48.0	50.4	1.6	
	시·군	100(5,097)	50.6	47.8	1.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49.3	49.3	1.4	2.695
	한부모가정	100(868)	50.8	47.2	2.0	
	조손가정	100(172)	42.4	51.7	5.8	

* $p<.05$

1-3-2-⑩ 조명이 없거나 어두워서 밤에 다니기 어려운 곳이 있는지 여부

<표 III-215> 학교에서 조명이 없거나 어두워서 밤에 다니기 어려운 곳이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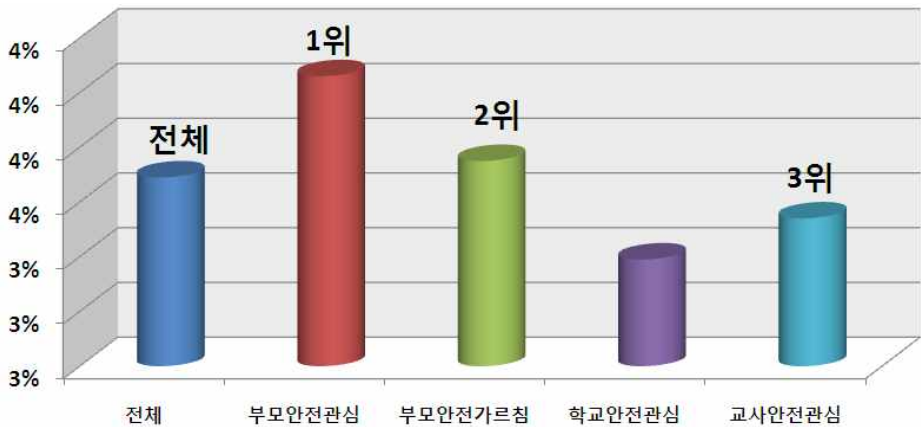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31.7	66.9	1.3	
성별	남자	100(4,793)	30.5	67.9	1.6	6.043*
	여자	100(4,925)	33.0	65.9	1.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20.4	77.3	2.3	264.016***
	중학교	100(3,257)	31.3	67.5	1.1	
	고등학교	100(3,794)	39.8	59.3	0.9	
거주지	서울	100(1,533)	34.3	65.0	0.8	6.638*
	광역시	100(3,077)	32.2	66.5	1.3	
	시·군	100(5,097)	30.7	67.8	1.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32.0	66.9	1.1	0.389
	한부모가정	100(868)	30.8	67.4	1.8	
	조손가정	100(172)	30.2	64.5	5.2	

* $p<.05$, *** $p<.001$

1-3-3~1-3-6 안전에 대한 부모, 학교, 교사의 관심도 -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부모의 관심 정도(M=4.06)’가 가장 많았고, ‘부모의 가르침 정도(M=3.75)’, ‘학교 교사의 관심 정도(M=3.54)’ 순이었음

-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부모, 학교, 교사의 관심도는 보통(M=3.0)보다 높은 편이었다.
-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부모가 학교나 교사보다 더 높았다.



[그림 III-172] 안전에 대한 부모, 학교, 교사의 관심도

<표 III-216> 안전에 대한 부모, 학교, 교사의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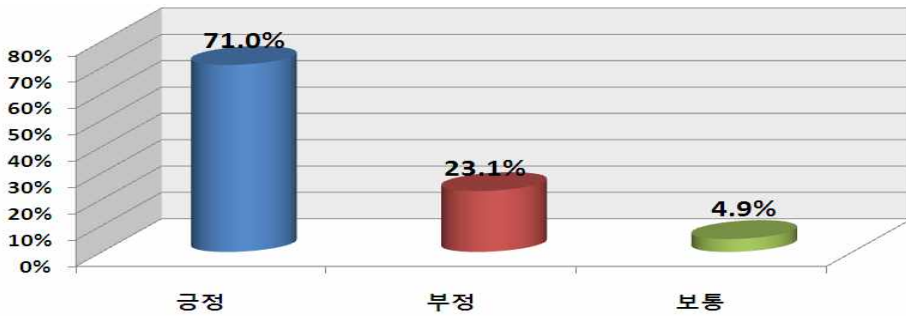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부모의 안전에 대한 관심 정도	4.06	.98
2	부모의 안전에 대한 가르침 정도	3.75	1.05
3	학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정도	3.39	1.13
4	학교 교사의 안전에 대한 관심 정도	3.54	1.09
전체		3.69	1.06

1-3-3~1-3-6 안전에 대한 부모, 학교, 교사의 관심도 - 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1-3-3 안전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

**전체 응답자의 71.0%는 부모(또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응답함**

○ ‘안전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는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173] 안전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

<표 III-217> 안전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2.3	2.7	23.1	30.3	40.7	0.9	4.06(.98)	
성별									1.305
남자	100(4,793)	2.8	2.7	21.6	29.7	42.1	1.1	4.07(1.00)	
여자	100(4,925)	1.8	2.6	24.6	30.9	39.3	0.8	4.04(.95)	
교 급 별									184.849*** (가>나>다)
초등학교 ^가	100(2,643)	2.0	1.7	14.5	22.0	58.3	1.4	4.35(.93)	
중학교 ^나	100(3,257)	2.7	2.9	23.1	31.4	39.1	0.7	4.02(.99)	
고등학교 ^다	100(3,794)	2.1	3.1	29.3	35.0	29.7	0.8	3.88(.95)	
거 주 지									0.103
서울 ¹	100(1,533)	2.1	2.8	24.1	28.3	42.1	0.6	4.06(.98)	
광역시 ²	100(3,077)	2.3	2.3	22.8	32.3	39.1	1.2	4.05(.96)	
시·군 ³	100(5,097)	2.3	2.8	23.0	29.8	41.3	0.9	4.06(.98)	
가족 구성									31.861*** (a>b,c)
양부모가정 ^a	100(8,128)	2.0	2.3	22.6	30.6	41.7	0.9	4.09(.96)	
한부모가정 ^b	100(868)	3.0	4.4	28.9	32.1	30.3	1.3	3.83(1.01)	
조손가정 ^c	100(172)	8.1	5.2	24.4	19.8	40.1	2.3	3.80(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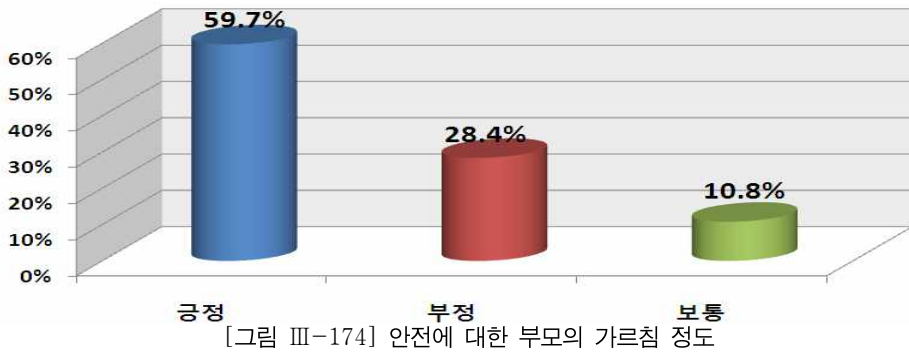
*** $p<.001$

1-3-4 안전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 정도 - 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7%는 부모(또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에 대해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응답함

○ ‘안전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표 III-218> 안전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3.0	7.8	28.4	31.1	28.6	1.1	3.75(1.05)	
성별									5.137***
남자	100(4,793)	4.1	8.3	28.9	29.5	27.9	1.3	3.70(1.09)	
여자	100(4,925)	2.0	7.2	28.0	32.6	29.3	0.9	3.81(1.01)	
교급별									221.516*** (가>나>다)
초등학교 ^가	100(2,643)	2.6	4.8	18.2	26.5	45.9	1.9	4.10(1.04)	
중학교 ^나	100(3,257)	3.3	7.8	30.6	31.8	25.7	0.8	3.69(1.04)	
고등학교 ^다	100(3,794)	3.2	9.8	33.8	33.6	18.9	0.8	3.56(1.01)	
거주지									1.407
서울 ¹	100(1,533)	3.0	7.7	26.0	32.9	29.7	0.7	3.79(1.05)	
광역시 ²	100(3,077)	3.0	7.4	28.9	31.5	27.8	1.4	3.75(1.04)	
시군 ³	100(5,097)	3.1	8.0	28.9	30.3	28.7	1.0	3.74(1.06)	
가족구성									34.738*** (a>b,c)
양부모가정 ^a	100(8,128)	2.6	7.3	28.1	31.7	29.3	1.0	3.78(1.03)	
한부모가정 ^b	100(868)	5.0	12.2	33.1	27.1	21.3	1.4	3.48(1.11)	
조손가정 ^c	100(172)	8.1	8.1	27.3	27.3	26.7	2.3	3.58(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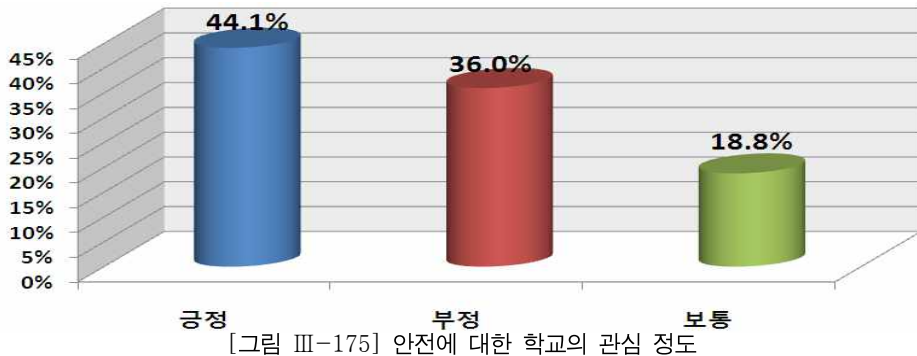
*** $p<.001$

1-3-5 안전에 대한 학교의 관심 정도 - 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1%는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응답함**

○ ‘안전에 대한 학교의 관심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보다 많았다.



<표 III-219> 안전에 대한 학교의 관심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6.6	12.2	36.0	24.6	19.5	1.1	3.39(1.13)	
성별	남자	100(4,793)	8.5	11.9	34.4	23.2	20.7	1.4	3.36(1.19)	2.013*
	여자	100(4,925)	4.8	12.5	37.5	26.0	18.3	0.9	3.41(1.07)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3.5	4.2	19.9	27.8	42.6	2.0	4.04(1.06)	746.977***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6.5	12.9	38.8	26.3	14.6	0.9	3.30(1.08)	
	고등학교 ^다	100(3,794)	8.9	17.2	44.6	20.9	7.6	0.8	3.01(1.02)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5.9	11.6	38.1	22.9	20.9	0.7	3.41(1.12)	0.741
	광역시 ²	100(3,077)	6.8	12.5	35.8	24.1	19.3	1.4	3.37(1.14)	
	시군 ³	100(5,097)	6.7	12.2	35.4	25.4	19.1	1.1	3.39(1.13)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6.4	12.0	36.3	25.0	19.2	1.0	3.39(1.12)	6.981** (a>b)
	한부모가정 ^나	100(868)	6.8	16.1	38.2	21.4	16.0	1.4	3.24(1.12)	
	조손가정 ^다	100(172)	12.2	10.5	29.7	23.3	22.7	1.7	3.34(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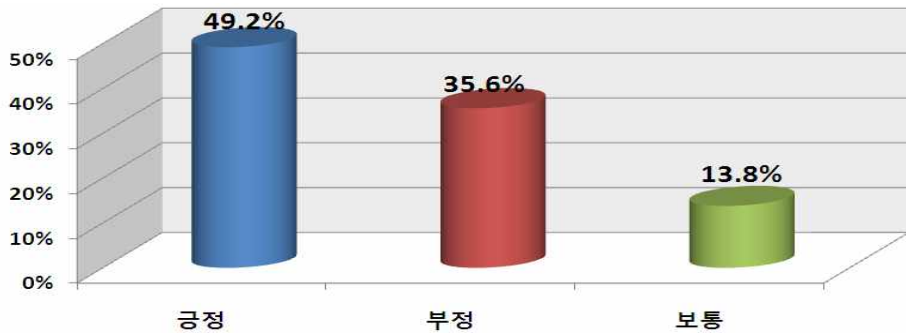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3-6 안전에 대한 교사의 관심 정도 - 지표 항목별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2%는 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응답함**

○ ‘안전에 대한 교사의 관심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한 부모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176] 안전에 대한 교사의 관심 정도

<표 III-220> 안전에 대한 교사의 관심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4.8	9.0	35.6	26.4	22.8	1.5	3.54(1.09)	
성별									1.012*
남자	100(4,793)	6.0	9.0	32.7	25.9	24.7	1.8	3.55(1.14)	
여자	100(4,925)	3.6	9.0	38.4	27.0	20.8	1.2	3.53(1.03)	
교급별									1,344.057*** (가>나>다)
초등학교 ^가	100(2,643)	1.4	1.5	14.2	27.1	53.5	2.5	4.33(.88)	
중학교 ^나	100(3,257)	4.4	8.7	38.0	30.9	16.8	1.3	3.48(1.02)	
고등학교 ^다	100(3,794)	7.5	14.5	48.4	22.0	6.6	0.9	3.06(.97)	
거주지									0.203
서울 ¹	100(1,533)	4.3	8.9	37.2	25.6	23.2	0.8	3.55(1.08)	
광역시 ²	100(3,077)	4.7	8.9	36.6	25.5	22.6	1.7	3.53(1.09)	
시·군 ³	100(5,097)	4.9	9.1	34.5	27.3	22.8	1.5	3.55(1.09)	
가족구성									7.779** (a,c>b)
양부모가정 ^a	100(8,128)	4.5	9.1	35.7	26.7	22.6	1.4	3.54(1.08)	
한부모가정 ^b	100(868)	5.8	9.2	40.9	25.7	16.8	1.6	3.39(1.06)	
조손가정 ^c	100(172)	8.7	8.1	27.9	23.8	29.1	2.3	3.58(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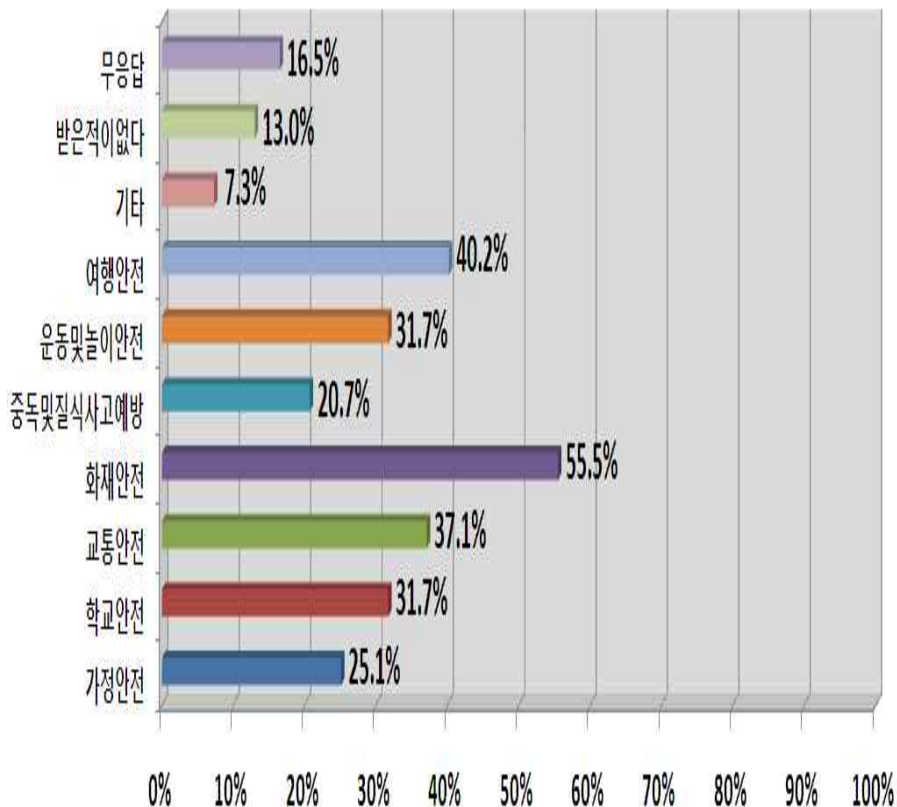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3-7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안전교육 수혜여부 - 지표 항목별 비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화재안전(55.5%)’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고,
‘여행안전(40.2%)’, ‘교통안전(37.1%)’ 순으로 교육을 많이 받음**

○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3.0%이었다.

- 교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안전교육 수혜를 많이 받았다.



[그림 III-177]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안전교육 수혜여부(중복응답)

<표 III-22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안전교육 수혜여부(중복응답)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가정안전	학교안전	교통안전	화재 안전	중독및 질식사고예방
전체		100(9,727)	25.1	31.7	37.1	55.5	20.7
성별	남자	100(4,793)	27.5	34.8	39.6	55.7	21.0
	여자	100(4,925)	22.7	28.8	34.8	55.4	2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48.5	55.1	65.5	70.1	32.2
	중학교	100(3,257)	22.1	28.8	34.0	54.4	20.1
	고등학교	100(3,794)	11.5	18.1	20.1	46.5	13.4
거주지	서울	100(1,533)	26.9	34.0	37.2	47.3	25.6
	광역시	100(3,077)	24.1	31.7	34.1	55.5	18.9
	시·군	100(5,097)	25.1	31.1	39.0	58.1	20.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24.9	31.8	37.2	55.7	20.6
	한부모가정	100(868)	22.0	28.5	31.2	56.1	18.8
	조손가정	100(172)	27.9	41.3	40.1	50.0	24.4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운동및 놀이안전	여행안전	기타	받은적이 없다	무응답
전체		100(9,727)	31.7	40.2	7.3	13.0	16.5
성별	남자	100(4,793)	33.6	37.7	6.3	13.0	17.4
	여자	100(4,925)	29.9	42.6	8.3	12.9	15.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55.9	49.0	7.1	3.6	6.7
	중학교	100(3,257)	27.9	41.4	6.8	11.8	15.2
	고등학교	100(3,794)	18.2	32.9	7.9	20.6	24.4
거주지	서울	100(1,533)	34.6	39.5	6.6	16.5	20.1
	광역시	100(3,077)	30.8	37.9	7.1	13.4	16.8
	시·군	100(5,097)	31.4	41.8	7.7	11.7	15.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31.9	40.9	7.4	12.9	16.0
	한부모가정	100(868)	27.6	36.2	7.0	15.9	20.5
	조손가정	100(172)	32.0	39.5	3.5	11.6	18.0

2) 보호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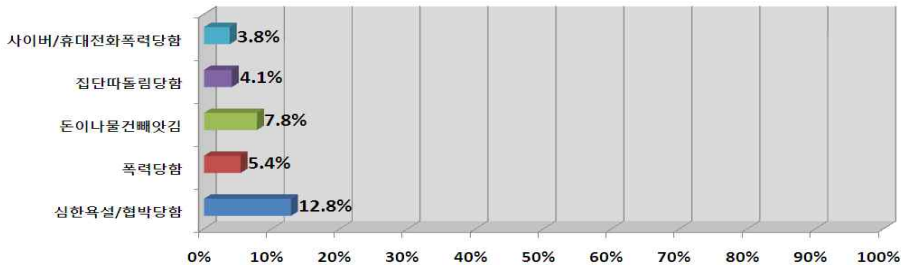
2-1 위험행동경험

2-1-1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 경험률 - 지표 항목별 비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심한욕설/협박당함(12.8%)’, ‘돈이나 물건 빼앗김(7.8%)’, ‘폭행당함(5.4%)’순으로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음

○ 청소년들의 10% 이상이 심한욕설/협박당함에 응답하였다.

- 성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폭력 피해가 많았고, 대부분 연령이 낮을수록 폭력 피해를 많이 받았으며, 돈이나 물건 빼앗김과 사이버/휴대전화폭력은 중학교가 가장 많았다. 특히, 조손가정이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보다 두 배 이상 폭력 피해를 많이 받았다.



[그림 III-178]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 경험률(중복응답)

<표 III-222>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 경험률(중복응답)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심한욕설/협 박당함	폭행 당함	돈이나물건 빼앗김	집단따돌림 당함	사이버/휴 대전화폭력 당함
전체		100(9,727)	12.8	5.4	7.8	4.1	3.8
성별	남자	100(4,793)	9.0	8.6	10.2	4.4	4.2
	여자	100(4,925)	9.0	2.2	5.5	3.7	3.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17.4	12.4	6.2	7.1	3.9
	중학교	100(3,257)	14.8	6.5	13.8	4.3	4.9
	고등학교	100(3,794)	8.1	4.1	3.9	1.7	2.8
거주지	서울	100(1,533)	14.2	6.2	8.6	6.1	4.5
	광역시	100(3,077)	11.2	4.6	7.0	3.2	3.3
	시·군	100(5,097)	13.4	5.6	8.1	3.9	3.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12.1	4.9	7.4	3.6	3.6
	한부모가정	100(868)	13.8	6.0	8.1	4.7	3.6
	조손가정	100(172)	27.9	12.2	16.3	10.5	8.7

2-1-1-① 최근 1년 동안 심한욕설/협박당함 경험빈도

<표 Ⅲ-223> 최근 1년 동안 심한욕설/협박당함 경험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86.4	6.8	1.7	1.6	1.0	1.8	0.8
성별	남자	100(4,793)	82.3	8.3	2.3	2.3	1.2	2.6	0.9
	여자	100(4,925)	90.3	5.4	1.1	0.8	0.8	1.0	0.7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81.3	9.7	2.2	2.1	1.5	1.9	1.3
	중학교	100(3,257)	84.8	7.9	1.9	2.1	1.0	1.9	0.4
	고등학교	100(3,794)	91.2	3.9	1.1	0.7	0.6	1.7	0.7
거주지	서울	100(1,533)	85.4	7.0	1.8	2.1	1.2	2.1	0.5
	광역시	100(3,077)	87.9	5.8	1.4	1.2	1.0	1.8	0.9
	시·군	100(5,097)	85.8	7.4	1.8	1.6	0.9	1.7	0.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7.2	6.6	1.6	1.4	0.8	1.6	0.7
	한부모가정	100(868)	85.1	6.9	2.0	1.6	1.4	2.0	1.0
	조손가정	100(172)	70.9	12.8	2.3	2.3	3.5	7.0	1.2

2-1-1-② 최근 1년 동안 폭행당함 경험빈도

<표 Ⅲ-224> 최근 1년 동안 폭행당함 경험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93.6	2.7	0.7	0.6	0.5	0.8	1.1
성별	남자	100(4,793)	90.3	4.2	1.2	1.0	0.9	1.3	1.1
	여자	100(4,925)	96.8	1.4	0.1	0.2	0.2	0.3	1.0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2.8	3.1	1.0	0.7	0.5	0.5	1.5
	중학교	100(3,257)	92.7	3.5	0.6	0.8	0.8	1.0	0.7
	고등학교	100(3,794)	94.8	1.9	0.6	0.5	0.3	0.9	1.1
거주지	서울	100(1,533)	93.0	3.0	0.8	0.8	0.9	0.7	0.8
	광역시	100(3,077)	94.2	2.3	0.4	0.5	0.4	1.0	1.2
	시·군	100(5,097)	93.4	2.9	0.8	0.7	0.5	0.7	1.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4.1	2.6	0.7	0.5	0.5	0.7	0.9
	한부모가정	100(868)	92.4	3.8	0.3	0.6	0.5	0.8	1.6
	조손가정	100(172)	86.0	1.2	3.5	2.3	1.7	3.5	1.7

2-1-1-③ 최근 1년 동안 돈이나 물건 빼앗김 경험빈도

<표 III-225> 최근 1년 동안 돈이나 물건 빼앗김 경험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 1~2회	일주일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91.1	5.3	1.1	0.7	0.3	0.4	1.1
성별	남자	100(4,793)	88.8	6.6	1.5	1.0	0.4	0.6	1.0
	여자	100(4,925)	93.3	4.0	0.8	0.4	0.1	0.2	1.2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2.4	4.5	0.7	0.4	0.3	0.3	1.4
	중학교	100(3,257)	85.4	9.2	2.2	1.4	0.4	0.6	0.8
	고등학교	100(3,794)	95.0	2.5	0.5	0.4	0.1	0.4	1.1
거주지	서울	100(1,533)	90.5	5.9	1.1	0.9	0.2	0.5	0.9
	광역시	100(3,077)	91.9	4.8	0.9	0.7	0.3	0.4	1.1
	시·군	100(5,097)	90.8	5.4	1.3	0.7	0.3	0.5	1.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1.6	5.1	1.1	0.6	0.2	0.4	1.0
	한부모가정	100(868)	90.6	5.6	0.8	0.9	0.2	0.5	1.4
	조손가정	100(172)	81.4	10.5	1.2	2.3	1.2	1.2	2.3

2-1-1-④ 최근 1년 동안 집단 따돌림(왕따) 당함 경험빈도

<표 III-226> 최근 1년 동안 집단 따돌림(왕따) 당함 경험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 1~2회	일주일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94.9	2.1	0.4	0.4	0.2	0.9	1.1
성별	남자	100(4,793)	94.6	2.1	0.4	0.6	0.3	1.1	1.0
	여자	100(4,925)	95.2	2.1	0.4	0.2	0.2	0.8	1.1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1.5	3.9	0.5	0.8	0.4	1.6	1.4
	중학교	100(3,257)	94.8	2.1	0.6	0.3	0.3	1.1	0.8
	고등학교	100(3,794)	97.2	0.8	0.2	0.2	0.1	0.4	1.1
거주지	서울	100(1,533)	93.1	2.8	0.7	0.5	0.4	1.7	0.8
	광역시	100(3,077)	95.6	1.8	0.3	0.3	0.2	0.6	1.2
	시·군	100(5,097)	95.0	2.0	0.4	0.5	0.2	0.9	1.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5.4	1.9	0.4	0.4	0.2	0.9	1.0
	한부모가정	100(868)	93.7	2.6	0.3	0.5	0.6	0.7	1.6
	조손가정	100(172)	87.8	3.5	2.3	1.2	0.6	2.9	1.7

2-1-1-⑤ 최근 1년 동안 사이버/휴대전화 폭력 당함 경험빈도

<표 III-227> 최근 1년 동안 사이버/휴대전화 폭력 당함 경험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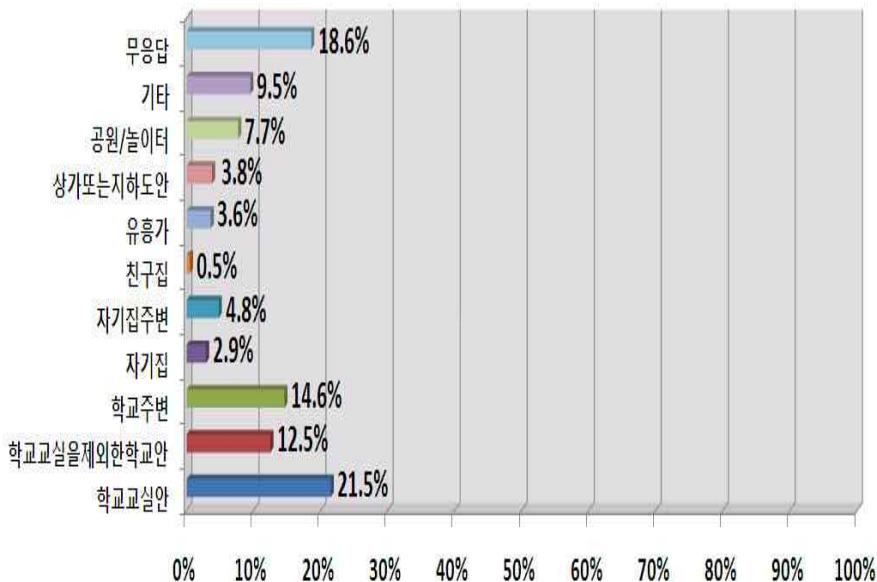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95.1	2.4	0.5	0.4	0.1	0.3	1.1
성별	남자	100(4,793)	94.8	2.4	0.5	0.6	0.1	0.5	1.0
	여자	100(4,925)	95.5	2.4	0.5	0.2	0.1	0.1	1.1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4.6	2.5	0.6	0.5	0.1	0.2	1.5
	중학교	100(3,257)	94.4	3.1	0.6	0.5	0.2	0.5	0.7
	고등학교	100(3,794)	96.2	1.7	0.4	0.3	0.1	0.3	1.1
거주지	서울	100(1,533)	94.7	2.9	0.8	0.4	0.1	0.3	0.8
	광역시	100(3,077)	95.4	2.0	0.4	0.5	0.2	0.2	1.3
	시·군	100(5,097)	95.1	2.4	0.6	0.3	0.1	0.4	1.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5.5	2.3	0.5	0.3	0.1	0.3	0.9
	한부모가정	100(868)	94.6	2.8	0.2	0.2	0.2	0.1	1.8
	조손가정	100(172)	89.0	2.9	2.9	1.7	0.6	0.6	2.3

2-1-2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 경험장소 - 지표 항목별 비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폭력 피해를 당한 장소는 ‘학교교실안(21.5%)’, ‘학교주변(14.6%)’, ‘학교교실을 제외한 학교안(12.5%)’ 순으로 응답하였음

○ 청소년들이 폭력 피해를 당한 장소는 주로 학교 안(학교 교실 안, 학교교실을 제외한 학교 안, 학교주변)이 48.5%로 절반에 가깝게 많았다.

- 성별로는 학교주변, 자기 집주변, 유흥가, 공원/놀이터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자기 집과 상가 또는 지하도 안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교급별로는 학교주변과 상가 또는 지하도 안에서 중학교가 가장 많았고, 자기 집, 자기집주변, 공원/놀이터에서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유흥가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가족구성별로는 자기 집, 학교교실을 제외한 학교 안, 유흥가에서는 조손가정이 많았다.



[그림 III-179]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 경험장소

<표 III-228>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 경험장소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학교교실안	학교교실을제외한학교안	학교주변	자기집	자기집주변
전체		100(2,013)	21.5	12.5	14.6	2.9	4.8
성별	남자	100(1,223)	21.6	12.3	15.5	2.7	5.3
	여자	100(789)	21.4	12.8	13.2	3.3	3.9
교급별	초등학교	100(688)	17.4	12.1	13.8	4.8	5.5
	중학교	100(842)	21.4	12.8	17.2	1.4	5.2
	고등학교	100(481)	27.7	12.3	10.8	2.9	2.9
거주지	서울	100(363)	29.8	9.9	13.2	3.6	4.4
	광역시	100(576)	20.5	12.8	14.6	1.4	4.3
	시·군	100(1,074)	19.3	13.1	15.0	3.5	5.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1,594)	22.0	13.1	15.3	2.4	5.0
	한부모가정	100(195)	24.1	6.7	13.8	4.1	5.1
	조손가정	100(65)	13.8	18.5	13.8	6.2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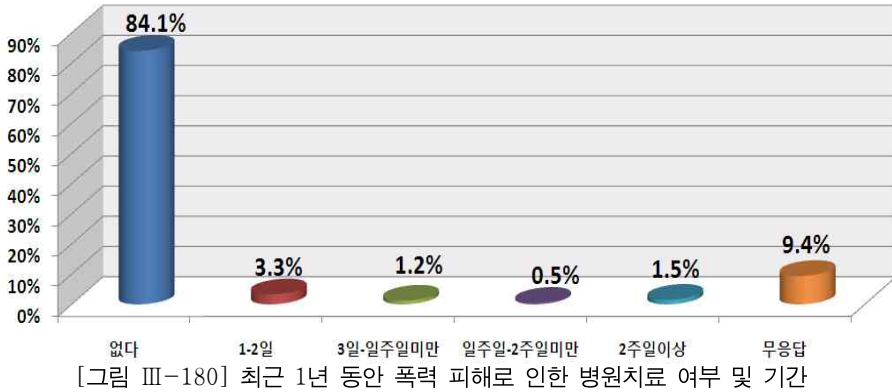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친구집	유흥가	상가또는지하도안	공원/놀이터	기타	무응답
전체		100(2,013)	0.5	3.6	3.8	7.7	9.5	18.6
성별	남자	100(1,223)	0.7	4.1	3.3	8.7	8.9	17.1
	여자	100(789)	0.4	2.8	4.7	6.3	10.4	20.8
교급별	초등학교	100(688)	0.6	1.7	2.0	10.5	13.2	18.3
	중학교	100(842)	0.1	4.5	5.7	7.5	8.0	16.2
	고등학교	100(481)	1.2	4.6	3.1	4.4	6.9	23.3
거주지	서울	100(363)	1.7	2.5	2.2	8.8	10.2	13.8
	광역시	100(576)	0.3	3.3	3.3	8.2	9.2	22.0
	시·군	100(1,074)	0.3	4.1	4.7	7.2	9.4	18.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1,594)	0.4	3.6	4.0	7.7	8.5	18.0
	한부모가정	100(195)	0.5	2.6	4.6	7.7	11.3	19.5
	조손가정	100(65)	0.0	6.2	3.1	6.2	9.2	18.5

2-1-3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로 인한 병원치료 여부 및 기간 - 지표 항목별 비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폭력 피해로 인해 병원치료를 한 경우는
'1~2일(3.3%)', '2주일 이상(1.5%)', '3일~일주일 미만(1.2%)'이었음**

○ 청소년들이 폭력 피해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6.5%이었다.

- 성별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았고, 교급별로는 1~2일의 경우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지만, 2주일 이상은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12.2%)이 양부모가정(5.4%)과 한 부모가정(5.1%)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림 III-180]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로 인한 병원치료 여부 및 기간

<표 III-229> 최근 1년 동안 폭력 피해로 인한 병원치료 여부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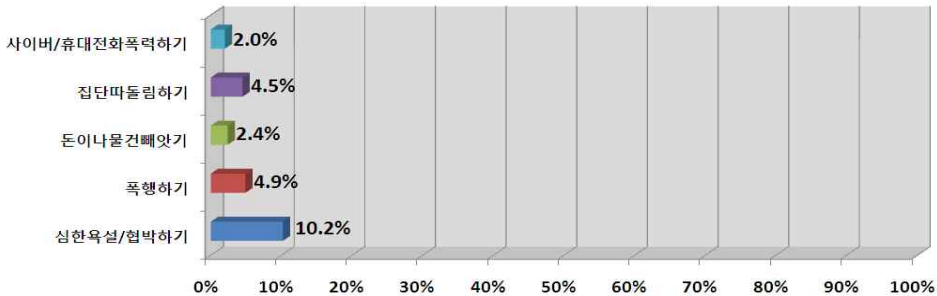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없다	1~2일	3일~일주일 미만	일주일~2 주일미만	2주일 이상	무응답
전체		100(2,013)	84.1	3.3	1.2	0.5	1.5	9.4
성별	남자	100(1,223)	83.6	4.0	1.5	0.3	2.0	8.6
	여자	100(789)	85.0	2.2	0.8	0.8	0.6	10.6
교급별	초등학교	100(688)	84.6	4.5	1.2	0.3	1.0	8.4
	중학교	100(842)	86.8	2.5	1.3	0.5	1.0	8.0
	고등학교	100(481)	78.6	2.9	1.0	0.8	3.1	13.5
거주지	서울	100(363)	85.7	4.4	0.8	0.8	1.4	6.9
	광역시	100(576)	81.4	2.8	1.7	0.5	1.4	12.2
	시·군	100(1,074)	85.0	3.2	1.0	0.4	1.6	8.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1,594)	85.1	2.7	1.1	0.4	1.2	9.6
	한부모가정	100(195)	87.2	2.1	0.5	1.0	1.5	7.7
	조손가정	100(65)	73.8	9.2	1.5	0.0	1.5	13.8

2-1-4 최근 1년 동안 폭력 가해 경험률 - 지표 항목별 비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심한욕설/협박하기(10.2%)’, ‘폭행하기(4.9%)’, ‘집단따돌림(4.5%)’ 순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 가해를 하였음

○ 청소년들의 10% 이상이 심한욕설/협박하기에 응답하였다.

- 성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폭력 가해 경험률이 높았고, 심한욕설/협박하기와 집단 따돌림 하기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고, 폭행하기, 돈이나 물건 빼앗기, 사이버/휴대전화폭력은 중학교가 가장 많았다. 특히, 조손가정이 양부모가정과 한 부모가정보다 모든 유형에서 두 배 이상 폭력 가해를 많이 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181] 최근 1년 동안 폭력 가해 경험률

<표 III-230> 최근 1년 동안 폭력 가해 경험률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심한욕설/ 협박하기	폭행하기	돈이나 물건빼앗기	집단따돌림 하기	사이버/ 휴대전화 폭력하기
전체		100(9,727)	10.2	4.9	2.4	4.5	2.0
성별	남자	100(4,793)	13.9	7.9	3.2	5.0	2.7
	여자	100(4,925)	6.7	2.1	1.5	4.0	1.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11.7	5.1	1.7	7.1	1.8
	중학교	100(3,257)	11.5	6.0	3.6	5.3	2.5
	고등학교	100(3,794)	8.2	4.0	1.8	2.0	1.7
거주지	서울	100(1,533)	11.5	5.7	2.4	7.1	2.3
	광역시	100(3,077)	9.2	4.3	1.9	3.4	1.6
	사·군	100(5,097)	10.5	5.1	2.6	4.4	2.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6	4.6	2.0	4.2	1.9
	한부모가정	100(868)	12.1	5.9	2.5	4.3	1.2
	조손가정	100(172)	21.5	11.6	7.0	8.1	7.6

2-1-4-① 최근 1년 동안 심한욕설/협박하기 경험빈도

<표 III-231> 최근 1년 동안 심한욕설/협박하기 경험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 1~2회	일주일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88.1	5.2	1.3	1.3	0.9	1.6	1.7
성별	남자	100(4,793)	84.5	6.7	1.8	1.7	1.2	2.5	1.6
	여자	100(4,925)	91.6	3.7	0.8	0.9	0.5	0.8	1.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86.0	6.4	1.3	1.6	1.2	1.2	2.3
	중학교	100(3,257)	87.3	5.9	1.6	1.2	0.7	2.1	1.2
	고등학교	100(3,794)	90.1	3.7	1.1	1.0	0.9	1.6	1.7
거주지	서울	100(1,533)	87.4	5.7	1.7	1.5	0.8	1.7	1.2
	광역시	100(3,077)	88.9	4.4	1.0	1.3	0.9	1.6	1.9
	시·군	100(5,097)	87.8	5.5	1.4	1.1	0.9	1.6	1.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8.7	4.9	1.2	1.2	0.9	1.4	1.6
	한부모가정	100(868)	86.4	6.3	1.2	1.3	0.8	2.5	1.5
	조손가정	100(172)	76.2	6.4	4.1	2.3	3.5	5.2	2.3

2-1-4-② 최근 1년 동안 폭행하기 경험빈도

<표 III-232> 최근 1년 동안 폭행하기 경험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 1~2회	일주일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93.0	2.6	0.6	0.7	0.4	0.6	2.1
성별	남자	100(4,793)	90.3	4.1	0.9	1.0	0.8	1.1	1.8
	여자	100(4,925)	95.6	1.1	0.3	0.4	0.1	0.2	2.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2.2	2.9	0.7	0.7	0.3	0.5	2.8
	중학교	100(3,257)	92.4	3.1	0.7	0.9	0.6	0.6	1.6
	고등학교	100(3,794)	94.0	2.0	0.4	0.6	0.3	0.7	2.1
거주지	서울	100(1,533)	92.8	2.7	0.8	0.6	0.8	0.8	1.5
	광역시	100(3,077)	93.3	2.3	0.4	0.5	0.3	0.7	2.4
	시·군	100(5,097)	92.8	2.8	0.6	0.9	0.4	0.5	2.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3.4	2.5	0.4	0.7	0.4	0.5	2.0
	한부모가정	100(868)	91.9	3.2	0.7	0.6	0.6	0.8	2.2
	조손가정	100(172)	85.5	2.3	4.1	2.3	1.2	1.7	2.9

2-1-4-③ 최근 1년 동안 돈이나 물건 빼앗기 경험빈도

<표 Ⅲ-233> 최근 1년 동안 돈이나 물건 빼앗기 경험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 1~2회	일주일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95.5	1.2	0.4	0.3	0.1	0.3	2.1
성별	남자	100(4,793)	95.0	1.5	0.6	0.5	0.2	0.5	1.8
	여자	100(4,925)	96.1	1.0	0.2	0.1	0.1	0.1	2.3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5.6	1.1	0.2	0.2	0.1	0.1	2.6
	중학교	100(3,257)	94.8	1.9	0.8	0.3	0.2	0.4	1.6
	고등학교	100(3,794)	96.1	0.7	0.2	0.4	0.2	0.3	2.1
거주지	서울	100(1,533)	96.1	1.2	0.3	0.4	0.3	0.3	1.5
	광역시	100(3,077)	95.6	1.0	0.3	0.1	0.1	0.4	2.4
	시·군	100(5,097)	95.3	1.4	0.5	0.4	0.1	0.2	2.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6.0	1.1	0.3	0.2	0.1	0.2	2.0
	한부모가정	100(868)	95.3	1.3	0.6	0.2	0.1	0.3	2.2
	조손가정	100(172)	90.1	1.7	1.7	1.7	0.6	1.2	2.9

2-1-4-④ 최근 1년 동안 집단 따돌림(왕따) 하기 경험빈도

<표 Ⅲ-234> 최근 1년 동안 집단 따돌림(왕따) 하기 경험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 1~2회	일주일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93.4	2.8	0.4	0.4	0.4	0.4	2.1
성별	남자	100(4,793)	93.1	3.0	0.5	0.4	0.5	0.6	1.9
	여자	100(4,925)	93.8	2.7	0.3	0.4	0.2	0.3	2.3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0.2	4.7	0.6	0.7	0.5	0.6	2.6
	중학교	100(3,257)	93.1	3.6	0.4	0.4	0.4	0.4	1.6
	고등학교	100(3,794)	95.9	0.9	0.3	0.2	0.2	0.4	2.1
거주지	서울	100(1,533)	91.4	4.7	0.6	0.5	0.7	0.5	1.5
	광역시	100(3,077)	94.3	1.9	0.4	0.4	0.3	0.4	2.3
	시·군	100(5,097)	93.5	2.8	0.4	0.4	0.3	0.5	2.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3.7	2.8	0.4	0.4	0.3	0.4	2.0
	한부모가정	100(868)	93.4	2.9	0.0	0.5	0.6	0.3	2.3
	조손가정	100(172)	89.0	4.1	1.2	1.2	0.6	1.2	2.9

2-1-4-⑤ 최근 1년 동안 사이버/휴대전화 폭력하기 경험빈도

<표 III-235> 최근 1년 동안 사이버/휴대전화 폭력하기 경험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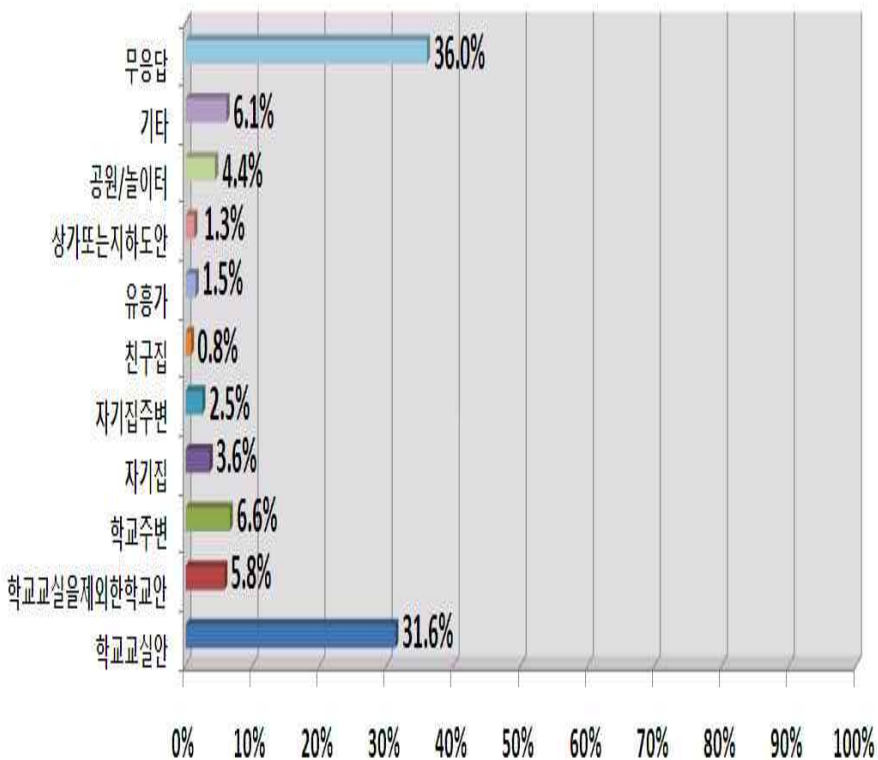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 1~2회	일주일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91.6	0.9	0.3	0.2	0.1	0.3	6.4
성별	남자	100(4,793)	93.1	1.1	0.5	0.4	0.2	0.6	4.3
	여자	100(4,925)	90.2	0.8	0.2	0.1	0.1	0.1	8.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5.5	1.1	0.3	0.2	0.0	0.2	2.7
	중학교	100(3,257)	89.4	1.2	0.4	0.3	0.2	0.3	8.1
	고등학교	100(3,794)	90.7	0.6	0.3	0.2	0.2	0.4	7.6
거주지	서울	100(1,533)	92.0	0.9	0.6	0.3	0.0	0.5	5.7
	광역시	100(3,077)	93.0	0.7	0.2	0.3	0.1	0.3	5.4
	시·군	100(5,097)	90.6	1.1	0.3	0.2	0.2	0.4	7.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1.7	1.0	0.3	0.3	0.1	0.2	6.4
	한부모가정	100(868)	92.3	0.5	0.1	0.0	0.1	0.5	6.6
	조손가정	100(172)	83.1	1.2	2.9	0.0	1.7	1.7	9.3

2-1-5 최근 1년 동안 폭력 가해 장소 - 지표 항목별 비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폭력 가해를 한 장소는 ‘학교 교실 안(31.6%)’, ‘학교주변(6.6%)’, ‘학교교실을 제외한 학교 안(5.8%)’ 순으로 응답하였음

○ 청소년들이 폭력 가해를 한 장소는 주로 학교 안팎이었다.

- 성별로는 자기 집과 친구 집에서만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학교 안에서 중학교가 가장 많았고, 유흥가에서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장소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가족구성별로는 자기 집, 자기집주변, 유흥가, 상가 또는 지하도 안에서 조손가정이 가장 많았다.



[그림 III-182] 최근 1년 동안 폭력 가해 장소

<표 III-236> 최근 1년 동안 폭력 가해 장소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학교교실안	학교교실을제외한학교안	학교주변	자기집	자기집주변
전체		100(1,986)	31.6	5.8	6.6	3.6	2.5
성별	남자	100(1,084)	38.1	6.8	8.2	3.3	2.9
	여자	100(900)	23.2	4.6	4.8	4.0	2.0
교육별	초등학교	100(550)	32.0	6.2	9.8	5.3	2.7
	중학교	100(783)	35.0	6.0	6.8	2.7	2.4
	고등학교	100(652)	26.4	5.2	3.8	3.4	2.3
거주지	서울	100(349)	30.4	8.0	6.9	6.3	3.4
	광역시	100(549)	35.9	6.0	5.6	0.9	2.4
	시·군	100(1,088)	29.3	5.0	7.1	4.1	2.2
가족구성	양부모정	100(1,616)	32.9	5.7	6.1	3.5	2.1
	한부모가정	100(184)	26.1	7.1	10.9	3.3	3.8
	조손가정	100(58)	17.2	6.9	3.4	8.6	5.2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친구집	유흥가	상가또는지하도안	공원/놀이터	기타	무응답
전체		100(1,986)	0.8	1.5	1.3	4.4	6.1	36.0
성별	남자	100(1,084)	0.6	2.2	1.6	4.5	6.1	25.6
	여자	100(900)	1.0	0.7	1.0	4.2	6.2	48.3
교육별	초등학교	100(550)	0.7	0.7	1.8	8.2	8.4	24.2
	중학교	100(783)	0.9	1.4	1.1	2.9	7.7	33.1
	고등학교	100(652)	0.8	2.3	1.1	2.9	2.5	49.4
거주지	서울	100(349)	0.6	0.9	1.7	4.0	10.3	27.5
	광역시	100(549)	0.4	1.5	1.1	3.1	4.4	38.8
	시·군	100(1,088)	1.1	1.7	1.3	5.1	5.7	37.3
가족구성	양부모정	100(1,616)	0.9	1.3	1.2	4.0	5.7	36.8
	한부모가정	100(184)	0.5	1.1	1.1	5.4	7.1	33.7
	조손가정	100(58)	0.0	3.4	6.9	5.2	6.9	36.2

2-16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부담한 폭력(신체적 체벌, 심한 욕설) 피해 경험률- 지표 항목별 비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부담하다고 생각되는 ‘신체적 체벌’은 10.8%가 경험하였고, ‘심한 욕설’은 10.9%가 경험하였음

○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부담하다고 생각되는 신체적 체벌과 심한 욕설을 10명 중 1명 정도로 경험하였다.

-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가장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이 가장 많았다.



신체적 체벌



심한 욕설

[그림 III-183]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부담한 폭력 피해 경험률

<표 III-237>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부담한 폭력 피해 경험률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신체적 체벌			심한 욕설		
			없다	있다	무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100(9,727)	87.7	10.8	1.6	87.4	10.9	1.8
성별	남자	100(4,793)	87.7	10.7	1.5	87.6	10.5	1.9
	여자	100(4,925)	87.7	10.8	1.5	87.2	11.2	1.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88.0	9.6	2.3	90.4	7.0	2.7
	중학교	100(3,257)	85.2	14.0	0.9	85.6	13.4	1.1
	고등학교	100(3,794)	89.5	8.9	1.6	86.8	11.5	1.7
거주지	서울	100(1,533)	84.9	14.1	1.0	84.9	14.2	0.8
	광역시	100(3,077)	89.4	8.8	1.8	89.3	8.7	1.9
	시군	100(5,097)	87.5	10.9	1.6	87.0	11.1	1.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7.7	10.8	1.5	87.8	10.6	1.6
	한부모가정	100(868)	88.5	9.7	1.8	87.0	11.1	2.0
	조손가정	100(172)	86.0	12.2	1.7	80.8	15.1	4.1

2-1-6-①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신체적 체벌 경험빈도

<표 III-238>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신체적 체벌 경험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87.7	5.9	2.5	1.5	0.4	0.4	1.6
성별	남자	100(4,793)	87.7	5.8	2.5	1.6	0.4	0.5	1.5
	여자	100(4,925)	87.7	6.0	2.6	1.5	0.3	0.4	1.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88.0	4.9	2.1	1.7	0.4	0.5	2.3
	중학교	100(3,257)	85.2	6.9	3.7	2.2	0.6	0.4	0.9
	고등학교	100(3,794)	89.5	5.7	1.8	0.9	0.1	0.3	1.6
거주지	서울	100(1,533)	84.9	7.0	4.1	1.9	0.4	0.7	1.0
	광역시	100(3,077)	89.4	5.2	1.8	1.3	0.2	0.3	1.8
	시·군	100(5,097)	87.5	6.0	2.5	1.5	0.5	0.4	1.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7.7	6.0	2.5	1.6	0.4	0.4	1.5
	한부모가정	100(868)	88.5	5.8	2.2	0.6	0.6	0.6	1.8
	조손가정	100(172)	86.0	4.7	3.5	2.3	1.2	0.6	1.7

2-1-6-②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심한욕설 경험빈도

<표 III-239>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심한욕설 경험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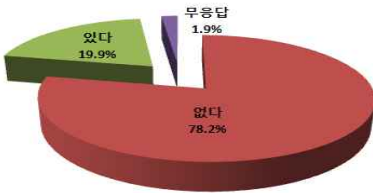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87.4	5.1	1.8	2.0	0.9	0.9	1.8
성별	남자	100(4,793)	87.6	4.8	1.7	2.1	0.9	1.0	1.9
	여자	100(4,925)	87.2	5.4	2.0	2.0	1.0	0.9	1.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0.4	3.7	1.1	1.1	0.5	0.6	2.7
	중학교	100(3,257)	85.6	6.2	1.9	2.7	1.4	1.2	1.1
	고등학교	100(3,794)	86.8	5.2	2.3	2.2	0.9	0.9	1.7
거주지	서울	100(1,533)	84.9	6.1	2.8	2.8	1.4	1.2	0.8
	광역시	100(3,077)	89.3	4.2	1.4	1.8	0.7	0.6	1.9
	시·군	100(5,097)	87.0	5.3	1.8	2.0	1.0	1.0	1.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7.8	5.0	1.7	2.2	0.9	0.9	1.6
	한부모가정	100(868)	87.0	4.5	2.1	1.6	1.5	1.4	2.0
	조손가정	100(172)	80.8	7.0	4.1	0.6	1.7	1.7	4.1

2-1-7 최근 1년 동안 교사로부터 부담한 폭력(신체적 체벌, 심한 욕설) 피해 경험률- 지표 항목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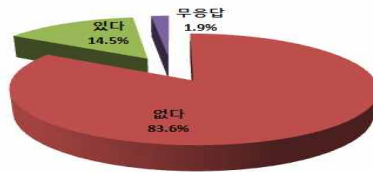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교사로부터 부담하다고 생각되는 ‘신체적 체벌’은 19.9% 경험하였고, ‘심한 욕설’은 14.5%가 경험하였음

○ 청소년들은 교사로부터 부담하다고 생각되는 폭력을 15~20% 정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았다.



신체적 체벌



심한 욕설

[그림 III-184] 최근 1년 동안 교사로부터 부담한 폭력 경험률

<표 III-240> 최근 1년 동안 교사로부터 부담한 폭력 경험률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신체적 체벌			심한 욕설		
			없다	있다	무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100(9,727)	78.3	19.9	1.9	83.6	14.5	1.9
성별	남자	100(4,793)	74.4	23.7	1.9	81.6	16.4	2.0
	여자	100(4,925)	82.1	16.1	1.8	85.6	12.6	1.8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0.7	6.5	2.8	92.4	4.8	2.8
	중학교	100(3,257)	74.1	24.5	1.3	82.1	16.4	1.5
	고등학교	100(3,794)	73.1	25.3	1.7	78.6	19.7	1.7
거주지	서울	100(1,533)	77.9	21.2	0.9	84.5	14.4	1.0
	광역시	100(3,077)	78.6	19.3	2.1	83.7	14.2	2.1
	시·군	100(5,097)	78.2	19.8	2.0	83.3	14.6	2.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78.2	20.1	1.7	83.8	14.4	1.8
	한부모가정	100(868)	78.5	19.6	2.0	83.4	14.4	2.2
	조손가정	100(172)	77.3	19.8	2.9	80.2	16.9	2.9

2-1-7-① 최근 1년 동안 교사로부터 신체적 체벌 경험빈도

<표 III-241> 최근 1년 동안 교사로부터 신체적 체벌 경험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78.3	7.3	3.3	4.2	2.8	2.3	1.9
성별	남자	100(4,793)	74.4	7.4	3.9	5.4	3.8	3.1	1.9
	여자	100(4,925)	82.1	7.1	2.7	3.0	1.8	1.5	1.8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0.7	3.1	0.9	1.0	1.1	0.4	2.8
	중학교	100(3,257)	74.1	8.7	4.0	5.3	3.3	3.2	1.3
	고등학교	100(3,794)	73.1	9.0	4.3	5.5	3.5	3.0	1.7
거주지	서울	100(1,533)	77.9	9.0	3.2	4.4	1.9	2.8	0.9
	광역시	100(3,077)	78.6	7.1	3.2	4.2	2.9	1.9	2.1
	시·군	100(5,097)	78.2	6.9	3.4	4.2	2.9	2.4	2.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78.2	7.5	3.2	4.2	2.9	2.3	1.7
	한부모가정	100(868)	78.5	6.9	3.7	4.4	2.2	2.4	2.0
	조손가정	100(172)	77.3	4.1	6.4	5.2	2.3	1.7	2.9

2-1-7-② 최근 1년 동안 교사로부터 심한욕설 경험빈도

<표 III-242> 최근 1년 동안 교사로부터 심한욕설 경험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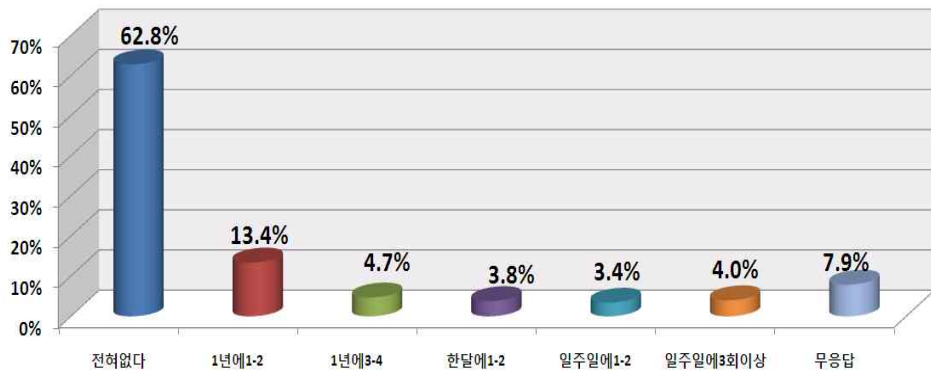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83.6	6.1	2.1	2.2	1.9	2.2	1.9
성별	남자	100(4,793)	81.6	5.7	2.3	2.9	2.3	3.2	2.0
	여자	100(4,925)	85.6	6.5	1.8	1.6	1.5	1.2	1.8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2.4	1.9	0.5	0.6	1.0	0.7	2.8
	중학교	100(3,257)	82.1	6.6	2.1	2.5	2.2	3.0	1.5
	고등학교	100(3,794)	78.6	8.6	3.1	3.2	2.3	2.5	1.7
거주지	서울	100(1,533)	84.5	6.8	2.2	2.3	1.4	1.8	1.0
	광역시	100(3,077)	83.7	5.9	2.1	2.2	1.7	2.3	2.1
	시·군	100(5,097)	83.3	5.9	2.0	2.3	2.2	2.2	2.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3.8	6.1	2.0	2.3	1.9	2.1	1.8
	한부모가정	100(868)	83.4	6.2	2.3	2.2	1.7	2.0	2.2
	조손가정	100(172)	80.2	6.4	2.9	3.5	2.9	1.2	2.9

2-1-8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방임 경험 빈도(중·고등학생 제외)

우리나라 아동들 중 29.3%는 12시간 이상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경험이 있음

○ 우리나라 아동들 중 30% 정도가 방임 경험이 있었다.

-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과 한 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185]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방임 경험 빈도

<표 III-243>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방임 경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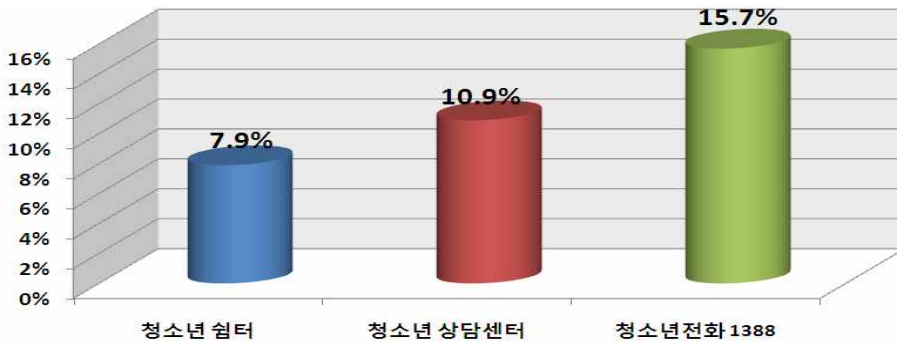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2,643)	62.8	13.4	4.7	3.8	3.4	4.0	7.9
성별	남자	100(1,345)	57.3	15.7	5.8	4.8	3.8	4.9	7.7
	여자	100(1,292)	68.7	11.1	3.6	2.7	3.1	3.0	7.8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62.8	13.4	4.7	3.8	3.4	4.0	7.9
거주지	서울	100(422)	65.4	14.9	5.2	2.4	3.6	4.3	4.3
	광역시	100(741)	63.8	12.6	3.5	5.0	2.6	3.5	9.0
	시·군	100(1,480)	61.6	13.4	5.1	3.6	3.9	4.1	8.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2,148)	63.8	13.5	4.8	3.9	2.8	3.7	7.5
	한부모가정	100(163)	57.1	15.3	2.5	3.1	7.4	5.5	9.2
	조손가정	100(54)	59.3	13.0	7.4	5.6	5.6	1.9	7.4

2-1-9 청소년 보호시설 인지 여부

우리나라 청소년 중 청소년 보호시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청소년전화 1388(15.7%)’, ‘청소년상담센터(10.9%)’, ‘청소년쉼터(7.9%)’ 순이었음

○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잘 알았고, 교급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더 잘 알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이 양부모가정과 한 부모가정보다 더 잘 알았다.



[그림 III-186] 청소년 보호시설 인지 여부

<표 III-244> 청소년 보호시설 인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전화 1388
전체		100(9,727)	7.9	10.9	15.7
성별	남자	100(4,793)	7.8	10.1	14.1
	여자	100(4,925)	8.1	11.7	17.2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10.8	13.8	22.5
	중학교	100(3,257)	6.0	10.2	14.5
	고등학교	100(3,794)	7.5	9.5	11.9
거주지	서울	100(1,533)	7.5	9.7	13.4
	광역시	100(3,077)	7.9	10.8	14.9
	시·군	100(5,097)	8.1	11.4	16.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7.6	11.0	15.6
	한부모가정	100(868)	8.5	10.6	15.2
	조손가정	100(172)	11.6	11.0	19.2

2-1-9-① 청소년 쉼터 인지 여부

<표 III-245> 청소년 쉼터 인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모른다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장소나 이용방법을 모른다	잘 알고 있다	무응답
전체		100(9,727)	54.2	37.2	7.9	0.7
성별	남자	100(4,793)	60.0	31.4	7.8	0.8
	여자	100(4,925)	48.5	42.8	8.1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55.9	31.9	10.8	1.4
	중학교	100(3,257)	57.6	35.9	6.0	0.5
	고등학교	100(3,794)	50.1	41.9	7.5	0.5
거주지	서울	100(1,533)	55.6	36.8	7.5	0.2
	광역시	100(3,077)	53.5	37.8	7.9	0.8
	시·군	100(5,097)	54.1	36.9	8.1	0.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54.1	37.7	7.6	0.6
	한부모가정	100(868)	52.2	38.4	8.5	0.9
	조손가정	100(172)	57.0	30.2	11.6	1.2

2-1-9-② 청소년 상담센터 인지 여부

<표 III-246> 청소년 상담센터 인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모른다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장소나 이용방법을 모른다	잘 알고 있다	무응답
전체		100(9,727)	41.0	47.3	10.9	0.8
성별	남자	100(4,793)	49.2	39.8	10.1	0.9
	여자	100(4,925)	33.0	54.6	11.7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45.6	39.2	13.8	1.5
	중학교	100(3,257)	41.6	47.7	10.2	0.5
	고등학교	100(3,794)	37.3	52.6	9.5	0.6
거주지	서울	100(1,533)	42.9	47.0	9.7	0.3
	광역시	100(3,077)	39.8	48.6	10.8	0.8
	시·군	100(5,097)	41.1	46.6	11.4	0.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40.1	48.2	11.0	0.6
	한부모가정	100(868)	41.0	47.2	10.6	1.2
	조손가정	100(172)	45.9	40.7	11.0	2.3

2-1-9-③ 청소년전화 1388 인지 여부

<표 III-247> 청소년전화 1388 인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모른다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장소나 이용방법을 모른다	잘 알고 있다	무응답
전체		100(9,727)	40.6	42.8	15.7	0.8
성별	남자	100(4,793)	49.2	35.8	14.1	0.9
	여자	100(4,925)	32.3	49.7	17.2	0.8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43.3	32.5	22.5	1.6
	중학교	100(3,257)	39.9	45.0	14.5	0.6
	고등학교	100(3,794)	39.6	47.9	11.9	0.5
거주지	서울	100(1,533)	45.8	40.4	13.4	0.4
	광역시	100(3,077)	39.8	44.3	14.9	0.9
	시·군	100(5,097)	39.6	42.7	16.8	0.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39.9	43.8	15.6	0.7
	한부모가정	100(868)	41.2	42.4	15.2	1.2
	조손가정	100(172)	43.0	35.5	19.2	2.3

2-1-10 최근 1년 동안 가출 경험여부 및 횟수

2-1-10-① 최근 1년 동안 가출 경험여부

우리나라 청소년 중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3% 이었음

○ 최근 1년 동안 가출 경험여부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5.1%)가 여자(3.6%)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이상 4.9%)가 초등학교(2.8%)보다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12.2%), 한부모가정(5.4%), 양부모가정(3.7%)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187] 최근 1년 동안 가출 경험여부

<표 III-248> 최근 1년 동안 가출 경험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없음	경험있음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88.5	4.3	7.2	
성별	남자	100(4,793)	88.0	5.1	6.9	13.117***
	여자	100(4,925)	89.0	3.6	7.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89.2	2.8	8.1	20.395***
	중학교	100(3,257)	87.4	4.9	7.8	
	고등학교	100(3,794)	89.0	4.9	6.1	
거주지	서울	100(1,533)	88.5	4.2	7.3	1.296
	광역시	100(3,077)	88.7	4.0	7.3	
	시·군	100(5,097)	88.4	4.5	7.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9.4	3.7	6.9	37.882***
	한부모가정	100(868)	87.3	5.4	7.3	
	조손가정	100(172)	78.5	12.2	9.3	

*** $p<.001$

2-1-10-② 최근 1년 동안 평균 가출 경험횟수

○ 우리나라 청소년의 최근 1년 동안 평균 가출 경험횟수는 2.62회이었다.

- 성별로는 남자(2.83회)가 여자(2.33회)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중학교(2.83회), 초등학교(2.61회), 고등학교(2.44회) 순으로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시·군(2.81회), 광역시(2.62회), 서울(2.03회) 순으로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3.22회)이 양부모가정(2.46회)과 한부모가정(2.44회)보다 많았다.

<표 III-249> 최근 1년 동안 평균 가출 경험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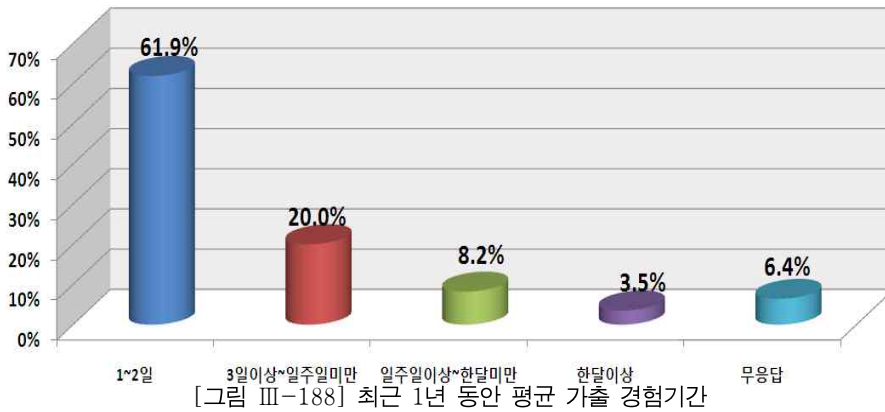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평균 가출 경험횟수
전체		100(9,727)	2.62
성별	남자	100(4,793)	2.83
	여자	100(4,925)	2.33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2.61
	중학교	100(3,257)	2.83
	고등학교	100(3,794)	2.44
거주지	서울	100(1,533)	2.03
	광역시	100(3,077)	2.62
	시·군	100(5,097)	2.8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2.46
	한부모가정	100(868)	2.44
	조손가정	100(172)	3.22

2-1-11 최근 1년 동안 평균 가출한 기간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 가출한 기간은 ‘1~2일’ 61.9%,
‘3일이상~일주일미만’ 20.0%, ‘일주일이상~한달미만’ 8.2%,
‘한 달이상’ 3.5% 이었음**

○ 우리나라 청소년 중 최근 1년 동안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31.7%가 평균 3일 이상 가출하였다.

- 교급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가출 기간이 길었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 양부모가정 순으로 가출 기간이 길었다.



<표 III-250> 최근 1년 동안 평균 가출 경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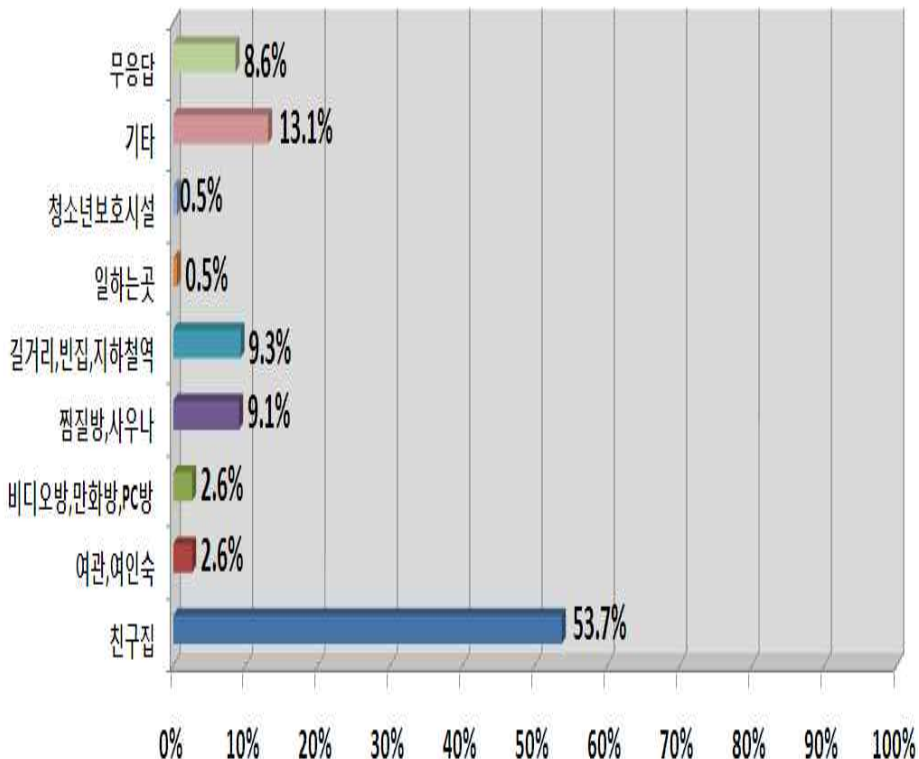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1~2일	3일이상~일 주일미만	일주일이상~ 한달미만	한달이상	무응답
전체		100(425)	61.9	20.0	8.2	3.5	6.4
성별	남자	100(247)	60.7	19.8	9.3	2.0	8.1
	여자	100(178)	63.5	20.2	6.7	5.6	3.9
교급별	초등학교	100(73)	75.3	6.8	0.0	0.0	17.8
	중학교	100(163)	68.1	18.4	7.4	1.8	4.3
	고등학교	100(188)	51.1	26.6	12.2	6.4	3.7
거주지	서울	100(68)	64.7	20.6	8.8	2.9	2.9
	광역시	100(124)	58.1	16.9	9.7	4.8	10.5
	시·군	100(233)	63.1	21.5	7.3	3.0	5.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304)	64.5	20.4	7.6	1.3	6.3
	한부모가정	100(47)	59.6	19.1	10.6	6.4	4.3
	조손가정	100(22)	59.1	13.6	0.0	18.2	9.1

2-1-12 최근 1년 동안 가출 중 주로 잠을 잔 곳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가출 중에 주로 잠을 잔 곳은 ‘친구집’이 53.7%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빈집/지하철역’이 9.3%, ‘찜질방/사우나’가 9.1%이었음

○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절반 이상 친구 집에서 잠을 잤고,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잠을 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성별로는 여자(68.7%)가 남자(48.0%)보다 친구 집에서 더 많이 잠을 잤고, 여관/여인숙, 찜질방/사우나, 비디오방/만화방/PC방, 길거리/빈집/지하철역 등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잠을 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I-189] 최근 1년 동안 가출 중 주로 잠을 잔 곳

<표 Ⅲ-251> 최근 1년 동안 가출 중 주로 잠을 잔 곳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친구집	여관, 여인숙	비디오방/만화방 /PC방	찜질방, 사우나
전체		100(428)	53.7	2.6	2.6	9.1
성별	남자	100(249)	43.0	4.4	3.6	11.2
	여자	100(179)	68.7	0.0	1.1	6.1
교육별	초등학교	100(77)	39.0	0.0	3.9	3.9
	중학교	100(163)	56.4	1.2	0.6	9.2
	고등학교	100(187)	57.8	4.8	3.7	11.2
거주지	서울	100(70)	42.9	0.0	0.0	11.4
	광역시	100(125)	51.2	7.2	1.6	8.8
	시·군	100(233)	58.4	0.9	3.9	8.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306)	55.2	2.6	2.0	10.1
	한부모가정	100(48)	60.4	2.1	0.0	6.3
	조손가정	100(21)	52.4	0.0	14.3	0.0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길거리/빈집 /지하철역	일하는곳	청소년 보호시설	기타	무응답
전체		100(428)	9.3	0.5	0.5	13.1	8.6
성별	남자	100(249)	12.0	0.4	0.8	14.5	10.0
	여자	100(179)	5.6	0.6	0.0	11.2	6.7
교육별	초등학교	100(77)	10.4	0.0	0.0	28.6	14.3
	중학교	100(163)	10.4	0.6	0.6	12.9	8.0
	고등학교	100(187)	7.5	0.5	0.5	7.0	7.0
거주지	서울	100(70)	22.9	0.0	0.0	15.7	7.1
	광역시	100(125)	7.2	0.8	0.0	12.0	11.2
	시·군	100(233)	6.4	0.4	0.9	12.9	7.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306)	9.8	0.0	0.3	11.4	8.5
	한부모가정	100(48)	4.2	2.1	0.0	14.6	10.4
	조손가정	100(21)	14.3	0.0	4.8	9.5	4.8

2-1-13 최근 1년 동안 가출 중 피해 여부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가출 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3%이었음**

○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가출 중 피해 여부는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는 초등학교(10.8%), 고등학교(2.8%), 중학교(0.6%) 순으로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8.7%), 한 부모가정(2.0%), 양부모가정(1.4%)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190] 최근 1년 동안 가출 피해 여부

<표 III-252> 최근 1년 동안 가출 피해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없음	있음	무응답	χ^2
전체		100(479)	91.9	3.3	4.8	
성별	남자	100(281)	89.0	4.6	6.4	3.775
	여자	100(198)	96.0	1.5	2.5	
교급별	초등학교	100(83)	79.5	10.8	9.6	20.531***
	중학교	100(181)	93.4	0.6	6.1	
	고등학교	100(214)	95.3	2.8	1.9	
거주지	서울	100(79)	93.7	5.1	1.3	1.169
	광역시	100(139)	91.4	2.2	6.5	
	시·군	100(261)	91.6	3.4	5.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346)	93.9	1.4	4.6	6.461*
	한부모가정	100(50)	96.0	2.0	2.0	
	조손가정	100(23)	82.6	8.7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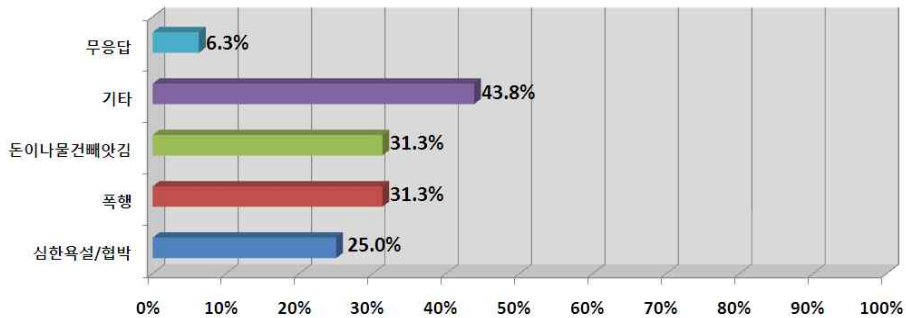
* $p<.05$, *** $p<.001$

2-1-14 최근 1년 동안 가출 중 경험한 피해 유형(중복응답)

가출 중에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피해 유형은 ‘폭행과 돈이나 물건 빼앗김’이 각각 31.3%, ‘심한욕설 및 협박’이 25.0%이었음

○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가출 중 경험한 피해 유형은 폭행과 돈이나 물건 빼앗김이 가장 많았다.

- 심한욕설/협박, 폭행, 돈이나 물건 빼앗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고, 남학생이 기타(53.8%)에 많이 응답하였다.



[그림 III-191] 최근 1년 동안 가출 중 경험한 피해 유형

<표 III-253> 최근 1년 동안 가출 중 경험한 피해 유형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심한 욕설 /협박	폭행	돈이나물건 빼앗김	기타	무응답
전체		100(16)	25.0	31.3	31.3	43.8	6.3
성별	남자	100(13)	23.1	30.8	30.8	53.8	7.7
	여자	100(3)	33.3	33.3	33.3	0.0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9)	22.2	11.1	22.2	44.4	0.0
	중학교	100(1)	0.0	0.0	100.0	0.0	0.0
	고등학교	100(6)	33.3	66.7	33.3	50.0	16.7
거주지	서울	100(4)	25.0	25.0	50.0	50.0	0.0
	광역시	100(3)	33.3	33.3	0.0	33.3	33.3
	시·군	100(9)	22.2	33.3	33.3	44.4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5)	0.0	0.0	40.0	60.0	0.0
	한부모가정	100(1)	0.0	100.0	0.0	100.0	0.0
	조손가정	100(2)	50.0	50.0	0.0	0.0	0.0

2-1-15-① 최근 1년 동안 무단결석 여부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아무 이유 없이
학교에 가지 않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이었음**

○ 최근 1년 동안 무단결석 여부는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는 고등학교(4.0%), 중학교(2.6%), 초등학교(2.2%) 순으로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6.4%), 한 부모가정(6.1%), 양부모가정(2.4%) 순으로 많았다.



[그림 Ⅲ-192] 최근 1년 동안 무단결석 여부

<표 Ⅲ-254> 최근 1년 동안 무단결석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없음	있음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90.8	3.0	6.2	
성별	남자	100(4,793)	90.1	3.2	6.7	1.338
	여자	100(4,925)	91.4	2.8	5.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0.9	2.2	6.9	18.069***
	중학교	100(3,257)	90.6	2.6	6.8	
	고등학교	100(3,794)	90.8	4.0	5.3	
거주지	서울	100(1,533)	91.7	3.6	4.7	1.931
	광역시	100(3,077)	90.9	2.9	6.2	
	시·군	100(5,097)	90.4	2.9	6.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1.5	2.4	6.1	45.914***
	한부모가정	100(868)	87.7	6.1	6.2	
	조손가정	100(172)	86.6	6.4	7.0	

*** $p<.001$

2-1-15-② 최근 1년 동안 평균 무단결석 일수

○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무단결석 일수는 7.12일이었다.

- 성별로는 남자(8.73일)가 여자(5.34일)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중학교(8.82일), 고등학교(7.86일), 초등학교(2.84일) 순으로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시·군(9.05일), 광역시(5.92일), 서울(3.77일) 순으로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8.05일), 양부모가정(7.65일), 한 부모가정(6.11일) 순으로 많았다.

<표 III-255> 최근 1년 동안 평균 무단결석 일수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평균 무단결석 일수
전체		100(9,727)	7.12
성별	남자	100(4,793)	8.73
	여자	100(4,925)	5.3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2.84
	중학교	100(3,257)	8.82
	고등학교	100(3,794)	7.86
거주지	서울	100(1,533)	3.77
	광역시	100(3,077)	5.92
	시·군	100(5,097)	9.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7.65
	한부모가정	100(868)	6.11
	조손가정	100(172)	8.05

2-1-16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경험 여부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이었음**

○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경험여부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2.3%)가 남자(1.7%)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고등학교(2.3%), 중학교(2.2%), 초등학교(1.3%) 순으로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2.8%), 시·군(1.9%), 광역시(1.8%)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193]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경험 여부

<표 III-256>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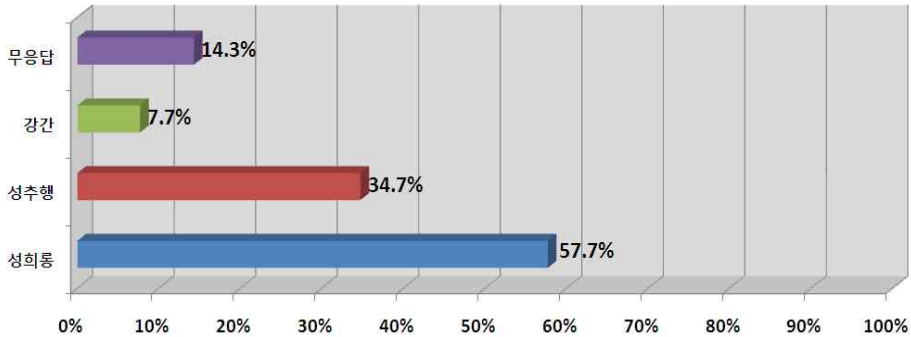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없음	있음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95.8	2.0	2.2	
성별	남자	100(4,793)	95.5	1.7	2.9	4.381*
	여자	100(4,925)	96.3	2.3	1.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4.8	1.3	3.9	8.914*
	중학교	100(3,257)	96.0	2.2	1.8	
	고등학교	100(3,794)	96.4	2.3	1.2	
거주지	서울	100(1,533)	95.8	2.8	1.4	6.182*
	광역시	100(3,077)	95.8	1.8	2.3	
	시·군	100(5,097)	95.8	1.9	2.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6.3	1.9	1.8	2.603
	한부모가정	100(868)	94.4	2.6	3.0	
	조손가정	100(172)	91.3	1.7	7.0	

* $p < .05$

2-1-17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유형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유형은
성희롱 57.7%, 성추행 34.7%, 강간 7.7%이었음**

-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유형 중 성희롱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성희롱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교급별로는 성추행과 강간은 연령이 많을수록 더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보다 성추행과 강간이 많았다.



[그림 III-194]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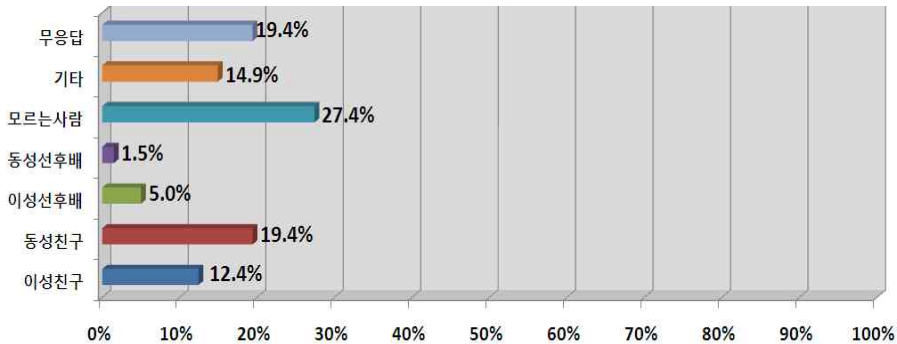
<표 III-257>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유형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성희롱	성추행	강간	무응답
전체		100(196)	57.7	34.7	7.7	14.3
성별	남자	100(81)	50.6	34.6	9.9	22.2
	여자	100(115)	62.6	34.8	6.1	8.7
교급별	초등학교	100(34)	55.9	29.4	5.9	20.6
	중학교	100(71)	63.4	32.4	7.0	15.5
	고등학교	100(90)	53.3	38.9	8.9	11.1
거주지	서울	100(45)	66.7	40.0	6.7	6.7
	광역시	100(56)	51.8	32.1	5.4	17.9
	시·군	100(95)	56.8	33.7	9.5	15.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154)	61.7	32.5	6.5	13.0
	한부모가정	100(23)	43.5	43.5	4.3	21.7
	조손가정	100(3)	0.0	66.7	33.3	0.0

2-1-18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입힌 상대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힌 상대는 ‘모르는 사람(27.4%)’, ‘동성친구(19.4%)’, ‘이성친구(12.4%)’, ‘이성 선후배(5.0%)’, ‘동성 선후배(1.5%)’ 순이었음

- 청소년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를 입힌 경우가 27.4%이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모르는 사람(37.1%)이 많았고, 남자는 동성친구(34.1%)가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경우 동성친구(29.2%)가 많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르는 사람(각각 27.0%, 35.2%)이 많았다.



[그림 III-195]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입힌 상대

<표 III-258>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입힌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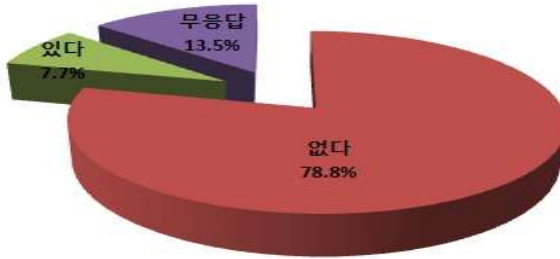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이성친구	동성친구	이성선후배	동성선후배	모르는 사람	기타	무응답
전체		100(201)	12.4	19.4	5.0	1.5	27.4	14.9	19.4
성별	남자	100(85)	7.1	34.1	4.7	2.4	14.1	14.1	23.5
	여자	100(116)	16.4	8.6	5.2	0.9	37.1	15.5	16.4
교급별	초등학교	100(37)	13.5	10.8	5.4	2.7	27.0	21.6	18.9
	중학교	100(72)	13.9	29.2	5.6	1.4	18.1	9.7	22.2
	고등학교	100(91)	11.0	15.4	3.3	1.1	35.2	16.5	17.6
거주지	서울	100(45)	8.9	20.0	6.7	2.2	31.1	17.8	13.3
	광역시	100(57)	5.3	21.1	7.0	0.0	35.1	14.0	17.5
	사군	100(99)	18.2	18.2	3.0	2.0	21.2	14.1	23.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155)	12.9	20.0	5.2	0.0	29.0	12.9	20.0
	한부모가정	100(26)	11.5	23.1	3.8	0.0	23.1	23.1	15.4
	조손가정	100(3)	0.0	33.3	0.0	33.3	33.3	0.0	0.0

2-1-19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이후 치료 여부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 이후에 상담, 병원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는 7.7% 이었음

○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이후 치료 여부는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는 초등학교(23.1%), 고등학교(5.4%), 중학교(2.7%) 순으로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50.0%), 한 부모가정(7.7%), 양부모가정(6.9%)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196]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이후 치료 여부

<표 III-259>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이후 치료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받지 않았다	받았다	무응답	χ^2
전체		100(207)	78.7	7.7	13.5	
성별	남자	100(91)	72.5	11.0	16.5	2.889
	여자	100(116)	83.6	5.2	11.2	
교급별	초등학교	100(39)	71.8	23.1	5.1	13.957**
	중학교	100(75)	80.0	2.7	17.3	
	고등학교	100(92)	80.4	5.4	14.1	
거주지	서울	100(45)	77.8	15.6	6.7	4.092
	광역시	100(60)	81.7	5.0	13.3	
	시·군	100(102)	77.5	5.9	16.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159)	78.6	6.9	14.5	8.177*
	한부모가정	100(26)	80.8	7.7	11.5	
	조손가정	100(4)	50.0	5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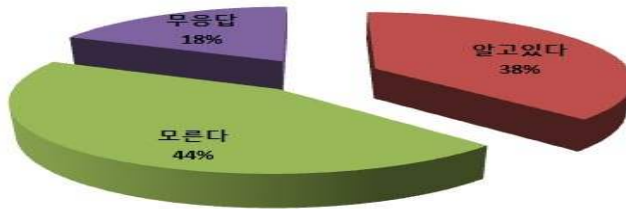
* $p<.05$, ** $p<.01$

2-1-20 성폭력 피해 후 도움 줄 수 있는 기관 및 방법 인지 여부

**청소년들 중 성폭력 피해 후 도움 줄 수 있는
기관 및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는 37.4%이었음**

○ 성폭력 피해 후 도움 줄 수 있는 기관 방법 및 인지 여부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39.7%)가 남자(35.1%)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60.8%), 중학교(33.2%), 고등학교(24.8%) 순으로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과 시·군(이상 37.7%)이 광역시(36.8%)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38.1%), 조손가정(34.3%), 한 부모가정(29.6%) 순으로 많았다.



[그림 Ⅲ-197]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후 도움 줄 수 있는 기관 및 방법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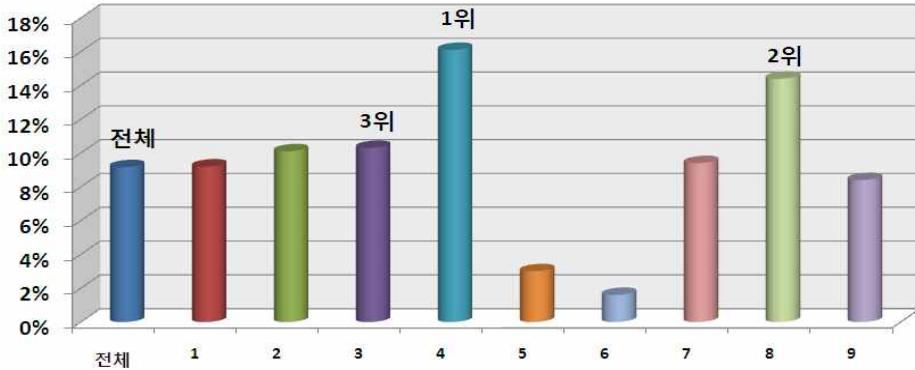
<표 Ⅲ-260>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 후 도움 줄 수 있는 기관 및 방법 인지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모른다	알고있다	무응답	χ^2
전체		100(9,727)	44.3	37.4	18.3	
성별	남자	100(4,793)	45.1	35.1	19.8	12.502***
	여자	100(4,925)	43.6	39.7	16.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27.5	60.8	11.7	746.516***
	중학교	100(3,257)	48.3	33.2	18.6	
	고등학교	100(3,794)	52.5	24.8	22.7	
거주지	서울	100(1,533)	46.8	37.7	15.5	747.807***
	광역시	100(3,077)	43.3	36.8	19.9	
	시·군	100(5,097)	44.1	37.7	18.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43.6	38.1	18.3	23.254***
	한부모가정	100(868)	50.1	29.6	20.3	
	조손가정	100(172)	45.9	34.3	19.8	

*** $p<.001$

2-1-21 최근 한 달 동안 유해매체 이용 빈도

청소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1회 이상 유해매체를 이용한 경우는 ‘TV에서 보는 19세미만 시청불가 방송(16.1%)’, ‘19세미만 이용불가 게임(14.4%)’, ‘음란인터넷사이트(10.3%)’, ‘성인용비디오/영화/DVD(10.1%)’ 순이었음



[그림 III-198] 최근 한 달 동안 유해매체 이용 빈도

<표 III-261> 최근 한 달 동안 유해매체 이용 빈도

번호	문항	전체 (빈도)	전혀 이용 하지 않았다	한달 에 1~2회	일주 일에 1~2회	일주 일에 3회 이상	무응답
1	“19세미만 구독불가” 표시된 성인용 간행물(만화, 소설, 잡지책 등)	100(9,727)	90.1	5.9	1.8	1.5	0.7
2	성인용 비디오, 영화, DVD	100(4,793)	89.2	6.7	2.1	1.3	0.7
3	음란인터넷사이트(“19세미만 이용불가”)	100(4,925)	88.9	6.6	2.3	1.4	0.8
4	TV에서 보는 “19세미만 시청불가” 표시된 방송프로그램	100(2,643)	83.2	11.7	3.0	1.4	0.7
5	핸드폰에서 보는 성인용 만화, 소설, 사진, 동영상, 모바일, “19세미만 시청불가” 표시된 방송프로그램 등	100(3,257)	96.3	1.7	0.6	0.7	0.7
6	성관련 폰팅, 채팅(화상채팅포함) 성매매 유도형 전화번호 광고	100(3,794)	97.7	0.8	0.3	0.5	0.7
7	온라인 사행성(도박) 게임	100(1,533)	89.9	6.8	1.5	1.1	0.7
8	“19세미만 이용불가”(폭력, 선정성) 게임	100(3,077)	84.9	7.4	3.6	3.4	0.8
9	P2P, 웹하드 등을 통해 보는 “19세미만 이용불가” 음란물이나 폭력물	100(5,097)	90.7	4.6	2.2	1.6	0.8
	전체	100(8,128)	90.10	5.80	1.93	1.43	0.73

2-1-21-① 최근 한 달 동안 “19세미만 구독불가” 표시된 성인용간행물 이용 빈도

<표 III-262> 최근 한 달 동안 “19세미만 구독불가” 표시된 성인용간행물 이용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이용 하지 않았다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90.1	5.9	1.8	1.5	0.7
성별	남자	100(4,793)	85.7	8.2	3.0	2.3	0.8
	여자	100(4,925)	94.4	3.7	0.6	0.8	0.5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8.0	1.0	0.0	0.1	0.9
	중학교	100(3,257)	90.6	5.8	1.3	1.8	0.5
	고등학교	100(3,794)	84.1	9.4	3.5	2.3	0.7
거주지	서울	100(1,533)	91.1	5.1	1.7	1.7	0.4
	광역시	100(3,077)	88.2	7.2	2.2	1.9	0.6
	시·군	100(5,097)	90.9	5.4	1.6	1.3	0.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0.8	5.4	1.9	1.4	0.6
	한부모가정	100(868)	85.4	10.3	2.1	1.8	0.5
	조손가정	100(172)	89.0	7.0	0.0	2.9	1.2

2-1-21-② 최근 한 달 동안 성인용 비디오, 영화, DVD 이용 빈도

<표 III-263> 최근 한 달 동안 성인용 비디오, 영화, DVD 이용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이용 하지 않았다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89.2	6.7	2.1	1.3	0.7
성별	남자	100(4,793)	83.7	9.4	3.7	2.4	0.8
	여자	100(4,925)	94.6	4.0	0.5	0.3	0.6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6.4	2.2	0.2	0.2	1.0
	중학교	100(3,257)	92.4	4.3	1.4	1.4	0.6
	고등학교	100(3,794)	81.4	11.9	4.1	2.1	0.7
거주지	서울	100(1,533)	89.0	6.8	2.3	1.4	0.6
	광역시	100(3,077)	87.6	7.4	2.7	1.7	0.6
	시·군	100(5,097)	90.2	6.2	1.6	1.1	0.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9.8	6.2	2.1	1.2	0.6
	한부모가정	100(868)	85.5	9.8	2.5	1.5	0.7
	조손가정	100(172)	87.8	7.0	1.2	2.3	1.7

2-1-21-③ 최근 한 달 동안 음란인터넷사이트 이용 빈도

<표 Ⅲ-264> 최근 한 달 동안 음란인터넷사이트 이용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이용 하지 않았다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88.9	6.6	2.3	1.4	0.8
성별	남자	100(4,793)	81.2	11.2	4.2	2.5	0.9
	여자	100(4,925)	96.4	2.2	0.4	0.4	0.6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8.0	0.9	0.2	0.0	0.9
	중학교	100(3,257)	89.3	6.8	1.6	1.7	0.6
	고등학교	100(3,794)	82.2	10.5	4.3	2.2	0.8
거주지	서울	100(1,533)	90.5	5.8	1.5	1.4	0.7
	광역시	100(3,077)	86.7	7.6	3.3	1.8	0.6
	사·군	100(5,097)	89.8	6.3	1.8	1.2	0.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9.2	6.5	2.3	1.3	0.7
	한부모가정	100(868)	86.5	8.9	1.8	2.0	0.8
	조손가정	100(172)	89.0	5.2	1.2	2.9	1.7

2-1-21-④ 최근 한 달 동안 “19세미만 시청불가” 방송프로그램 이용 빈도

<표 Ⅲ-265> 최근 한 달 동안 “19세미만 시청불가” 방송프로그램 이용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이용 하지 않았다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83.2	11.7	3.0	1.4	0.7
성별	남자	100(4,793)	78.9	13.8	4.4	2.1	0.8
	여자	100(4,925)	87.4	9.7	1.6	0.7	0.6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4.1	2.9	1.5	0.5	1.0
	중학교	100(3,257)	87.9	8.7	1.8	1.1	0.5
	고등학교	100(3,794)	71.5	20.6	5.0	2.2	0.7
거주지	서울	100(1,533)	85.0	10.8	2.5	1.2	0.5
	광역시	100(3,077)	80.2	14.0	3.4	1.9	0.6
	사·군	100(5,097)	84.5	10.7	2.9	1.1	0.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3.7	11.7	2.9	1.1	0.6
	한부모가정	100(868)	77.6	15.6	3.7	2.3	0.8
	조손가정	100(172)	83.1	9.3	1.7	4.7	1.2

2-1-21-⑤ 최근 한 달 동안 “19세미만 시청불가” 핸드폰 모바일 이용 빈도

<표 III-266> 최근 한 달 동안 “19세미만 시청불가” 핸드폰 모바일 이용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이용 하지 않았다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96.3	1.7	0.6	0.7	0.7
성별	남자	100(4,793)	95.0	2.4	0.9	1.0	0.7
	여자	100(4,925)	97.7	1.0	0.4	0.3	0.6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8.4	0.3	0.1	0.1	1.0
	중학교	100(3,257)	96.2	2.0	0.6	0.8	0.5
	고등학교	100(3,794)	94.9	2.3	1.0	0.9	0.7
거주지	서울	100(1,533)	96.8	1.4	0.6	0.6	0.5
	광역시	100(3,077)	96.2	1.9	0.6	0.7	0.6
	시·군	100(5,097)	96.2	1.6	0.7	0.6	0.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6.7	1.6	0.6	0.5	0.6
	한부모가정	100(868)	95.9	1.8	0.7	0.9	0.7
	조손가정	100(172)	92.4	3.5	0.6	1.7	1.7

2-1-21-⑥ 최근 한 달 동안 성관련 폰팅, 채팅, 성매매 유도형 전화번호 광고 이용 빈도

<표 III-267> 최근 한 달 동안 성관련 폰팅, 채팅, 성매매 유도형 전화번호 이용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이용 하지 않았다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97.7	0.8	0.3	0.5	0.7
성별	남자	100(4,793)	96.8	1.3	0.4	0.7	0.8
	여자	100(4,925)	98.7	0.3	0.2	0.2	0.6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8.7	0.2	0.1	0.0	1.0
	중학교	100(3,257)	98.0	0.8	0.2	0.5	0.5
	고등학교	100(3,794)	96.9	1.2	0.5	0.7	0.7
거주지	서울	100(1,533)	98.5	0.5	0.3	0.2	0.5
	광역시	100(3,077)	97.9	0.9	0.2	0.5	0.5
	시·군	100(5,097)	97.4	0.8	0.4	0.5	0.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8.1	0.7	0.2	0.3	0.6
	한부모가정	100(868)	97.7	0.7	0.1	0.8	0.7
	조손가정	100(172)	94.2	2.9	0.0	1.2	1.7

2-1-21-⑦ 최근 한 달 동안 온라인 사행성(도박) 게임 이용 빈도

<표 III-268> 최근 한 달 동안 온라인 사행성(도박) 게임 이용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이용 하지 않았다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89.9	6.8	1.5	1.1	0.7
성별	남자	100(4,793)	85.6	9.6	2.4	1.6	0.8
	여자	100(4,925)	94.1	4.1	0.6	0.5	0.6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6.7	1.7	0.4	0.2	1.1
	중학교	100(3,257)	90.6	6.6	1.1	1.1	0.6
	고등학교	100(3,794)	84.4	10.6	2.6	1.7	0.7
거주지	서울	100(1,533)	90.1	6.8	1.6	1.0	0.6
	광역시	100(3,077)	90.5	6.7	1.2	1.0	0.6
	시·군	100(5,097)	89.4	6.9	1.6	1.1	0.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0.4	6.5	1.4	1.0	0.7
	한부모가정	100(868)	86.2	10.4	2.0	0.9	0.6
	조손가정	100(172)	85.5	8.7	1.7	2.9	1.2

2-1-21-⑧ 최근 한 달 동안 “19세미만 이용불가”(폭력, 선정성)게임 이용 빈도

<표 III-269> 최근 한 달 동안 “19세미만 이용불가”(폭력, 선정성) 게임 이용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이용 하지 않았다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84.9	7.4	3.6	3.4	0.8
성별	남자	100(4,793)	74.8	11.8	6.3	6.2	0.9
	여자	100(4,925)	94.9	3.0	0.9	0.6	0.6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93.5	3.0	1.2	1.2	1.1
	중학교	100(3,257)	83.2	7.6	4.3	4.4	0.5
	고등학교	100(3,794)	80.4	10.3	4.6	4.0	0.8
거주지	서울	100(1,533)	85.6	7.2	3.3	3.4	0.5
	광역시	100(3,077)	84.3	8.1	3.6	3.4	0.6
	시·군	100(5,097)	85.1	7.0	3.6	3.3	1.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5.6	7.1	3.6	3.0	0.7
	한부모가정	100(868)	79.8	10.0	4.0	5.3	0.8
	조손가정	100(172)	82.6	7.6	1.2	7.0	1.7

2-1-21 ㉔ 최근 한 달 동안 P2P, 웹하드 등을 통해 보는 “19세 미만 이용불가” 음란물이나 폭력물 이용 빈도

<표 III-270> 최근 한 달 동안 P2P, 웹하드 등을 통해 보는 “19세 미만 이용불가” 음란물이나 폭력물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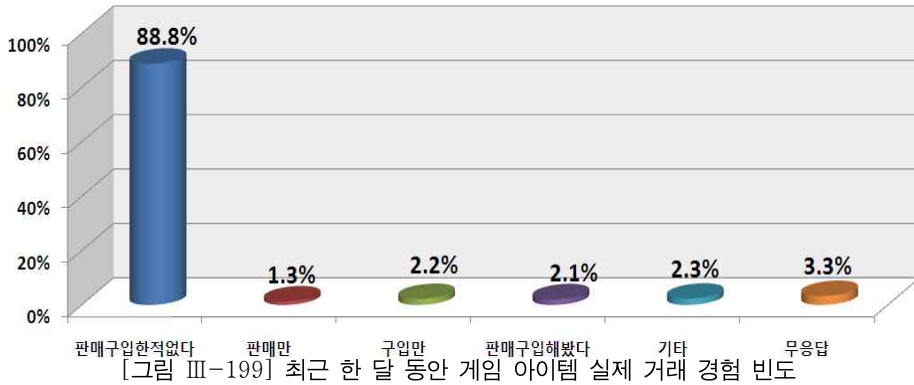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이용 하지 않았다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9,727)	90.7	4.6	2.2	1.6	0.8
성별	남자	100(4,793)	83.8	8.2	4.2	2.9	0.9
	여자	100(4,925)	97.6	1.1	0.3	0.3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8.3	0.4	0.0	0.2	1.1
	중학교	100(3,257)	94.1	3.0	1.1	1.2	0.6
	고등학교	100(3,794)	82.5	9.0	4.8	2.9	0.8
거주지	서울	100(1,533)	91.6	3.9	2.3	1.7	0.6
	광역시	100(3,077)	88.6	6.0	2.6	2.1	0.6
	사·군	100(5,097)	91.8	4.0	2.0	1.2	1.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1.1	4.4	2.2	1.5	0.8
	한부모가정	100(868)	87.9	6.9	3.1	1.3	0.8
	조손가정	100(172)	89.5	5.8	1.2	2.3	1.2

2-1-22 최근 한 달 동안 게임 아이템 실제거래 경험 빈도

청소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게임 아이템을 실제로 거래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5.6%이었음

○ 청소년 20명 중 1명 정도는 한 달 동안 게임 아이템을 실제로 거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 경험이 많았고,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 양 부모가정 순으로 많았다.



<표 III-271> 최근 한 달 동안 게임 아이템 실제 거래 경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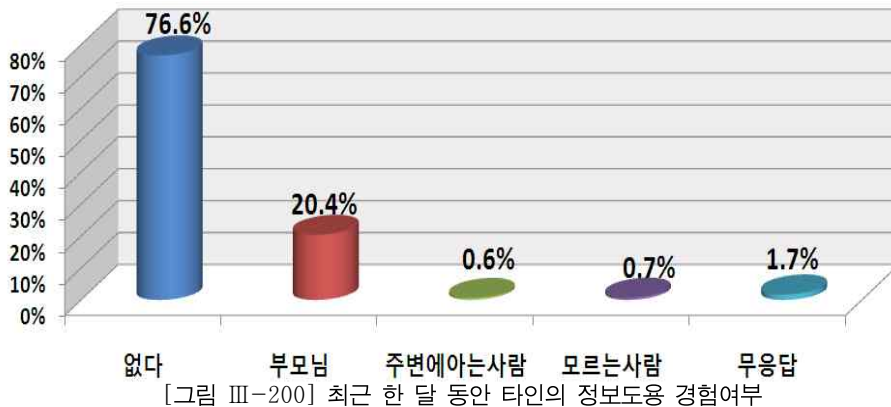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구입도 판매도 한적없다	판매만 해봤다	구입만 해봤다	구입도해 보고판매도해봤다	기타	무응답
전체		100(9,727)	88.8	1.3	2.2	2.1	2.3	3.3
성별	남자	100(4,793)	83.1	2.4	3.9	3.8	2.9	3.8
	여자	100(4,925)	94.5	0.3	0.5	0.4	1.6	2.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86.5	0.8	2.2	1.8	4.2	4.4
	중학교	100(3,257)	88.1	1.4	3.2	2.1	2.1	3.1
	고등학교	100(3,794)	90.9	1.6	1.4	2.2	1.1	2.8
거주지	서울	100(1,533)	90.0	1.3	1.5	2.1	2.8	2.4
	광역시	100(3,077)	89.4	1.3	2.5	2.2	1.6	3.1
	사군	100(5,097)	88.1	1.4	2.3	2.0	2.5	3.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9.7	1.1	2.2	1.9	1.9	3.1
	한부모가정	100(868)	86.9	2.1	2.5	2.5	2.8	3.2
	조손가정	100(172)	82.6	7.0	1.2	4.7	2.3	2.3

2-1-23 최근 한 달 동안 타인의 정보도용 경험여부

청소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필요한 게임이나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1.7%이었고, '부모님'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가 20.4%이었음

○ 청소년 10명 중 2명 정도는 최근 한 달 동안 필요한 게임이나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부모님의 정보를 도용한 경험이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양부모가정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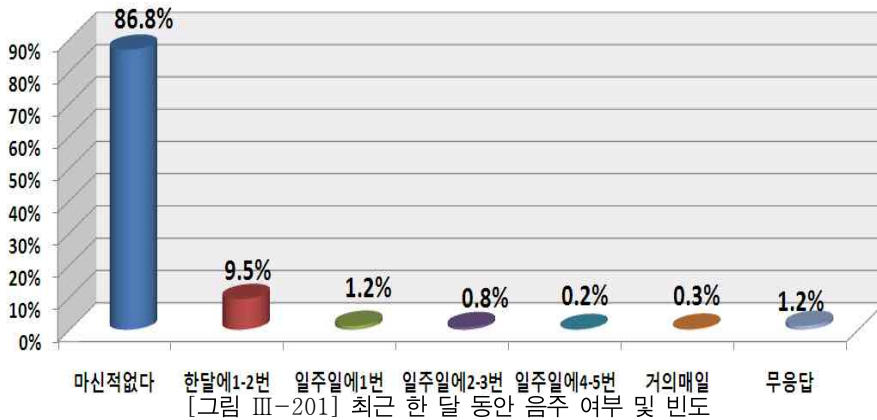
<표 III-272> 최근 한 달 동안 타인의 정보도용 경험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없다	부모님	주변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무응답
전체		100(9,727)	76.6	20.4	0.6	0.7	1.7
성별	남자	100(4,793)	69.8	26.5	0.8	1.1	1.8
	여자	100(4,925)	83.4	14.6	0.3	0.3	1.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86.0	11.4	0.2	0.1	2.3
	중학교	100(3,257)	74.6	22.8	0.5	0.5	1.6
	고등학교	100(3,794)	71.8	24.7	1.0	1.3	1.2
거주지	서울	100(1,533)	76.1	20.7	1.2	0.6	1.4
	광역시	100(3,077)	76.5	20.6	0.5	0.9	1.5
	시·군	100(5,097)	76.9	20.2	0.5	0.6	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77.4	19.9	0.5	0.6	1.6
	한부모가정	100(868)	71.3	26.0	0.8	0.7	1.2
	조손가정	100(172)	73.3	20.9	2.3	2.3	1.2

2-1-24 최근 한 달 동안 음주 여부 및 빈도

**청소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음주를 한 경우는 12.0%이었고,
음주 빈도는 ‘한 달에 1~2회’가 9.5%로 가장 많았음**

- 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는 최근 한 달 동안 음주한 경험이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 양부모가정 순으로 많았다.



<표 III-273> 최근 한 달 동안 음주 여부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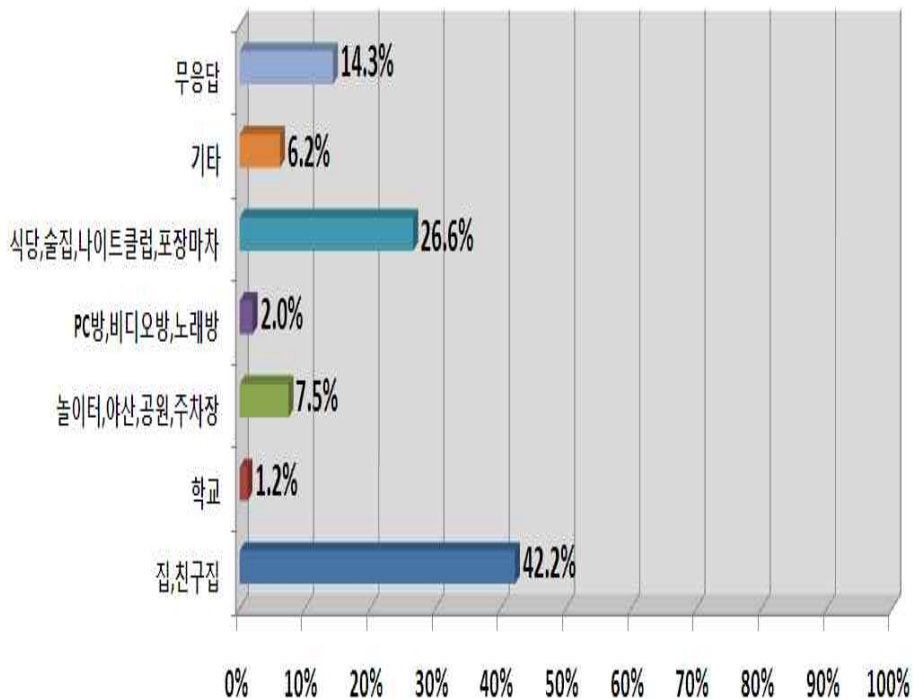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마신적이 없다	한달에 1~2번	일 주일 에1번	일주일에 2~3번	일주일에 4~5번	거의 매일	무응답
전체		100(9,727)	86.8	9.5	1.2	0.8	0.2	0.3	1.2
성별	남자	100(4,793)	84.7	10.7	1.4	0.9	0.3	0.5	1.4
	여자	100(4,925)	88.9	8.3	1.0	0.6	0.1	0.1	1.0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2.9	4.0	0.3	0.1	0.0	0.0	2.6
	중학교	100(3,257)	91.0	6.7	0.5	0.6	0.1	0.2	1.0
	고등학교	100(3,794)	78.9	15.7	2.4	1.4	0.4	0.6	0.5
거주지	서울	100(1,533)	89.4	8.1	0.8	0.6	0.1	0.2	0.8
	광역시	100(3,077)	86.3	9.8	1.3	0.6	0.2	0.3	1.5
	시·군	100(5,097)	86.3	9.6	1.3	0.9	0.2	0.4	1.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7.9	9.0	1.0	0.7	0.1	0.2	1.1
	한부모가정	100(868)	80.4	14.5	2.2	1.2	0.6	0.1	1.0
	조손가정	100(172)	76.2	12.2	3.5	2.9	1.2	1.2	2.9

2-1-25 최근 한 달 동안 음주장소

최근 한 달 동안 음주를 한 청소년들의 음주장소는 ‘집/친구집(42.2%)’, ‘식당/술집/나이트클럽/포장마차(26.6%)’, ‘놀이터/야산/공원/주차장(7.5%)’ 순이었음

○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음주를 주로 한 장소는 집/친구집과 식당/술집이 70.8%로 대부분이었다.

- 성별로는 집/친구집이 여자가 많았고 식당/술집 등이 남자가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집/친구집과 놀이터 등이 많았고, 고등학교는 식당/술집 등이 많았다.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이 양부모가정과 한 부모가정에 비해 집/친구집이 적은 반면, 상대적으로 놀이터 등이 많았다.



[그림 III-202] 최근 한 달 동안 음주장소

<표 III-274> 최근 한 달 동안 음주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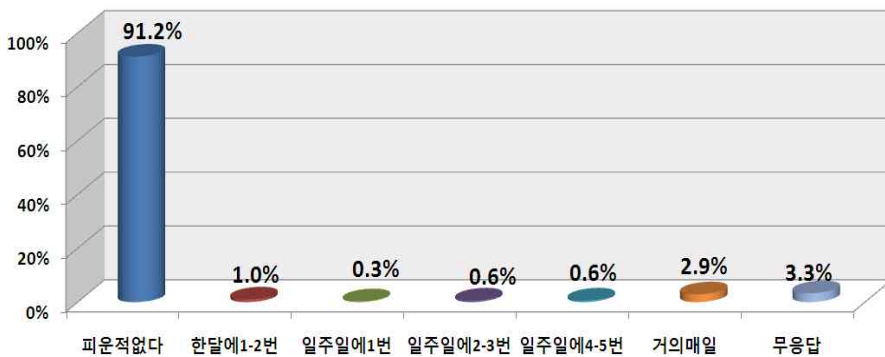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집/친구집	학교	놀이터/야산/ 공원/주차장	PC방/비디오 방/노래방
전체		100(1,283)	42.2	1.2	7.5	2.0
성별	남자	100(732)	40.3	1.4	7.7	0.7
	여자	100(547)	45.2	0.9	7.3	3.8
교육별	초등학교	100(188)	35.1	0.5	0.5	0.0
	중학교	100(293)	54.6	0.7	9.6	3.4
	고등학교	100(801)	39.3	1.5	8.4	2.0
거주지	서울	100(165)	43.0	0.6	12.1	3.6
	광역시	100(422)	43.8	1.2	5.7	1.2
	시·군	100(696)	41.1	1.3	7.5	2.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982)	42.9	0.9	7.2	2.0
	한부모가정	100(170)	47.6	1.2	6.5	1.8
	조손가정	100(41)	31.7	4.9	24.4	2.4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식당/술집/나이트클럽 /포장마차	기타	무응답
전체		100(1,283)	26.6	6.2	14.3
성별	남자	100(732)	30.2	7.1	12.7
	여자	100(547)	21.9	4.9	15.9
교육별	초등학교	100(188)	10.1	14.4	39.4
	중학교	100(293)	7.8	7.5	16.4
	고등학교	100(801)	37.3	3.7	7.7
거주지	서울	100(165)	23.6	5.5	11.5
	광역시	100(422)	30.3	4.3	13.5
	시·군	100(696)	25.0	7.5	15.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982)	27.4	5.8	13.7
	한부모가정	100(170)	25.9	5.9	11.2
	조손가정	100(41)	17.1	4.9	14.6

2-1-26 최근 한 달 동안 흡연여부 및 빈도

**청소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흡연을 한 경우는 5.4%이었고,
흡연 빈도는 ‘거의 매일’이 2.9%로 가장 많았음**

- 청소년 20명 중 1명 정도는 최근 한 달 동안 흡연을 한 경험이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 양부모가정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203] 최근 한 달 동안 흡연 여부 및 빈도

<표 III-275> 최근 한 달 동안 흡연 여부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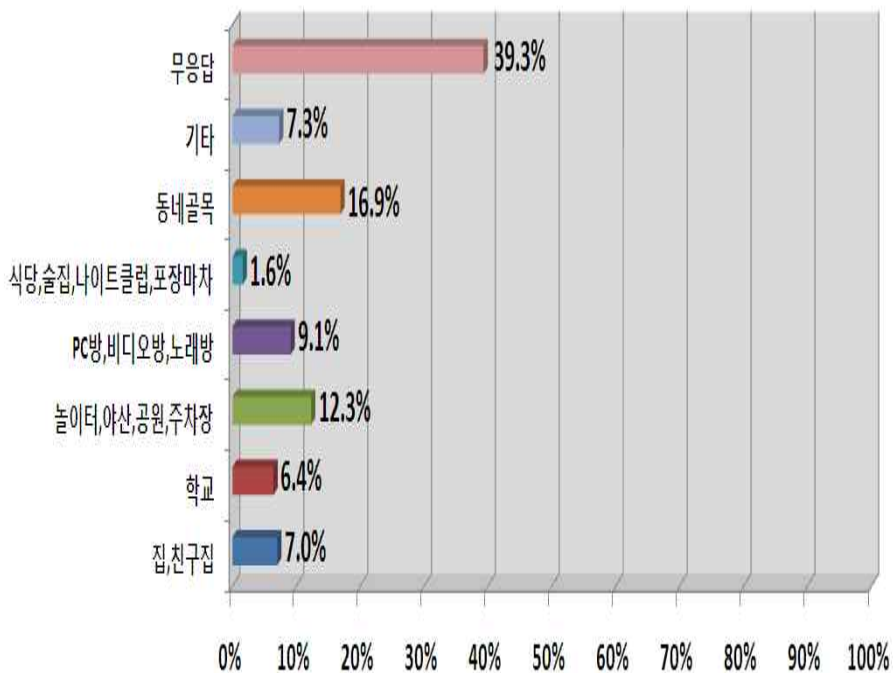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피운적이 없다	한달에 1~2번	일주일 에1번	일주일에 2~3번	일주일에 4~5번	거의 매일	무응답
전체		100(9,727)	91.2	1.0	0.3	0.6	0.6	2.9	3.3
성별	남자	100(4,793)	88.6	1.4	0.5	0.8	0.9	4.4	3.4
	여자	100(4,925)	93.9	0.7	0.1	0.5	0.3	1.5	3.0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3.1	0.3	0.2	0.0	0.1	0.0	6.3
	중학교	100(3,257)	93.5	1.4	0.2	0.7	0.6	1.1	2.5
	고등학교	100(3,794)	88.0	1.3	0.5	0.9	1.0	6.5	1.8
거주지	서울	100(1,533)	93.0	0.9	0.3	0.5	0.6	1.9	2.8
	광역시	100(3,077)	90.4	1.2	0.2	0.6	0.6	3.3	3.6
	사·군	100(5,097)	91.2	1.0	0.4	0.6	0.6	3.0	3.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2.4	0.9	0.3	0.5	0.4	2.5	3.1
	한부모가정	100(868)	85.9	1.8	0.7	1.3	1.6	5.3	3.3
	조손가정	100(172)	82.6	2.3	0.6	1.7	2.3	7.0	3.5

2-1-27 최근 한 달 동안 흡연장소

최근 한 달 동안 흡연을 한 청소년들의 흡연장소는 ‘동네골목(16.9%)’, ‘놀이터/야산/공원/주차장(12.3%)’, ‘PC방/비디오방/노래방/만화방(9.1%)’ 순이었음

○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주로 한 장소는 동네골목과 놀이터 등이 29.1%로 많았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와 PC방/노래방 등이 많았고,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놀이터와 동네골목이 많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과 한 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집/친구집, 놀이터/야산 등, 식당/술집 등에서 많았다.



[그림 III-204] 최근 한 달 동안 흡연장소

<표 III-276> 최근 한 달 동안 흡연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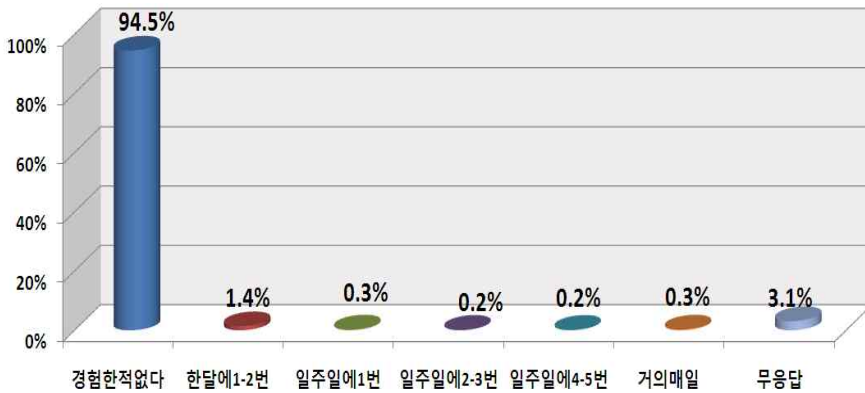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집 친구집	학교	놀이터/야산/ 공원/주차장	PC방/비디오방/ 노래방/만화방
전체		100(853)	7.0	6.4	12.3	9.1
성별	남자	100(548)	7.7	8.4	12.8	11.3
	여자	100(301)	6.0	3.0	11.6	5.3
교육별	초등학교	100(188)	1.6	0.0	1.1	1.1
	중학교	100(212)	7.1	1.4	16.5	7.1
	고등학교	100(456)	9.2	11.4	14.9	13.4
거주지	서울	100(108)	8.3	5.6	10.2	8.3
	광역시	100(295)	8.1	5.8	12.9	9.8
	시·군	100(450)	6.0	7.1	12.4	8.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621)	6.3	5.6	11.1	9.3
	한부모가정	100(122)	9.0	6.6	20.5	10.7
	조손가정	100(30)	13.3	10.0	16.7	3.3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식당/술집/나이 트클럽/포장마차	동네골목	기타	무응답
전체		100(853)	1.6	16.9	7.3	39.3
성별	남자	100(548)	1.6	17.7	7.7	32.8
	여자	100(301)	1.7	15.6	6.6	50.2
교육별	초등학교	100(188)	0.0	3.3	5.5	87.4
	중학교	100(212)	0.5	25.0	4.2	38.2
	고등학교	100(456)	2.9	18.6	9.4	20.2
거주지	서울	100(108)	2.8	17.6	8.3	38.9
	광역시	100(295)	1.0	18.3	5.1	39.0
	시·군	100(450)	1.8	15.8	8.4	39.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621)	1.0	17.6	6.3	42.8
	한부모가정	100(122)	1.6	18.9	8.2	24.6
	조손가정	100(30)	6.7	16.7	13.3	20.0

2-1-28 최근 한 달 동안 흡입제 경험여부 및 빈도

청소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흡입제를 한 경우는 2.4%이었고, 흡입제 경험 빈도는 ‘한 달에 1~2회’가 1.4%로 가장 많았음

- 흡입제를 경험한 청소년은 최근 한 달 동안 2.4%로 많지 않았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 양부모가정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205] 최근 한 달 동안 흡입제 경험여부 및 빈도

<표 III-277> 최근 한 달 동안 흡입제 경험여부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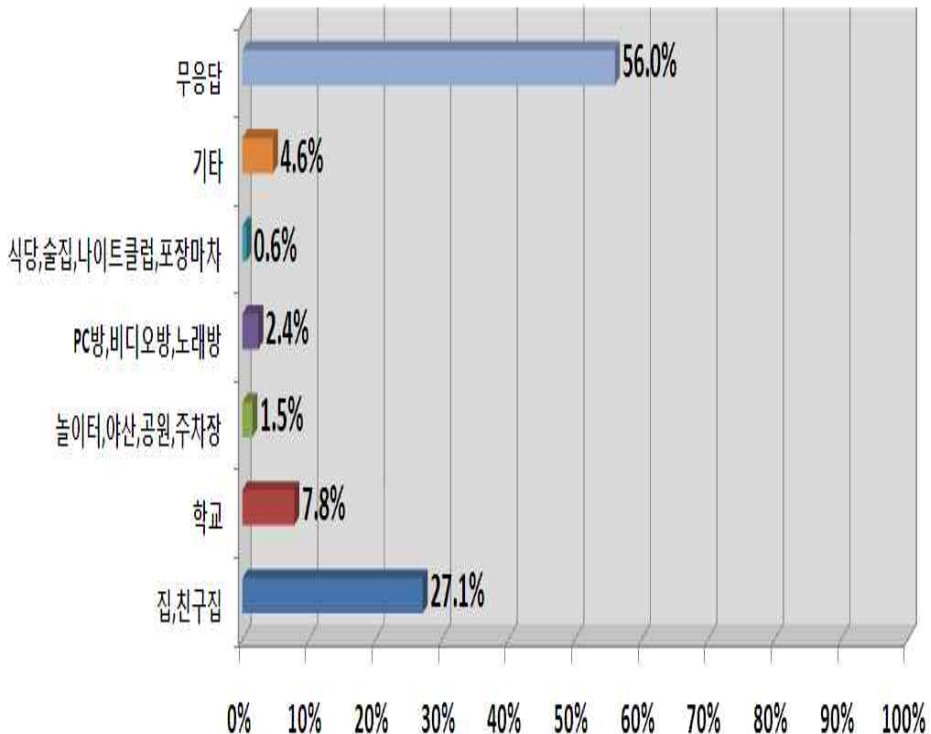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경험한적 이없다	한달에 1~2번	일주일 에1번	일주일 에2~3번	일주일 에4~5번	거의 매일	무응답
전체		100(9,727)	94.5	1.4	0.3	0.2	0.2	0.3	3.1
성별	남자	100(4,793)	93.8	1.6	0.3	0.3	0.1	0.4	3.5
	여자	100(4,925)	95.2	1.3	0.3	0.1	0.2	0.2	2.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89.0	3.8	0.9	0.6	0.3	0.4	5.0
	중학교	100(3,257)	95.8	1.0	0.1	0.1	0.1	0.2	2.7
	고등학교	100(3,794)	97.0	0.2	0.1	0.1	0.1	0.3	2.2
거주지	서울	100(1,533)	95.1	1.4	0.1	0.1	0.1	0.5	2.7
	광역시	100(3,077)	95.1	1.1	0.2	0.2	0.1	0.2	3.1
	시·군	100(5,097)	93.9	1.7	0.4	0.3	0.2	0.3	3.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4.9	1.4	0.3	0.2	0.1	0.2	2.9
	한부모가정	100(868)	95.4	0.8	0.2	0.2	0.2	0.0	3.1
	조손가정	100(172)	86.6	2.3	1.2	1.7	1.7	1.2	5.2

2-1-29 최근 한 달 동안 흡입제 경험장소

최근 한 달 동안 흡입제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흡입제 경험장소는 ‘집/친구집(27.1%)’, ‘학교(7.8%)’, ‘PC방/비디오방/노래방/만화방(2.4%)’ 순이었음

○ 흡입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흡입제를 주로 한 장소는 집/친구집이었다.

- 성별로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 초등학교는 집/친구집이 가장 많았고, 학교에서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거주지별로는 시군이 집/친구집에서 가장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조손가정이 많았다.



[그림 III-206] 최근 한 달 동안 흡입제 경험장소

<표 III-278> 최근 한 달 동안 흡입제 경험장소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집/친구집	학교	놀이터/야산/ 공원/주차장
전체		100(535)	27.1	7.8	1.5
성별	남자	100(298)	28.2	8.4	1.7
	여자	100(237)	26.2	7.2	1.3
교육별	초등학교	100(290)	40.7	5.9	0.3
	중학교	100(136)	15.4	8.1	2.9
	고등학교	100(112)	6.3	12.5	2.7
거주지	서울	100(76)	23.7	9.2	0.0
	광역시	100(150)	20.0	6.7	2.7
	시·군	100(313)	31.3	8.0	1.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417)	27.3	7.4	1.4
	한부모가정	100(40)	22.5	10.0	2.5
	조손가정	100(23)	26.1	13.0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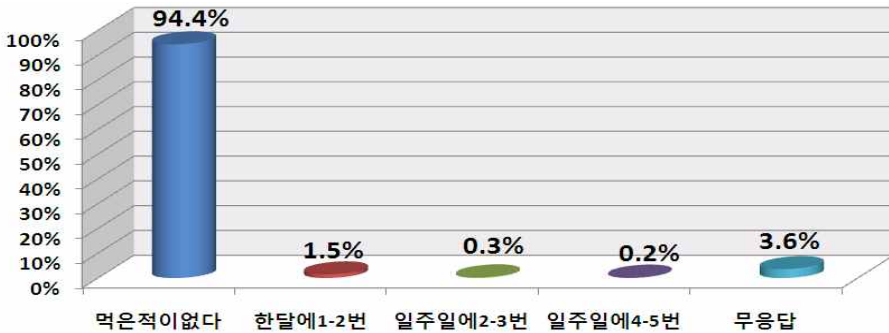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PC방/비디오 방/노래방	식당/술집/나이트 클럽/포장마차	기타	무응답
전체		100(535)	2.4	0.6	4.6	56.0
성별	남자	100(298)	3.4	0.3	3.4	54.7
	여자	100(237)	1.3	0.8	6.3	57.0
교육별	초등학교	100(290)	2.1	0.7	7.2	43.1
	중학교	100(136)	2.9	0.0	2.9	67.6
	고등학교	100(112)	2.7	0.9	0.0	75.0
거주지	서울	100(76)	3.9	1.3	6.6	55.3
	광역시	100(150)	2.0	0.7	2.7	65.3
	시·군	100(313)	2.2	0.3	5.1	5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417)	2.2	0.5	4.1	57.1
	한부모가정	100(40)	0.0	0.0	5.0	60.0
	조손가정	100(23)	8.7	0.0	8.7	39.1

2-1-30 최근 한 달 동안 환각 목적으로 약, 진통제 사용여부 및 빈도

청소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환각 목적으로 약이나 진통제를 사용한 경우는 2.0%이었고, 사용 빈도는 ‘한 달에 1~2회’가 1.5%로 가장 많았음

○ 환각 목적으로 약이나 진통제를 사용한 청소년은 최근 한 달 동안 2.0%로 많지 않았다.

-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 양부모가정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207] 최근 한 달 동안 환각 목적으로 약, 진통제 사용여부 및 빈도

<표 III-279> 최근 한 달 동안 환각 목적으로 약, 진통제 사용여부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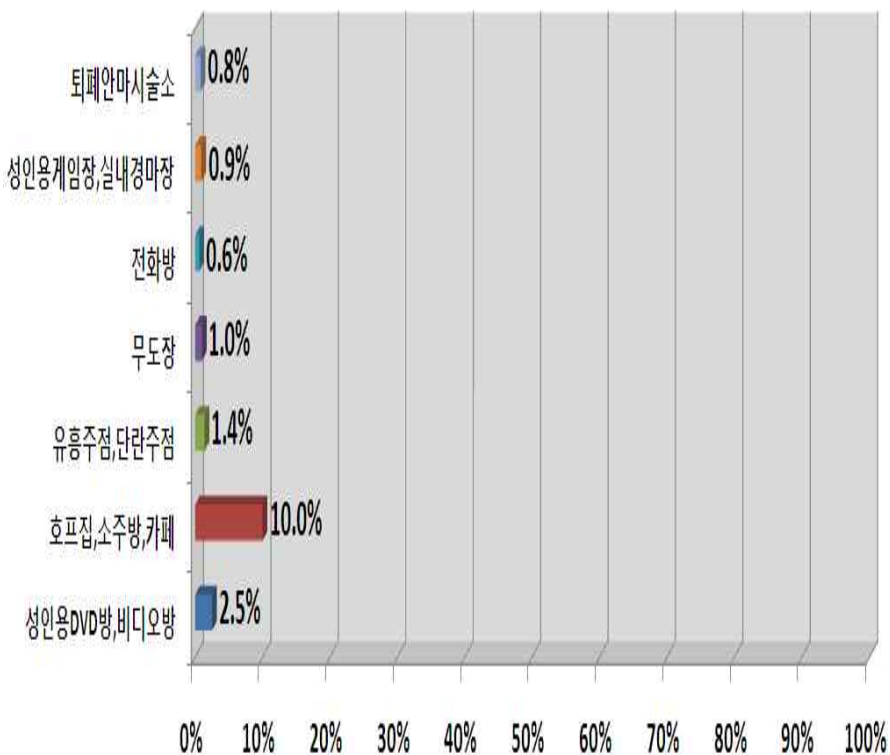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먹은적이 없다	한달에 1~2번	일주일 에 2~3번	일주일 에 4~5번	무응답
전체		100(9,727)	94.4	1.5	0.3	0.2	3.6
성별	남자	100(4,793)	94.1	1.4	0.2	0.3	4.0
	여자	100(4,925)	94.8	1.5	0.3	0.1	3.1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3.6	1.6	0.3	0.1	4.4
	중학교	100(3,257)	94.9	1.6	0.2	0.2	3.2
	고등학교	100(3,794)	94.5	1.3	0.3	0.3	3.5
거주지	서울	100(1,533)	95.2	1.3	0.3	0.3	3.0
	광역시	100(3,077)	94.5	1.4	0.1	0.1	3.8
	시·군	100(5,097)	94.1	1.5	0.4	0.2	3.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94.8	1.4	0.3	0.1	3.5
	한부모가정	100(868)	93.2	2.4	0.5	0.2	3.7
	조손가정	100(172)	90.7	2.9	0.6	2.3	3.5

2-1-3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유해업소 경험여부 및 빈도(초등학생 제외)

**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유해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호프집/소주방/카페(10.0%)’, ‘성인용 비디오방/DVD방(2.6%)’,
‘유흥주점/단란주점(1.4%)’ 순이었음**

○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이 경험한 유해업소는 호프집/소주방/카페가 10명
중 1명 정도로 가장 많았다.

- 교급별로는 대부분의 유해업소 경험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 양부모가정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208] 최근 한 달 동안 유해업소 이용 빈도

<표 Ⅲ-280> 최근 한 달 동안 유해업소 이용 빈도

번호	문항	전체 (빈도)	이용한 적이 없다	1년에 1-2번정도	1년에 3-4번정도	한달에 1-2번
1	성인용 비디오방/DVD방	100(7,084)	97.2	1.2	0.5	0.5
2	호프집, 소주방, 카페	100(7,084)	89.7	3.5	2.0	3.1
3	유흥주점, 단란주점	100(7,084)	98.1	0.4	0.3	0.3
4	무도장(나이트클럽 등)	100(7,084)	98.7	0.4	0.2	0.2
5	전화방	100(7,084)	99.1	0.1	0.1	0.1
6	성인용 게임장, 실내경마장	100(7,084)	98.8	0.3	0.2	0.1
7	퇴폐 안마시술소	100(7,084)	98.9	0.3	0.1	0.1

번호	문항	전체 (빈도)	일주일 에 1-2번	일주일 에 3번이상	무응답
1	성인용 비디오방/DVD방	100(7,084)	0.1	0.3	0.3
2	호프집, 소주방, 카페	100(7,084)	1.0	0.4	0.4
3	유흥주점, 단란주점	100(7,084)	0.2	0.2	0.4
4	무도장(나이트클럽 등)	100(7,084)	0.0	0.2	0.4
5	전화방	100(7,084)	0.1	0.2	0.4
6	성인용 게임장, 실내경마장	100(7,084)	0.1	0.2	0.4
7	퇴폐 안마시술소	100(7,084)	0.1	0.2	0.4

2-1-31-① 최근 한 달 동안 성인용 비디오방/DVD방 이용 빈도

<표 III-281> 최근 한 달 동안 성인용 비디오방/DVD방 이용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이용한 적이 없다	1년에 1-2번 정도	1년에 3-4번 정도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회 이상	무응답
전체		100(7,084)	97.2	1.2	0.5	0.5	0.1	0.3	0.3
성별	남자	100(3,448)	97.4	0.8	0.5	0.4	0.1	0.5	0.3
	여자	100(3,633)	97.0	1.5	0.6	0.6	0.0	0.1	0.2
교육별	중학교	100(3,257)	98.7	0.4	0.2	0.2	0.0	0.2	0.3
	고등학교	100(3,794)	95.9	1.8	0.8	0.8	0.1	0.3	0.2
거주지	서울	100(1,131)	97.8	1.2	0.2	0.4	0.0	0.3	0.2
	광역시	100(2,336)	97.6	0.9	0.6	0.3	0.0	0.1	0.4
	시·군	100(3,617)	96.7	1.3	0.6	0.7	0.1	0.4	0.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5,980)	97.5	1.1	0.4	0.5	0.1	0.2	0.2
	한부모가정	100(705)	96.0	1.6	1.3	0.6	0.0	0.3	0.3
	조손가정	100(118)	94.9	0.8	1.7	1.7	0.0	0.8	0.0

2-1-31-② 최근 한 달 동안 호프집, 소주방, 카페 이용 빈도

<표 III-282> 최근 한 달 동안 호프집, 소주방, 카페 이용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이용한 적이 없다	1년에 1-2번 정도	1년에 3-4번 정도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회 이상	무응답
전체		100(7,084)	89.7	3.5	2.0	3.1	1.0	0.4	0.4
성별	남자	100(3,448)	89.2	3.2	2.2	3.4	1.3	0.4	0.3
	여자	100(3,633)	90.2	3.8	1.8	2.8	0.8	0.3	0.4
교육별	중학교	100(3,257)	95.9	1.8	0.8	0.7	0.1	0.2	0.4
	고등학교	100(3,794)	84.3	4.9	3.0	5.1	1.9	0.5	0.3
거주지	서울	100(1,131)	91.2	2.9	2.3	2.6	0.4	0.3	0.3
	광역시	100(2,336)	89.5	3.6	2.4	2.8	0.9	0.3	0.5
	시·군	100(3,617)	89.4	3.6	1.6	3.4	1.3	0.5	0.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5,980)	90.3	3.4	1.9	3.0	0.9	0.3	0.3
	한부모가정	100(705)	86.8	4.3	2.4	4.1	1.6	0.4	0.4
	조손가정	100(118)	85.6	4.2	2.5	3.4	2.5	0.8	0.8

2-1-31-③ 최근 한 달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용 빈도

<표 III-283> 최근 한 달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용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이용한 적이 없다	1년에 1-2번 정도	1년에 3-4번 정도	한달에 1-2번	일주일 에 1-2번	일주일 에 3회 이상	무응답
전체		100(7,084)	98.1	0.4	0.3	0.3	0.2	0.2	0.4
성별	남자	100(3,448)	97.5	0.6	0.5	0.4	0.2	0.3	0.3
	여자	100(3,633)	98.6	0.2	0.2	0.2	0.2	0.1	0.5
교육별	중학교	100(3,257)	99.0	0.3	0.2	0.0	0.0	0.1	0.4
	고등학교	100(3,794)	97.3	0.5	0.4	0.6	0.4	0.3	0.4
거주지	서울	100(1,131)	98.5	0.3	0.6	0.1	0.1	0.1	0.4
	광역시	100(2,336)	98.3	0.4	0.2	0.3	0.1	0.1	0.6
	시·군	100(3,617)	97.8	0.5	0.3	0.4	0.3	0.3	0.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5,980)	98.6	0.3	0.2	0.3	0.2	0.1	0.4
	한부모가정	100(705)	96.7	0.9	0.6	0.4	0.6	0.1	0.7
	조손가정	100(118)	92.4	2.5	1.7	1.7	0.0	0.8	0.8

2-1-31-④ 최근 한 달 동안 무도장(나이트클럽 등) 이용 빈도

<표 III-284> 최근 한 달 동안 무도장(나이트클럽 등) 이용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이용한 적이 없다	1년에 1-2번 정도	1년에 3-4번 정도	한달에 1-2번	일주일 에 1-2번	일주일 에 3회 이상	무응답
전체		100(7,084)	98.7	0.4	0.2	0.2	0.0	0.2	0.4
성별	남자	100(3,448)	98.4	0.6	0.2	0.2	0.0	0.3	0.3
	여자	100(3,633)	98.9	0.2	0.1	0.2	0.1	0.1	0.4
교육별	중학교	100(3,257)	99.2	0.2	0.1	0.0	0.0	0.1	0.4
	고등학교	100(3,794)	98.2	0.7	0.2	0.3	0.1	0.2	0.3
거주지	서울	100(1,131)	98.9	0.3	0.2	0.3	0.0	0.1	0.3
	광역시	100(2,336)	99.0	0.2	0.2	0.0	0.0	0.1	0.5
	시·군	100(3,617)	98.4	0.6	0.1	0.2	0.1	0.2	0.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5,980)	99.1	0.3	0.1	0.1	0.1	0.1	0.3
	한부모가정	100(705)	97.7	0.7	0.4	0.3	0.0	0.3	0.6
	조손가정	100(118)	94.9	0.0	1.7	1.7	0.0	0.8	0.8

2-1-31-⑤ 최근 한 달 동안 전화방 이용 빈도

<표 III-285> 최근 한 달 동안 전화방 이용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이용한 적이 없다	1년에 1-2번 정도	1년에 3-4번 정도	한달에 1-2번	일주일 에 1-2번	일주일 에 3회 이상	무응답
전체		100(7,084)	99.1	0.1	0.1	0.1	0.1	0.2	0.4
성별	남자	100(3,448)	98.9	0.2	0.1	0.1	0.1	0.3	0.3
	여자	100(3,633)	99.3	0.0	0.0	0.1	0.1	0.1	0.4
교육별	중학교	100(3,257)	99.2	0.1	0.1	0.1	0.0	0.1	0.5
	고등학교	100(3,794)	99.0	0.1	0.1	0.1	0.1	0.3	0.3
거주지	서울	100(1,131)	99.2	0.2	0.2	0.1	0.0	0.1	0.3
	광역시	100(2,336)	99.2	0.1	0.1	0.0	0.0	0.1	0.6
	시·군	100(3,617)	99.0	0.1	0.0	0.1	0.2	0.2	0.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5,980)	99.4	0.1	0.0	0.1	0.0	0.1	0.3
	한부모가정	100(705)	98.9	0.0	0.3	0.1	0.0	0.1	0.6
	조손가정	100(118)	94.9	0.0	0.8	0.8	1.7	0.8	0.8

2-1-31-⑥ 최근 한 달 동안 성인용 게임장, 실내경기장 이용 빈도

<표 III-286> 최근 한 달 동안 성인용 게임장, 실내경기장 이용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이용한 적이 없다	1년에 1-2번 정도	1년에 3-4번 정도	한달에 1-2번	일주일 에 1-2번	일주일 에 3회 이상	무응답
전체		100(7,084)	98.8	0.3	0.2	0.1	0.1	0.2	0.4
성별	남자	100(3,448)	98.4	0.5	0.2	0.1	0.1	0.3	0.4
	여자	100(3,633)	99.2	0.1	0.1	0.1	0.1	0.1	0.4
교육별	중학교	100(3,257)	98.8	0.4	0.1	0.2	0.1	0.1	0.4
	고등학교	100(3,794)	98.7	0.2	0.2	0.1	0.1	0.3	0.4
거주지	서울	100(1,131)	98.9	0.4	0.2	0.2	0.0	0.1	0.3
	광역시	100(2,336)	98.8	0.3	0.2	0.0	0.1	0.1	0.6
	시·군	100(3,617)	98.8	0.2	0.1	0.2	0.1	0.3	0.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5,980)	99.1	0.2	0.1	0.1	0.1	0.1	0.3
	한부모가정	100(705)	98.3	0.3	0.4	0.0	0.0	0.3	0.7
	조손가정	100(118)	94.1	1.7	0.8	0.0	0.8	1.7	0.8

2-1-31-⑦ 최근 한 달 동안 퇴폐 안마시술소 이용 빈도

<표 III-287> 최근 한 달 동안 퇴폐 안마시술소 이용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이용한 적이 없다	1년에 1-2번 정도	1년에 3-4번 정도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회 이상	무응답
전체		100(7,084)	98.9	0.3	0.1	0.1	0.1	0.2	0.4
성별	남자	100(3,448)	98.6	0.4	0.1	0.0	0.1	0.3	0.4
	여자	100(3,633)	99.1	0.2	0.0	0.1	0.1	0.1	0.4
교급별	중학교	100(3,257)	99.2	0.2	0.0	0.0	0.1	0.1	0.4
	고등학교	100(3,794)	98.6	0.4	0.1	0.1	0.1	0.3	0.4
거주지	서울	100(1,131)	99.3	0.2	0.1	0.1	0.0	0.1	0.3
	광역시	100(2,336)	99.0	0.3	0.1	0.0	0.0	0.1	0.6
	시·군	100(3,617)	98.7	0.4	0.1	0.1	0.1	0.3	0.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5,980)	99.2	0.3	0.0	0.0	0.1	0.1	0.3
	한부모가정	100(705)	98.4	0.1	0.6	0.0	0.0	0.1	0.7
	조손가정	100(118)	94.1	0.8	0.8	0.8	0.8	1.7	0.8

2-1-32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경험여부(초등학생 제외)

**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이었음**

○ 최근 1년 동안 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경험여부는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거주지별로는 시·군(1.9%)이 서울(1.1%), 광역시(1.0%) 순으로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4.2%), 한 부모가정(1.7%), 양부모가정(1.3%)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209]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경험여부

<표 III-288>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경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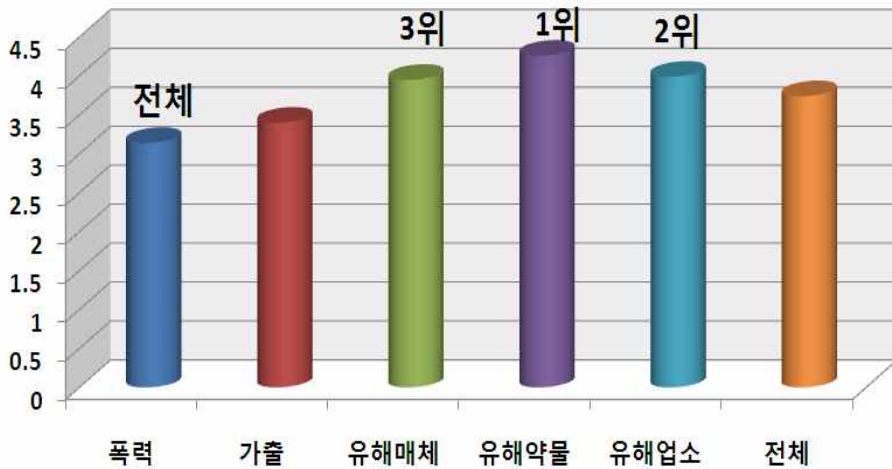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없음	있음	무응답	χ^2
전체		100(7,084)	95.8	1.5	2.8	
성별	남자	100(3,448)	95.9	1.6	2.5	0.196
	여자	100(3,633)	95.6	1.4	3.0	
교육별	중학교	100(3,257)	95.6	1.4	3.0	1.797
	고등학교	100(3,794)	95.9	1.6	2.5	
거주지	서울	100(1,131)	96.5	1.1	2.4	8.637*
	광역시	100(2,336)	96.2	1.0	2.7	
	시·군	100(3,617)	95.2	1.9	2.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5,980)	95.9	1.3	2.8	6.993*
	한부모가정	100(705)	96.5	1.7	1.8	
	조손가정	100(118)	94.1	4.2	1.7	

* $p < .05$

2-2 보호행동 - 지표 영역별 평균 비교

청소년의 평소 보호행동 습관은 ‘유해약물(M=4.26)’,
‘유해업소(M=3.99)’, ‘유해매체(M=3.95)’ 순이었음

○ 청소년들의 보호행동 습관은 폭력(성폭력), 가출,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모든 영역에서 보통(M=3.0)보다 높은 편이었다.



[그림 III-210] 보호행동 지표 영역별 비교

<표 III-289> 보호행동 지표 영역별 기술통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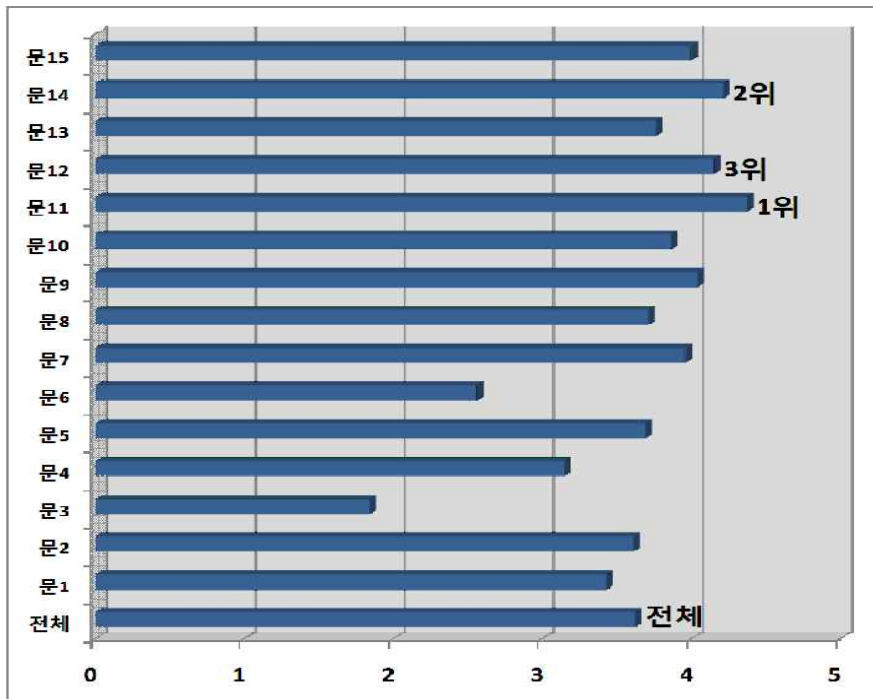
보호행동 요인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폭력(성폭력)	1-5	3.14	0.98
가출	6-8	3.40	1.03
유해매체	9, 10	3.95	1.26
유해약물	11, 12	4.26	1.18
유해업소(초등학생 제외)	13-15	3.99	1.16
전체	1-15	3.74	1.12

2-2 보호행동 - 지표 항목별 평균 비교

청소년의 평소 보호행동 습관은 ‘유해약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M=4.3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해업소 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M=4.21)’, ‘유해약물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M=4.15)’ 순이었음

○ 청소년들이 ‘위험 상황 대비 호신용 도구 가지고 다니는 정도(M=1.84)’와 ‘고민이 있을 때 주위에 도움 청하는 정도(2.56)’는 낮게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211] 보호행동 지표항목별 평균 비교

<표 III-290> 보호행동 지표항목별 기술통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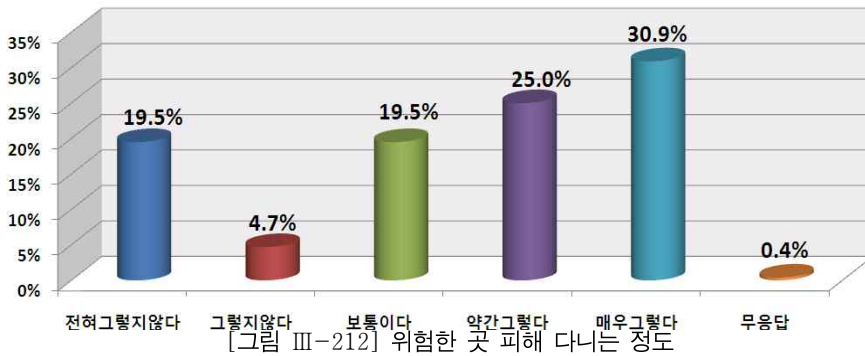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위험한 곳 피해 다니는 정도	3.43	1.46
2	필요한 만큼만 돈 가지고 다니는 정도	3.61	1.26
3	위험 상황 대비 호신용 도구 가지고 다니는 정도	1.84	1.21
4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는 정도	3.14	1.40
5	폭력 사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69	1.26
6	고민이 있을 때 주위에 도움 청하는 정도	2.56	1.42
7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3.96	1.17
8	가출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71	1.30
9	유해매체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4.04	1.30
10	유해매체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86	1.35
11	유해약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4.37	1.19
12	유해약물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4.15	1.29
13	유해업소 근처 피해 다니는 정도	3.76	1.33
14	유해업소 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4.21	1.19
15	유해업소 출입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4.00	1.26
전체		3.62	1.29

2-2-1 위험한 곳 피해 다니는 정도

전체 응답자의 55.9%는 위험한 곳을 피해 다니는 것으로 응답함

○ 위험한 곳 피해 다니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와 시·군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표 III-291> 위험한 곳 피해 다니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19.5	4.7	19.5	25.0	30.9	0.4	3.43(1.46)	
성별	남자	100(4,793)	26.7	5.4	20.3	20.1	27.0	0.5	3.16(1.55)	18.734***
	여자	100(4,925)	12.4	4.2	18.7	29.8	34.7	0.2	3.70(1.32)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19.8	1.8	8.4	16.6	52.4	1.0	3.81(1.57)	156.991***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18.9	4.3	19.4	27.8	29.5	0.2	3.45(1.44)	
	고등학교 ^다	100(3,794)	19.9	7.2	27.4	28.4	17.0	0.1	3.15(1.35)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16.5	4.8	18.7	25.6	34.2	0.3	3.56(1.42)	7.882*** (1>2,3)
	광역시 ²	100(3,077)	20.2	4.2	21.1	25.3	28.8	0.4	3.39(1.45)	
	시·군 ³	100(5,097)	19.9	5.1	18.8	24.7	31.1	0.4	3.42(1.47)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18.1	4.5	19.6	25.7	31.7	0.3	3.49(1.44)	17.080*** (a>b>c)
	한부모가정 ^나	100(868)	20.6	5.9	23.6	25.2	24.4	0.2	3.27(1.43)	
	조손가정 ^다	100(172)	27.9	10.5	18.6	18.6	24.4	0.0	3.01(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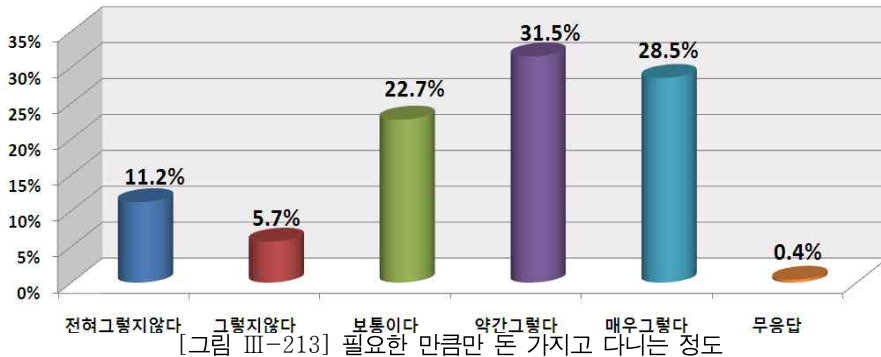
*** $p < .001$

2-2-2 필요한 만큼만 돈 가지고 다니는 정도

전체 응답자의 60.0%는 필요한 만큼만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응답함

○ 필요한 만큼만 돈 가지고 다니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 시·군, 광역시 순으로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표 III-292> 필요한 만큼만 돈 가지고 다니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11.2	5.7	22.7	31.5	28.5	0.4	3.61(1.26)	
성별									
남자	100(4,793)	15.3	5.5	23.0	27.6	28.3	0.4	3.48(1.36)	9.632***
여자	100(4,925)	7.2	5.9	22.5	35.3	28.9	0.3	3.73(1.15)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13.3	2.5	14.1	21.8	47.3	1.0	3.88(1.38)	101.765***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10.7	6.1	22.6	33.5	26.8	0.2	3.60(1.24)	
고등학교 ^다	100(3,794)	10.2	7.5	28.8	36.3	17.1	0.1	3.42(1.16)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9.5	4.8	22.0	32.1	31.3	0.3	3.71(1.23)	9.111*** (1>3>2)
광역시 ²	100(3,077)	11.8	6.3	23.9	31.2	26.4	0.4	3.54(1.27)	
시·군 ³	100(5,097)	11.4	5.6	22.2	31.4	29.0	0.4	3.61(1.27)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9.8	5.5	22.7	32.1	29.4	0.4	3.66(1.23)	27.992*** (a>b,c)
한부모가정 ^b	100(868)	14.4	7.3	26.8	30.4	21.0	0.1	3.36(1.29)	
조손가정 ^c	100(172)	18.6	7.0	22.7	27.3	24.4	0.0	3.32(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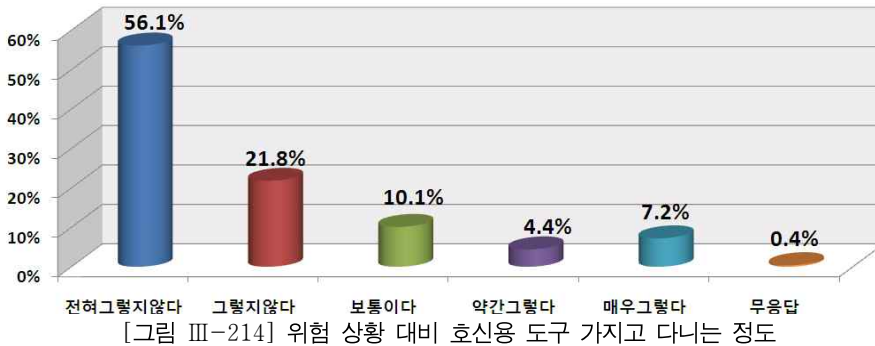
*** $p < .001$

2-2-3 위험 상황 대비 호신용 도구 가지고 다니는 정도

전체 응답자의 11.6%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호신용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응답함

○ 위험 상황 대비 호신용 도구 가지고 다니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와 시·군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한 부모가정보다 많았다.



<표 III-293> 위험 상황 대비 호신용 도구 가지고 다니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56.1	21.8	10.1	4.4	7.2	0.4	1.84(1.21)	
성별									5.815***
남자	100(4,793)	61.3	17.7	9.5	4.0	6.9	0.5	1.77(1.20)	
여자	100(4,925)	51.1	25.9	10.7	4.7	7.4	0.3	1.91(1.21)	
교급별									457.275*** (가>나>다)
초등학교 ^가	100(2,643)	39.9	19.4	15.7	7.8	16.2	1.0	2.40(1.48)	
중학교 ^나	100(3,257)	58.0	22.8	9.4	4.3	5.1	0.3	1.75(1.12)	
고등학교 ^다	100(3,794)	65.9	22.4	6.8	2.1	2.6	0.1	1.53(.91)	
거주지									5.342** (1>2,3)
서울 ¹	100(1,533)	52.9	23.3	10.4	4.6	8.5	0.3	1.92(1.26)	
광역시 ²	100(3,077)	57.7	21.4	10.0	3.8	6.7	0.4	1.80(1.18)	
시·군 ³	100(5,097)	56.2	21.6	10.1	4.7	7.0	0.5	1.84(1.21)	
가족구성									11.473*** (a,c>b)
양부모가정 ^a	100(8,128)	55.3	22.6	10.2	4.4	7.2	0.4	1.85(1.21)	
한부모가정 ^b	100(868)	63.7	19.1	8.9	2.8	5.1	0.5	1.66(1.09)	
조손가정 ^c	100(172)	52.9	19.2	11.6	7.6	8.1	0.6	1.98(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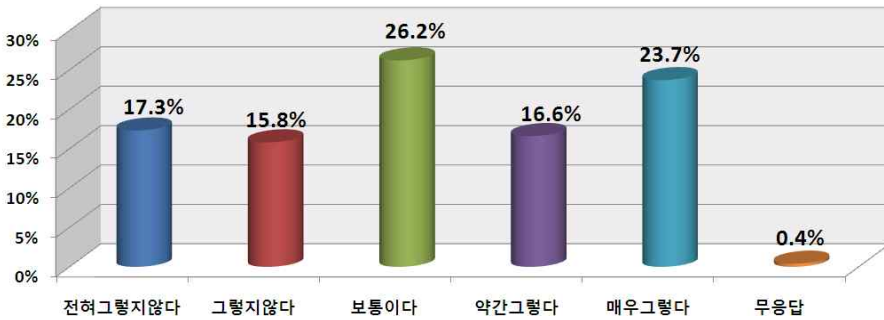
** $p<.01$, *** $p<.001$

2-2-4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는 정도

전체 응답자의 40.3%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응답함

○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과 시·군이 광역시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215]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는 정도

<표 III-294>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17.3	15.8	26.2	16.6	23.7	0.4	3.14(1.40)	
성별									
남자	100(4,793)	24.6	15.8	24.0	13.8	21.3	0.4	2.91(1.46)	15.730***
여자	100(4,925)	10.1	15.8	28.3	19.5	25.9	0.3	3.35(1.29)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13.0	5.3	14.5	15.9	50.6	0.8	3.86(1.42)	655.326***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15.8	16.2	28.7	19.5	19.4	0.4	3.11(1.33)	
고등학교 ^다	100(3,794)	21.7	22.8	32.3	14.5	8.5	0.2	2.65(1.21)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15.5	18.2	23.8	16.8	25.5	0.3	3.19(1.40)	13.441*** (1,3>2)
광역시 ²	100(3,077)	19.1	16.4	27.2	16.1	20.6	0.6	3.03(1.39)	
시·군 ³	100(5,097)	16.8	14.7	26.3	16.9	24.9	0.4	3.19((1.40)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15.9	16.1	26.4	17.4	23.8	0.4	3.17(1.38)	16.794*** (a>b,c)
한부모가정 ^나	100(868)	20.9	17.2	28.7	14.3	18.9	0.1	2.93(1.38)	
조손가정 ^다	100(172)	27.3	16.3	23.8	11.6	20.3	0.6	2.81(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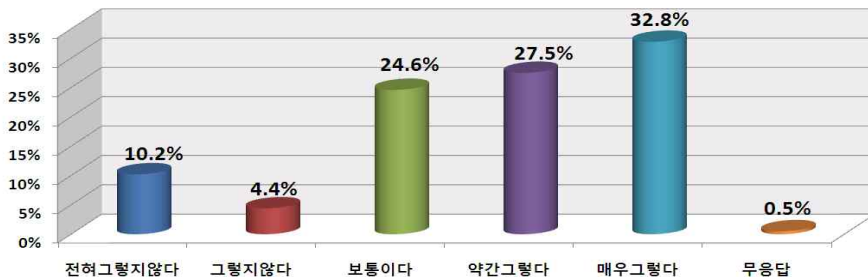
***p<.001

2-2-5 폭력 사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전체 응답자의 60.3%가 폭력을 사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응답함

○ 폭력 사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와 시·군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216] 폭력 사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표 III-295> 폭력 사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10.2	4.4	24.6	27.5	32.8	0.5	3.69(1.26)	
성별	남자	100(4,793)	14.7	5.7	27.0	23.7	28.3	0.6	3.45(1.35)
	여자	100(4,925)	5.7	3.2	22.4	31.1	37.2	0.4	3.91(1.11)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10.4	2.6	13.9	19.2	52.6	1.3	4.02(1.31)
	중학교 ^가	100(3,257)	10.0	4.6	27.1	29.9	28.0	0.3	3.61(1.22)
	고등학교 ^가	100(3,794)	10.2	5.5	30.2	31.0	23.0	0.2	3.51(1.20)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8.4	4.4	22.4	27.6	36.9	0.3	3.81(1.22)
	광역시 ²	100(3,077)	10.9	3.9	26.1	27.9	30.5	0.6	3.64(1.26)
	시·군 ³	100(5,097)	10.3	4.7	24.4	27.1	32.9	0.5	3.68(1.26)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8.8	4.3	24.3	28.2	33.8	0.5	3.74(1.22)
	한부모가정 ^b	100(868)	12.3	4.7	29.5	27.4	25.7	0.3	3.50(1.27)
	조손가정 ^c	100(172)	16.9	5.2	27.3	23.3	26.7	0.6	3.38(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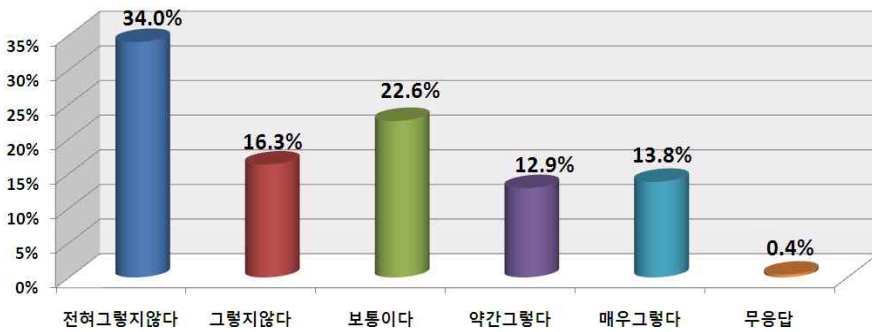
*** $p < .001$

2-2-6 고민이 있을 때 주위에 도움 청하는 정도

전체 응답자의 26.7%는 고민이 있을 때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응답함

○ 고민이 있을 때 주위에 도움 청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217] 고민이 있을 때 주위에 도움 청하는 정도

<표 III-296> 고민이 있을 때 주위에 도움 청하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34.0	16.3	22.6	12.9	13.8	0.4	2.56(1.42)	
성별	남자	100(4,793)	40.5	15.6	20.9	9.9	12.6	0.5	2.38(1.42)	12.209***
	여자	100(4,925)	27.8	17.0	24.3	15.7	14.9	0.3	2.73(1.40)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30.8	10.2	18.0	12.6	27.4	1.1	2.95(1.61)	150.688***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35.0	17.0	24.0	12.4	11.3	0.3	2.48(1.37)	
	고등학교 ^다	100(3,794)	35.6	19.8	24.6	13.4	6.3	0.1	2.35(1.26)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34.6	16.5	21.2	11.8	15.4	0.5	2.57(1.45)	1.436
	광역시 ²	100(3,077)	32.0	17.0	23.9	13.5	13.4	0.3	2.59(1.40)	
	시·군 ³	100(5,097)	35.1	15.8	22.3	12.8	13.5	0.5	2.54(1.42)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32.7	16.6	22.7	13.6	14.0	0.4	2.60(1.42)	17.611*** (a>b)
	한부모가정 ^나	100(868)	40.1	16.4	25.3	8.6	9.3	0.2	2.31(1.32)	
	조손가정 ^다	100(172)	41.9	15.1	16.9	12.8	13.4	0.0	2.41(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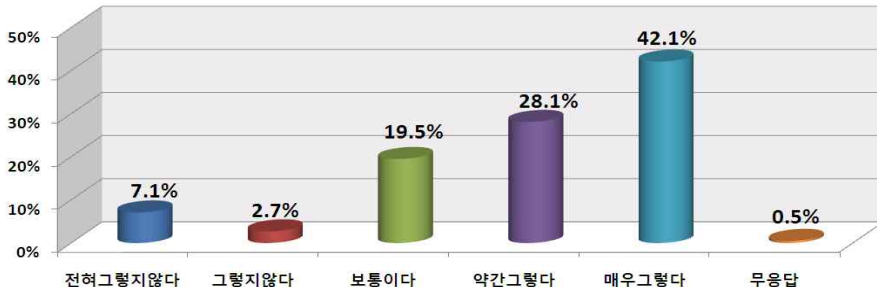
*** $p<.001$

2-2-7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전체 응답자의 70.2%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응답함**

○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218]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표 III-297>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7.1	2.7	19.5	28.1	42.1	0.5	3.96(1.17)	
성별									
남자	100(4,793)	10.2	2.6	18.7	27.0	40.8	0.7	3.86(1.27)	8.144***
여자	100(4,925)	4.0	2.8	20.3	29.1	43.5	0.2	4.05(1.06)	
교급별									
초등학교 ^가	100(2,643)	7.1	1.6	9.5	17.9	62.8	1.1	4.29(1.17)	148.652*** (가>나, 다)
중학교 ^나	100(3,257)	7.7	3.4	21.1	30.8	36.7	0.3	3.86(1.18)	
고등학교 ^다	100(3,794)	6.6	2.9	25.3	32.9	32.2	0.2	3.81(1.12)	
거주지									
서울 ¹	100(1,533)	7.4	2.8	18.2	26.1	44.9	0.6	3.99(1.19)	0.659
광역시 ²	100(3,077)	6.8	2.4	20.6	29.4	40.5	0.3	3.95(1.15)	
시·군 ³	100(5,097)	7.2	2.9	19.3	27.9	42.3	0.5	3.96(1.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5.9	2.5	19.5	28.7	42.9	0.4	4.01(1.12)	30.288*** (a>b>c)
한부모가정 ^나	100(868)	8.8	3.6	22.7	29.4	35.3	0.3	3.79(1.21)	
조손가정 ^다	100(172)	18.6	4.7	17.4	26.7	31.4	1.2	3.48(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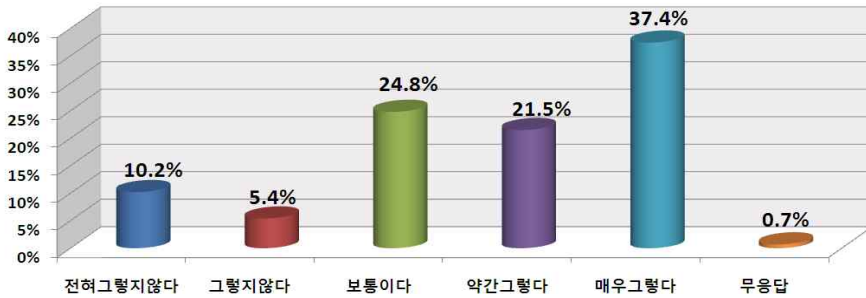
*** $p<.001$

2-2-8 가출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전체 응답자의 58.9%가 가출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응답함

○ 가출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219] 가출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표 III-298> 가출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10.2	5.4	24.8	21.5	37.4	0.7	3.71(1.30)	
성별									11.438***
남자	100(4,793)	14.7	5.7	24.4	18.4	36.0	0.9	3.56(1.41)	
여자	100(4,925)	5.8	5.2	25.2	24.5	38.9	0.4	3.86(1.17)	
교 급 별									229.984*** (가>나>다)
초등학교 ^가	100(2,643)	10.9	1.7	11.0	13.6	61.2	1.5	4.14(1.33)	
중학교 ^나	100(3,257)	9.9	5.9	26.0	23.7	34.0	0.5	3.66(1.27)	
고등학교 ^다	100(3,794)	10.0	7.7	33.4	24.9	23.7	0.3	3.45(1.22)	
거 주 지									1.849
서울 ¹	100(1,533)	9.8	5.9	22.3	21.0	40.3	0.8	3.77(1.30)	
광역시 ²	100(3,077)	9.8	5.5	25.8	22.2	36.2	0.5	3.70(1.28)	
시·군 ³	100(5,097)	10.6	5.3	24.9	21.2	37.3	0.8	3.70(1.31)	
가족 구성									26.268*** (a>b>c)
양부모가정 ^a	100(8,128)	8.8	5.3	24.7	22.3	38.3	0.7	3.76(1.26)	
한부모가정 ^b	100(868)	11.6	7.0	29.3	21.2	30.5	0.3	3.52(1.31)	
조손가정 ^c	100(172)	23.8	3.5	23.8	18.6	29.1	1.2	3.26(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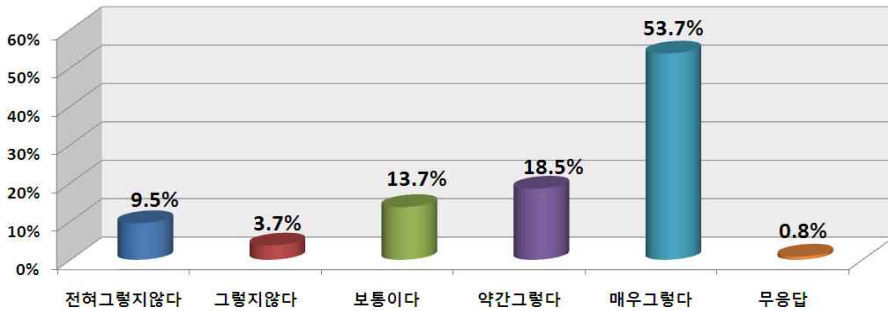
*** $p<.001$

2-2-9 유해매체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전체 응답자의 72.2%가 유해매체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응답함

○ 유해매체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과 시·군이 광역시보다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220] 유해매체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표 III-299> 유해매체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9.5	3.7	13.7	18.5	53.7	0.8	4.04(1.30)	
성별	남자	100(4,793)	14.2	5.8	18.5	17.1	43.5	0.9	3.71(1.44)	25.798***
	여자	100(4,925)	4.9	1.8	9.0	19.9	63.8	0.5	4.37(1.06)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8.3	1.1	3.9	6.7	78.2	1.8	4.48(1.19)	316.661***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9.4	3.3	10.9	19.4	56.6	0.4	4.11(1.28)	
	고등학교 ^다	100(3,794)	10.5	6.0	23.0	26.0	34.1	0.4	3.67(1.29)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9.0	3.5	13.2	16.6	56.9	0.8	4.10(1.29)	11.884*** (1,3>2)
	광역시 ²	100(3,077)	9.8	4.5	15.7	20.7	48.7	0.6	3.95(1.31)	
	시·군 ³	100(5,097)	9.5	3.3	12.7	17.8	55.8	0.9	4.08(1.30)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8.2	3.8	13.5	18.7	55.2	0.7	4.10(1.26)	22.910*** (a>b,c)
	한부모가정 ^b	100(868)	12.0	3.8	17.4	20.2	45.2	1.5	3.84(1.36)	
	조손가정 ^c	100(172)	19.8	2.9	12.2	15.7	47.7	1.7	3.70(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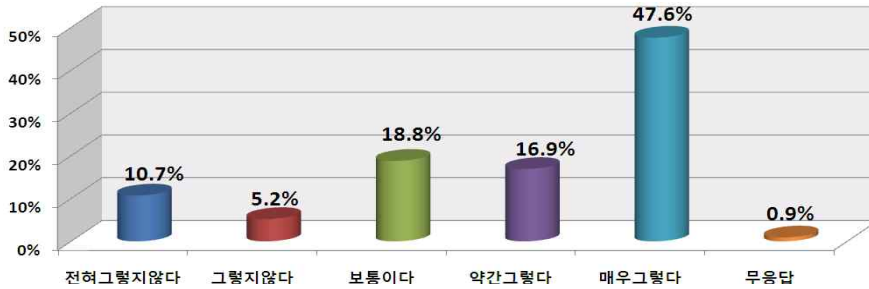
*** $p<.001$

2-2-10 유해매체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전체 응답자의 64.5%가 유해매체를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응답함

○ 유해매체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과 시·군이 광역시보다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Ⅲ-221] 유해매체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표 Ⅲ-300> 유해매체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10.7	5.2	18.8	16.9	47.6	0.9	3.86(1.35)	
성별									
남자	100(4,793)	16.1	6.8	21.8	15.5	38.5	1.3	3.54(1.47)	23.534***
여자	100(4,925)	5.4	3.6	15.8	18.3	56.4	0.5	4.17(1.15)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7.9	1.1	5.1	7.9	75.8	2.2	4.46(1.18)	498.870***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10.4	4.1	18.0	19.6	47.6	0.4	3.90(1.32)	
고등학교 ^다	100(3,794)	13.0	9.0	28.9	20.8	27.8	0.4	3.42(1.33)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9.2	5.7	18.4	15.2	50.7	0.8	3.93(1.33)	8.817*** (1,3>2)
광역시 ²	100(3,077)	10.9	5.9	20.9	18.0	43.5	0.7	3.78(1.35)	
시·군 ³	100(5,097)	11.1	4.6	17.6	16.7	49.0	1.0	3.89(1.36)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9.5	5.2	18.6	17.2	48.7	0.8	3.91(1.32)	21.240*** (a>b,c)
한부모가정 ^나	100(868)	12.8	5.6	24.3	16.7	39.3	1.3	3.65(1.38)	
조손가정 ^다	100(172)	20.3	5.2	16.3	14.0	41.9	2.3	3.53(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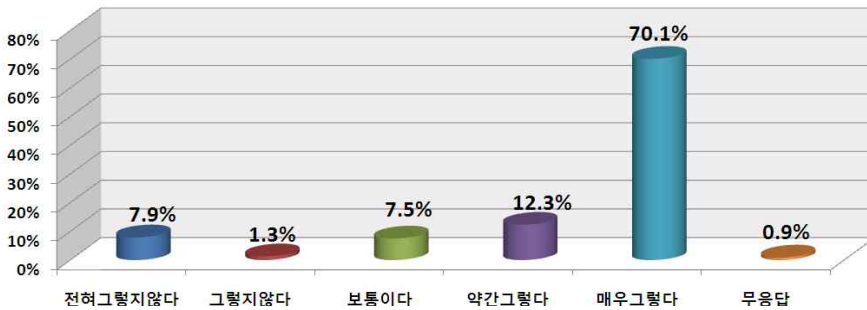
*** $p < .001$

2-2-11 유해약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전체 응답자의 82.4%가 유해약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응답함

○ 유해약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보다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222] 유해약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표 III-301> 유해약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7.9	1.3	7.5	12.3	70.1	0.9	4.37(1.19)	
성별	남자	100(4,793)	11.9	1.4	7.5	10.6	67.6	1.3	4.22(1.36)
	여자	100(4,925)	4.0	1.2	7.5	14.0	72.5	0.5	4.51(.98)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7.4	0.3	2.2	3.7	83.9	2.2	4.60(1.10)
	중학교 ^나	100(3,257)	7.6	1.3	6.8	12.8	71.1	0.4	4.39(1.17)
	고등학교 ^다	100(3,794)	8.6	2.0	11.8	18.0	59.3	0.4	4.18(1.24)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7.0	1.3	6.6	11.1	73.0	0.8	4.43(1.14)
	광역시 ²	100(3,077)	7.8	1.6	7.9	14.1	67.6	0.7	4.33(1.19)
	시·군 ³	100(5,097)	8.3	1.1	7.5	11.7	70.6	1.0	4.36(1.20)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6.8	1.2	7.2	12.5	71.6	0.8	4.42(1.13)
	한부모가정 ^b	100(868)	9.0	1.6	9.4	13.4	65.1	1.3	4.26(1.26)
	조손가정 ^c	100(172)	18.6	1.7	10.5	11.0	56.4	2.3	3.86(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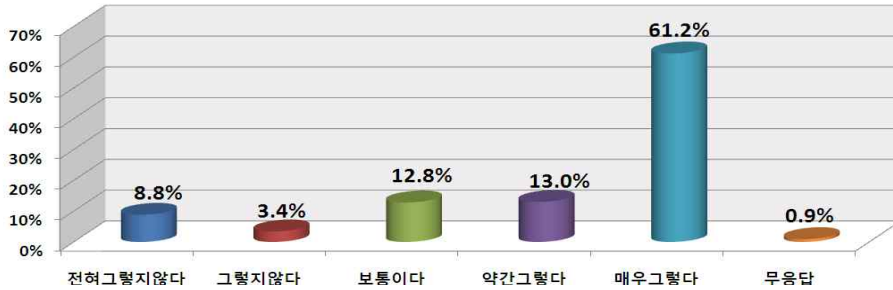
*** $p < .001$

2-2-12 유해약물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전체 응답자의 74.2%가 유해약물을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응답함

○ 유해약물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223] 유해약물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표 III-302> 유해약물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8.8	3.4	12.8	13.0	61.2	0.9	4.15(1.29)	
성별	남자	100(4,793)	12.9	3.4	13.0	11.1	58.5	1.0	4.00(1.43)
	여자	100(4,925)	4.7	3.4	12.6	14.7	63.9	0.7	4.31(1.11)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7.4	0.4	2.8	4.4	82.4	2.5	4.58(1.11)
	중학교 ^가	100(3,257)	7.9	2.6	12.0	14.5	62.5	0.3	4.22(1.23)
	고등학교 ^가	100(3,794)	10.5	6.1	20.4	17.6	45.0	0.3	3.81(1.35)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7.9	3.5	11.5	11.9	64.3	1.0	4.23(1.25)
	광역시 ²	100(3,077)	8.4	3.3	13.6	14.4	59.3	1.0	4.14(1.27)
	시·군 ³	100(5,097)	9.3	3.4	12.7	12.4	61.4	0.8	4.14(1.31)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7.5	3.3	12.5	13.2	62.6	0.8	4.21(1.24)
	한부모가정 ^b	100(868)	10.6	4.8	16.9	13.0	53.2	1.5	3.95(1.37)
	조손가정 ^c	100(172)	21.5	3.5	13.4	12.2	47.7	1.7	3.62(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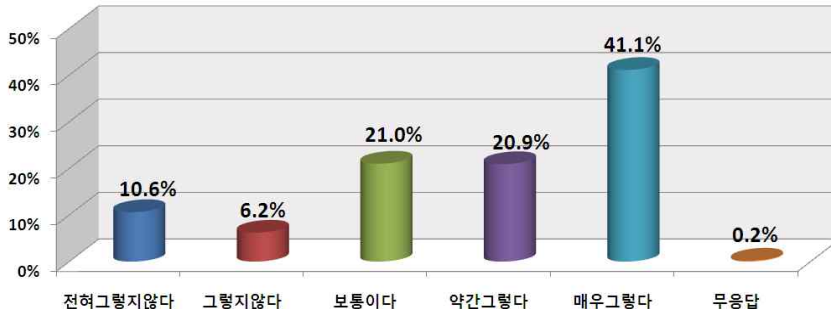
*** $p<.001$

2-2-13 유해업소 근처 피해 다니는 정도(초등학생 제외)

**전체 응답자의 62.0%가 유해업소 근처를
피해 다니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응답함**

○ 유해업소 근처 피해 다니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와 시·군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224] 유해업소 근처 피해 다니는 정도

<표 III-303> 유해업소 근처 피해 다니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7,084)	10.6	6.2	21.0	20.9	41.1	0.2	3.76(1.33)	
성별	남자	100(3,448)	16.5	7.1	21.4	17.3	37.4	0.2	3.52(1.46)	14.888***
	여자	100(3,633)	5.0	5.3	20.6	24.4	44.6	0.1	3.99(1.15)	
교 급 별	중학교	100(3,257)	9.0	3.8	15.1	18.1	53.9	0.2	4.04(1.28)	284.424***
	고등학교	100(3,794)	12.0	8.3	26.2	23.3	30.0	0.2	3.51(1.32)	
거 주 지	서울 ¹	100(1,131)	9.5	5.5	19.9	19.9	45.1	0.2	3.86(1.31)	3.846* (1>2,3)
	광역시 ²	100(2,336)	10.2	5.8	21.8	22.7	39.4	0.1	3.75(1.30)	
	시·군 ³	100(3,617)	11.2	6.7	20.8	20.1	41.1	0.2	3.73(1.35)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5,980)	9.2	6.1	21.0	21.0	42.6	0.2	3.82(1.29)	23.428*** (a>b>c)
	한부모가정 ^b	100(5,980)	9.2	6.1	21.0	21.0	42.6	0.2	3.59(1.35)	
	조손가정 ^c	100(705)	12.6	7.1	23.1	22.6	34.6	0.0	3.15(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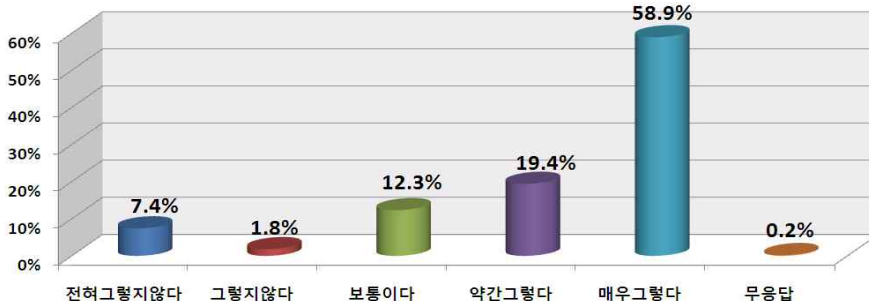
* $p<.05$, *** $p<.001$

2-2-14 유해업소 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초등학생 제외)

전체 응답자의 78.3%가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응답함

○ 유해업소 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225] 유해업소 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표 III-304> 유해업소 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7,084)	7.4	1.8	12.3	19.4	58.9	0.2	4.21(1.19)	
성별	남자	100(3,448)	11.7	2.2	13.4	17.8	54.7	0.3	4.02(1.35)	13.274***
	여자	100(3,633)	3.2	1.5	11.4	20.9	62.9	0.1	4.39(.97)	
교 급 별	중학교	100(3,257)	6.8	0.9	7.7	15.1	69.3	0.2	4.40(1.12)	154.594***
	고등학교	100(3,794)	7.9	2.7	16.4	23.1	49.7	0.2	4.04(1.22)	
거 주 지	서울 ¹	100(1,131)	7.3	1.1	11.1	17.3	63.0	0.2	4.28(1.17)	2.387
	광역시 ²	100(2,336)	6.8	1.8	12.9	21.4	57.0	0.2	4.20(1.16)	
	시·군 ³	100(3,617)	7.7	2.1	12.4	18.7	58.9	0.2	4.19(1.21)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5,980)	6.1	1.8	12.3	19.1	60.5	0.2	4.26(1.13)	21.305*** (a>b>c)
	한부모가정 ^b	100(5,980)	8.7	2.1	13.0	21.8	54.0	0.3	4.11(1.24)	
	조손가정 ^c	100(705)	20.3	3.4	11.0	21.2	44.1	0.0	3.65(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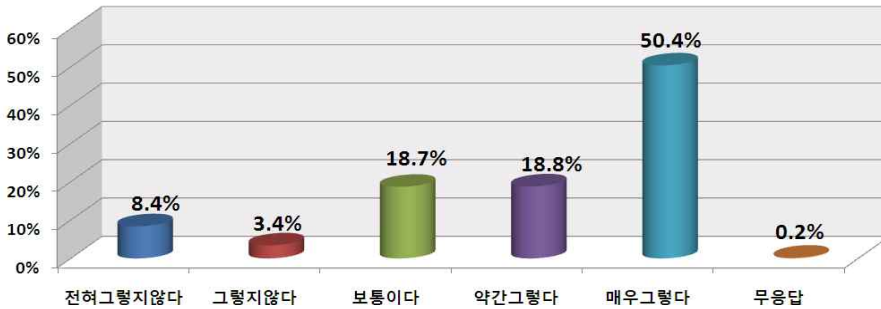
***p<.001

2-2-15 유해업소 출입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초등학생 제외)

**전체 응답자의 69.2%가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응답함**

○ 유해업소 출입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그림 Ⅲ-226] 유해업소 출입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표 Ⅲ-305> 유해업소 출입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7,084)	8.4	3.4	18.7	18.8	50.4	0.2	4.00(1.26)	
성별	남자	100(3,448)	12.9	3.6	20.1	16.9	46.2	0.3	3.80(1.39)	12.821***
	여자	100(3,633)	4.1	3.2	17.4	20.7	54.4	0.1	4.18(1.09)	
교 급 별	중학교	100(3,257)	7.3	1.7	11.8	16.1	62.9	0.2	4.26(1.19)	269.233***
	고등학교	100(3,794)	9.4	4.9	24.8	21.2	39.5	0.2	3.77(1.28)	
거 주 지	서울 ¹	100(1,131)	7.9	3.4	17.2	17.3	54.0	0.2	4.06(1.25)	2.542
	광역시 ²	100(2,336)	7.8	3.3	18.6	20.8	49.3	0.2	4.01(1.23)	
	시·군 ³	100(3,617)	9.0	3.5	19.2	18.0	50.1	0.2	3.97(1.28)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5,980)	7.1	3.3	18.5	18.9	52.0	0.2	4.06(1.21)	27.799*** (a>b>c)
	한부모가정 ^b	100(5,980)	9.9	4.4	21.3	19.7	44.5	0.1	3.85(1.31)	
	조손가정 ^c	100(705)	25.4	2.5	19.5	17.8	34.7	0.0	3.34(1.59)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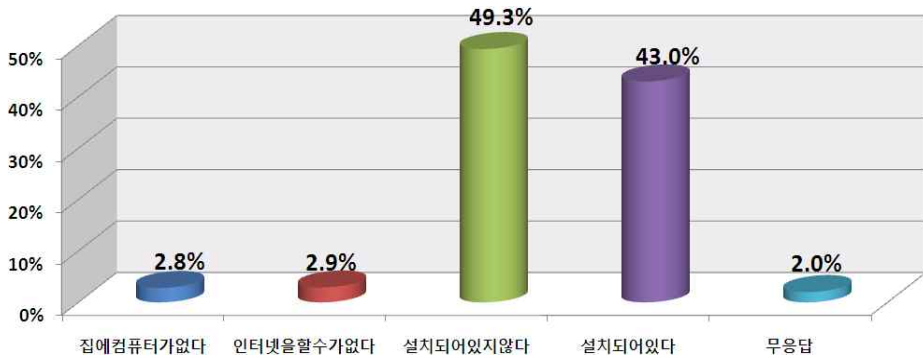
2-3 보호환경

2-3-1 현재 집에 인터넷사용제한 프로그램 설치여부

청소년들 중 인터넷사용제한 프로그램이 집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49.3%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43.0%)보다 많음

○ 청소년들 중 절반 정도가 인터넷사용제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교급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가족구성별로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림 III-227] 현재 집에 인터넷사용제한 프로그램 설치 여부

<표 III-306> 현재 집에 인터넷사용제한 프로그램 설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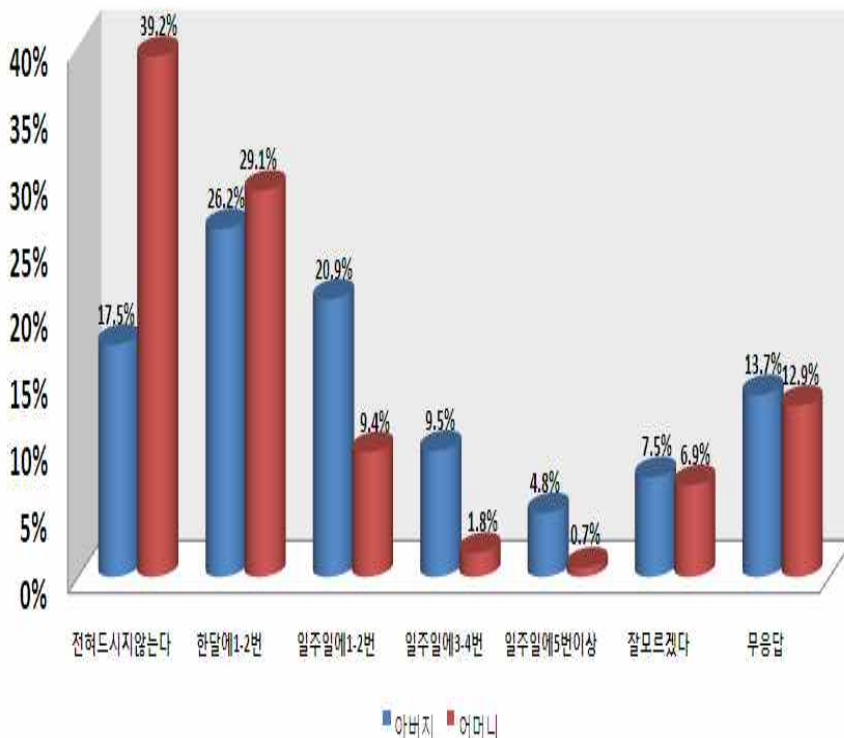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집에 컴퓨터가 없다	인터넷을 할 수가 없다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설치되어 있다	무응답
전체		100(9,727)	2.8	2.9	49.3	43.0	2.0
성별	남자	100(4,793)	3.8	3.5	49.2	41.1	2.4
	여자	100(4,925)	1.9	2.3	49.4	44.9	1.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1.9	3.9	44.0	44.7	5.4
	중학교	100(3,257)	2.7	2.7	49.8	43.9	1.0
	고등학교	100(3,794)	3.6	2.3	52.5	41.0	0.6
거주지	서울	100(1,533)	2.1	2.3	49.9	44.4	1.4
	광역시	100(3,077)	2.5	3.0	51.4	41.3	1.9
	시·군	100(5,097)	3.3	3.0	47.8	43.6	2.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2.2	2.6	49.5	43.9	1.9
	한부모가정	100(868)	5.6	4.3	52.8	36.2	1.2
	조손가정	100(172)	11.0	7.6	44.2	34.9	2.3

2-3-2 부모님 음주여부 및 빈도¹⁾

응답자의 부모 중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머니(39.2%)가 아버지(17.5%)보다 많았고, 일주일에 1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는 아버지(35.2%)가 어머니(11.9%)보다 많았음

○ 청소년의 부모 중 음주를 하지 않는 아버지는 10명 중 2명이 되지 않았고, 10명 중 3명 이상은 아버지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음주를 하였다.

- 교급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음주를 하는 부모가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한 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많았다.



[그림 III-228] 부모님 음주여부 및 빈도

1) 설문지 문 39(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를 제시함

2-3-2-① 아버지 음주여부 및 빈도

<표 III-307> 아버지 음주여부 및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드시지 않는다	한달에 1~2번	일주일 에 1~2번	일주일 에 3~4번	일주일 에 5번 이상	잘 모르 겠다	무응답
전체		100(9,727)	17.5	26.2	20.9	9.5	4.8	7.5	13.7
성별	남자	100(4,793)	18.2	25.3	19.9	9.2	4.8	6.8	15.9
	여자	100(4,925)	16.9	27.0	21.8	9.9	4.8	8.1	11.5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19.4	27.9	17.6	6.1	3.2	9.0	16.8
	중학교	100(3,257)	17.5	25.3	21.3	10.8	5.3	8.0	11.9
	고등학교	100(3,794)	16.1	25.6	22.8	10.9	5.5	6.0	13.1
거주지	서울	100(1,533)	18.2	25.5	20.7	9.9	5.2	7.0	13.5
	광역시	100(3,077)	17.0	27.4	20.1	9.3	4.3	7.2	14.6
	시·군	100(5,097)	17.6	25.6	21.3	9.6	5.0	7.7	13.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20.0	30.3	24.1	10.8	5.4	8.5	0.9
	한부모가정	100(868)	8.9	9.6	8.3	5.4	2.8	4.3	60.8
	조손가정	100(172)	0.0	0.0	0.0	0.0	0.0	0.0	100.0

2-3-2-② 어머니 음주여부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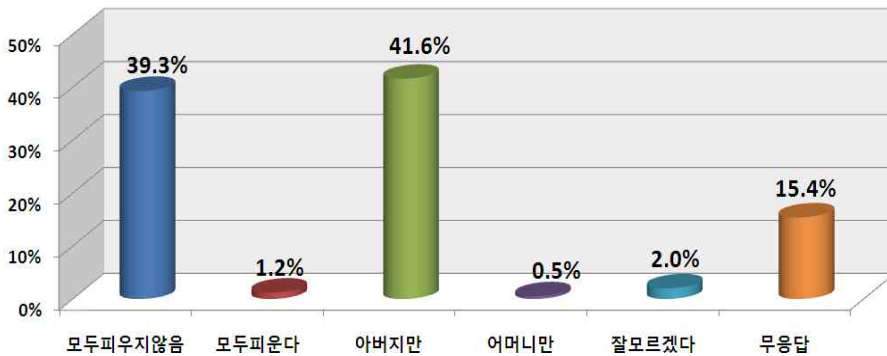
<표 III-308> 어머니 음주여부 및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드시지 않는다	한달에 1~2회	일주일 에 1~2회	일주일 에 3~4회	일주일 에 5회 이상	잘 모르 겠다	무응답
전체		100(9,727)	39.2	29.1	9.4	1.8	0.7	6.9	12.9
성별	남자	100(4,793)	40.6	27.3	8.1	1.6	0.5	6.2	15.7
	여자	100(4,925)	37.9	30.8	10.7	2.1	0.9	7.6	10.0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41.3	24.9	5.9	1.2	0.5	7.6	18.7
	중학교	100(3,257)	39.1	29.9	9.9	2.3	0.6	7.6	10.6
	고등학교	100(3,794)	37.9	31.2	11.5	2.0	0.9	5.9	10.6
거주지	서울	100(1,533)	40.8	29.1	10.0	1.9	0.5	5.9	11.9
	광역시	100(3,077)	39.0	29.4	9.3	1.7	0.7	6.7	13.3
	시·군	100(5,097)	38.8	28.9	9.3	1.9	0.8	7.4	12.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44.6	32.8	10.5	1.9	0.7	7.5	2.0
	한부모가정	100(868)	21.3	18.4	7.0	2.8	1.5	7.5	41.5
	조손가정	100(172)	0.0	0.0	0.0	0.0	0.0	0.0	100.0

2-3-3 부모님 흡연여부2)

**응답자의 부모님 흡연여부는 ‘아버지만 피우신다(41.6%)’와
‘두 분 모두 피우시지 않는다(39.3%)’로 응답함**

○ 청소년의 부모가 모두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는 10명 중 4명 정도였고, 아버지만 흡연을 하는 경우가 10명 중 4명 정도였다.



[그림 III-229] 부모님 흡연여부 및 빈도

<표 III-309> 부모님 흡연여부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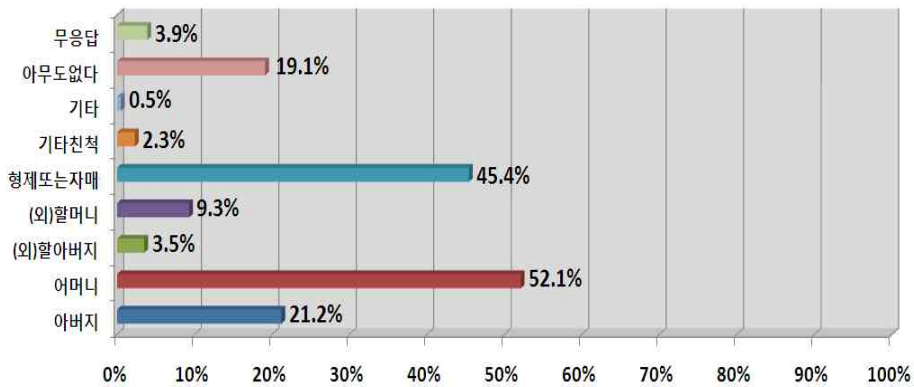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두분 모두 피우시지 않는다	두분 모두 피우신다	아버지만 피우신다	어머니만 피우신다	잘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100(9,698)	39.3	1.2	41.6	0.5	2.0	15.4
성별	남자	100(4,774)	38.2	0.9	40.0	0.4	2.4	18.0
	여자	100(4,915)	40.4	1.4	43.2	0.5	1.7	12.8
교육별	초등학교	100(2,632)	38.9	0.8	37.4	0.4	1.6	21.0
	중학교	100(3,246)	39.5	1.4	43.0	0.6	2.6	12.9
	고등학교	100(3,787)	39.5	1.2	43.3	0.4	1.9	13.7
거주지	서울	100(1,546)	41.0	1.4	40.1	0.6	2.1	14.8
	광역시	100(3,067)	38.3	0.9	42.3	0.4	2.0	16.2
	시·군	100(5,085)	39.5	1.3	41.6	0.5	2.1	15.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46.9	1.4	47.1	0.4	1.7	2.4
	한부모가정	100(868)	0.0	0.0	22.9	1.7	6.8	68.5
	조손가정	100(158)	0.0	0.0	0.0	0.0	0.0	100.0

2) 설문지 문 39(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를 제시함

2-3-4 하교 후 집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³⁾

**청소년들이 하교 후 집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은 ‘어머니(52.1%)’,
‘형제 또는 자매(45.4%)’, ‘아버지(21.2%)’ 순으로 많았고,
아무도 없는 경우는 19.1%로 응답함**

○ 청소년들이 하교 후 집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가 10명 중 2명 정도였다.



[그림 III-230] 하교 후 집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

<표 III-310> 하교 후 집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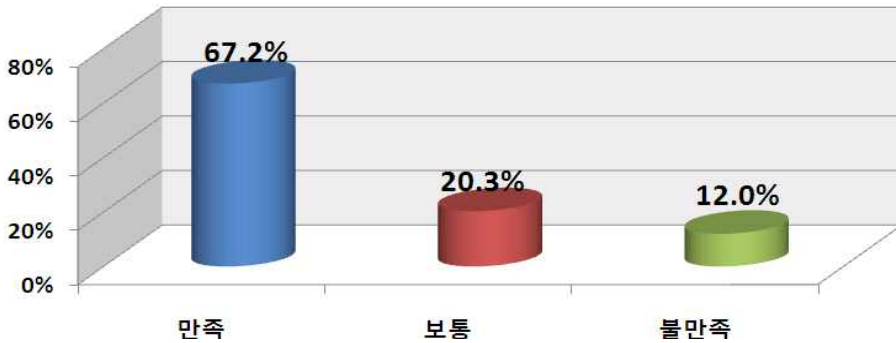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아버지	어머니	(외)할 아버지	(외)할 머니	형제 또는 자매	기타 친척	기타	아무도 없다	무응답
전체		100(9,727)	21.2	52.1	3.5	9.3	45.4	2.3	0.5	19.1	3.9
성별	남자	100(4,793)	21.4	50.3	3.2	9.0	40.4	2.1	0.4	20.5	4.9
	여자	100(4,925)	21.0	53.9	3.7	9.7	50.3	2.6	0.5	17.8	2.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11.9	48.2	3.8	9.9	36.5	3.5	0.4	20.7	6.1
	중학교	100(3,257)	13.6	46.2	3.4	9.5	43.4	1.8	0.2	23.2	3.2
	고등학교	100(3,794)	34.1	59.9	3.3	8.8	53.2	2.0	0.6	14.6	2.7
거주지	서울	100(1,533)	12.0	48.1	3.5	10.2	44.1	3.4	0.5	22.1	2.9
	광역시	100(3,077)	23.7	54.2	3.5	9.0	45.7	1.7	0.3	17.9	4.1
	시·군	100(5,097)	22.4	52.0	3.4	9.2	45.5	2.4	0.6	18.9	4.0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24.0	59.1	2.9	8.2	47.3	1.7	0.4	18.0	1.5
	한부모가정	100(868)	11.9	29.7	5.7	16.2	40.8	5.4	0.6	23.1	3.9
	조손가정	100(172)	0.0	0.0	23.4	39.5	27.5	10.8	0.0	15.0	20.4

3) 설문지 문 39(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를 제시함

2-3-5 현재 가정생활의 만족도

전체 응답자의 67.2%가 현재의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함

- 현재 가정생활의 만족도는 교급별과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그림 III-231] 현재 가정생활의 만족도

<표 III-311> 현재 가정생활의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만족하 지 않는 다	별로 만족하 지 않는 다	그저 그렇다	약간 만족한 다	매우 만족한 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4.2	7.8	20.3	22.8	44.4	0.5	3.96(1.16)	
성별	남자	100(4,793)	4.7	7.1	20.1	22.6	44.8	0.7	3.96(1.17)	0.324
	여자	100(4,925)	3.7	8.5	20.4	23.0	44.1	0.3	3.96(1.15)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2.8	4.3	11.9	17.0	63.2	0.9	4.35(1.03)	217.854***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4.5	8.9	21.9	23.6	40.6	0.5	3.87(1.17)	
	고등학교 ^다	100(3,794)	4.9	9.5	24.9	26.1	34.4	0.3	3.76(1.16)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4.8	7.7	18.9	24.0	44.2	0.4	3.95(1.17)	1.245
	광역시 ²	100(3,077)	3.3	7.2	21.2	23.4	44.3	0.5	3.99(1.12)	
	시·군 ³	100(5,097)	4.5	8.3	20.1	22.0	44.6	0.5	3.94(1.18)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3.4	7.3	19.5	23.3	46.0	0.4	4.02(1.12)	85.196*** (a>b>c)
	한부모가정 ^나	100(868)	6.2	13.1	27.6	21.3	31.3	0.3	3.59(1.23)	
	조손가정 ^다	100(172)	16.3	11.6	25.0	18.6	27.9	0.6	3.30(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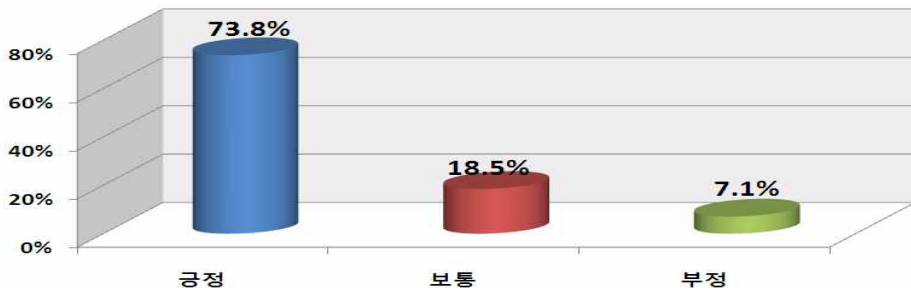
*** $p<.001$

2-3-6 청소년 위험행동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데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

**전체 응답자의 73.8%가 청소년 위험행동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데 부모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응답함**

○ 청소년 위험행동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데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의 부모가 남자의 부모보다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부모의 관심이 높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관심이 높았다.



[그림 III-232] 청소년 위험행동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데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

<표 III-312> 청소년 위험행동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데 대한 부모의 관심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4.8	2.3	18.5	28.6	45.1	0.6	4.08(1.08)	
성별	남자	100(4,793)	7.1	2.5	19.1	28.6	42.2	0.6	3.97(1.16)
	여자	100(4,925)	2.7	2.1	17.9	28.7	48.1	0.5	4.18(.98)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4.4	1.4	8.9	18.5	65.9	0.9	4.42(1.02)
	중학교 ^나	100(3,257)	4.7	2.3	19.4	30.5	42.6	0.5	4.04(1.07)
	고등학교 ^다	100(3,794)	5.3	2.9	24.5	34.2	32.7	0.4	3.86(1.07)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4.5	2.1	17.8	27.7	47.3	0.6	4.12(1.07)
	광역시 ²	100(3,077)	4.7	2.3	18.8	29.7	43.9	0.5	4.06(1.07)
	시·군 ³	100(5,097)	5.0	2.3	18.5	28.3	45.3	0.6	4.07(1.09)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3.9	2.2	18.2	29.3	46.0	0.5	4.12(1.03)
	한부모가정 ^b	100(868)	6.0	3.7	22.8	28.9	38.2	0.3	3.90(1.14)
	조손가정 ^c	100(172)	18.6	5.2	17.4	20.9	37.8	0.0	3.54(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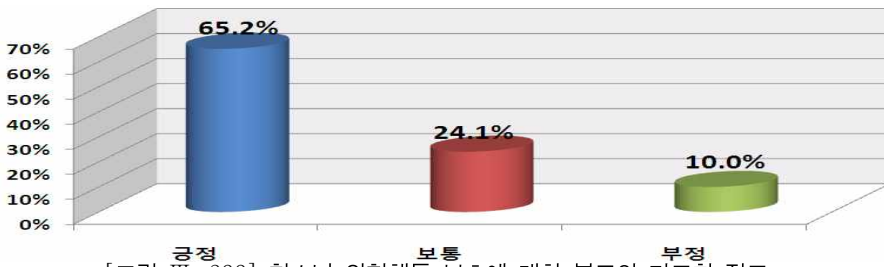
*** $p<.001$

2-3-7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 정도

**전체 응답자의 65.2%가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호에 대해
부모가 가르침과 주의를 주는 것으로 응답함**

○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호에 대해 부모가 가르침과 주의를 주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의 부모가 남자의 부모보다 가르침을 많이 주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부모의 가르침이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의 부모들이 광역시와 시·군의 부모들보다 가르침이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부모의 가르침이 많았다.



[그림 III-233]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 정도

<표 III-313>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5.1	5.0	24.1	28.2	37.0	0.7	3.88(1.12)	
성별	남자	100(4,793)	7.3	5.2	24.7	27.5	34.5	0.7	3.77(1.19)
	여자	100(4,925)	2.9	4.7	23.5	29.0	39.4	0.6	3.98(1.04)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3.7	2.6	11.9	20.6	60.1	1.1	4.32(1.03)
	중학교 ^나	100(3,257)	5.1	3.8	26.2	29.3	34.9	0.6	3.86(1.10)
	고등학교 ^다	100(3,794)	6.1	7.6	30.8	32.6	22.5	0.4	3.58(1.10)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4.7	4.2	22.3	28.8	39.1	0.8	3.94(1.10)
	광역시 ²	100(3,077)	4.7	5.6	24.5	28.7	36.0	0.6	3.86(1.11)
	시·군 ³	100(5,097)	5.4	4.8	24.4	27.7	36.9	0.7	3.87(1.13)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4.1	4.6	24.1	28.9	37.6	0.6	3.92(1.08)
	한부모가정 ^b	100(868)	7.0	7.6	27.9	28.6	28.1	0.8	3.64(1.17)
	조손가정 ^c	100(172)	18.6	7.0	21.5	17.4	35.5	0.0	3.44(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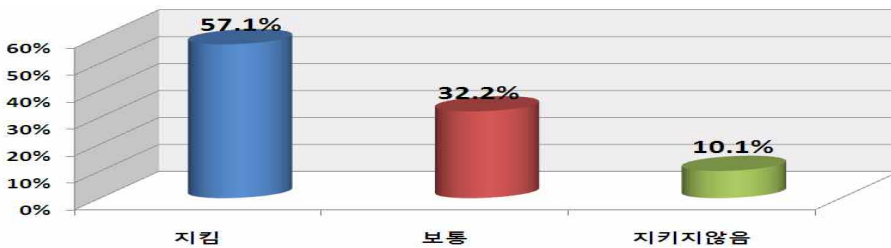
* $p<.05$, *** $p<.001$

2-3-8 친한 친구들의 친사회적 기대

**친한 친구들이 학교에서 규칙을 잘 지키는 경우는 57.1%로
잘 지키지 않는 경우(10.1%)보다 많았음**

○ 친한 친구들이 학교 규칙을 잘 지키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의 친한 친구들이 학교 규칙을 잘 지켰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친한 친구들이 학교 규칙을 잘 지켰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 광역시, 시·군 순으로 친한 친구들이 학교 규칙을 잘 지켰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친한 친구들이 학교 규칙을 잘 지켰다.



[그림 III-234] 친한 친구들의 친사회적 기대

<표 III-314> 친한 친구들의 친사회적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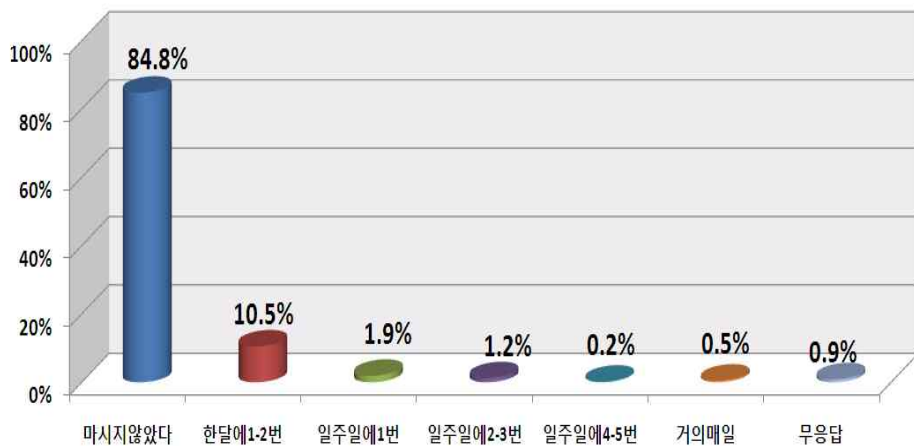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지키지 않는다	별로 지키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지킨다	매우 잘 지킨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2.7	7.4	32.2	36.0	21.1	0.6	3.66(.98)	
성별	남자	100(4,793)	3.7	8.4	34.6	34.4	18.3	0.6	3.56(1.00)	10.180***
	여자	100(4,925)	1.6	6.5	30.0	37.6	23.8	0.5	3.76(.94)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1.7	5.4	23.6	38.1	29.9	1.3	3.90(.94)	119.587***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2.6	8.0	34.1	36.1	18.7	0.5	3.61(.97)	
	고등학교 ^다	100(3,794)	3.4	8.5	36.7	34.4	16.7	0.3	3.53(.98)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2.4	6.2	29.1	37.6	24.3	0.5	3.76(.97)	12.020*** (1>2>3)
	광역시 ²	100(3,077)	2.5	7.1	31.6	37.5	20.7	0.6	3.67(.96)	
	시·군 ³	100(5,097)	2.9	8.0	33.5	34.6	20.3	0.7	3.62(.99)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2.2	7.1	31.3	36.9	21.9	0.6	3.70(.96)	38.664*** (a>b>c)
	한부모가정 ^b	100(868)	3.6	9.6	38.7	34.1	13.7	0.3	3.45(.96)	
	조손가정 ^c	100(172)	11.6	10.5	32.6	26.2	18.0	1.2	3.29(1.22)	

*** $p<.001$

2-3-9 최근 한 달 동안 친한 친구들의 음주여부 및 빈도

최근 한 달 동안 친한 친구들이 ‘음주를 한 경우’는 14.3%,
‘한 달에 1~2회’ 10.5%, ‘일주일에 한 번 이상’ 3.8%로 응답하였음

○ 친한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10명 중 1명 이상이었다.



[그림 III-235] 최근 한 달 동안 친한 친구들의 음주여부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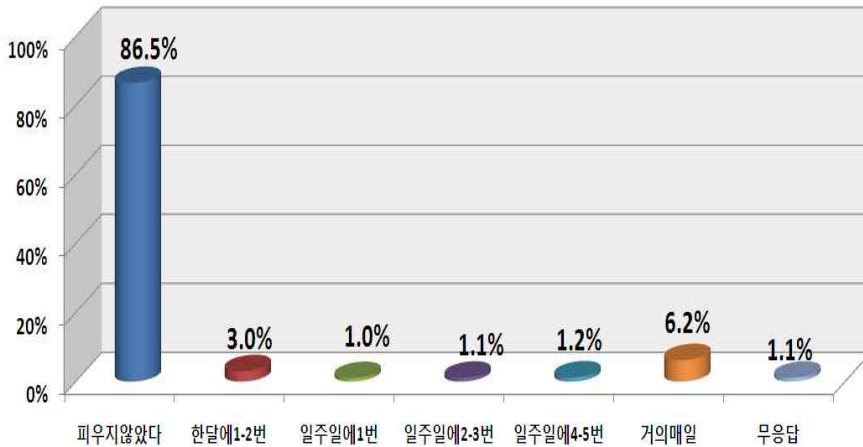
<표 III-315> 최근 한 달 동안 친한 친구들의 음주여부 및 빈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마시지 않았다	한달에 1~2번	일주일 에 1번	일주일 에 2~3번	일주일 에 4~5번	거의 매일	무응답
전체		100(9,727)	84.8	10.5	1.9	1.2	0.2	0.5	0.9
성별	남자	100(4,793)	83.9	10.7	2.0	1.3	0.4	0.7	1.1
	여자	100(4,925)	85.8	10.3	1.8	1.0	0.1	0.3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6.2	2.0	0.2	0.0	0.0	0.1	1.5
	중학교	100(3,257)	91.1	6.7	0.5	0.6	0.1	0.3	0.7
	고등학교	100(3,794)	71.4	19.7	4.3	2.5	0.5	1.0	0.6
거주지	서울	100(1,533)	86.0	10.2	1.5	0.8	0.1	0.5	0.8
	광역시	100(3,077)	83.9	11.6	1.9	1.1	0.2	0.3	0.9
	시·군	100(5,097)	85.0	9.9	2.0	1.3	0.3	0.6	0.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5.8	10.0	1.8	1.1	0.2	0.4	0.7
	한부모가정	100(868)	77.3	16.1	2.9	1.6	0.7	0.7	0.7
	조손가정	100(172)	77.3	16.3	2.3	1.2	0.0	1.7	1.2

2-3-10 최근 한 달 동안 친한 친구들의 흡연여부 및 빈도

**최근 한 달 동안 친한 친구들이 ‘흡연을 한 경우’는 12.5%,
‘거의 매일’ 6.2%, ‘한 달에 1~2회’ 3.0%로 응답하였음**

○ 친한 친구들이 한 달 동안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10명 중 1명 이상이었다.



[그림 Ⅲ-236] 최근 한 달 동안 친한 친구들의 흡연여부 및 빈도

<표 Ⅲ-316> 최근 한 달 동안 친한 친구들의 흡연여부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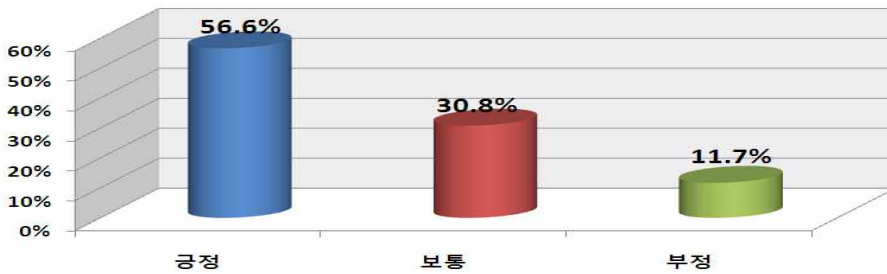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피우지 않았다	한달에 1~2번	일주일 예 1번	일주일 예 2~3번	일주일예 4~5번	거의 매일	무응답
전체		100(9,727)	86.5	3.0	1.0	1.1	1.2	6.2	1.1
성별	남자	100(4,793)	82.3	3.7	1.2	1.4	1.7	8.4	1.2
	여자	100(4,925)	90.6	2.3	0.7	0.8	0.6	4.0	0.9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6.9	1.2	0.2	0.2	0.0	0.0	1.5
	중학교	100(3,257)	89.1	3.4	1.3	1.1	1.3	2.9	1.0
	고등학교	100(3,794)	76.9	4.0	1.2	1.8	1.9	13.3	0.9
거주지	서울	100(1,533)	87.0	3.6	1.1	1.2	0.9	5.4	0.8
	광역시	100(3,077)	86.7	2.7	0.7	1.2	1.3	6.4	1.0
	시·군	100(5,097)	86.2	3.0	1.1	1.1	1.2	6.3	1.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7.6	2.8	0.9	1.0	1.0	5.7	1.0
	한부모가정	100(868)	79.7	4.3	1.5	1.5	2.0	10.5	0.6
	조손가정	100(172)	73.3	8.1	1.2	3.5	4.1	8.7	1.2

2-3-11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학교의 노력 정도

전체 응답자의 56.6%가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호에 대해 학교가 노력하는 것으로 응답함

○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학교의 노력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 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학교의 노력정도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학교의 노력정도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학교의 노력정도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237]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학교의 노력 정도

<표 III-317>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학교의 노력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5.9	5.8	30.8	25.7	31.0	0.9	3.71(1.14)	
성별									
남자	100(4,793)	7.9	5.4	28.6	25.2	31.7	1.1	3.66(1.21)	4.048***
여자	100(4,925)	3.8	6.1	32.6	26.7	30.1	0.7	3.75(1.07)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3.0	1.2	11.7	20.8	61.6	1.7	4.34(.99)	748.812***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5.6	4.9	31.1	29.7	27.9	0.7	3.69(1.12)	
고등학교 ^다	100(3,794)	8.0	9.8	43.4	26.3	12.0	0.6	3.28(1.06)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5.7	5.8	30.7	24.2	32.7	0.9	3.76(1.15)	2.549
광역시 ²	100(3,077)	5.7	6.0	31.0	27.1	29.4	0.8	3.68(1.13)	
시·군 ³	100(5,097)	6.0	5.6	30.4	25.8	31.2	1.0	3.71(1.15)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5.0	5.8	30.6	26.8	31.0	0.8	3.74(1.12)	27.795*** (a>b,c)
한부모가정 ^b	100(868)	6.8	6.3	37.9	24.3	23.8	0.8	3.48(1.15)	
조손가정 ^c	100(172)	18.6	6.4	23.3	18.0	32.6	1.2	3.40(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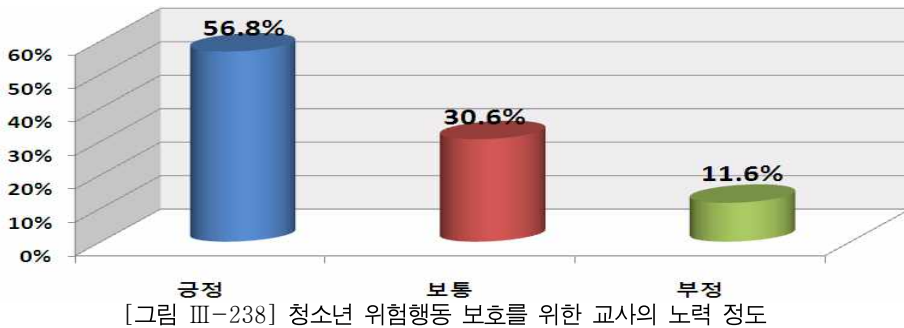
*** $p < .001$

2-3-12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교사의 노력 정도

전체 응답자의 56.8%가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호에 대해 교사가 노력하는 것으로 응답함

○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교사의 노력 정도는 성별, 교급별, 가족 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사의 노력정도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교사의 노력정도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교사의 노력정도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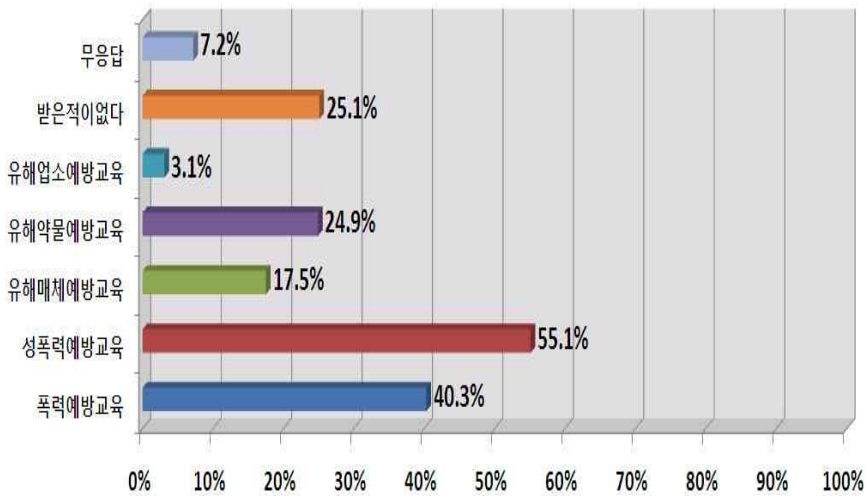
<표 III-318>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교사의 노력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5.8	5.8	30.6	25.9	30.9	0.9	3.71(1.14)	
성별									
남자	100(4,793)	7.9	5.4	28.6	25.2	31.7	1.1	3.68(1.20)	2.459*
여자	100(4,925)	3.8	6.1	32.6	26.7	30.1	0.7	3.74(1.07)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3.0	1.2	11.7	20.8	61.6	1.7	4.39(.96)	915.861***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5.6	4.9	31.1	29.7	27.9	0.7	3.70(1.10)	
고등학교 ^다	100(3,794)	8.0	9.8	43.4	26.3	12.0	0.6	3.25(1.05)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5.7	5.8	30.7	24.2	32.7	0.9	3.73(1.15)	0.668
광역시 ²	100(3,077)	5.7	6.0	31.0	27.1	29.4	0.8	3.69(1.13)	
시·군 ³	100(5,097)	6.0	5.6	30.4	25.8	31.2	1.0	3.71(1.14)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가	100(8,128)	5.0	5.8	30.6	26.8	31.0	0.8	3.73(1.11)	20.061*** (a>b,c)
한부모가정 ^나	100(868)	6.8	6.3	37.9	24.3	23.8	0.8	3.52(1.13)	
조손가정 ^다	100(172)	18.6	6.4	23.3	18.0	32.6	1.2	3.40(1.47)	

***p<.001

2-3-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교육 수혜여부

**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55.1%)’, ‘폭력 예방교육(40.3%)’, ‘유해약물
예방교육(24.9%)’, ‘유해매체 예방교육(17.5%)’ 순으로
예방교육을 받았으며,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에 25.1%가 응답함**



[그림 III-239]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교육 수혜여부(복수응답)

<표 III-319>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교육 수혜여부(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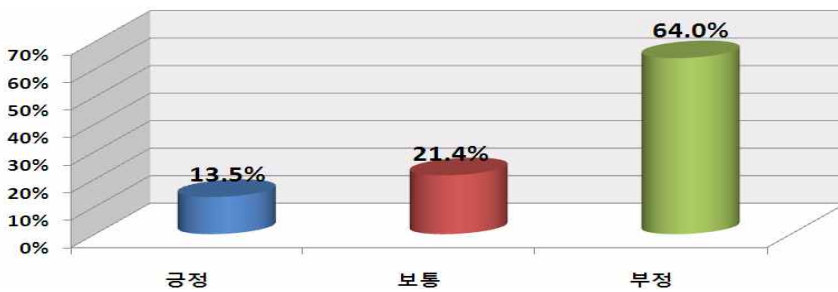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폭력예 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유해 매체 예방 교육	유해 약물 예방 교육	유해 업소 예방 교육	받은적 없다	무 응 답
전체		100(9,727)	40.3	55.1	17.5	24.9	3.1	25.1	7.2
성별	남자	100(4,793)	42.6	53.3	18.4	24.8	3.4	23.4	8.7
	여자	100(4,925)	38.1	57.0	16.6	25.1	2.7	26.8	5.7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58.0	70.7	29.5	30.5	0.0	11.1	7.0
	중학교	100(3,257)	40.3	53.7	16.9	26.7	5.3	25.2	7.0
	고등학교	100(3,794)	28.2	45.8	9.8	19.7	3.2	34.4	7.6
거주지	서울	100(1,533)	38.0	52.9	19.2	25.8	3.7	28.8	6.8
	광역시	100(3,077)	39.5	56.7	16.7	23.6	3.3	24.3	7.1
	시·군	100(5,097)	41.5	54.9	17.4	25.5	2.7	24.5	7.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40.3	56.3	18.0	25.4	3.0	25.2	6.6
	한부모가정	100(868)	37.1	50.7	14.2	22.5	3.8	27.9	9.0
	조손가정	100(172)	42.4	45.3	15.1	22.7	2.9	21.5	10.5

2-3-14 학교 주변의 위험 정도

**학교 주변의 위험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3.5%가
위험하게 느끼는 것으로 응답함**

○ 학교 주변의 위험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위험하게 느꼈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위험하게 느꼈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광역시와 시·군 거주자보다 위험하게 느꼈다.



[그림 III-240] 학교 주변의 위험 정도

<표 III-320> 학교 주변의 위험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42.6	21.4	21.4	9.6	3.9	1.0	2.10(1.18)	
성별	남자	100(4,793)	55.0	19.5	15.3	5.5	3.4	1.2	1.81(1.10)	24.069***
	여자	100(4,925)	30.5	23.3	27.4	13.6	4.4	0.8	2.37(1.18)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49.8	15.6	17.7	9.4	5.7	1.9	2.04(1.26)	6.572** (다>가)
	중학교 ^나	100(3,257)	41.8	21.7	23.1	9.3	3.0	1.1	2.09(1.14)	
	고등학교 ^다	100(3,794)	38.5	25.1	22.5	10.1	3.3	0.5	2.14(1.14)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39.3	22.9	22.0	10.9	4.1	0.9	2.17(1.18)	3.478* (1>2,3)
	광역시 ²	100(3,077)	43.5	21.5	20.8	9.6	3.6	1.1	2.07(1.17)	
	시·군 ³	100(5,097)	43.1	20.9	21.6	9.3	4.0	1.1	2.09(1.18)	
가족 구성	양부모가족 ^가	100(8,128)	42.0	21.9	21.6	9.9	3.7	0.9	2.11(1.17)	0.099
	한부모가족 ^나	100(868)	41.2	22.0	22.7	8.8	4.1	1.2	2.12(1.17)	
	조손가족 ^다	100(172)	47.7	15.7	19.8	7.0	7.0	2.9	2.07(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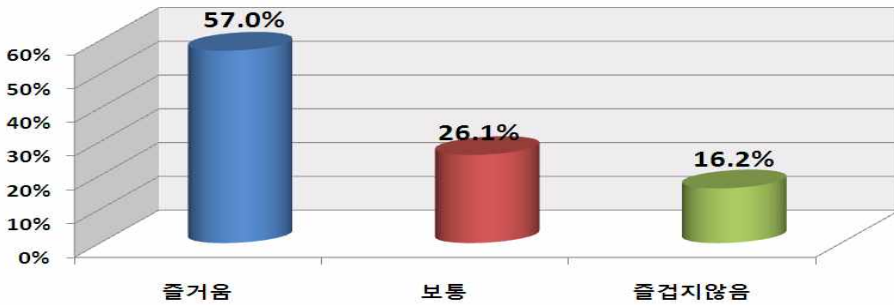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3-15 학교생활의 만족도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 응답자의 57.0%가 즐겁다고 응답함

○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만족하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만족하였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와 시·군보다 만족하였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만족하였다.



[그림 III-241] 학교생활의 만족도

<표 III-321> 학교생활의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즐겁지 않다	별로 즐겁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즐겁다	매우 즐겁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6.6	9.6	26.1	31.2	25.9	0.7	3.61(1.16)	
성별	남자	100(4,793)	7.7	9.2	26.1	30.4	25.6	0.9	3.57(1.19)	2.723**
	여자	100(4,925)	5.4	9.9	26.2	31.9	26.2	0.4	3.64(1.13)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3.3	5.5	17.7	27.5	44.3	1.6	4.06(1.08)	342.871*** (가>나>다)
	중학교 ^나	100(3,257)	6.5	9.1	26.2	34.1	23.6	0.4	3.60(1.14)	
	고등학교 ^다	100(3,794)	8.9	12.9	32.0	31.0	14.9	0.3	3.30(1.14)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6.1	7.9	23.7	31.7	29.9	0.8	3.72(1.15)	10.016*** (1>2,3)
	광역시 ²	100(3,077)	6.2	9.9	26.7	30.5	26.1	0.7	3.61(1.16)	
	시·군 ³	100(5,097)	6.9	9.9	26.5	31.4	24.5	0.6	3.57(1.17)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아	100(8,128)	5.7	9.2	25.9	32.0	26.6	0.5	3.65(1.14)	45.426*** (아>브,가)
	한부모가정 ^브	100(868)	9.3	13.8	31.1	26.7	18.0	1.0	3.31(1.19)	
	조손가정 ^가	100(172)	18.0	10.5	24.4	26.7	20.3	0.0	3.21(1.37)	

** $p<.01$, *** $p<.001$

2-3-16~2-3-19 학교단위 보호환경 지표4)

학교단위 보호환경 지표 중 지난 1년 동안 한 학교 당 학교폭력 발생횟수는 평균 1.5회,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평균 5.1시간, 학생/학부모 상담실적은 87.4회, 학업 중단학생 수는 고등학교에서만 평균 22.0명이었음

○ 지난 1년 동안 학교단위 보호환경 4개 지표의 교급별, 지역별 평균 횟수 및 시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지난 1년 동안 평균 학교폭력 발생횟수는 중학교(2.8회), 고등학교(1.5회), 초등학교(0.1회) 순으로 많았고, 서울(1.7회), 광역시(1.7회), 시·군(1.3회) 순으로 많았다.

- 지난 1년 동안 평균 학교폭력 예방교육시간은 고등학교(6.7시간), 초등학교(4.5시간), 중학교(3.6시간) 순으로 많았고, 서울(3.2시간), 광역시(3.6시간), 시·군(6.6시간) 순으로 많았다.

- 지난 1년 동안 평균 학생/학부모 상담실적은 고등학교(134.3회), 중학교(96.0회), 초등학교(16.0회) 순으로 많았고, 서울(132.2회), 광역시(84.1회), 시·군(74.4회) 순으로 많았다.

- 학업중단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없었으며, 고등학교에서만 지난 1년 동안 평균 학업중단 학생수가 22.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10.3회), 서울(8.6회), 시·군(7.44회) 순으로 많았다.

<표 III-322> 보호환경 관련 학교단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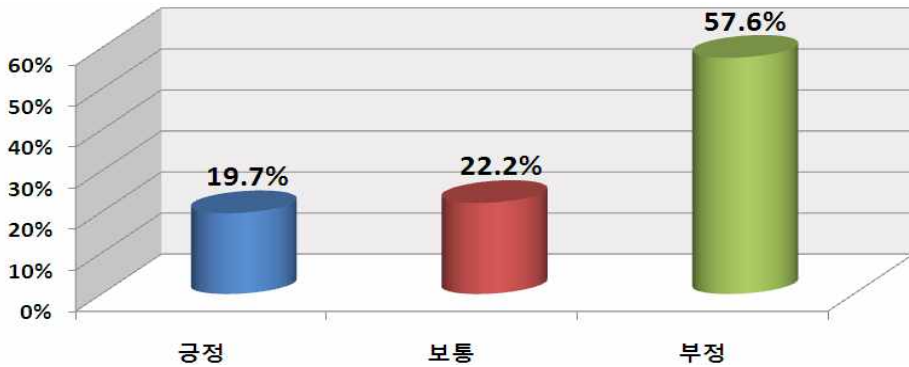
학교 특성		학교수	학교폭력 발생횟수	학교폭력예방교육시간	학생·학부모 상담실적	학업중단 학생수
전체		311	463	1,584.3	27,169	2,679
교급별	초등학교	92	5	413.1	1,475	0
	중학교	97	273	347.4	9,309	0
	고등학교	122	185	823.8	16,385	2,679
지역별	서울	50	86	158.5	6,611	431
	광역시	102	175	364.5	8,584	1,049
	시·군	161	202	1,064.8	11,980	1,199

4) 학교정보를 공개하는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것임.

2-3-20 집주변의 위험 정도

**집주변의 위험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9.7%가
위험하게 느끼는 것으로 응답함**

- 집 주변의 위험 정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위험하게 느꼈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더 위험하게 느꼈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광역시 거주자보다 위험하게 느꼈다.



[그림 III-242] 집 주변의 위험 정도

<표 III-323> 집 주변의 위험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39.5	18.0	22.2	14.9	4.8	0.5	2.27(1.26)	
성별	남자	100(4,793)	53.6	18.1	16.4	7.7	3.6	0.6	1.89(1.15)	30.711***
	여자	100(4,925)	25.9	18.0	27.9	22.0	5.9	0.3	2.64(1.24)	
교 급 별	초등학교 ^가	100(2,643)	45.4	13.5	21.0	12.8	6.3	0.9	2.20(1.31)	15.077*** (다>가,나)
	중학교 ^나	100(3,257)	40.1	18.5	23.1	14.2	3.6	0.4	2.22(1.22)	
	고등학교 ^다	100(3,794)	35.1	20.7	22.3	17.0	4.7	0.3	2.35(1.25)	
거 주 지	서울 ¹	100(1,533)	36.5	19.6	22.7	16.0	4.7	0.5	2.33(1.25)	3.059* (1>2)
	광역시 ²	100(3,077)	40.9	17.6	21.8	15.0	4.0	0.6	2.23(1.24)	
	시군 ³	100(5,097)	39.6	17.8	22.4	14.5	5.3	0.5	2.28(1.27)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a	100(8,128)	38.7	18.7	22.5	15.0	4.6	0.5	2.28(1.25)	0.267
	한부모가정 ^b	100(868)	39.1	17.3	22.1	16.2	5.0	0.3	2.31(1.27)	
	조손가정 ^c	100(172)	46.5	11.0	20.3	14.5	7.0	0.6	2.24(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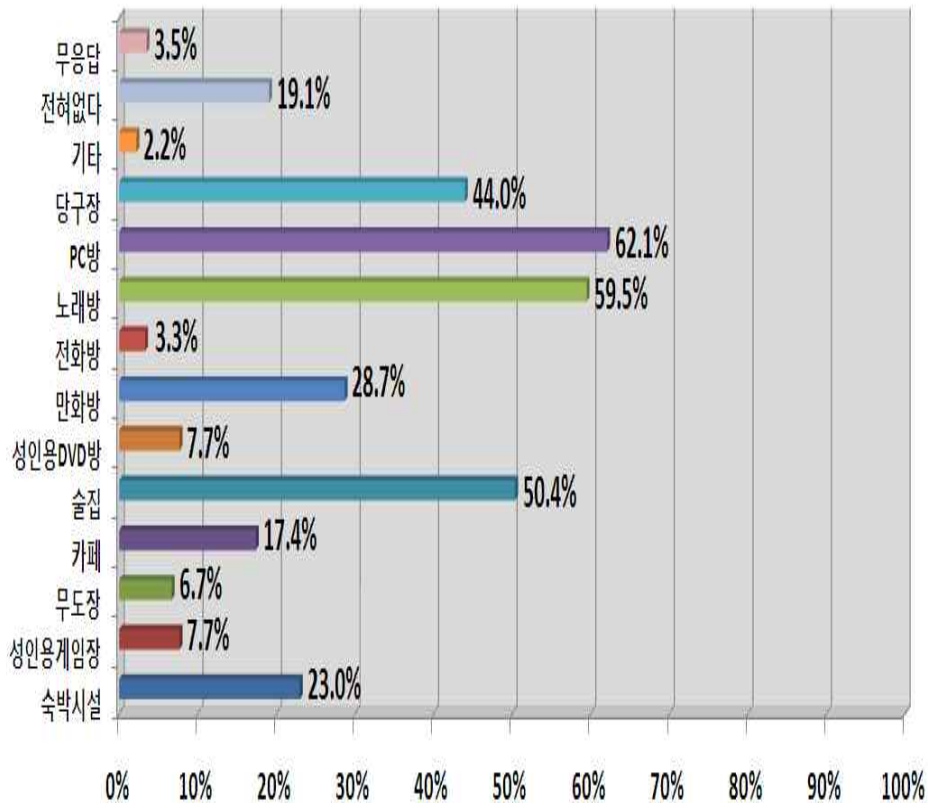
* $p<.05$, *** $p<.001$

2-3-21 집주변 유해업소 실태

집주변의 유해업소가 ‘PC방(62.1%)’, ‘노래방(59.5%)’, ‘술집(50.4%)’, ‘당구장(44.0%)’, ‘만화방(28.7%)’, ‘숙박시설(23.0%)’, ‘카페(17.4%)’ 순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 집 주변에 청소년유해업소 중 PC방, 노래방, 술집이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 가족구성별로 PC방, 노래방, 술집, 당구장 등에서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243] 집주변 유해업소 실태

<표 III-324> 입주변 유해업소 실태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숙박시설	성인용 게임장	무도장	카페	술집	성인용 DVD방	만화방
전체		100(7,084)	23.0	7.7	6.7	17.4	50.4	7.7	28.7
성별	남자	100(3,448)	21.6	8.9	6.5	16.3	44.1	7.0	27.2
	여자	100(3,633)	24.4	6.5	6.9	18.4	56.5	8.4	30.1
교육 별	중학교	100(3,257)	19.6	5.6	5.2	14.1	42.8	6.0	27.6
	고등학교	100(3,794)	25.9	9.5	7.9	20.1	56.8	9.1	29.4
거주 지	서울	100(1,131)	28.4	8.8	7.3	21.1	52.7	10.9	32.2
	광역시	100(2,336)	23.3	7.9	6.8	18.3	53.3	7.5	32.6
	시·군	100(3,617)	21.2	7.2	6.5	15.6	47.9	6.8	25.1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100(5,980)	23.0	7.5	6.6	17.5	51.2	7.6	29.2
	한부모가정	100(705)	23.5	8.5	6.8	17.3	49.9	7.8	25.8
	조손가정	100(118)	31.4	9.3	10.2	14.4	38.1	5.9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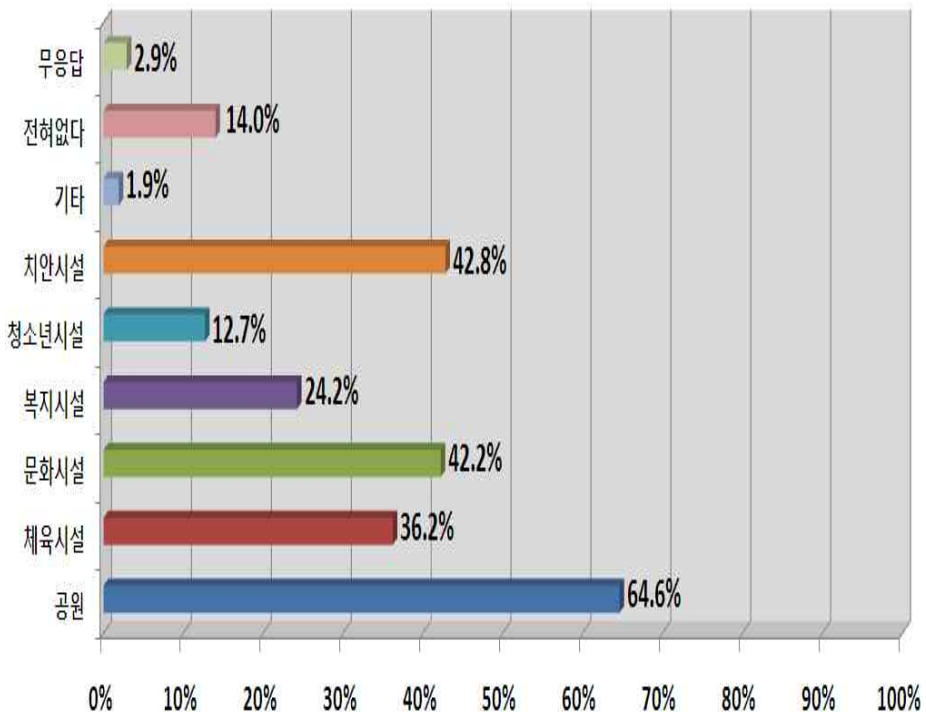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화방	노래방	PC방	당구장	기타	전혀없 다	무응답
전체		100(7,084)	3.3	59.5	62.1	44.0	2.2	19.1	3.5
성별	남자	100(3,448)	3.4	54.6	62.3	44.3	2.4	20.5	4.2
	여자	100(3,633)	3.2	64.2	61.9	43.8	2.0	17.8	2.8
교육 별	중학교	100(3,257)	2.1	54.3	59.1	36.4	2.5	20.7	4.4
	고등학교	100(3,794)	4.3	63.9	64.6	50.7	2.0	17.8	2.8
거주 지	서울	100(1,131)	5.0	66.4	66.5	46.2	2.7	14.3	3.6
	광역시	100(2,336)	2.9	64.6	67.6	47.6	1.6	15.6	2.9
	시·군	100(3,617)	3.0	54.0	57.1	41.0	2.4	22.9	3.8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100(5,980)	3.0	60.7	63.0	44.7	1.9	19.1	3.1
	한부모가정	100(705)	3.8	56.7	60.4	42.6	2.8	19.1	4.3
	조손가정	100(118)	6.8	50.0	46.6	34.7	5.9	15.3	1.7

2-3-22 집주변 친사회적 시설 실태

**집주변의 친사회적 시설은 ‘공원(64.6%)’, ‘치안시설(42.8%)’,
‘문화시설(42.2%)’, ‘체육시설(36.2%)’, ‘복지시설(24.2%)’,
‘청소년시설(12.7%)’ 순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 집 주변에 친사회적 시설로 공원을 제외하고 치안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이 있는 청소년은 절반이 되지 않았다.

- 거주지별로 대부분의 친사회적 시설은 서울, 광역시, 시군 순으로 많았고, 특히, 치안시설은 시군(36.6%)이 서울(49.8%)과 광역시(49.1%)보다 10% 이상 적었다. 가족구성별로는 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많았으며, 치안시설은 조손가정(28.0%)이 양부모가정(43.9%)과 한 부모가정(41.0%)보다 10% 이상 적었다.



[그림 III-244] 집주변 친사회적 시설 실태

<표 III-325> 집주변 친사회적 시설 실태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전체		100(7,084)	64.6	36.2	42.2	24.2
성별	남자	100(3,448)	60.7	37.0	37.8	23.5
	여자	100(3,633)	68.5	35.5	46.4	24.9
교육별	중학교	100(3,257)	61.5	35.1	39.7	21.6
	고등학교	100(3,794)	67.2	37.0	44.1	26.4
거주지	서울	100(1,131)	68.4	34.3	50.0	31.3
	광역시	100(2,336)	65.5	37.5	41.1	26.0
	시·군	100(3,617)	62.9	36.0	40.4	20.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5,980)	66.7	37.8	43.9	24.3
	한부모가정	100(705)	56.3	28.4	37.0	24.1
	조손가정	100(118)	48.3	26.3	27.1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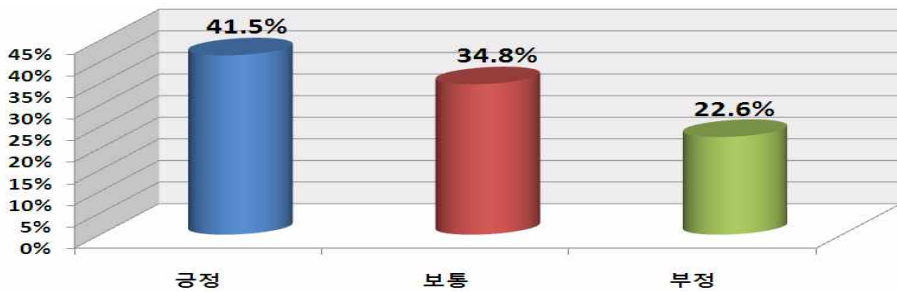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청소년시설	치안시설	기타	전혀없다	무응답
전체		100(7,084)	12.7	42.8	1.9	14.0	2.9
성별	남자	100(3,448)	12.2	40.0	1.9	16.9	4.0
	여자	100(3,633)	13.1	45.6	1.9	11.3	1.8
교육별	중학교	100(3,257)	9.1	37.7	2.1	15.0	3.3
	고등학교	100(3,794)	15.6	47.1	1.8	13.3	2.6
거주지	서울	100(1,131)	15.5	49.8	2.3	10.2	2.9
	광역시	100(2,336)	12.8	49.1	1.7	11.3	3.0
	시·군	100(3,617)	11.7	36.6	1.9	17.0	2.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5,980)	13.0	43.9	1.7	13.6	2.4
	한부모가정	100(705)	11.5	41.0	2.6	16.6	4.0
	조손가정	100(118)	11.9	28.0	5.1	13.6	0.8

2-3-23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어른의 노력 정도

전체 응답자의 41.5%가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호에 대해 지역사회의 어른이 노력하는 것으로 응답함

○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어른의 노력 정도는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지역사회 어른의 노력정도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고,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시·군보다 지역사회 어른의 노력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인 부모가정보다 지역사회 어른의 노력정도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245]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어른의 노력 정도

<표 III-326>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어른의 노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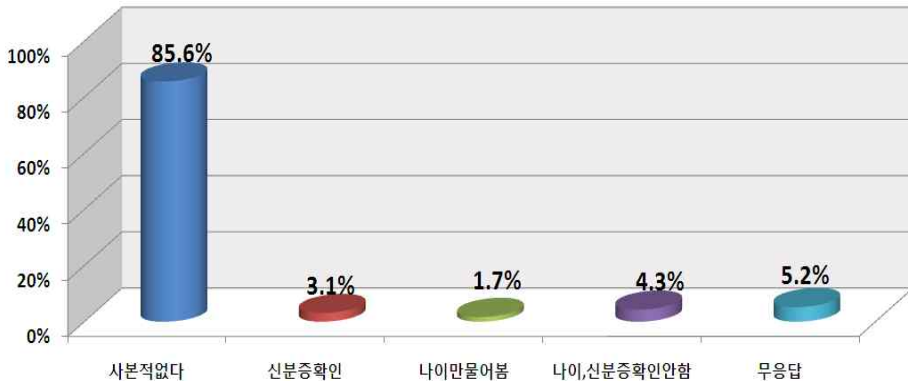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9,727)	11.1	11.5	34.8	17.7	23.8	1.0	3.32(1.27)	
성별									1.869
남자	100(4,793)	13.1	9.3	32.5	18.5	25.6	1.0	3.34(1.31)	
여자	100(4,925)	9.1	13.7	37.1	16.9	22.2	0.9	3.30(1.22)	
교 급 별									691.828*** (가>나>다)
초등학교 ^가	100(2,643)	5.6	4.7	22.4	18.8	46.6	1.9	3.98(1.19)	
중학교 ^나	100(3,257)	10.4	10.1	36.9	19.6	22.2	0.7	3.33(1.23)	
고등학교 ^다	100(3,794)	15.6	17.5	41.7	15.1	9.4	0.7	2.85(1.15)	
거 주 지									4.033** (1>3)
서울 ¹	100(1,533)	10.6	10.5	33.5	18.4	26.2	0.9	3.40(1.27)	
광역시 ²	100(3,077)	11.1	11.6	34.0	18.6	23.9	0.8	3.33(1.27)	
시·군 ³	100(5,097)	11.2	11.8	35.7	17.0	23.1	1.2	3.29(1.26)	
가족 구성									18.047*** (a>b)
양부모가정 ^a	100(8,128)	10.3	11.7	35.3	18.0	23.8	0.9	3.34(1.25)	
한부모가정 ^b	100(868)	13.8	14.9	37.8	15.6	17.3	0.7	3.08(1.25)	
조손가정 ^c	100(172)	23.3	7.6	26.2	15.1	27.9	0.0	3.17(1.50)	

** $p<.01$, *** $p<.001$

2-3-24 최근 한 달 동안 술, 담배 구매 시 판매인의 신분증 확인 여부

술, 담배 구매 시 판매인의 신분증 확인 여부에 대해 술, 담배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9.1%) 중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거나 나이를 물어보지 않은 경우는 6.0%로 응답함

○ 술, 담배 구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이 술, 담배 구매 시 판매인이 신분증 확인이나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



[그림 III-246] 최근 한 달 동안 술, 담배 구매 시 판매인의 신분증 확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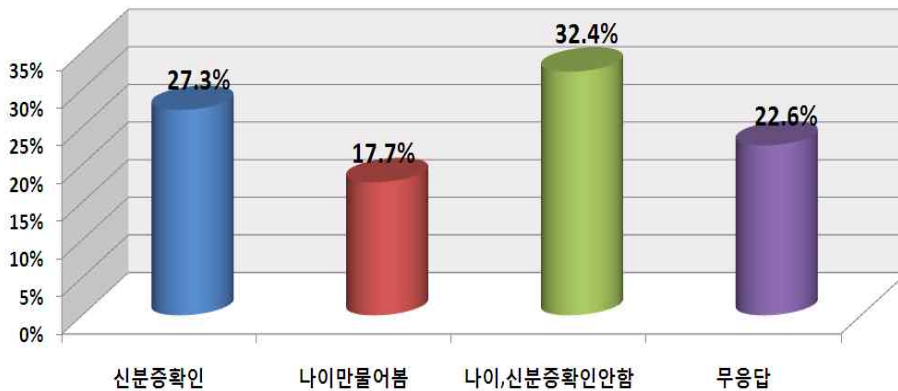
<표 III-327> 최근 한 달 동안 술, 담배 구매 시 판매인의 신분증 확인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술이나 담배를 사본적이 없다	신분증을 확인 하였다	신분증 확인 없이 나이만 물어 보았다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고 나이도 물어보지 않았다	무응답
전체		100(9,727)	85.6	3.1	1.7	4.3	5.2
성별	남자	100(4,793)	82.7	4.0	1.7	5.3	6.3
	여자	100(4,925)	88.6	2.3	1.7	3.4	4.0
교육별	초등학교	100(2,643)	89.7	0.9	0.6	1.7	7.1
	중학교	100(3,257)	89.4	1.4	1.3	3.0	4.9
	고등학교	100(3,794)	79.5	6.2	2.9	7.2	4.2
거주지	서울	100(1,533)	88.8	2.4	1.4	3.5	4.0
	광역시	100(3,077)	83.9	3.2	2.2	5.0	5.7
	시·군	100(5,097)	85.7	3.3	1.5	4.2	5.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86.8	2.7	1.6	4.0	4.9
	한부모가정	100(868)	81.2	6.2	2.0	5.9	4.7
	조손가정	100(172)	75.0	7.6	4.7	5.2	7.6

2-3-25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시 업소주인 신분증 확인 여부

**유해업소 출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유해업소 출입 시
업소주인이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는 27.3%로 응답하였고,
신분증 확인이나 나이를 물어보지 않은 경우는 50.1%로 응답하였음**

○ 유해업소 출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유해업소 출입 시 업소주인이 신분증 확인이나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



[그림 III-247]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시 업소주인 신분증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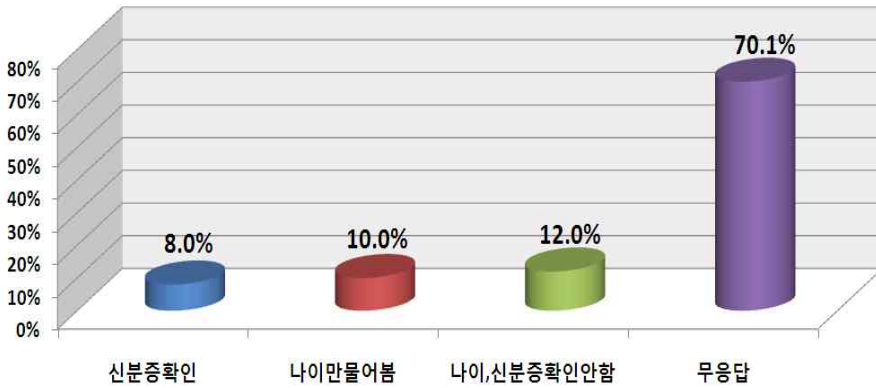
<표 III-328>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시 업소주인 신분증 확인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신분증을 확인하였다	신분증 확인 없이 나이만 물어보았다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고 나이도 물어보지 않았다	무응답
전체		100(836)	27.3	17.7	32.4	22.6
성별	남자	100(430)	30.0	18.6	31.2	20.2
	여자	100(406)	24.4	16.7	33.7	25.1
교급별	중학교	100(170)	13.5	6.5	38.2	41.8
	고등학교	100(666)	30.8	20.6	30.9	17.7
거주지	서울	100(112)	26.8	16.1	35.7	21.4
	광역시	100(269)	26.8	16.4	39.0	17.8
	시·군	100(455)	27.7	18.9	27.7	25.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668)	24.9	17.2	33.8	24.1
	한부모가정	100(106)	37.7	19.8	26.4	16.0
	조손가정	100(20)	45.0	15.0	30.0	10.0

2-3-26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 시 신분증 확인 여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 시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는 8.0%, 신분증 확인이나 나이를 물어보지 않은 경우는 22.0%로 응답하였음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10명 중 2명 이상은 업소주인이 신분증 확인이나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



[그림 III-248]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 시 신분증 확인 여부

<표 III-329>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 시 신분증 확인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신분증을 확인하였다	신분증 확인 없이 나이만 물어보았다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고 나이도 물어보지 않았다	무응답
전체		100(301)	8.0	10.0	12.0	70.1
성별	남자	100(141)	12.1	9.2	13.5	65.2
	여자	100(160)	4.4	10.6	10.6	74.4
교육별	중학교	100(143)	5.6	4.2	12.6	77.6
	고등학교	100(154)	10.4	15.6	11.7	62.3
거주지	서울	100(40)	0.0	12.5	12.5	75.0
	광역시	100(88)	5.7	5.7	10.2	78.4
	시·군	100(173)	11.0	11.6	12.7	64.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245)	7.8	7.8	11.0	73.5
	한부모가정	100(25)	8.0	20.0	12.0	60.0
	조손가정	100(7)	14.3	14.3	42.9	28.6

부 록

1. 청소년 건강지표 최종 설문지
2. 청소년 안전(보호)지표 최종 설문지

1. 청소년 건강지표 최종 설문지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영양 및 식습관

8. **최근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

※ 우유나 쥬스만으로 끼니를 때운 경우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에 해당됩니다.

※ 빵, 선식 또는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으로 식사를 한 경우는 식사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최근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다 ② 주 1~2일
③ 주 3~5일 ④ 주 6~7일

9. **최근 일주일 동안**, 다음의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먹지않음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5번	1주일에 6~7번
1) 과일	①	②	③	④
2) 탄산음료(사이다, 콜라 등)	①	②	③	④
3)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	①	②	③	④
4) 라면 혹은 칼라면	①	②	③	④
5) 과자(감자튀김 등의 스낵류)	①	②	③	④
6)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	①	②	③	④
7) 채소	①	②	③	④
8) 우유(흰 우유, 석유크림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9) 고기나 생선	①	②	③	④
10) 가공식품(돈까스, 햄, 농돈만두 등)	①	②	③	④
11) 커피	①	②	③	④

10.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영양교육(예: 건강을 위해 알아야 할 식생활 관련 지식 등)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수면

11.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잠을 잤습니까? ()

- ① 5시간 미만 ② 5시간~6시간 미만 ③ 6시간~7시간 미만
④ 7시간~8시간 미만 ⑤ 8시간~9시간 미만 ⑥ 9시간 이상

12. 자신의 수면 시간이 피곤함을 푸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③ 대체로 충분하다 ④ 매우 충분하다

13.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몇 시에 잠을 잤습니까? ()

- ① 밤 9시 이전 ② 밤 9시 이후~ 밤 10시 이전 ③ 밤 10시 이후~밤 11시 이전
④ 밤 11시 이후~밤 12시 이전 ⑤ 밤 12시 이후~새벽 1시 이전 ⑥ 새벽 1시 이후

14.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

- ① 새벽 4시 이전 ② 새벽 4시 이후~5시 이전 ③ 아침 5시 이후~6시 이전
④ 아침 6시 이후~7시 이전 ⑤ 아침 7시 이후~8시 이전 ⑥ 아침 8시 이후

흡연

15.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16번으로**) ② 아니오 (**18번으로**)
16.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
 ① 초등학교 4학년 이전 ② 초등학교 4학년~6학년 ③ 중학교 1학년 ④ 중학교 2학년
 ⑤ 중학교 3학년 ⑥ 고등학교 1학년 ⑦ 고등학교 2학년 ⑧ 고등학교 3학년
17.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 ()
 ① 월 1~2일 ② 월 3~5일 ③ 월 6~9일 ④ 월 10~19일
 ⑤ 월 20~29일 ⑥ 매일 ⑦ 최근 한 달 동안 흡연한 적이 없다 (**18번으로**)
- 17-1. **최근 한 달 동안** 보통 하루에 몇 개비의 담배를 피웠습니까? ()
 ① 하루에 1개비 ② 하루에 2~5개비 ③ 하루에 6~10개비
 ④ 하루에 11~20개비 ⑤ 하루에 21개비 이상
18. 부모님은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두 분 모두 피우시지 않는다 ② 두 분 모두 피우신다
 ③ 아버지만 피우신다 ④ 어머니만 피우신다
19. 친한 친구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있습니까? ()
 ① 아무도 없다 ② 친한 친구 중 일부만 피운다
 ③ 친한 친구 대부분 피운다 ④ 친한 친구 모두 피운다
20. 흡연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②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④ 건강에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2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흡연예방 혹은 금연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음주

22. 지금까지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

※ 명절이나 제사 또는 성찬식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 ① 있다 (☞ 23번으로) ② 없다 (☞ 25번으로)

23. 처음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

※ 제사, 차례 또는 성찬식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 ① 초등학교 4학년 이전 ② 초등학교 4학년~6학년 ③ 중학교 1학년 ④ 중학교 2학년
⑤ 중학교 3학년 ⑥ 고등학교 1학년 ⑦ 고등학교 2학년 ⑧ 고등학교 3학년

24. 최근 한 달 동안 적어도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 ()

- ① 월 1~2일 ② 월 3~5일 ③ 월 6~9일
④ 월 10~19일 ⑤ 월 20~29일 ⑥ 매일
⑦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없다 (☞ 25번으로)

24-1.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마실 때 평균적으로 한 번에 얼마나 마셨습니까? ()

- ① 소주 1~2잔(맥주 1병 이하) ② 소주 3~4잔(맥주 1병, 양주 3잔)
③ 소주 5~6잔(맥주 3병, 양주 5잔) ④ 소주 1병~2병 미만(맥주 4병, 양주 6잔)
⑤ 소주 2병 이상(맥주 8병, 양주 12잔)

25. 부모님은 술을 드십니까? ()

- ① 두 분 모두 드시지 않는다 ② 두 분 모두 드신다
③ 아버지만 드신다 ④ 어머니만 드신다

26. 친한 친구 중에서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습니까? ()

- ① 아무도 없다 ② 친한 친구 중 일부만 마신다
③ 친한 친구 대부분 마신다 ④ 친한 친구 모두 마신다

27. 술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②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④ 건강에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28.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음주예방 혹은 금주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구강보건

29. 최근 1년 동안, 평소에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증상	있다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2)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우시거나 아픔	
3)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4)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옥신거리며 아픔	
5) 불쾌한 입 냄새가 남	

30. 최근 1년 동안, 치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 구강검진, 치료, 치열교정, 예방시술(실란트, 스커일링, 불소도포) 등 모두 포함

① 최근 1년 동안 치과를 방문하지 않았다

② 연 1회

③ 연 2회

④ 연 3회

⑤ 연 4회 이상

31. 최근 일주일 동안,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

① 하루도 하지 않았다

② 1~2일

③ 3~4일

④ 5~6일

⑤ 매일

32.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구강건강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개인위생

33. 최근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손을 씻었습니까?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안 씻었다	가끔 씻었다	대부분 씻었다	매번 씻었다
1) 식사하기 전				
2) 화장실 다녀온 후				
3)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34. 최근 일주일 동안, 손을 씻을 때 얼마나 자주 비누를 사용하였습니까? ()

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②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③ 자주 사용하였다

④ 매번 사용 하였다

35. 최근 일주일 동안(오늘 포함), 얼마나 자주 머리를 감았습니까? ()

① 전혀 감지 않았다

② 1~2번

③ 3~4번

④ 5~6번

⑤ 7번 이상

36. 최근 일주일 동안(오늘 포함), 얼마나 자주 속옷을 갈아 입었습니까? ()

① 전혀 갈아입지 않았다

② 1~2번

③ 3~4번

④ 5~6번

⑤ 7번 이상

37. 평소 자신의 손, 발톱 청결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지저분하다 ② 지저분한 편이다 ③ 깨끗한 편이다 ④ 매우 깨끗하다

38.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활동제한

39. **최근 1년 동안**, 질병이나 다쳐서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전혀 없다 ② 1~3일 ③ (모두 합쳐서) 일주일 정도
④ (모두 합쳐서) 열흘정도 ⑤ (모두 합쳐서) 2주일 이상

40. 질병이나 다쳐서 결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 ① 정형외과 질환(뼈가 부러짐, 관절부상 등) ☐ ② 이비인후과 질환(비염, 중이염 등)
☐ ③ 치과 질환(충치, 잇몸병, 치아교정 등) ☐ ④ 내과 질환(감기, 장염, 알레르기, 천식 등)
☐ ⑤ 안과 질환(눈병 등) ☐ ⑥ 흉부외과 질환(심장, 폐질환 등)
☐ ⑦ 피부과 질환(아토피, 습진 등) ☐ ⑧ 신경과 질환(경련, 간질 등)
☐ ⑨ 정신과 질환(우울, 불안 등) ☐ ⑩ 기타(_____)

심리건강-1

41. **지난 일주일 동안(오늘을 포함해서)** 아래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한 정도를 오른쪽의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1) 외롭다	①	②	③	④
2) 기분이 울적하다	①	②	③	④
3) 허무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4)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①	②	③	④
5)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6) 긴장이 된다	①	②	③	④
7)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①	②	③	④
8)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화가 치민다	①	②	③	④
9)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10)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11) 고향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①	②	③	④

심리건강-2

42.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하여 자신이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1) 부모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2) 형제·자매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3)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①	②	③	④
4) 신체건강	①	②	③	④
5) 심리건강	①	②	③	④
6)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①	②	③	④
7)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①	②	③	④
8) 이성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9) 선후배 관계	①	②	③	④
10) 선생님과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11)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①	②	③	④
12)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①	②	③	④

심리건강-3

43. 다음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심리건강-4

44.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잘 일치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심리건강-5

45.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①	②	③	④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7)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9)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①	②	③	④
10)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11)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12)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13)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14)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심리건강-6

46. 다음은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①	②	③	④
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①	②	③	④
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①	②	③	④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심리건강-7

47. 다음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심리건강-8

48.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5)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6)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8)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 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배경사항

※ 다음은 귀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괄호 안에 적당한 응답을 기입하거나, 해당 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은? ()

- ① 남자 ② 여자

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에 번호를 모두 써 주십시오. ()

※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직장·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단,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두셨어도 졸업으로 간주함)

구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전문대졸 포함)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1) 아버지	①	②	③	④
2) 어머니	①	②	③	④

4.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5. 반에서 학업성적(2010년 1학기)은 다음 중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적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반성적	①	②	③	④	⑤

6. 귀하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인가요?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 살고 있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동/읍/면 으로 표기

※ 살고 있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동/읍/면으로 표기

8. 전반적인 자신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한 편이다
1) 신체건강	①	②	③	④
2) 심리건강	①	②	③	④

9.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님(보호자)과 본인의 관심정도는? 해당 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많다
1) 부모님(보호자)의 관심정도	①	②	③	④
2) 본인의 관심정도	①	②	③	④

☆ 빠진 문항이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청소년 안전(보호)지표 최종 설문지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2010 청소년 안전(보호)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안전(보호)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여 더 나은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6.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사진행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담당연구자: 이기봉 박사	조 사 문 의 처: 02-2017-1809~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rypi.re.kr>

사고 경험

1. **최근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경험했던 사고는 어떤 경우이며,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 **응여 해설** - 사고: 교통, 화재, 물놀이, 추락 등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신체적인 부상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하여 단순한 응급처치나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경우(단, 질병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는 제외함)

사고유형	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다	사고를 경험하였다		
		치료하지 않았다	간단한 치료를 하였다	병원에서 치료하였다
1) 교통사고	①	②	③	④
2) 화재사고	①	②	③	④
3) 익수사고(물놀이사고)	①	②	③	④
4) 추락사고	①	②	③	④
5) 부딪힘/넘어짐/베임	①	②	③	④
6) 먹거리사고(예: 식중독)	①	②	③	④
7) 유독물질(먹거나 마시면 위험한 물질) 중독사고	①	②	③	④
8) 재해사고(예: 홍수, 태풍)	①	②	③	④
9) 기타()	①	②	③	④

(※ 위와 같은 사고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은 각 유형에 ①번 선택 후, 문2로 이동)

- 1-1. **최근 1년 동안** 경험했던 사고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 ① 학교 건물 안(교실, 복도, 계단 등) | ② 학교 운동장 |
| ③ 학교 체육관 | ④ 학교 주변 |
| ⑤ 집 안 | ⑥ 집 주변 골목이나 도로 |
| ⑦ 집에서 학교사이 등하교길 | ⑧ 놀이터나 공원 |
| ⑨ 큰 도로 주변 | ⑩ 산이나 바다(여행중) |
| ⑪ 놀이시설(놀이공원) | ⑫ 기타 () |

- 1-2. **최근 1년 동안** 경험했던 사고로 다친 부위는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 | |
|-----------------|---------------------|
| □① 눈 | □② 귀, 고막 |
| □③ 코 | □④ 치아(이) |
| □⑤ 머리 | □⑥ 팔이나 손 |
| □⑦ 다리나 발 | □⑧ 소화기관(식도, 위, 장) |
| □⑨ 순환기관(심장, 혈관) | □⑩ 호흡기관(폐, 기도, 기관지) |
| □⑪ 기타 () | |

안전 행동

2. 다음은 평소 여러분의 안전 행동 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화재안전 행동					
1) 건물 안에 들어갈 때에는 비상문의 위치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건물 안에 들어갈 때에는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가정안전 행동					
3) 전기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질 때 손에 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중간)밸브를 잠근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스나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동안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유독물질(위험물질)이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묻었을 경우 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씻어낸다	①	②	③	④	⑤
7) 날카로운 기구나 공구는 사용한 후에 제자리에 정돈하여 보 관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약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려는 제품이 맞는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높은 가구위에 물건을 정리하거나 전구를 교체할 때 안전한 의자를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교통안전 행동					
(☞자전거를 타지 않는 학생은 13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10) 자전거를 타기 전에 보호장비(헬멧, 무릎보호대, 장갑 등) 를 착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전거를 탈 때에는 주변이 안전한지 살핀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밀면서 건너간다	①	②	③	④	⑤
13) 길을 건너야 할 때는 안전한 횡단보도나 육교로 건넌다	①	②	③	④	⑤
14)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차가 멈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건 넌다	①	②	③	④	⑤
15) 차를 타고 내릴 때에는 차가 완전히 멈춘 후에 승하차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차에서 내릴 때에는 옆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17) 자동차를 타면 곧바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안전 행동					
18) 실험이나 실습시간에 사용하는 약품이나 기구는 사용방법 에 맞게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19) 복도와 계단에서는 뛰어다니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운동/놀이안전 행동					
20) 수영장이나 물놀이 장소에서는 안전요원이 보이는 곳에서 수영이나 물놀이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운동을 하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운동을 하기 전에 필요한 보호장비를 착용한다(예; 인라인 스케이트 헬멧, 보호대 등)	①	②	③	④	⑤
23)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수칙을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식품안전 행동					
24)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의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구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은 먹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안전 환경

3. 다음은 가정과 학교의 사고 위험 요소 점검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위험 요소	가정		학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쇠 조각이나 철사와 같은 날카로운 것이 노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2) 전기선이나 코드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부분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패이거나 파손된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부서진 가구나 수납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6) 계단이나 난간에 파손된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7) 문의 손잡이가 고장 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다	①	②	③	④
8) 가구(책걸상)들이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움직일 때 자주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표시가 없다	①	②	③	④
10) 조명이 없거나 어두워서 밤에 다니기 어려운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다음은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부모님(또는 보호자), 학교, 교사의 관심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께서 안전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이 평소에 사고예방과 안전행동에 대해 가르침과 주의를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예, 안전교육 내용의 교내 게시판 게시, 위험지역 CCTV 설치 및 순찰강화 등)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최근 1년 동안 정규 수업 외에 학교에서 받았던 안전교육의 내용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단, 조화종례 시간에 했던 선생님 훈화 말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① 가정안전(가스안전, 부딪힘, 썰림, 베임, 전기안전 등)
☐ ② 학교안전(가스안전, 전기안전, 부딪힘, 썰림, 베임, 실험안전 등)
☐ ③ 교통안전(자전거안전, 보행자안전, 대중교통수단 이용법 등)
☐ ④ 화재안전(화재예방, 화재 시 대처방법 등)
☐ ⑤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유독약물, 농약중독, 가스중독 예방 등)
☐ ⑥ 운동 및 놀이안전(응급처치 포함)
☐ ⑦ 여행안전(수학여행, 수련활동, 소풍 시 안전)
☐ ⑧ 기타()
☐ 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위험행동 경험

※ 다음은 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쓰거나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6. **최근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없다	1년에 1-2회 정도	1년에 3-4회 정도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1) 심한 욕설/협박 당함	①	②	③	④	⑤	⑥
2) 폭행 당함	①	②	③	④	⑤	⑥
3) 돈이나 물건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⑥
4) 집단 따돌림(왕따) 당함	①	②	③	④	⑤	⑥
5) 사이버/휴대전화 폭력 당함	①	②	③	④	⑤	⑥

☞ 위와 같은 피해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각 내용에 ①번 선택 후, 문7로 이동)

- 6-1. **최근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 ① 학교 교실 안 | ② 학교 교실을 제외한 학교 안 |
| ③ 학교 주변 | ④ 자기 집 |
| ⑤ 자기 집 주변 | ⑥ 친구 집 |
| ⑦ 술집, 오락실 등이 많은 유흥가 | ⑧ 상가 또는 지하도 안 |
| ⑨ 공원, 놀이터 등 | ⑩ 기타 () |

- 6-2. **최근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치료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 | | | |
|-----------------|----------|----------------|
| ① 없다 | ② 1~2일 | ③ 3일 이상~일주일 미만 |
| ④ 일주일 이상~2주일 미만 | ⑤ 2주일 이상 | |

7. **최근 1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없다	1년에 1-2회 정도	1년에 3-4회 정도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1) 심한 욕설/협박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2) 폭행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3) 돈이나 물건 빼앗기	①	②	③	④	⑤	⑥
4) 집단 따돌림(왕따)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5) 사이버/휴대전화 폭력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은 각 내용에 ①번 선택 후, 문8로 이동)

10-1. **최근 1년 동안** 가출했을 때, 가출한 기간은 평균 며칠입니까? ()

- ① 1~2일 ② 3일 이상~일주일 미만 ③ 일주일 이상~한 달 미만 ④ 한 달 이상

10-2. **최근 1년 동안** 가출했을 때, **주로 잠을 잔 곳은** 어디인가요?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① 친구집 ② 여관, 여인숙 ③ 비디오방, 만화방, PC방(심야영업소)
④ 찜질방, 사우나 ⑤ 길거리, 빈집, 지하철역 ⑥ 일하는 곳(주유소, 유흥업소)
⑦ 청소년 보호시설(예: 청소년 쉼터) ⑧ 기타 ()

10-3. **최근 1년 동안** 가출 후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없다 (☞ 문11로) ② 있다 () 회

10-4. **최근 1년 동안** 가출 후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경험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 ☐ ① 심한 욕설/협박 ☐ ② 폭행 ☐ ③ 돈이나 물건 빼앗김 ☐ ④ 기타 ()

11. **최근 1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학교에 가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며칠이나 되는지** 아래 빈 칸에 직접 써 주세요. ()

- ① 없다 ② 있다 () 일

※ 다음은 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쓰거나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 용어 해설 - 성희롱: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놀림
- 성추행: 폭력이나 강제로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경우
- 강간: 폭력이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

12. **최근 1년 동안**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없다 (☞ 문12-4로) ② 있다

12-1. **최근 1년 동안** 경험했던 성폭력 피해유형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 ① 성희롱 ☐ ② 성추행 ☐ ③ 강간

12-2.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를 입힌 상대는 **주로** 누구였습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① 이성친구 ② 동성친구 ③ 이성 선·후배
④ 동성 선·후배 ⑤ 모르는 사람 ⑥ 기타 ()

12-3. **최근 1년 동안**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치료(상담, 병원치료 등)를 받았습니까? ()

- ① 받지 않았다 ② 받았다

16. 최근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술을 마셨습니까? ()

- ① 마신 적이 없다 (**☞ 문17로**) ② 한 달에 1-2번 ③ 일주일에 1번
④ 일주일에 2-3번 ⑤ 일주일에 4-5번 ⑥ 거의 매일

16-1.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

- ① 집, 친구집 ② 학교
③ 놀이터, 야산, 공원, 주차장 ④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⑤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포장마차 ⑥ 기타 ()

17.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얼마나 피웠습니까? ()

- ① 피운 적이 없다 (**☞ 문18로**) ② 한 달에 1-2번 ③ 일주일에 1번
④ 일주일에 2-3번 ⑤ 일주일에 4-5번 ⑥ 거의 매일

17-1.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운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① 집, 친구집 ② 학교
③ 놀이터, 야산, 공원, 주차장 ④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만화방
⑤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포장마차 ⑥ 동네골목
⑦ 기타 ()

18. 최근 한 달 동안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술이나 담배를 사려고 할 때 판매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확인하였습니까? ()

- ① 술이나 담배를 사본 적이 없다 ② 신분증을 확인하였다
③ 신분증 확인 없이 나이트클럽, 포장마차 ④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고 나이트클럽, 포장마차

19. 최근 한 달 동안 흡입제(본드, 가스 등)를 얼마나 경험해 보았습니까? ()

- ① 경험한 적이 없다 (**☞ 문20으로**) ② 한 달에 1-2번 ③ 일주일에 1번
④ 일주일에 2-3번 ⑤ 일주일에 4-5번 ⑥ 거의 매일

19-1. 최근 한 달 동안 흡입제(본드, 가스 등)를 사용한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① 집, 친구집 ② 학교
③ 놀이터, 야산, 공원, 주차장 ④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⑤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포장마차 ⑥ 기타 ()

20. 최근 한 달 동안 즐기려는 목적으로 잠 안오는 약, 진통제 등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

- ① 먹은 적이 없다 ② 한 달에 1-2번
④ 일주일에 2-3번 ⑤ 일주일에 4-5번

21. 청소년 유해업소란 호프집/소주방, 비디오방/DVD방, 카페, 나이트클럽 등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업소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습니까? ()

내용	이용한 적이 없다	1년에 1-2번 정도	1년에 3-4번 정도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번 이상
1) 성인용 비디오방/DVD방	①	②	③	④	⑤	⑥
2) 호프집, 소주방, 카페	①	②	③	④	⑤	⑥
3) 유흥주점, 단란주점	①	②	③	④	⑤	⑥
4) 무도장(나이트클럽 등)	①	②	③	④	⑤	⑥
5) 전화방	①	②	③	④	⑤	⑥
6) 성인용 게임장, 실내경마장	①	②	③	④	⑤	⑥
7) 퇴폐 안마시술소	①	②	③	④	⑤	⑥

21-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업소 주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였습니까? ()

- 22 노래방, 만화방, 비디오방/DVD방, 카페, 호프집, 소주방 등의 업소에 고용되어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22-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소에서 일하려고 할 때, 업소 주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였습니까? ()

- 2) 유해업소에 대한 질문은 중·고등학생에게만 질문하였음

보호 행동

23. 다음은 평소 여러분의 보호 행동 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폭력(성폭력 포함)					
1) 폭행(성폭력 포함)이나 돈빼앗김 등을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2) 돈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여 호신용 도구(예, 호각)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밤늦은 시간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폭력을 사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가출					
6) 고민이 생기면 주위(예, 상담실)의 도움을 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평소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가출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유해매체					
9) 유해매체(음란사이트, 폭력·선정성 게임 등)는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유해매체를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유해약물					
11) 유해약물(술, 담배, 본드 등)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유해약물(술, 담배, 본드 등)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유해업소³⁾					
13) 유해업소가 있는 곳은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14)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③ 유해업소에 대한 질문은 중·고등학생에게만 질문하였음.

보호 환경

24. 현재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인터넷이나 인터넷게임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유헤사 이트차단, PC사용 내용조회, 이용시간 설정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 ① 집에 컴퓨터가 없다 ② 인터넷을 할 수가 없다 ③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④ 설치되어 있다

25. **평소** 학교가 끝난 후 집에 오면 집에는 주로 누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의)할아버지 ☐ ④ (의)할머니
☐ ⑤ 형제 또는 자매 ☐ ⑥ 기타 친척 ☐ ⑦ 기타() ☐ ⑧ 아무도 없다

26. 부모님께서 술을 드십니까? 드신다면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 않으면 문28로)

구 분	전혀 드시지 않는다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5번 이상	잘 모르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27. 부모님께서 담배를 피우십니까? ()

- ① 두 분 모두 피우시지 않는다 ② 두 분 모두 피우신다
 ③ 아버지만 피우신다 ④ 어머니만 피우신다
 ⑤ 잘 모르겠다

28. 여러분은 **현재** 가정생활에 만족하십니까?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은 학교에서 규칙을 잘 지킵니까? ()

전혀 지키지 않는다	별로 지키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지킨다	매우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30. **최근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은 술을 마셨습니까? 마셨다면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

- ① 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2번 ③ 일주일에 1번
 ④ 일주일에 2-3번 ⑤ 일주일에 4-5번 ⑥ 거의 매일

31. **최근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은 담배를 피웠습니까? 피웠다면 얼마나 자주 피웠습니까? ()

- ① 전혀 피우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2번 ③ 일주일에 1번
④ 일주일에 2-3번 ⑤ 일주일에 4-5번 ⑥ 거의 매일

32. 다음은 청소년 위험행동(폭력, 가출, 성,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의 보호에 대한 부모(보호자), 교사, 지역사회 어른의 관심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위험행동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보호자)은 평소에도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호에 대해 가르침과 주의를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다니는 학교는 청소년을 위험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은 청소년을 위험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사는 동네 어른들은 청소년을 위험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최근 한 달 동안** 학교에서 정규수업 시간 외에 아래와 같은 위험행동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았다면,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 단, 조화·종례 시간에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포함되지 않음

- ☐ ① 폭력에 관한 예방교육
☐ ②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
☐ ③ 유해매체(폭력·선정성 게임, 음란사이트, 아이템 거래사이트 등)의 해로움에 관한 교육
☐ ④ 유해약물(술, 담배, 본드, 가스 등) 예방교육
☐ ⑤ 유해업소(비디오방, 호프집, 나이트클럽 등) 출입과 고용에 관한 예방교육
☐ ⑥ 위험행동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34. 다음은 집주변과 학교주변의 위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다니는 학교나 그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유해업소에 대한 질문은 중·고등학생에게만 질문하였음.

35. 여러분은 현재 학교를 다니는 것이 즐겁습니까? ()

전혀 즐겁지 않다	별로 즐겁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즐겁다	매우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6. 점주변에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시설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를 해주십시오.

- | | |
|--|---|
| ☐ ① 숙박시설(여관, 호텔, 여인숙 등) | ☐ ② 성인용 게임장, 실내경마장 |
| ☐ ③ 무도장(나이트클럽 등) | ☐ ④ 카페(다방) |
| ☐ ⑤ 술집(호프집, 소주방, 주점 등) | ☐ ⑥ 성인용 비디오방(DVD방) |
| ☐ ⑦ 만화방 | ☐ ⑧ 전화방 |
| ☐ ⑨ 노래방 | ☐ ⑩ PC방 |
| ☐ ⑪ 당구장 | ☐ ⑫ 기타 () |
| ☐ ⑬ 유해업소가 전혀 없다 | |

37. 점주변에 다음과 같은 친사회적 시설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를 해주십시오.

- ☐① 공원(산책로, 등산로 포함)
☐② 체육시설(공공운동장, 체육관 등)
☐③ 문화시설(도서관, 문화센터 등)
☐④ 복지시설(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⑤ 청소년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원센터 등)
☐⑥ 치안 시설(경찰서, 파출소, 방범초소 등)
☐⑦ 기타 ()
☐⑧ 위와 같은 시설이 전혀 없다

배경사항

※ 다음은 귀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안에 적당한 응답을 기입하거나, 해당 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자 ② 여자

39.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직장 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 | | | | |
|-------------------------------------|-----------------------------------|------------------------------------|--------------------------------|
| ☐ ① (의)할아버지 | ☐ ② (의)할머니 | ☐ ③ 아버지 | ☐ ④ 어머니 |
| ☐ ⑤ 형제 또는 자매 | ☐ ⑥ 기타 친척 | ☐ ⑦ 기타_____ | ☐ ⑧ 없음 |

40.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구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전문대졸 포함)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1) 아버지	①	②	③	④
2) 어머니	①	②	③	④

41. 부모님께서 직업에 종사하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42. 반에서 학업성적(2010년 1학기)은 다음 중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격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반성적	①	②	③	④	⑤

43. 귀하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4.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인가요?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 빠진 문항이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흥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흥식
- 10-R03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III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집 -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윤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윤정·안소연·윤소운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해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윤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박영균 · 이상훈 · 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 · 이승현 · 권수진 · 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 · 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 · 유영준 · 이명희 · 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 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지적도 구활용 영역 / 최동선 · 최수정 · 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 · 조아미 · 정경은 · 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Hernan Cuervo · 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 · 장지연 · 윤자영 · 성재민 · 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 수시과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 · 김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 · 김성경 · 남미애 · 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본용 · 박제일 · 이은경 · 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 · 권해수

■ 용역과제

-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윤오
-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란·김선아
-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현·김형주
-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운숙·이창호
-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 자료집 (3/19)
-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6/29)
-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Ⅱ 자료집 (7/2)
-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Ⅲ 자료집 (7/27)
-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Ⅱ 자료집 (8/19)
-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Ⅰ 콜로키움 자료집 (10/8)
-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Ⅳ 자료집 (10/14)
-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오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
옥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 · 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연구보고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인 쇄 2010년 12월 22일

발 행 2010년 12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대표 김방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883-0

ISBN 978-89-7816-881-6(세트)